36) 조두섭(趙斗燮)

1940년 4월 29일 현재 관직 : 황해도 연백(延白)군 은천(銀川)면장

성명 : 조두섭(趙斗燮)

생년월일 : 1901년 7월 21일생

주공기간 : 1937년 9월 31일부터 1940년 4월 29일까지, 합계 2년 6개월 29일

주공관직 : 황해도 연백군 은천면장

공적사항

1. 군수품의 공출(供出)

대맥(大麥)	43석
건초(乾草)	1,325관
모피(毛皮)	56매
돈피(豚皮)	32매
통조림용 돈(豚)	20두

2. 여론환기, 국방사상 보급

구장(區長) 회의	60회
강연회	5회
좌담회	10회

3. 위문(慰問), 대문(袋問) 및 사변관계 기부금 취전(取纏)

국방헌금	10엔
군사후원연맹 기부	1,457엔
위문대	526엔

4. 군인 원호(援護)

지원병후원회 기부	175엔

5. 특별지원병 모집 원조

6. 각종 단체의 사변사무 원조

1) 일본적십자사 연백군위원회
2) 국민총력연백군연맹
3) 애국부인회 연백군분회
4) 국방부인회 연백군분회

7. 보국저금 및 채권소화

보국저금 1,200인	62,479엔

채권 56매 2,205엔

8. 폐품 납부

〈출전 : 「功績調書(趙斗燮)」, 『支那事變功勞者功績調書』 卷132(朝鮮總督府 33),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37) 주시헌(朱時憲)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8년 3월 25일, 계 8월 19일

주공관직 : 전라북도 옥구군수

공적사항

1. 징발에 관한 업무

1937년 7월 12일 20사단 제5동원 2호 명령에 따라 즉시 급사를 소집하여 빌려준 말에 대한 반환명령서를 발송해 14일 8시 명령서 차출장소로 징발하여 보냈다.

승마(乘馬) 43두

만마(輓馬) 21두

태마(駄馬) 3두

2. 1938년 1월 옥구군 해안지대에 육군비행시설에 따른 용지매수의 임무를 맡아 토지소유 자작 등으로부터 당초 상당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예의 국방의 중대성을 이해시켜 마침내 원만하게 해결하고 매수를 완료했다.

3. 여론환기, 국방사상 보급에 관한 업무

1) 민중의 시국인식 강화를 위해 각 면마다 부하직원을 동원해 강연회를 개최하였다.(춘추 2회)

2) 각 부락(365)마다 부락좌담회를 개최하여 각호에서 1명씩 반드시 출석하여 청취케 하였다.(춘추 2회)

4. 응소군인 및 기타 유가족등 후원위휼에 관한 업무

본군 내에서 응소한 군인 25명에 대한 무운장구기원제를 군산신사에서 집행하고 유가족을 위문할 때에는 담당직원을 격려하여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5. 국방헌금 및 애국기헌납자금 등 모집 취전 업무

1) 전북호 비행기헌납금 모집 때 각면에 이를 할당 5,100원을 모집하여 송금하였다.

2) 9월 23일 생업보국일을 기하여 각호에 5전씩 모집하여 1,100원을 헌납하였다.

6. 군용물자에 조달사업

관하 각면에 동원하여 6,560kg의 건초공출에 만전을 기하였다.

주공기간 : 1938년 3월 26일 ~ 1940년 2월 26일, 계 1년 11월

주공관직 : 전라북도 정읍군수

공적사항

1. 시국인식에 관한 업무

강연회, 좌담회, 영화회 등 개최하여 기회있을 때마다 민중의 시국인식에 노력하여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2. 출정군인 및 가족위문 업무

출정군인의 환송연은 물론 위문금품을 모집하고, 전상병 요양원에 위문사를 파견하거나 또 유가족의 호별방문에 만전을 기하였다.

3. 기타 각종금품 헌납 사무

국방헌금, 군용자재헌납금, 조선 방비 및 휼병자금, 군사후원사업 기부금, 위령탑건설비 등 모집에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4. 군수품 공출업무

부하직원을 동원하여 아래와 같이 군수품 공출에 진력했다.

가마니	138,182매
고	61,320kg
저마	40,492근
대마	1,104근
대맥	1,800석
생맥	1,475두
건초	132,852kg
모피류	1,858매

〈출전 : 「功績調書(朱時憲)」, 『支那事變功績調書』 朝鮮總督府 卷8,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38) 최만달(崔晩達)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8년 1월 9일, 계 6월 3일

주공관직 : 강원도 원주군수

공적사항

1. 군수품의 공출에 관한 업무

군수품 공출의 할당을 받아 훌륭히 부하직원을 지도 독려하고 관내 민중의 이해를 촉구하여 품질

이 우수한 공출품을 할당량 이상으로 공출하여 군수의 충족에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공출품목 : 대맥 832석

2. 징발에 관한 업무

군부, 마필, 자동차의 징발서를 수령하여 징발업무를 유감없이 수행하고자 징발업무 담당에 대한 구분을 정하고 업무담당자를 지휘해 징발 물건의 성능과 소재 및 이동 상황을 항상 정밀하게 조사하여 지정기일에 지정수량을 확실히 차출할 수 있도록 여러 건의 준비를 빈틈없이 계량하여 징발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함.

3. 여론환기와 국방사상 보급에 관한 업무

스스로 진두에 서서 멀고 험한 길을 꺼리지 않고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시국인식의 철저와 국방사상의 보급, 선전을 위해 순회강연을 하여 훌륭히 관내 민심을 영도하고 성전수행에의 열의를 앙양시켰다.

강연회 5회 2,150명

좌담회 2회 342명

4. ……(판독불가)……

스스로 분주하게 관내 민중의 이해를 촉구하고 군사원호 제 단체의 사업자금 또는 군용기재헌납자금의 기부 모집을 맡아 공적이 현저하다.

국방헌금	10,278원
휼병금	783원
휼병품	709개 1,772원
애국기 헌납금	7,381원
군사원호단체 사업자금	1,160원
합계	21,354원

주공기간 : 1938년 1월 10일 ~ 1940년 4월 28일, 계 2년 3월 19일

주공관직 : 강원도 강릉군수

공적사항

1. 군수품의 공출에 관한 업무

공출내용은 위와 같음.

대맥	1,250석
피마자	379두
밀랍	430근
생돈	232두
돈피	731매

모피 2,814매

2. 군사원호에 관한 업무

부하직원을 독려하고 관계 각 군사원호단체를 지도, 유액하여 육군병원 상병장사를 위문하고, 관내 응소 입영군인의 가족 원호에 만전을 기하였다.

군사부조 건수	4건
상병병 및 군인 유가족 위문	9회 351호 1,053원
군사원호상담처리 건수	5건
육군병원위문	1회 500원
군사원호단체 자금모집	3,606원

3. 징발에 관한 업무

공적내용은 위와 같음.

4. 여론환기와 국방사상보급에 관한 업무

공적내용은 위와 같음.

강연회	2회 776명
좌담회	18회 3645명
영화회	10회 20,230명

5. 저축장려, 국채소화에 관한 업무

부하직원을 독려하고 각 금융기관과 연락하여 총후보국저축조합을 조직하고 또한 스스로 순회강연을 하는 등 저축 목표액 돌파에 노력하여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다.

1938년도	438,000원
1939년도	1,387,000원
1940년도	359,000원
합계	2,184,000원

6. 국방휼병 헌금품의 모집, 계속에 관한 업무

공적내용은 위와 같음.

국방헌금	1,864원
휼병금	2,614원
휼병품	2,601개 6,715원
애국기 헌납금	
군사원호단체 사업자금	3,606원
합계	14,799원

〈출전 : 「功績調書(崔晩達)」, 『支那事變功績調書』 朝鮮總督府 卷2,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39) 최창홍(崔昌弘)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8년 6월 30일, 계 11월 23일

주공관직 : 평안북도 경찰부 보안과장

공적사항

1. 자동차 및 자동차 운전수 징발에 관한 업무

1) 관동군 군비자동차 운전수를 모집 공출한 공적이 현저하여 공적현임을 수여받았다.

2) 유수 제20사단 참모장 통첩에 기초하여 징발 준비로서 차량검사를 행하고 결과를 보고하여 군수에 이용하게 하였다.

3) 조선군의 자동차 징발계획상 필요한 자원조사를 하여 징발자료를 제공하였다.

4) 장래의 징발에 대비해 계원을 독려하여 관내 자동차 운전수의 소재 조사 ……(판독불가)……

주공기간 : 1938년 6월 30일 ~ 1940년 4월 28일, 계 1년 9월 28일

주공관직 : 평안북도 경찰부 보안과장

공적사항

1. 자원개발에 관한 업무

1) 생산력 확충계획의 선구로 압록강 전력개발을 목표로 하여 대발전계획하에 1937년 9월 기공하였다. 한편 본부에서는 자원개발을 위해 국유 산금 송변전설비 건설을 계획하여 본도 관계는 송전선로 772,827킬로미터, 변전소 30곳을 건설하게 되었는데 이들 발전사업 및 국유 산금선의 성패는 자원개발, 생산력 확충 계획에 지대한 관계가 있으므로 관계 각 기관과 협조하여 여러 자료를 제공하고, 업자를 지도 독려하며, 검사 단속 사무에 종사하여 위 공사의 원만한 진척에 많은 공헌을 세웠다.

2) 산금 장려, 지하자원 개발의 국책에 순응하여 도내 각 광산은 증산에 총진력을 개시하였는데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화약류의 사용이 증대하자 계원을 독려하여 사무의 간소화, 처리의 신속화를 기함과 동시에 기술향상, 사고방지에 힘써 자원 개발에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

2. 시국범죄 방지 및 검거에 관한 업무

……(판독불가)…… 등 반시국적 범죄의 방지단속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3. 국내물자 조사에 관한 업무

경제과장을 겸임하여 경제경찰의 창설 및 그 기구정비에 절대적인 노력을 기울여 도내 각 경찰을 독려하고 여러 경제법령에 대한 주지 철저와 경제인의 시국에 대한 인식을 강화함과 동시에 매점매석을 억제하고, 폭리단속 암거래 근절에 노력하고, 가격표시와 함께 자원의 원활한 배급에 힘쓰는 한편 위반자를 검거하고 일반인의 각성을 촉구하여 물가폭등을 억제하고 그 조정에 절대적인 공헌을 하였다.

공적현인서

조선 평안북도경찰부 보안과
평안북도 보안과장 도경시 최창홍(崔昌弘)

1. 기간 : 1937년 8월 20일 ~ 1937년 8월 24일
2. 공적사항

중일전쟁이 급박해지자 관동군은 내몽고 방면 작전에 임하여 자동차 수송으로 후방과의 연락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수를 급히 모집할 필요가 있었는데 징용준비를 조선군을 경유하여 경찰관서에 요구하자 최창홍은 그 요구를 받고 3일간에 걸쳐 불면불요 징용에 노력하여 소정의 기일까지 필요 인원을 군에 제공함으로써 군의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음에 그 공적이 현저함을 인정한다.

1937년 8월 31일
관동군 경리부장 야베(矢部潤二)

〈출전 :「功績調書(廣田昌弘)」,『支那事變功績調書』朝鮮總督府 卷3,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40) 최항묵(崔恒默)

주공기간 : 1937년 7월 14일 ~ 1939년 3월 31일, 계 1년 8월 18일
주공관직 : 경상북도 영천군수
공적사항

1. 징발에 관한 업무

1937년 7월 14일 마필징발 실시. 무사히 업무완수.

하령 마필두수	7두
공출두수	1두

2. 여론환기, 국방사상의 보급 선전 업무

국방사상보급 강연회	
1937년 8월 9일 1일간	연 3회
영화회 개최	
1937년 8월 18일, 19일	2회
국방사상 보급 강연회	
1937년 8월 31일	1회
1937년 11월 7일	1회

1938년 3월 10일	1회
……(판독불가)……	
1938년 4월 16일 ~ 18일 3일간	3회
1938년 4월 22일	1회
영화회 개최	
1938년 10월 8일	1회
1938년 11월 26일 ~ 12월 8일 12일간	12회
1939년 2월 2일	1회
1939년 2월 19일	1회
1939년 2월 22일	1회
효과	
국방헌금총액	4,330원 19전
면화헌금액	2,196원 26전
군사후원비 기부	4,177원 63전
위문품 증정	667개

3. 비행기헌납금 모집 취전 업무

(생략)[2)]

5. 군대 군인 및 그 유가족의 후원 위휼에 관한 업무

	1937년	1938년	1939년
응소군인 환송접대	6회	12회	7회(30원)
유가족 위문	13회(금 30원)	29회(금36원)	
위문 상자 증정	400개	580개	
위문품 증정	쵸키 104매 (264원 10전)	담배 2300개	
유가족 위안회	3회	16회	
유가족 위로 영화 기타	1회	연극1회	
기원제		5회	1회

6. 전사전상병사자의 조위에 관한 업무

	1937년	1938년	1939년
위령제	3회	7회	1회
전몰군인 장의	1회	1회	
……(판독불가)……			

2) 페이지 누락.

7. 국채 및 저축 채권 소화에 관한 업무

	국채의 소화	저축장려
1938년	12,675원	690,000원
1939년	3,260원	467,299원

주공기간 : 1939년 4월 1일 ~ 1940년 4월 25일, 1년 25일

주공관직 : 경상북도 달성군수

공적사항

1. 군수품 공출에 관한 업무

1) 1939년 7월 3일 군용 말사료용 대맥 공출

공출할당 13,600석

공출수량 13,600석

공출기한 1939년 8월 30일

공출완료 1939년 8월 23일

2) 1939년 7월 20일 말사료용 건초 공출

공출할당 30,000관

공출수량 13,516관

공출기한 1939년 9월 3일

공출완료 1939년 9월 3일

3) 1939년 7월 23일 군용 대마 공출

공출할당 500근

공출수량 600근

공출기한 1939년 8월 29일

공출완료 1939년 8월 30일

4) 1939년 9월 5일 군용 생우 공출

공출할당 284두

공출수량 284두

공출지정 1939년 11월 30일

공출완료 1939년 11월 10일

5) 1939년 10월 10일 군용 피마자 공출

공출할당 2석

공출수량 2석 6두

공출지정 1939년 12월 10일

공출완료　1939년 12월 5일

6) 1939년 11월 21일 견모피 공출

공출할당　2,000매

공출수량　16,190매

공출지정　……(판독불가)……

공출완료　1940년 1월 25일

2. 여론환기 국방사상의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1) 강연회

1939년 7월 5일 ~ 7일 3일간

실시횟수　12회

1939년 11월 9일 ~ 11일 3일간

실시횟수　3회

2) 좌담회

1939년 7월 1일 ~ 1940년 4월 28일

실시횟수　63회

3. 국방헌금 및 애국기 헌납금 등의 모집 취전에 관한 업무

군사후원사업자금

1939년 11월 20일 ~ 12월 20일 1개월간

사업자금　2,429원 94전

1939년 12월 10일 ~ 1940년 1월 20일 1개월 11일간

사업자금　1.999원 99전

4. 국채 및 저축채권 소화에 관한 업무

1939년 4월 20일 국민저축 실시, 각 면에 할당을 시켜 완수

저축조합수　255조합

저축할당액　900,000원

저축실적　554,826원

저축기한　1940년 3월 31일

저축완료　1940년 3월 31일

1939년 12월 5일 국채 및 저축채권의 □□을 받아 곧 그 소화에 힘써 1939년 12월 28일까지 예정된 업무 완수

국채할당액　1,087원

……(판독불가)……

국채소화액　1,087원

저축채권 소화액　　1,886원

〈출전 : 「功績調書(崔恒默)」, 『支那事變功績調書』 朝鮮總督府 卷2,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41) 최형직(崔炯稷)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9년 3월 24일, 계 1년 8월 8일

주공관직 : 강원도 평강군수

공적사항

1. 군수품 공출에 관한 업무

군수품 공출의 할당을 받아 부하직원을 지도 독려하여 관내 민중의 이해를 촉구하고 품질이 우수한 공출품을 할당량 이상으로 공출하여 군 수요의 충족에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대맥	200석
피마자	20두
생돈	730두
돈피	1,006매
모피	1,639매
건초	468,845kg
밀랍	238근
목탄	37,090표
절간대근	59,499관

2. 군사원호에 관한 업무

부하직원을 독려하여 관계 각 군사원호단체를 지휘 유도하여 관내 경원선 통과부대 장병의 위문 격려에 힘썼으며 관내 응소 입영 군인의 유수가족, 전몰군인 유족의 원호에 만전을 기하였다.

부상병 및 군인 유가족 위문	4회　100호　300원
군사원호 상담처리건수	2건
경원선통과부대 접대	35회　1,750원
군사원호단체 자금모집	1,805원

3. 징발에 관한 업무

군부, 마필, 자동차의 징발서를 수령하고 징발업무의 유감없는 수행을 기하여 징발업무 담당의 구분을 정하고 업무담당자를 지휘하여 징발물건의 성능, 소재와 이동상황을 정밀하게 조사함으로써 지정기일에 지정수량을 확실하게 차출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빈틈없이 계획하여 징발실시에 대해 지장

이 없도록 하였다.

4. 여론환기, 국방사상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몸소 진두에 서서 멀고 험한 길을 꺼리지 않고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시국인식의 철저, 국방사상 보급 및 선전을 위해 순회강연을 하여 관내 민심을 영도하고 성전 수행에 열의를 앙양하였다.

강연회	37회	11,195명
좌담회	77회	1,230명
영화회	5회	4,100명

5. 저축장려, 국채소화에 관한 업무

부하직원을 독려해 각 금융기관과 연락하여 총후보국저축조합을 조직하였으며 몸소 순회강연을 수행하는 등 저축 목표액의 돌파에 노력하여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다.

1938년도	124,000원
1939년도	152,000원

6. 국방휼병 헌금품 모집 취전에 관한 업무

몸소 분주히 관내 민중의 이해를 촉구하고 군사원호 제 단체의 사업자금과 군용기재 헌납자금의 기부 모집을 맡아 공적이 현저하였다.

국방헌금	2,653원
휼병금	329원
휼병품	2,105원
애국기 헌납	3,900원
군사원호사업자금	1,805원
합계	10,792원

주공기간 : 1939년 3월 25일 ~ 1940년 4월 28일, 계 1년 1월 4일

주공관직 : 강원도 삼척군수

공적사항

1. 군수품 공출에 관한 업무

공적내용은 위와 같음

대맥	200석
피마자	13두
대마	6,250근
돈피	198매
모피	1,126매

생돈	730두
밀랍	188근
새끼줄	170,706매
대자리	114,815매
가마니	8,309매

2. 군사원호에 관한 업무

부하직원을 독려하고 관계 각 군사원호단체를 지도 유도하여 관내 응소 입영 군인의 유수가족과 유족의 원호에 만전을 기하였다.

군사부조 건수	1건
상병병 및 군인 유가족 위문	5회 192호 576원
군사원호 상담처리 건수	1건
군사원호단체 자금모집	1건

3. 징발에 관한 업무

공적내용은 위와 같음.

4. 여론환기, 국방사상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공적내용은 위와 같음.

강연회	1회	7,100명
좌담회	54회	1,500명
영화회	4회	6,500명

5. 저축장려, 국채소화에 관한 업무

공적내용은 위와 같음.

1939년도	761,000원
1940년도	612,000원

6. 국방휼병헌금품 모집 취전에 관한 업무

국방헌금	7,153원
휼병금	47원
휼병품	1,495원
애국기 헌납	12,638원
군사원호사업자금	836원
합계	22,169원

〈출전 : 「功績調書(崔炯稷)」, 『支那事變功績調書』 朝鮮總督府 卷3,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42) 한정석(韓定錫)

의서(擬敍) : 사금(賜金) 130

상격(賞格) : 공로(功勞)

주공관등(奏功官等) : 고(高) 9 대우

1940년 4월 29일 현재 관직 : 청주군 사주면장 정7위

성명 : 대원정석(大原定錫)

생년월일 : 1883년 3월 17일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40년 4월 28일, 계 2년 9월 22일

주공관직 : 충청북도 청주군 사주면장

공적사항

1. 여론환기, 국방사상의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시국을 인식시키기 위해 면내 각 부락을 순회하며 강연회, 좌담회, 영화 상영회, 연극 등을 개최하여 민심의 불안과 동요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국책 수행에 매진한 공로가 크다.

2. 군용물자의 공출에 관한 업무

보리, 메밀, 모피, 오미자 등의 공출명령을 받자 제일선에 서서 일반 민중에게 군수품으로서 중요함을 인식시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군 작전용 물자공출에 만전을 기한 공이 크다.

3. 국방헌금 및 방공기자재비 모집에 관한 업무

국방사상의 보급 선전에 노력한 결과 국민들이 크게 감동하여 그 성의의 발로로 국방헌금과 방공기자재비의 헌납을 신청하여 상당한 거액에 달했으므로 이를 모아 즉시 그 관련 기관에 헌납수속을 마친 노고가 크다.

4. 전사, 전상, 병사자의 조위 및 전상병환자 지원, 위문에 관한 업무.

호국의 영령이 된 황군에 대해서는 정중히 조위를 표하고, 전상병환자에게는 위문품을 송부하거나 직접 위문품을 들고 방문하는 등 후방에서 최선을 다한 공이 크다.

5. 군대, 군인 및 그 유가족의 후원, 위무에 관한 업무

응소의 경우 무운장구기원제를 거행하여 먼 길을 떠나는 이들을 환송, 환영하였으며, 유가족에게는 위문품을 증정하고 군사부조를 주는 등 출정군인이 뒷일에 대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한 공로가 크다.

6. 국채구입 및 저축장려에 관한 업무

면내 각 부락에서 저축실행조합을 조직하고 국가의 채권구입 및 저축장려를 강조하여 국가경제운영에 기여한 공이 크다.

〈출전 : 功績調書(韓定錫)」,『支那事變功績調書』朝鮮總督府 卷2,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43) 허섭(許燮)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7년 11월 15일, 계 4월 9일

주공관직 : 경기도 부천군수

공적사항

1. 군용물자의 조달, 군수품, 제조공출 수리조변에 관한 업무
   1) 군용대맥 공출 4,850석

2. 여론환기, 국방사상의 보급 선전에 관한 업무
   1) 임시면장회의 개최 1회 출석자 14명
   2) 임시학교장회의 개최 1회 출석자 14명
   3) 시국강연회 개최 1회 청강자 87명
   4) 중견청년강습회 개최 4회 청강자 246명
   5) 국민정신작흥주간 실시 1회(11월 7월 ~ 11월 13일, 1주간)

3. 군대군인 및 유가족 등 후원 위휼에 관한 업무
   1) 출정장병 및 군마의 환송영 25회
   2) ……(판독불가)……
   3) 출정장병 무운장구기원제 집행 3회 참례자 연 900명
   4) 황군위문금의 취전 150원
   5) 황군위문대의 취전 100대
   6) 기타 황군위문품 생율 1두 귀율 200대 취전 헌납

4. 전사전상병사자의 조위, 전상병 환자의 취급 방조 위문에 관한 업무
   1) 군과 학교 직원의 조위금 헌금. 각자 봉급월액의 1/100 합계 금 50원을 8월분 봉급에서 갹출 헌납

5. 생산력 확충에 관한 업무
   1) 미곡 증산에 노력하여 작부면적 8,901정보에서 179,617석을 수확하여 식량수급 조정, 성전 수행에 큰 공헌을 하였다.
   2) 위 미곡의 증산과 같이 잡곡의 증산에도 또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실적은 다음과 같다.

종류	작부면적	수확고
대맥	3,295정보	46,415석
소맥	104정보	966석
나맥	17정보	166석
율	57정보	371석
대두	3.68정보	16,737석

6. 국방헌금과 애국기 헌납자금의 모집 취전

1) 방공기재기금 모집 취전 78원

2) 일반 국방헌금 모집 취전 1,746원

합계 1,824원

주공기간 : 1937년 11월 16일 ~ 1940년 4월 28일, 2년 9월 22일

주공관직 : 경기도 수원군수

공적사항

1. 군용물자의 조달, 군수품의 제조 공출과 수리조변에 관한 업무

군용말사료용 건초	833,440kg
돼지가죽	1,942매
군수통조림용 쇠고기	416두
군용대맥	15,981석
군용고	157,680kg
군용피마자	189석

2. 여론환기, 국방사상의 보급과 선전에 관한 업무

시국강연, 좌담, 강습	1,153회
시국뉴스 영화회	10회
중일전쟁전리품 전람회	1회

국민정신총동원군연맹결성

연말연시총후보국강조주간

3. 군대군인과 유가족 등 후원 위휼에 관한 사무

1) 출정장병 환송과 뜨거운 차 접대 328회

2) 출정 및 응소 군인 가족 위문 7회

위문품증정	3회
황군위문금	32,372.55원
위문대	36,469대
위문문	7,197통
위문연초	8,500개

3) 출정장병 무운장구기원제 14회

4) 가족초대 위안회

5) 군사후원연맹자금모집 4,163원

4. 전사전상병사자의 조위와 전상병 환자의 취급 방조 위문에 관한 업무

조위금	22,323원
위령제	9회

5. 국내 물가 물자의 조정, 생산력의 확충에 관한 업무

1939년 이래 미증유의 대한해에 의해 미작이 7할 감소하고, 민심이 동요하여 치안안정을 기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던 바 ……(판독불가)…… 군내 식량의 수급은 물론 정부의 식량정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였다.

6. 국방헌금과 애국기 헌납자금 모집 취전에 관한 사무

애국기 헌납자금 취전	39,636원
방공기재 헌납자금 취전	12,661원
국방헌금	11,781원

7. 국채소화, 저축장려에 관한 사무

저축총액	11,121,862원
저축채권 및 보국채권	32,254원
국채	42,125원

〈출전 : 「功績調書(旭川燮)」, 『支那事變功績調書』 朝鮮總督府 卷2,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2. 경찰

1) 강태만(姜泰萬)

[1-1]

공로 갑
조선총독부 함경북도 순사 강태만(姜泰萬)
(경흥경찰서 근무)

위 사람은 1931년 9월 18일 이래 1934년 3월 31일까지 함경북도 국경제일선인 경흥(慶興)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오로지 국경경비에 복무하였는데 그중

1. 1932년 5월 3일 중국공산당 훈춘현위(琿春縣委) 소속 약 100명의 비적이 모두 무기를 휴대하고 오

지로부터 이동하여 와서 흑정자(黑頂子)분서 습격을 공언하는 등 사태가 급박해졌다. 그날 저녁 흑정자분서로부터 응원하러 와달라는 의뢰가 있으므로 경흥부대에 속해 5월 4일 오전 3시 10분 월경출동하여 경흥헌병분견대 및 경흥수비대와 연락하며 흑정자분서에 이르렀다. 전력을 다해 습격을 준비하여 새벽에 이르러 진격하여 적을 궤주시켰다.

2. 1933년 2월 6일 계통불명의 무장공비 3명이 관하 경흥면 원정동(元汀洞)에 침입하였기에 분대장의 지휘에 따라 월경하여 수신사(守信社), 구사평(九沙坪), 지등평(地登坪), 연화동(蓮花洞), 포은동(浦恩洞) 부근에서 대수사를 벌여 포은동에서 용의자 김영길(金永吉) 외 1명을 발견 동행하여 오전 10시 돌아왔다.

3. 1933년 2월 18일 오후 7시 20분경 중국공산당 훈춘현위 유격대 제1중대 강봉(姜奉)이 이끄는 무장공비 15명이 훈춘현 구사평 공안분국을 습격하여 분국원 2명을 살상하고 여세를 몰아 조선 내로 침입하려고 점차 남하하고 있으므로 아라기(荒木)부대에 예속되어 대안 각 경비기관과 함께 출동하여 적을 소만국경 방면으로 궤주시켜 경비 및 주민보호에 노력하였다.

이외에 군사수송의 철도선로 경계경비에 종사한 횟수가 6회에 이르는 등 공적이 특히 현저하여 두서의 상격이 있다고 인정한다.

〈출전 : 「功績調書(姜泰萬)」, 『滿洲事變功績調書』 32, 1935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1-2]

조선총독부 함경북도 순사 강태만(姜泰萬)
(경흥경찰서 근무)

위 사람은 1934년 4월 1일부터 1935년 9월 30일까지 함경북도 국경제일선 경흥경찰서에 근무하였는데, 대안(對岸) 일대는 병비와 공비 잔당이 끊이질 않고 항상 국경지대에 출몰하여 기회를 엿보아 조선 내로 침입을 감행하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국경경비에 한 치의 틈도 허락되지 않았으므로 강안감시(江岸監視), 도선장 취체, 대안 정보의 수집 등 불면불휴 경비에 임해 조선 내 치안의 확보에 노력하였는데 그중,

1. 1935년 5월 2일 오후 11시를 지나 대안 훈춘현(琿春縣) 경신보(敬信保) 옥천동(玉泉洞) 방면에 급격한 총성이 일어났으므로 강기슭으로 출동하여 경계하던 중 외무성 흑정자경찰분서로부터 공비 약 30명이 경신보 태양촌(太陽村)을 습격하여 민가에 방화함과 함께 발포하며 분서를 압박하여 동북쪽 약 50미터 지점으로부터 왕성하게 습격하고 있어 사태가 매우 급박한 정세이니 급히 응원군을 보내달라는 요구가 왔다. 이에 다음날인 3일 오전 2시 스기(杉) 경부보가 지휘하는 경찰대에 편입되어 경흥수비대장 이하 39명 및 경흥헌병분견대 하사관 이하 4명과 함께 월경 출동하여 흑정자분서로 급행하였는데 분서장 이하 전서원이 사력을 다해 방어중이었으므로 곧바로 합동연합토벌대원으로 태양촌 방면으로 향했

던바 적이 우리 출동부대의 추격에 저항하기 힘들어 멀리 소만국경 삼각산 바면으로 퇴각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부근 일대의 경계검색을 하고 그날 오전 7시 분서 뒤 고지로 철수하여 계속해서 경계근무에 복무하며 적의 습격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그 후 재습의 기미가 없고 민심도 점차 진정되었으므로 그날 오전 11시 조선으로 철수하였다.

2. 1935년 5월 24일 경원 국경수비대 아이하라(相原)부대가 귀환할 때 철도 및 자동차 수송을 위해 연도(沿道)에서 경계경비에 종사하여 무사히 귀환케 하였다.

3. 조선 내 주민으로 월경하여 경작에 종사하는 자가 200여 명이고 경작면적이 250정보에 달하는데 공비의 난동이 극에 달해 경작이 불능하여 생활이 위협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그 지방 경비기관들은 경작을 용이하게 하고 치안을 확보하겠다는 함경북도 경찰부장의 계획을 기초로 하여 월경 경작자에 대한 보호경계반을 조직하였는데 여기에 편입되어 위험을 무릅쓰고 대안으로 월경하여 경계에 종사한 것이 전후 4회에 달한다.

이상의 공적이 특히 현저하여 두서와 같은 상격이 있다고 인정된다.

〈출전 : 「功績調書(姜泰萬)」, 『昭和9年 功勞賞ニ關スル書類綴 滿洲事變行賞(第1次)』, 국가기록원 소장〉

[1-3]

의서(擬敍) : 사금(賜金) 160
상격(賞格) : 공로(功勞) 갑(甲)
주공관등(奏功官等) : 판(判) 4 대우
1940년 4월 29일 현재 관직 : 조선총독부 함경북도 경부보
성명 : 강태만(姜泰萬)
생년월일 : 1909년 3월 29일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40년 1월 10일, 계 2년 6월 4일
주공관직 : 함경북도 경흥경찰서 외사고등형사 도순사
공적사항

1. 임전지대에서 실전에 관여한 업무

1938년 7월 장고봉사건이 발발하자 외사고등형사로서 각종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민심의 동향을 사찰하여 동요를 방지하였다. 나아가 전투가 시작되자 월경부대 부근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월경하여 통역 및 기타 군의 행동을 원조하고 전황을 수집하여 제보하였으며 기타 만주 지역의 각종 정보를 경찰 및 군에 제공하여 그 임무를 완수하였는데 그간,

1) 7월 11일 소련군의 장고봉 점령으로 용현헌병소의 소원이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경의 정세가 점차 악화되었던 바, 이에 정보 수집과 동시에 간첩의 검거, 유언비어의 단속에 불면불휴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7월 17일에 이르러 제19사단이 긴급파병의 명령을 받아 출동부대가 도착하자 숙영, 급양 등 모든 편의를 제공하였는데 당시 민심이 점차 동요하는 조짐을 보이므로 선전을 통해 이에 대한 방지에 노력하였다.

2) 7월 29일 마침내 개전되어 다케노우치(竹之內)부대가 월경 출동하자 따라서 월경하여 황군의 통역으로 국경선을 정찰하고 만주경비기관과 연락하였으며 군대의 배치가 완료된 다음날인 30일 고□(古□)로 입경하였다.

3) 8월 1일 오후에 이르자 적기의 공습이 치열해져 인심이 극도로 동요하였으므로 탄환이 비오듯 쏟아지는 와중에 월경하여 만주지역의 제정보를 수집하고 조선으로 돌아와 만일에 대비하였다.

4) 8월 2일도 위와 같다.

5) 8월 5일에는 출동부대의 후방경계에 임하였으며 그 외 소련의 선전비라가 살포되자 이를 수집하여 보고 및 제보하였다.

6) 8월 7일부터 8일까지 경흥지역이 공습받자 주민을 지도하여 피해 방지에 노력하였으며 8월 9일에는 아오지로 이주한 피난민의 보호구제에 임해 유언비어의 단속을 실시하고 인심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2. 전시하 피난민의 보호에 관한 업무

장고봉사건 발발 당시인 8월 4일 소련기의 기총소사 및 폭탄투하로 인해 주민은 모두 전쟁에 대하여 극히 두려워하며 각자 피난하는 등 민심이 동요되었다. 이에 주민 300호 1,500명의 피난 지도를 맡아 경흥으로부터 약 3리 반 정도 떨어진 지점인 상하면(上下面)으로 피난시키고 이들에 대해 소요 및 유언비어의 단속 등의 활동을 펼쳤다.

3. 국경지대에서 특별경계에 관한 업무

조선, 만주, 소련 3국 국경지대인 경흥경찰서에서 밤낮으로 경비의 중임을 맡고 있었는데 1937년 10월 28일 오전 9시 30분 경흥 대안 수류평(水流坪)에서 만주군 국경감시대 및 경흥수비대의 감시병이 교대하는 사이를 틈타 소련병 50명이 불법으로 월경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경흥경찰서 카타야마(片山) 서장의 지휘하에 다른 20명과 함께 출동하여 강안경비 및 대안 정보의 수집에 불면불휴의 활동을 펼쳤다.

〈출전 : 「功績調書(姜泰萬)」, 『支那事變功績調書』 朝鮮総督府 巻7,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2) 계광순(桂珖淳)

의서(擬敍) : 훈장(勳章) 서(瑞) 6, 사금(賜金) 400

상격(賞格) : 훈로(勳勞) 을(乙)

주공관등(奏功官等) : 고(高) 5
1940년 4월 29일 현재 관직 : 조선총독부 사무관 종6위
성명 : 계광순(桂光淳)
생년월일 : 1909년 2월 16일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8년 10월 31일, 계 1년 3월 24일
주공관직 : 척무성 식산국 농림과 사무관
공적사항
소관 외지에서 농업, 축산, 미곡, 비료, 임업, 수산업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면서 관리국과 식산국 상공과, 이재과, 물자조정과 등 각 과에서 겸무하며 과장을 보좌하여 격증하는 사변관계 업무수행에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주공기간 : 1938년 11월 1일 ~ 1940년 4월 28일, 계 1년 5월 28일
주공관직 : 조선총독부 식산국 산금과 사무관
공적사항
1937년에 계획 수립된 조선산금 5년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해, 물자동원계획의 수립 및 그 실행을 맡았다. 착암공양성소 겸무자로서 광산을 기계화시키는데 필요한 착암공의 양성과 지도를 담당하고 광산개발의 근본이 되는 탐광의 촉진을 꾀하였다. 또한 이 자금을 융통시킬 방법을 모색하기위해 조선금산개발주식회사의 창설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금 증산에 관한 추진기관으로서 산금협의회의 설치를 하였다. 혹은 외국인경영의 운산금광을 일본자본으로 이전하도록 알선하여 외국권익을 일소하는 등 그 외 금 증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시설의 계획을 실행하였다.

〈출전 : 「功績調書(桂珖淳)」, 『支那事變功績調書』 朝鮮總督府 卷1,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3) 고정순(高正淳)

조선총독부평안북도 순사　고정순(高正淳)
(조선총독부 도순사 강계경찰서 근무)

위 사람은 1932년 7월 11일부터 1932년 9월 30일까지 강계경찰서로부터 국경경비 응원을 위해 후창경찰서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만주사변을 맞아 비적의 소탕진압과 기타 국경경비근무에 주야로 불면불휴하고 압록강변의 경비에 임함과 함께 조선 내를 침입하려는 비적과 교전하여 그들을 격퇴하고 적의

기선을 제압하여 월경 소탕함으로써 이주 조선인의 보호구조에 종사하고 출동부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종 복잡다단한 근무에 복무함으로써 선만국경지대의 치안을 확보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는데 그중,

1. 1932년 6월 이후 대안 임강현(臨江縣), 장백현(長白縣)에 자칭 구국애민철갑군 총사령 대도회 노사여해정(呂海亭)의 일파 대도회비 약 1000명이 봉기하여 이주 조선인을 살상, 능욕, 약탈하는 외에 조선내 침입을 기도하여 50명 내지 300명의 10대로 나누어 압록강안으로 진출하여 준동하였으므로 엄중히 경계하던 중,

1) 1932년 8월 15일 오후 5시 50분 대도회비(大刀會匪) 약 50명이 장백현 팔도구(八道求)를 점거하고 조선쪽 침입을 꾀하여 방비시설 및 지형을 이용하여 당당히 대오를 정비하여 포평(葡坪)경찰관주재소 앞 압록강에서 약 400미터 떨어진 대안 산기슭에 산개하여 화선을 구성하고 주재소를 향해 공격을 시작하였으므로 경계 중이던 본인은 순사부장 오자끼(尾崎三治) 외 15명과 함께 주재소 및 구 헌병감시소 앞 참호에 들어가 방어진을 펼치고 응사하였다. 적은 완강히 저항하였으나 오후 6시 50분 두지(杜芝)경찰관주재소로부터 응원경찰관 12명이 도착하니 그들과 협력하여 맹사격을 가해 적 5명을 사살하고 8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적 일부가 퇴각하고 적의 사격이 완만해져 대치상태로 밤이 되었으므로 보초를 서며 불면불휴 경계에 복무하였다. 이 전투에서 적탄은 포평경찰관주재소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건물 기타에 많은 탄환이 날아왔는데도 다행히 피해는 없다.

2) 8월 16일 오전 8시 20분 위 대도회비가 다시 포평경찰관주재소를 향해 사격을 시작함으로 본인은 순사부장 오자끼(尾崎三治) 외 27명과 함께 곧바로 참호에 들어가 용감히 응사하며 교전하던 중 오전 10시 후창수비대 보병군조 사토(佐藤喜和太)가 병사 10명을 인솔하여 기관총을 휴대하고 도착하였다. 그들과 협력하여 뒷산에 진지를 구축함과 함께 예의 적에게 맹사격을 가하였으나 적의 망루가 견고하여 명중탄의 효력이 적었으므로 완강히 저항하는 적에게 정확한 사격을 가해 3명을 사살하고 수명에게 부상을 입혀 침묵시켰는데 해질 무렵부터 적은 간헐적으로 속칭 대포(구경 2촌 발화식)를 발사하며 대치하던 중 밤이 되었으므로 보초를 서며 주재소 및 영내 강안 일대의 경비에 복무하였다.

3) 8월 18일 오전 7시 20분 팔도구 대도회비 약 120명이 포평경찰관주재소에 대해 맹사격을 시작함으로 경찰대는 경부보 마쓰이(松戶亮)의 지휘에 따라 응전하였는데 본인은 경찰대 22명중에 들어가 후창수비대 보병군조 사토(佐藤喜和太)가 지휘하는 병사 10명과 협력하여 적에게 일제사격을 가해 오전 9시 그들을 침묵시켰다.

4) 이어 그날 오후 0시 50분 다시 주재소 대안 산위 약 400미터 지점에 십수명의 비적이 나타났으므로 본인 등은 군대와 협력하여 즉시 일제사격을 가해 적 2명을 사살하고 3명에게 부상을 입혀 격퇴시켰다.

5) 그날 오후 2시 50분에 이르러 동강성(東崗城) 방면으로부터 새롭게 팔도구로 원조하러 온 대도회비 약 20명이 대안 산정상에 나타나 우리를 공격하였으므로 본인 등은 군대와 협력하여 맹사격을 가해 적 3명을 사살하고 수명에게 부상을 입히며 수분간 교전하여 적을 궤주시켰다.

6) 8월 20일 오전 6시 30분 대도회비 약 120명이 포평경찰관주재소로부터 300 내지 500미터 떨어진 팔도구 강안 민가에서 조선쪽 교통자와 항해선박 2척 및 뗏목 5척을 향해 사격하므로 본인은 경부보

마쓰이(松戶亮)의 지휘에 따라 그곳을 경비하던 후창수비대 보병군조 사토(佐藤喜和太) 이하 11명과 협력 공격하여 적을 침묵시켰다.

7) 오후 4시 30분경 임강현 칠도구 방면으로부터 팔도구로 이동해 온 대도회비 약 20명이 약 500미터의 산 정상으로부터 우리를 사격하였으므로 본인은 경부보 마쓰이(松戶亮)의 지휘에 따라 위 군대와 협력하여 주재소 및 뒷산 진지로부터 응전하였고 다시 탄환이 빗발치는 사이를 뚫고 강안 100미터 지점까지 진출하여 맹사격을 가해 적 2명을 사살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혀 격퇴하였다.

8) 8월 21일 오전 0시 이미 평안북도 자성군 여연면(閭延面) 중강진 및 임강현 모아산(帽兒山)에 출동 중이던 보병 제77연대 기관총대 육군 보병중위 하라(原善四郎)가 병사 14명 및 곡사포 1문을 휴대하고 포평경찰관주재소에 도착하여 주재소 뒤 고지에 진지를 구축하고 오전 8시 35분 그곳으로부터 팔도구에 있는 대도회비의 근거지에 포격을 시작하였는데 경부보 마쓰이(松戶亮)는 이와 일치 협력하여 적의 절멸을 기하며 경찰대 24명을 지휘하여 후창수비대 보병군조 사토(佐藤喜和太) 이하 10명과 함께 포평경찰관주재소 앞 참호에 들어가 곡사포의 사격과 호응하여 용감히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우리 군경의 약 1시간에 걸친 분전에 의해 적을 팔도구 오지 1,000미터 지점으로 궤주시켰다. 이 교전에 의해 적의 피해는 사상자 12명, 중상 3명, 경상 10여 명에 달하고 우리의 피해는 없었다.

9) 8월 23일 오전 8시 10분 위 대도회비 250명이 팔도구 산기슭 압록강가 참호 및 시내 망루에 근거하여 압록강에 떠있는 조선인 뗏목 5척 및 조선인 소유 고뢰선 3척에 사격을 가하므로 본인은 경부보 마쓰이(松戶亮)가 지휘하는 경찰대 24명에 가담하여 용감히 적탄환이 빗발치는 사이를 뚫고 약 200미터 돌진하여 압록강가에서 맹렬히 적에게 공격을 가하여 약 10분간 격전 끝에 적을 침묵시키고 뗏목과 배의 선원을 구출하였다.

10) 그날 위 대도회비가 오전 9시 30분경부터 팔도구 망루와 민가 및 강안 참호와 산위에 근거를 두고 사격을 시작하므로 보병중위 하라(原善四郎)가 이끄는 곡사포대 및 보병군조 사토(佐藤喜和太)가 이끄는 군대와 공동전선을 펼쳐 맹사격을 가해 약 1시간 격전 끝에 적 3명을 사살하고 수명에게 중상을 입혀 1,000미터 오지로 궤주시켰다. 이 교전 중 우리 주재소 및 민가에 많은 적 탄환이 명중하였으나 사람과 가축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11) 8월 24일 오후 6시 팔도구 시내 각 망루 및 수상경찰서 구내와 기타 중요 건축물을 점거한 대도회비 약 250명이 돌연 조선쪽 교통자 및 농경자와 포평경찰관주재소를 공격하여 왔으므로 본인은 경부보 마쓰이(松戶亮)가 지휘하는 경찰대 24명에 가담하여 위 군대와 협력해 주재소 참호에 들어가 응전하여 탄환이 빗발치는 중에도 교묘히 적 4명을 사살하고 6명에게 중상을 입혀 해질 무렵에 이르러 그들을 격퇴하였다.

12) 8월 30일 오전 11시 30분 200명의 적이 팔도구 시내 망루 및 산 정상의 참호에 의지하여 일제히 조선 내 민가와 교통자 및 포평경찰관주재소에 발포하므로 본인은 경부보 마쓰이(松戶亮)의 지휘에 따라 위 군대와 협력하여 맹사격을 가해 약 1시간 30분간 교전 끝에 적 6명을 사살하고 십수 명에게 중상을 입혀 후방 1,000미터 골짜기로 궤주시켰다.

13) 8월 31일 오전 11시 30분 팔도구의 대도회비 200명이 아연 압록강에 떠있는 뗏목 3척 및 항행

중이던 선박 2척과 조선쪽 교통자 등에게 사격을 가하여 위험에 빠졌으므로 본인은 곧 경부보 마쓰이(松戸亮)가 지휘하는 경찰대 22명에 가담하여 위 군대와 협력하여 맹사격을 가하며 약 50분간 교전하여 산위의 적 3명을 사살하고 5명에게 부상을 입혀 격퇴하였다.

14) 9월 1일 오후 4시 50분 팔도구의 대도회비 250명이 시내 각 망루에 근거를 두고 조선 내에 사격을 가하고 또한 대안 산위 약 4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약 50명의 대도회비가 우리를 사격해 왔으므로 본인은 곧 경부보 마쓰이(松戸亮)가 지휘하는 경찰대 22명에 가담하여 주재소 앞 참호로부터 응전하여 일사불란한 통제하에 격렬한 전투를 벌여 마침내 그들을 침묵시켰다.

15) 그날 오후 6시 5분경 팔도구 서측 망루 부근으로부터 대도회비 16명이 나타나 장총, 장창, 회기 등을 각각 휴대하고 고뢰선에 승선하여 산위 및 망루에 있는 적의 엄호사격하에 조선쪽 압록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고뢰선을 습격하였으므로 경부보 마쓰이(松戸亮)가 지휘하는 경찰대 11명과 함께 응전하여 적탄이 빗발같이 쏟아지는 사이를 뚫고 약 500미터 하류 적선의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돌진하여 적선에 일제히 맹사격을 가하였다. 배안에 수명의 사상자가 생기고 또한 압록강에 추락한 자가 2,3명에 미치자 적은 뱃머리를 돌려 약 20미터 퇴각하였으나 우리의 맹사격을 감당하지 못해 총기를 들고 물속으로 뛰어들거나 혹은 장총을 들고 급류 속으로 뛰어들어 그중 2명이 익사하고 8명은 간신히 도주하였다. 적선은 조선쪽에 표착하였으므로 배에 있던 사체 2구를 수용하고 장총 2정, 탄약 40발, 장창 2개, 기타 잡품 다수를 배와 함께 압수하였다.

16) 강계수비대 제1중대장 보병대위 김인욱(金仁旭)이 집성 1개 중대를 지휘하여 포평에 도착 월강하여 적의 근거지를 공격해 그들을 일거에 전멸시키려고 9월 4일 오전 2시 포평 주둔의 후창수비대 보병군조 사토(佐藤喜和太)가 이끄는 1개 분대를 선두로 포평경찰관주재소 상류 약 10정의 지점으로부터 월강하였을 때, 본인은 경부보 마쓰이(松戸亮)의 지휘하에 이 분대를 엄호하고자 도항지점 강안에 산개하여 적의 습격에 대비하여 무사히 군대를 월강하게 하였다. 한편 하류 동신면 두지동으로부터 월강하는 제1중대 본대가 전기 사토(佐藤)분대와 호응하여 그날 오전 7시 55분 팔도구의 포위공격을 시작하자 적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맹렬히 반격을 해왔으나 우리 군경의 급습을 감당하지 못하고 산위 망루를 버려둔 채 시가 망루, 민가 등으로 숨어들었으므로 조선쪽 산개한 경찰대는 그들에게 맹사격을 가하여 적 십수명을 사살하였다.

17) 그날 오전 11시 50분 포평경찰관주재소 뒤 고지에 있는 곡사포로 팔도구를 포격중이던 보병중위 하라(原善四郎)가 적전도하를 결행하여 팔도구 시가로 향했으므로 우리 경찰대는 고뢰선 2척에 나누어 타고 엄호사격하며 그 임무를 완수하였다.

18) 그날 오후 1시경 포평경찰관주재소 하류 대안에서 우리 군대의 격습을 견디지 못하고 도주하는 적에게 맹사격을 가하여 30명을 사살하였는데 적은 미친듯이 저항하였으나 다시 그날 오후 6시 비적 약 60명이 압록강 대안에서 서쪽으로 향해 궤주하였으므로 이때 본인 등은 맹렬한 사격을 가해 적 5,6명을 제외하고 전부를 사살하였다. 이날의 전투에서 적은 사체 약 180구(군경이 사살)를 유기하였으며 우리는 총기, 탄약, 장창 등 다수를 압수하였고 우리 군대는 전사 1명, 부상자 3명이 발생했으며, 경찰대와 거주민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19) 1932년 9월 5일 오전 7시 대안 임강현 칠도구에 대도회비가 집결중이라는 정보가 있어 강계수비대 제1중대장 보병대위 김인욱은 집성 1개 중대 150명을 지휘하여 그곳으로 향해 포평경찰관주재소를 출발하였으므로 본인은 경부보 마쓰이(松戸亮)가 지휘하는 경찰대 22명(기관총 2, 소총 18)에 가담하여 군과 공동으로 팔도구로 월경하여 그곳 대도회비의 근거지인 시내 및 산위의 망루 6개소를 파괴하고 팔도구내의 잔비 소탕에 종사하던 중 약 2리 떨어진 오지에 대도회비 약 10명이 잠복중이라는 정보를 접하고 곧바로 진격하니 적은 경찰대의 진격을 두려워하여 산속 약 400미터 지점으로 도주하였으나 산개 사격하여 적 2명을 사살하고 장총 1정, 탄약 50발, 장창 1개를 압수하였다.

이상과 같은 공적이 특히 현저하여 두서의 상격이 있다고 인정한다.

〈출전 : 「功績調書(高正淳)」, 『昭和11年 功勞賞二關スル書類綴滿洲事變行賞(第1次)』, 국가기록원 소장〉

4) 김덕기(金悳基)

조선총독부 도경시 정7위 김덕기(金悳基)
(평안북도 경찰부 고등경찰과장)

위 사람은 평안북도경찰부 고등경찰과장으로서 재직 중 1931년 9월 18일 이래 1934년 3월 31일에 이르는 기간에 만주사변을 맞아 비적의 소탕 진압, 피난민의 보호구제, 재류 중국인의 보호 경계, 조선 및 대안의 민심의 사찰, 유언비어의 취체, 민론의 지도, 기타에 관한 계획 수립의 중요한 정무에 참여하였으며, 도지사와 경찰부장의 명을 받들어 오로지 정보수집에 열중하였고, 특히 부하 경찰관을 지휘독려하여 복잡다단한 사무를 처리함에 처치대책을 기민하고 적절하게 하여 그 수행에 유감이 없도록 하였는데 그중,

1. 비적 소탕과 진압에 관한 사무

만주사변 발발 직후 조선과 대안의 민심이 극도로 흥분 긴장되어 많은 동요를 불러왔다. 대내적으로는 만보산사건 이래 격화된 조선인과 중국인의 감정을 자극하여 다시 중국인을 배척하는 폭동이 야기될 우려가 있었다. 또 혹은 인심의 동요를 틈타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불온기획이 진전되거나 혹은 항일폭동단의 봉기, 혹은 지방군경의 복수적 조선 습격의 기도, 혹은 이주 조선인에 대한 보복적 박해, 혹은 마적 대도회비 등의 발호 등 많은 우려할 만한 사태가 예상되고 있었다. 이때 본인은 밤낮으로 부심하며 이 모든 정세를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탐지하여 각 경찰서장과 연락을 취하거나 혹은 직접 부하를 지휘하여 정보를 수집하여 대책수립에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그 후 만주의 정세가 혼돈하여 패잔병 또는 지방군경의 흉포한 행위에 의해 재만 조선인에 대한 박해가 빈번하고 피난민이 계속 조선으로 쇄도하기에 이르렀을 때, 본인은 명령을 받아 온 힘을 다해 피난민의 조사와 구호에 종사하였다. 그리고 이들 피난민이 조선 내에 재류하는 중국인에 대해 보복적인 배격을 하는 형세가 빈발하는

험악한 상태를 잘 위무 취체하는 것을 철저히 하여 피난민과 재류 중국인 간에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1931년 11월 상순 북만지방에서 전국이 확대되어 일시 진정국면에 들어섰던 중국 측의 민심이 다시 동요하기 시작하자 대안 안봉연선(安奉沿線) 일대에 우세한 병비가 봉기하여 철도의 파괴, 열차의 습격 등 피해가 속출하였으며, 적이 군자금 또는 무기탈취의 목적으로 조선 내 침입을 기도하여 누차 압록강 기슭에 나타나 준동하였는데, 그 일파가 1932년 1월 2일 신의주경철서 관내로 침입하는 등 형세가 날로 악화되는 상태에 있었을 때 본인은 직접 부하를 지휘하여 비적의 세력과 동향에 대해 주도기민한 사찰을 수행함으로써 가장 유효적적할 경비대책을 강구하였다.

1932년 3월 1일 만주국 독립선언이 있자 대안 일대에 걸쳐 반만항일운동이 첨예하게 일어났다. 그 달 상순 80명의 비적이 창성경찰서 대안에 나타나 장차 조선 내로 침입하려고 하였는데 경계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토벌대를 급파하여 소탕하고, 다시 그달 중순 신의주경찰서 관내에 40명의 비적이 침입한 것을 경찰관이 급박하게 토벌한 사건이 이어졌다. 그해 5월 이래 동변도 일대에 할거하고 있던 옛 동북군벌이 장학량(張學良)의 선동을 받은 당취오(唐聚五)를 수반으로 민중자위군을 결성하여 그 호령하에 모든 휘하의 군대, 공안대 또는 순경을 이끌고 일제히 반만항일의 기색을 선명하게 하며 조선 내 습격을 기도하여 준동을 시작하였는데, 그해 6월 6일 조선군의 월강 진출로 적의 행동이 더욱 첨예 악화되어 무모하게도 황군에게 적대행동을 취함과 함께 경비력이 허술함을 틈타 조선 내 경찰관 주재소 또는 부락에 대해 박격포 혹은 소총으로 포격하여 왔다. 경찰관은 불면불휴 매일같이 이에 응전하는 등 국경 일대의 치안이 장차 위태로워져 인심의 불안이 극도에 달했는데 그간 본인은 강안 각 경찰서장으로부터 받은 대안 비적의 정보를 정밀기민하게 처리하고 경비의 중요 업무에 참여하여 지휘명령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처리함으로써 적정의 변화에 따른 임기적절한 처치를 강구하였다.

이렇게 폭위를 떨치던 동변도의 비적도 1932년 10월 관동군과 조선군의 공동토벌에 의해 대부분 소탕되었고 당취오 이하 유력한 간부는 도주하여 자취를 감추었는데, 군대 철수 이후 다시 집결하여 지방에서는 의연히 크고 작은 많은 비적들이 출몰하여 횡행하고 있고 특히 1933년 1월 북평(北平)에서 동북의용군이 조직되자 통화현(通化縣) 요두(撓頭)에 근거한 비적수괴 왕봉각(王鳳閣)이 요녕성(遼寧省) 구국군을 조직하고 각지에 숨어있던 비적단을 지휘하여 다시 반만항일운동을 일으켜 그 준동이 활기를 떨쳐 왔다. 만주국의 무지한 하급관헌으로 비적단의 위세를 두려워하여 투항한 자가 속출하고 세력이 더욱 강대해져 국경지대의 정세가 다시 악화됨에 대해 본인은 각 경찰서장, 기타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정리 통일하여 항상 적의 동정을 상세하게 하고 그 변화에 따라 시의 적절한 처치를 틀리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1933년 7월 관동군의 동변도 비적 재토벌로 일시 진정상태로 돌아갔던 비적은 그해 8월 군대 철수 후 다시 각지에서 대두하였고 그해 가을부터 만주국의 경비의 틈을 노려 압록강 연안지대로 이동해 왔다. 압록강 결빙과 동시에 조선 측의 국경경비는 더욱 엄밀함을 요구하였으므로 본인은 예의 정보의 수집에 부심하며 대안 정세의 추이를 주시하여 경비상 어떠한 틈도 없게 하도록 노력하였다. 1934년 1월 22일 중강경찰서 관내에 비적 약 130명이 침입한 사건 외에 특히 심대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관내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다.

2. 재류 중국인의 보호경계사무

1931년 7월 조선 내에서 배화(排華)폭동사건이 발생한 이래 재류 중국인들이 동요하고 있는데 만주사변이 발발하자 저들은 이미 국교가 단절될 것처럼 잘못 알고 낭패하여 신의주에서는 상무회 간부들이 영사관에 집합하여 철수준비 등을 협의하며 재산을 정리하고 예금의 지불을 받는 한편 경성총영사 또는 당시 부임 도중에 있던 장(蔣) 공사에게 타전하여 상황을 알리고 진퇴를 결정하게 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모양인 바 본인은 능히 부하들을 독려하여 그 진무에 노력하고 있었다.

그런데 만주에서 전국이 확대되어 이주동포들의 비참함이 속속 귀환하는 피난 조선인의 조난담 혹은 신문보도 등으로 일반 조선인 사이에 유포되기에 이르렀다. 조선인의 패잔병비에 대한 증오심은 일반 중국인에 대한 적개심으로 혹은 의분에 징병으로 출정하여 저들 중국군을 응징하자는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그 적개심은 더욱 고양되어 안동지방에서는 날마다 조선인과 만주인 간에 작은 충돌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심이 악화되고 있다. 도내에는 재류 중국인 13000명이 있는데 언제 불상사가 발생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정세였으므로 본인은 능히 부하들을 독려하여 민심의 동향 탐지와 그 선도에 노력하는 한편 거주 중국인에 대해서는 특히 보호경계를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3. 통화 영사분관원의 동정 조사에 관한 사무

만주사변 발발 직후 황군이 만주철도 연선 주요지점을 점령함에 따라 중국패잔병이 속속 오지 방면으로 이동하고 통제력을 상실한 지방군경의 무모한 행동으로 만주 오지에 거주하는 조선인으로 학살, 능욕 등의 피해를 당하는 자가 속출하여 인도상 전율할 만한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당시 통화지방에는 간배산(干裴山)의 패잔병이 침입하여 폭행과 약탈을 자행하며 횡행중이라는 정보가 있었는데 그곳 영사분관과의 연락이 두절되어 그 안부를 알 수 없었으므로 9월 22일 이래 본인은 명령을 받들어 만포경찰서장과 연락을 하며 집안현 통구로부터 중국 측의 전화를 이용하여 많은 고심을 하며 필요한 연락을 함으로써 영사관원에 대한 불안과 위기를 벗어나게 하였다.

4. 민심의 사찰, 유언비어의 취체 및 민론의 지도에 관한 사무

만주사변 발발과 동시에 조선 내의 민심은 극도로 흥분 긴장되었으며, 오로지 형세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좌경주의자, 민족사상단체, 천도교도 등 평소 일본의 통치하에 있는 것을 싫어하던 분자들은 황군의 출동을 비방하고, 몰래 국제연맹의 분규가 심해져 일본의 국제적 입지가 역전되는 것을 원하여 한갓 황당무계한 유언비어를 퍼트려 인심의 동요를 선동하려는 기운이 있었다. 이들 분자들의 책동으로 혹은 어떤 사태를 야기할 지 예측하기 어려웠으므로 본인은 명령을 받들어 부하 경찰관을 독려하여 주의자, 사상단체의 동정을 사찰감시하고 불온책동의 여지를 없게하는 것과 함께 한편 유언비어의 취체를 엄중히 하여 인심의 불안동요를 방지하고 군, 면 기타 단체에 대해 시국에 관한 강연강화회 개최를 장려하여 만주사변에 대한 민중의 인식과 이해를 보급하는데 철저를 기했다. 또한 만주방면에서 수입되는 신문과 간행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바 그 기사가 왕왕 과장되거나 또는 군사기밀을 폭로하고 기타 인심을 흥분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것이 적지 않았으므로 특히 간행물 검열계원

을 지휘하여 취체를 엄중히 함으로써 민론의 지도와 취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만전을 기하였다.

5. 중국 포함의 무장해제에 협력

1931년 9월 19일 오전 8시경 압록강 철교 하류에 중국 포함 청해호(靖海號)가 정박한 것을 발견하고 명령을 받들어 즉시 신의주헌병분대장에게 통보하였고, 신의주수비대에서 그 무장해제를 실시할 때에는 부하 8명의 경찰관을 지휘하여 경비선 와시마루(鷲丸)에 승선해 수비대에 협력 그 행동을 원조하여 완전히 무장해제를 이룸으로써 압록강의 불안을 방지하고 조선과 만주 연락의 대동맥인 압록강철도교와 통신선의 안전을 확보하였다.

6. 압록강 철교 경계에 관한 사무

만주사변 발발 1주년 기념일인 1932년 8월 18일을 기하여 압록강철교 폭파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접한 본인은 직접 신의주수비대에 가서 철교의 비상경계에 대한 긴밀한 연락을 취하는 한편, 부하 경찰관을 독려하여 지방관민에 비상경계의 취지를 철저히 알려 수비대의 비상경계를 원조함으로써 압록강철교 폭파의 음모에 대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 안전을 확보하였다.

7. 피난민의 구호 및 선후조치에 관한 사무

1931년 9월 만주사변 발발 이래 재만 조선인으로 중국 관민의 박해와 패잔병의 포학이 심해짐에 따라 만주철도 연선 오지와 대안지방으로부터 조선으로 피난 귀환해 오는 자가 속출하여 1932년 5월까지 총수가 9042명에 달했는데 본인은 명령을 받들어 그 구호에 관해 부윤, 군수와 연락을 취해 급식, 숙박, 향리송환에 관한 알선을 한 바가 있다. 이어 1932년 6월 조선군이 임강(臨江)외 3개소로 월강 진출하자 대안 일대에 걸쳐 반만항일을 표방하는 우세한 비적단이 일어나 지방관헌은 점차 그 산하로 투항하고 이주 조선인에 대한 피해가 더욱 심해졌기 때문에 조선으로 피난하는 조선인이 속출하여 1932년 6월 이래 10월에 이르는 기간에 9699명에 달했는데, 이들 피만민에 대해서는 명령을 받들어 경찰서장, 군수, 면장을 독려하여 가소옥을 급조하고 식사와 의류, 땔감을 공급하여 그해 11월 대안 정세가 평정될 때까지 보호 구제하였다.

8. 비행장 설치 원조에 관한 사무

만주사변이 발발하자 조선군은 신의주에 비행기 착륙장을 건설하고자 1931년 9월 27일 조선군 나까야마(中山) 기병대좌, 사토(佐藤) 항공병대좌 및 아끼다(秋田) 일등주계와 신의주로 가서 새로운 비행장 부지를 빌리는 것과 기타 시설을 위해 본인은 조선군, 관동군 간의 긴밀신속한 작전계획상 긴요함을 알아채고 9월 27일부터 10월 2일, 또한 12월 20일부터 1932년 3월말까지 주로 조선인 지주에게 이해를 시키고, 신문 또는 다른 출판물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였으며 군부 및 지주, 지주 대 경작자 사이의 원만한 협조를 이끌어 그 실현을 급속하게 이루어내어 군무 수행상 많은 원조를 하였다.

이상의 공적이 특히 현저하여 두서의 상격이 있다고 인정한다.

〈출전 : 「功績調書(金憙基)」, 『昭和11年 功勞賞二關スル書類綴 滿洲事變行賞(第1次)』, 국가기록원 소장〉

5) 김병련(金秉連)

함경남도 호인경찰서
조선총독부 함경남도 순사 김병련(金秉連)

위 사람은 1936년 7월 10일부터 1937년 7월 6일까지 국경제일선인 호인경찰서에서 고등형사로서 대안의 적정 정찰을 담당하여 매일 위험을 무릅쓰고 대안에 월경하여 곤란한 적정 입수를 위해 스스로 여러 차례 위험한 지역에 출입하거나 밀정을 독려함으로써 적정을 탐지하고 내사하여 항상 확실하고 유효한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였다. 그리고 이를 보고하여 서장의 경비경계 대책에 착오가 없도록 기함으로써 항상 적의 기선을 제압하고, 경비경계를 유리하도록 이끌었다. 뿐만 아니라 서장의 뜻을 받들어 대안의 군경과 직접 교섭함으로써 일만 관헌의 상호 연락과 협조에 노력함과 함께 한편으로는 대안 관민의 동향을 사찰하고, 자칫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이끌어 경비상의 지장이 없도록 하여 경비의 완벽을 기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 및 월경 경작자에 대한 보호와 경계를 적극적으로 행하여 이를 유도하는 등 경비상에 대한 공적은 특히 위대하다. 그간 비적토벌을 위해 월경한 것이 4차례이고, 이 중 1번은 적과 교전하였는데 그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1936년 9월 1일 오후 10시경, 중국공산당에 속한 동북항일연군 제1군 제6사 김일성(金日成) 일파 약 160명이 강안 부락을 습격할 목적으로 십육도구로 남하 중이라는 확실한 정보를 접하고 그 적단을 토벌하라는 명령을 받은 노무라(野村) 경부보 외 28명과 함께 9월 2일 새벽 십칠도구 관도거리(官道巨里)로 강을 건너 진출했는데, 조선의 경찰대가 월강한 것을 알아챈 적들이 강안 진출을 단념하고 다시 오지로 도주하였으므로 그날 조선으로 철수했다.

2. 1936년 9월 5일 십팔도구 오지에 잠복하고 있는 김일성 비적단을 토벌하기 위해 출동한 혜산진국경수비대와 연락하여 이 적단을 협공, 섬멸하라는 명령을 받고 9월 12일 새벽 다무라(田村) 서장 외 44명과 함께 월경하여 십육도구와 십칠도구 오지로 진출했는데, 적이 수비대의 공격과 조선경찰관의 월경 진출에 겁을 먹고 재빨리 오지의 삼림지대로 도주하였으므로 수비대가 조선국내로 철수함과 동시에 9월 16일 조선으로 철수했다.

3. 공비 김일성의 일파 약 150명이 1936년 10월 15일 대안 십칠도구 내실궁(內矢弓)을 습격할 때 조선경찰관의 월강 출동을 저지하려고 약 30명의 무장공비(소총)가 고거리(高巨里)주재소 대안 고지로 진출해 와서 주재소 및 강기슭에서 경계 중인 경찰관에게 발포하였으므로 곧바로 다무라(田村) 서장 외 38명과 함께 응전하여 이들을 격퇴시키고, 나아가서 10월 16일 새벽 그곳으로부터 월경하여 적들을 십칠도구 오지 상치부동(上致富洞) 방면으로 추격하였다. 그러나 적들은 조선경찰관의 진격을 두려워해 서둘러 오지로 도주하여 적의 그림자도 볼 수 없었으므로 그날 오후 5시 조선 국내로 철수했다.

4. 1937년 3월 21일 비적수괴 김일성으로부터 십칠도구 우장막리(牛莊幕里)에 거주하는 만주인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라는 협박문이 송부되어 왔다. 그 내용을 통해 3월 26, 27일경 그곳으로 비적이 이동해 올 것을 예상하여 그 적단을 요격해 섬멸하라는 명을 받고 3월 26일 새벽 다무라(田村) 서장 외 28명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으로 진출하여 적의 내습에 대비했으나, 적들은 조선경찰관의 월경 진출을 재빨리 탐지하고 오지로 도망갔으므로 27일 밤 조선으로 철수하였다.

〈출전 : 「功績調書(金秉連)」, 『昭和14年度 功勞賞二關スル書類綴(滿洲事變第3次行賞)』, 국가기록원 소장〉

의서(擬敍) : 사금(賜金) 70
상격(賞格) : 공로(功勞)
주공관등(奏功官等) : 판(判) 4 대우
기초훈장(基礎勳章) : 서(瑞) 8등, 1937년 7월 7일 사변(事變)
1940년 4월 29일 현재 관직 : 조선총독부 함경남도 순사 훈8등
성명 : 김병련(金秉連)
생년월일 : 1906년 1월 14일
주공기간 : 1937년 7월 14일 ~ 1939년 5월 4일, 계 2개월 27일
주공관직 : 호인경찰서 고등형사 함경남도 순사
공적사항
1. 국경지대 특별경비에 관한 업무

1) 동북항일연군 제6사 김일성(金日成) 비적단의 군경연합토벌대원으로 참가하여 만주국 장백현(長白縣) 십사도구~십팔도구 일대에 출동해 비적단을 오지로 패주시켜 조선국내의 치안확보에 공헌하였다. 1회 30일간.

2) 중국공산당 조선 내 항일인민전선 결성 및 중일전쟁 후방교란사건 검거수색대에 참가하여 중요 피의자 전남순(田南淳) 외 30명을 검거하고, 같은 사건 제2차 검거 때에는 혜산경찰서에 응원을 가 취조주임 이치(市) 경부의 지휘하에 전적으로 취조를 맡아 죄증을 밝혀 사변하 후방교란을 목적으로 한 불온한 기도를 미연에 방지하혀 조선국 내 치안확보에 공헌한 공이 현저하다. 5회 70일간.

3) 혜산경찰서 관내 상흥경수(上興慶水)에 김일성 비적단이 침입해 왔을 때 그곳으로 다수의 응원토벌대가 파견된 후, 경찰서에 잔류한 소수의 배치인원으로 특별경계에 임해 조선국 내 치안의 확보에 공헌하였다. 1회 5일간.

4) 공비 만순(萬順) 일파 수명이 전후 2차례에 걸쳐 만주국 장백현 이전동(梨田洞)을 습격하고 운전주재소에 견제 발포한 사건이 있었을 때, 월경토벌대에 특별조사반으로 참가하여 비적단을 오지로 패주시켰다. 2회 4일간.

5) 만주국 장백현 십육도구~십구도구 일대의 동북항일연군 김일성 비적단의 토벌대원으로 참가하여 비적단을 오지로 패주시킨 공이 현저하였다. 1회 3일간.

6) 동북항일연군 김일성 비적단 250명이 만주국 장백현 반재구(半載溝)를 습격하고 고거리주재소에 발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토벌대 특별조사반으로 참가해 적정을 수집하여 토벌대가 활발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격퇴하고 조선국 내 치안을 확보하였다. 1회 23일간.

주공기간 : 1938년 6월 14일 ~ 1939년 5월 30일, 계 12일

주공관직 : 호인경찰서 고등형사 함경남도 순사

공적사항

1. 방공 방위 방첩 및 군기밀보호에 관한 업무

관내 민중에게 방공 방첩사상의 보급을 철저히 하기 위해 결성된 방공단 6개 단체 612명의 조직에 협력하여 국민방첩진용을 강화하고 충실케 하여 국토보전에 완벽을 기하였다.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9년 5월 30일, 계 1년 3개월 5일

주공관직 : 호인경찰서 고등형사 함경남도 순사

공적사항

1. 첩보 정보 수집에 관한 업무

중국공산당의 지령하에 만주국 장백현내에서 활동하며 사변하 후방교란을 기도하던 동북항일연군 김일성 및 그 외 비적단의 동향을 정찰하는 특무원으로서 단신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적지에 잠입하여 적정을 수집 제공함으로써 조선 변경지구의 경비대책에 기여하고 비적단의 조선 내로의 침입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공헌하였다. 최중요 정보 6건 455회.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9년 5월 30일, 계 1년 24일

주공관직 : 호인경찰서 고등형사 함경남도 순사

공적사항

1. 여론환기, 국방사상의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관내 민중에게 정확한 여론의 환기시키고 국방사상를 보급 강화하기 위해 수시로 집회를 열어 사변하 민심의 안정을 꾀하하였고 국가총력전체제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도와 계몽을 하였다. 시국좌담회 24회, 국방헌금 3구좌 60원, 시국좌담회 30회

〈출전 : 「功績調書(金秉連)」, 『支那事變功勞者功績調書』 朝鮮總督府 卷18,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6) 김상섭(金相燮)

의서(擬敍) : 사금(賜金) 80

상격(賞格) : 공로(功勞)

주공관등(奏功官等) : 판(判) 3

1940년 4월 29일 현재 관직 : 조선총독부 함경북도 경부

성명 : 김상섭(金相燮)

생년월일 : 1904년 6월 22일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8년 11월 23일, 계 1년 4월 29일

주공관직 : 함경북도 온성경찰서 사법주임 도경부보

공적사항

1. 동원소집에 관한 업무

1937년 8월 14일 제19사단에 임시소집령이 내려지자 경계계로서 동원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실시하였다. 종사회수 1회.

2. 군사수송 경계에 관한 업무.

장고봉사건에 따른 현지출동부대 및 만지파견부대와 군수품수송열차가 통과할 때 철도경비경계에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종사회수 14회.

3. 방공에 관한 업무.

장고봉사건으로 방공실시령이 내려오자 감시초소원을 지도 독려하여 방공의 완벽을 기했다.

4. 첩보 정보수집에 관한 업무.

사변발발 이래 상사의 명을 받들어 소련, 만주, 중국 방면의 정보수집에 노력하였다.

주공기간 : 1938년 11월 24일 ~ 1940년 4월 28일, 계 1년 3월 3일

주공관직 : 함경북도 회령경찰서 사법주임 도경부

공적사항

1. 군사수송 경계에 관한 업무.

만주와 중국파견부대 및 군수품수송열차가 통과할 때 철도경비경계에 유감이 없게 하였다.

2. 전병자의 조위에 관한 업무.

만주와 중국으로부터 후송되는 전병몰자들이 회령위수지로 귀환할 때 이들의 조위 및 간호와 원조에 힘썼다.

〈출전 : 「功績調書(金相燮)」, 『昭和11年 功勞賞ニ關スル書類綴 滿洲事變行賞(第1次)』, 국가기록원 소장〉

7) 김시욱(金時昱)

[7-1]

조선총독부 함경북도 경부 (회령경찰서 근무) 김시욱(金時昱)

위 사람은 1936년 7월 10일부터 1937년 7월 6일까지 국경제일선 회령경찰서에서 근무하였는데, 특히 만주사변 발발 이래 공비토벌에 의해 그 치안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고는 해도 아직도 비적들의 형적이 끊이질 않고 항상 국경지대에 출몰하여 기회를 틈타 조선국내로 침입하여 흉포한 행위를 저지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또한 국제정세가 긴박해짐에 따라 각국은 첩보망의 확충 강화를 꾀하였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소련 첩보기관의 활동이 점점 더 첨예화되어 국경경비상 조금의 틈도 허락할 수 없었으므로 명령에 따라 강안 감시, 도선장의 단속, 정보의 수집 등 불면불휴 경비에 임하여 조선국내의 치안 확보에 노력하였는데, 특히

1. 국경주민 중에는 두만강을 건너 대안에서 경작에 종사하는 자가 적지 않았으나 공비가 날뛰어 안심하고 경작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명령에 따라 대안으로 월경하여 월경 경작자의 경작지 부근에서 초계, 순찰 및 정찰 등의 근무에 복무한 것이 2회에 이르러 농민이 안심하고 농경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의 공적이 특히 현저하여 두서의 상격이 있다고 인정한다.

〈출전 : 「功績調書(金時昱)」, 『昭和14年度 功勞賞ニ関スル書類綴(滿洲事變第3次行賞)』, 국가기록원소장〉

[7-2]

의서(擬敍) : 사금(賜金) 80
상격(賞格) : 공로(功勞)
주공관등(奏功官等) : 판(判) 3
1940년 4월 29일 현재 관직 : 조선총독부 평안북도 경부
성명 : 김시욱(金時昱)
생년월일 : 1899년 2월 23일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8년 9월 22일, 계 1년 2월 16일
주공관직 : 함경북도 회령경찰서 사법주임 함경북도 경부
공적사항
1. 국경지대특별경비에 관한 업무
장고봉사건이 발생하자 상사의 명을 받아 경비대장으로서 솔선하여 부하와 함께 불면불휴 강안의

경비와 경계를 맡으며 적 침입의 방지와 관내 치안확보에 만전을 기하였다.

2. 군대수송에 관한 업무

장고봉사건의 발생에 따라 군대의 전투지역 수송에 대하여 경계대장으로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철로의 보호 경계 및 수재에 따른 노선철도의 파손 복구에 협력하여 수송 수행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3. 군대수송 경계에 관한 업무

군대수송에 따른 무기, 식량, 마필, 말 사료 등의 대량수송에 대하여 원활한 수행을 하기 위하여 분골쇄신해서 경계에 종사함으로써 수송에 완벽을 다하였다.

4. 방공, 방위, 방첩, 군 기밀보호에 관한 업무

적기의 목표물인 군 관계, 기타 중요건물을 보호하는 것이 방공방위상 긴요함에 비추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것의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다.

5. 전사자와 전상자의 위로 및 전상자와 환자 취급 방조위문에 관한 업무.

장고봉사건에 의하여 전투지역으로부터 후송되는 전사상 장병에 대한 위로 및 그 취급에 관하여 조선불교부인회원, 여름방학에 귀성하는 의전학생, 기타를 지휘하여 임무를 수행하는데 유감이 없도록 했다.

6. 유언비어 기타 시국범죄의 방지와 단속, 검거에 관한 업무

장고봉사건은 직접 민중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며 이와 같은 사안의 유포, 발생 또한 그 용이함을 고려하여, 방지와 검거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며 만전을 기하였다.

7. 여론환기, 국방사상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중일전쟁의 발발 진전에 따른 후방국민의 진로에 대하여 여론의 통일 및 국방의 중요성을 보급선전하며 인식앙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8. 재류 중국인의 단속 및 보호에 관한 업무

관내에 살고 있는 3백여 명의 중국인에 대해서 경거망동을 달래고 조선인과 중국인 간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배려하여 보호와 단속의 완벽을 기하였다.

9. 국방헌금 및 애국기헌납자금의 모집에 관한 업무

국민의 정성에 의한 헌금 및 자금모집에 힘써 5,000여 원을 모아서 헌납에 힘을 다하여 최대의 효과를 올렸다.

주공기간 : 1938년 9월 26일 ~ 1939년 9월 22일, 계 11월 26일

주공관직 : 평안북도 만포경찰서 사법주임 평안북도 경부

공적사항

1. 여론의 환기, 국방사상 보급 및 선전에 대한 업무

십수차례에 걸쳐 시국강연 또는 좌담회를 개최하여 국방사상의 보급 및 선전에 노력하여 사변에

대한 여론 환기에 힘을 다하였다.

2. 국경지대특별경계에 관한 업무

대안의 만주국 통화, 길림 각 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산당 비적 침입의 경계를 맡고, 지하공작에 의한 주의, 사상의 조선 내 파급방지에 힘을 기울여 경계의 완벽을 다하였다.

주공기간 : 1939년 9월 23일 ~ 1940년 4월 28일, 계 7월 7일

주공관직 : 평안북도경찰부 보안과 사법주임 평안북도 경부

공적사항

1. 시국범죄 방지 및 검거에 관한 업무.

지역적으로 사변관계 범죄가 속출하는 경향이 있어 이것의 방지와 검거에 불면불휴 노력을 기울이고, 금 밀수출 기타 범죄의 검거가 841건에 이르러 치안확보와 동시에 전쟁수행에 기여하는 바가 참으로 컸다.

〈출전 : 「功績調書(金時昱)」, 『支那事變功勞者功績調書』 朝鮮總督府 卷15,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8) 김우선(金羽銑)

조선총독부 함경북도 순사 김우선(金羽銑)

경원(慶源)경찰서 근무

위 사람은 1931년 12월 27일 이래 함경북도 국경제일선 경원경찰서에 근무하며 오로지 국경경비에 복무했는데, 당시 대안 훈춘현(琿春縣) 일대는 병비와 공비가 각지에 횡행하며 출몰하여 살상, 약탈 등 포학한 행동이 그칠 새 없어 완전히 소란한 동네로 바뀌어 사태가 용이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그간 월경 출동하여 비적의 토벌을 맡아 피난민을 구호하거나 월경 농경부민의 보호에 임하는 등 밤낮으로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경비의 만전에 노력했는데 그중,

1. 1932년 9월 15일 오후 7시경 훈춘현 흥인보(興仁保) 사토자(沙土子) 주민 약 50명이 비적 습격의 기색이 농후하다고 해서 관내 안농면(安農面) 유다도(柳多島)로 피난해 오자 박(朴) 경부 이하 11명의 특별경계부대에 참가하여 유다도로 출동함으로써 피난민의 구호와 단속을 맡고 또 밤을 새워 유다도 동쪽 끝에서 입초근무에 복무함으로써 피난민의 수용 및 국경경비에 만전을 기하고 16일 오전 10시 귀환하였다.

2. 1933년 2월 7일 오후 10시 30분경 중국공산당 훈춘현위 이일파(李一波)의 무장비적 20여 명이 경원

경찰서 관내에 침입하여 용당(龍堂)도선감시소 및 세관출장소에 방화하고 자위단원 1명을 납치하여 도주하였으므로 곧바로 후지시마(藤島) 부대에 참가하여 8일 오전 1시경 찬바람을 무릅쓰고 월경 출동하여 작개동(芍開洞)을 철저하게 대검색해 적의 발견에 힘쓰고 또 추격했으나 적은 오지 깊숙이 도주하여 마침내 종적을 감추었으므로 오후 5시 20분에 귀환하였다.

3. 관내 주민 중 만주땅으로 월경 경작하는 자가 많이 있는데 모두가 비적의 발호를 두려워하여 이것을 포기하거나 단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에 조선 내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보호하고자 1933년 5월부터 9월 10일까지의 사이에 전후 18회에 걸쳐 종일 적의 그림자가 산견되어 언제 급습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한 곳으로 파견한 1개 부대에 10명씩으로 된 경계부대에 참가 출동하여 만주인과 조선인의 농경보호라는 대임을 다하고 또 대안의 지리를 정밀하게 조사하여 각종 정보수집에 힘씀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치안유지에 다하였다.

4. 1933년 9월 17일 오후 1시부터 경원서 관내 용당동 도선감시소에서 도선감시근무 중이던 함경북도 순사 모리다(森田) 순사와 함께 국경경비근무 중 오후 1시 10분경 대안 훈춘현 하구동(河口洞)으로부터 나룻배로 약10명의 여행자가 상륙했으므로 이들을 검문하려고 하자 여기에 섞여 있던 훈춘현 야침봉(野針峰)에 근거를 둔 중국공산당 훈춘현위 소속 영남유격대 오일파(吳一波)의 무장공비 3명이 갑자기 숨겨 가지고 있던 권총으로 두 순사 및 마침 그곳에 있던 승양(承良)세관출장소장 쿠니마시(國松三郎)을 저격하였다. 본인은 첫 번째 탄환을 가슴에 맞고 한때 혼절했으나 용감하게 일어나서 비적을 끌어안고 뽑내는 유도로써 두차례나 내던졌으나 중상 때문에 혼절했다가 또다시 일어나 사건을 주재소에 급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약 100미터를 달려 돌아갔으나 마침내 중상으로 절명하였다.

이상의 공적이 특히 현저하여 두서의 상격이 있다고 인정한다.

〈출전 : 「功績調書(金羽銑)」, 『昭和11年 功勞賞ニ關スル書類綴 滿洲事變行賞(第1次)』, 국가기록원 소장〉

9) 김재열(金在烈)

의서(擬敍) : 사금(賜金) 80
상격(賞格) : 공로(功勞)
주공관등(奏功官等) : 판(判) 3
1940년 4월 29일 현재 관직 : 조선총독부 경상북도 경부
성명 : 금성종명(金星宗明)
생년월일 : 1899년 12월 12일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8년 3월 11일
주공관직 : 예천경찰서 사법보안위생주임 경상북도 경부보

공적사항

1. 위 기간 중 특기할 사항이 없음

주공기간 : 1937년 3월 12일 ~ 1940년 4월 28일

주공관직 : 왜관경찰서 사법주임 경상북도 경부보

공적사항

1. 동원소집에 관한 업무

동원 및 임시소집 6회 17명에 대한 동원업무를 보조하여 이것을 완결토록 하였다.

2. 군사수송 경계에 관한 업무

군사수송 경계 36일 42회로 수송의 완벽을 기하였다.

3. 방공방위방첩, 군 기밀보호에 관한 업무

(1) 특별경계에 종사한 일수 33일 43회로 민심 수람 및 지도에 힘썼다.

(2) 민심의 방공지도에 힘쓴 것이 9회 43일로 방공훈련에 종사하여 방공태세의 강화에 힘썼다.

4. 군용물자 조달, 군수품 제조와 공출에 관한 업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군용물자의 공출을 완료하였다.

돈피 55매, 견피 70매, 보리 50석.

5. 여론환기, 국방사상의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시국좌담회 연일수 59일, 연횟수 66회에 걸쳐 별도 항목과 같이 공출 등 기타 양호한 효과를 거뒀다.

〈출전 : 「功績調書(金星宗明)」, 『支那事變功勞者功績調書』 朝鮮總督府 卷11,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10) 김종구(金鍾球)

[10-1]

평남경비(平南警秘) 제231호

1934년 8월 17일

평안남도지사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귀하(殿)

만주사변에 대한 공적조사에 관한 건

본월 13일부로 평남경비(平南警秘) 제231호로서 보고해둔 수제(首題)에 관해 공적 위로에 속하는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공적조서를 별지대로 진달함.

〈공적조서〉

평안남도 경찰부	
조선총독부 평안남도 경찰부	김종구(金鍾球)
조선총독부 평안남도 경부보	나까야마(中山登市)
동	미조부치(溝渕起英)
동	노무라(野村玏)
동	히라마츠(平松辰一)
조선총독부 평안남도 순찰 훈7등(서)	후르가와(古川隼太)
조선총독부 평안남도 순사	고바야시(小林久男)
동	마츠모토(松本正明)
동	모리야마(森山鹿之助)
조선총독부 평안남도순사	김병욱(金炳旭)
동	유성렬(劉聖烈)

위 사람은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 발발 이래 1934년 3월 31일까지 평안남도경찰부에 근무하면서 군대 및 군수품의 수송에 관한 철도연선의 경계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경계 보호에 만전을 기했거나 혹은 스스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몸소 연선에 출동하여 경계 혹은 감독에 종사하였음. 혹은 군용자동차의 차용을 군부가 요구하자 상사의 명을 받아 각 방면에 수배하여 극히 짧은 시간에 이를 완수하였고, 엄중한 차량검사를 실시하고 운전수에 대해서는 필요한 주의사항을 숙지시켜 지정일시에 지정장소에 군부에게 인도하여 중요한 시기에 군의 작전에 도움을 주었다. 한편으로 반일 반만 공작에 대한 사찰, 경계, 단속에 종사하고 혹은 육군 창고장의 의뢰에 따라 군용 견피의 구입에도 노력하고 혹은 공적 조사 사무에 종사하는 등 그 공적이 특히 현저하여 두서의 상격이 있다고 인정한다.

〈출전 : 「功績調書(金鍾球)」, 『昭和9年 昭和11年 功勞賞ニ關スル書類綴 滿洲事變行賞(第1次)』, 국가기록원 소장〉

[10-2]

의서(擬敍) : 사금(賜金) 80
상격(賞格) : 공로(功勞)
주공관등(奏功官等) : 판(判) 3
기초훈장(基礎勳章) : 서(瑞) 8등, 1939년 9월 23일 정례(定例)
1940년 4월 29일 현재 관직 : 조선총독부 평안남도 경부 훈8등
성명 : 금천치덕(金川治德)
생년월일 : 1894년 2월 8일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7 10월 1일
주공관직 : 평안남도 안주경찰서 사법주임 도경부
공적사항

1. 군사수송, 경계에 관한 업무

사변발발과 함께 군사수송이 개시되자 서장의 명령에 따라 부하를 감독하여 59회에 걸쳐 경의선철도 경계에 임하여 군사수송에 잘못이 없도록 하였다.

2. 방공에 관한 업무

9월 8일 등화관제훈련을 맞아 서장의 명령에 따라 부하를 지휘 감독하여 민중을 지도 훈련하여 방공의 완벽을 기하였다.

3. 여론환기, 국방사상의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관내 각처에서 서장의 명령에 따라 스스로 강사로 나서 강연회 3회, 좌담회 15회를 실시하여 민심의 지도에 노력하였다.

주공기간 : 1937년 10월 2일 ~ 1940년 4월 28일
주공관직 : 평안남도 진남포경찰서 사법주임 도경부
공적사항

1. 군사수송, 경계에 관한 업무

서장의 명령에 따라 부하를 지휘 감독하여 진남포항 부근과 진남포역에서 수송되는 군수품에 대해 전후 93회에 걸쳐 경계에 임하여 군사수송에 잘못이 없도록 하였다.

2. 여론환기, 국방사상의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서장의 명에 따라 관내 각처에서 18회에 걸쳐 스스로 강사로 나서 좌담회를 열어 방첩·방위사상의 보급 및 선전에 임하였다.

3. 시국적 범죄 방지, 단속, 검거에 관한 업무

부하를 지휘 감독하여 시국적 범죄의 방지, 단속, 검거에 노력하여 외국위체관리법 위반 1건을 검거하여 취조 송국한 결과 징역 4개월, 치안유지법 위반 1건은 기소유예, 기타 국가총동원법 위반 3건은 각각 벌금형을 검거하여 단속의 완벽을 기하였다.

4. 여론 환기, 국방사상의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서장의 명에 따라 관내 각처에서 18회에 걸쳐 스스로 강사로 나서 좌담회를 열어 민심의 지도에 노력하였다.

〈출전 : 「功績調書(金川治德)」, 『支那事變功勞者功績調書』 卷113(朝鮮總督府14), 1940년, 일본국립공조서관 소장〉

11) 김진탁(金晋卓)

의서(擬敍) : 사금(賜金) 80
상격(賞格) : 공로(功勞)
주공관등(奏功官等) : 판(判) 3
기초훈장(基礎勳章) : 서(瑞) 8등
1940년 4월 29일 현재 관직 : 조선총독부 경상북도 경부 훈8등
성명 : 팔전진(八田晋)
생년월일 : 1895년 12월 13일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40년 4월 28일, 계 2년 9월 22일
주공관직 : 경상북도 안동, 포항경찰서 고등위생주임 경부
공적사항

서장을 보좌하고 고등위생주임으로서 부하를 잘 지휘하였다.

1. 기간 중 관내 동원에 대한 지도경계, 민심안정에 종사하였다.(동원 19회)

2. 방공방첩, 군 기밀 보호와 단속 지도감독 기간 중

1) 1938년 10월 방공협회 안동지부 및 예안, 온산 각 방공단의 설치 및 방첩방공사상의 보급에 종사하였다.

2) 군의 촉탁을 받고 전임자로서 견피 5,317매, 생돈 249마리, 생우 50마리, 토모피 200매를 검수하여 출하하였다.

3) 시국좌담회 60회 연인원 60,000여 명에 미치며, 다음과 같은 반향이 있었다.

(1) 예수교도 약3천 명에게 신사참배로 전향시켰음

(2) 지원병 지원자의 증가
(3) 국방헌금자가 계속 나옴
(4) 기타 양반과 유생의 시국인식

〈출전 : 「功績調書(八田晋)」, 『支那事變功勞者功績調書』 朝鮮總督府 卷11, 1940,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12) 김찬욱(金燦旭)

의서(擬敍) : 사금(賜金) 80
상격(賞格) : 공로(功勞)
주공관등(奏功官等) : 판(判) 3
1940년 4월 29일 현재 관직 : 조선총독부 평안북도 경부
성명 : 청수원(淸水源)
생년월일 : 1897년 4월 10일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40년 4월 28일, 계 2년 9월 22일
주공관직 : 평안북도경찰부 고등경찰과 사찰계주임 도경부
공적사항

1. 첩보, 정보수집에 관한 업무

사변 발발과 함께 재만 재중 불령선인 주의자 등은 좋은 기회가 왔다고 하며 적성 첩자와 밀접한 연락 아래 후방을 교란시키고 모든 부문에 걸친 제국의 상황을 입수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며 혹은 틈을 노려 첩보행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등의 빈번한 정보에 대처하여 불면불휴 부하직원들을 지휘 독려하면서 크거나 작거나 관계없이 수집하여 각 기관에 통보와 연락을 하여 시국대책상 만전을 기하하는 데 공헌한 바가 극히 크다.

2. 방첩, 군 기밀보호에 관한 업무

민중을 계발하고 시국인식을 철저히 하여 반시국성의 언동을 경계함과 동시에 외국인의 정황 사찰을 실시하고 외국 도항자의 단속을 엄격히 하여 방첩에 완벽을 기하며, 이것들과 병행하여 군기의 누설 방지에 분투 공헌하였고, 특히 군사스파이 중국인 진복산(秦福山) 외 3명의 검거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공적이 특히 위대하다.

3. 군대 및 군수품 등의 수송경계에 관한 업무

불면불휴 전후 87회에 걸쳐 경계에 종사하여 만전을 기하고 수송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와 공헌한 바가 극히 크다.

4. 국경지대 특별경비에 관한 업무

사변 발발과 함께 험악해지는 대안의 정세에 대처하여 계원과 함께 만주국내에 깊이 사찰의 손을

뻗쳐 재만 불령선인 또는 주의자 등의 동정 탐지에 노력하여 통보한 뒤 대책자료를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행동의 여지가 없도록 하는 등 경비상 힘을 다하며 공헌한 바가 극히 크다.

5. 재류 중국인의 보호와 지도에 관한 업무

사변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은 당황하여 불안에 쫓겨 동요하는 징조가 보이므로 몇 차례에 걸친 회합을 요청하여, 성전을 잘 인식시켜 경거망동을 달래고 조선인과의 융합을 강구하여 안정시키고, 신정권 지지를 종용하여 이에 참가토록 하는 등 보호와 지도상 만전을 기하여 공헌한 바가 매우 크다.

6. 여론환기와 국방사상의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국책에 순응하여 민심이 이를 지향하도록 여론을 환기하여 통일결속하고 국가총력의 앙양에 힘쓰는 한편 시국하에 국방이 긴요하고 중대하다는 것을 철저히 보급해서 고도국방의 완수에 기여 공헌한 바가 크다.

7. 시국범죄 방지와 검거, 단속에 관한 업무

시국의 인식부족과 과도기에 지배되어 부지불식간에 혹은 과도기를 빙자하여 욕심에 현혹된 악덕한 사람들의 반칙행위 단속을 엄격하게 이행하여 주된 범죄 10건을 검거하는 등 시국하에서 치안확보에 진력한 공헌이 있다.

〈출전 : 「功績調書(清水源)」, 『支那事變功勞者功績調書』 朝鮮總督府 卷15,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13) 김찬희(金贊凞)

조선총독부 평안북도 순사 김찬희(金贊凞)
위원경찰서 근무

위 사람은 1936년 7월 10일부터 1937년 7월 6일까지 사이에 국경제일선의 경비에 복무하여 항상 불면불휴로 국경지대의 치안확보에 진력하였는데 그 기간 토비에 관한 공적은 다음과 같다.

1. 1936년 8월 6일 오후 10시 40분경 조선비적 혁명군 제2중대장 김창화(金昌化) 이하 10여 명과 특무대장 박유빈(朴有彬) 이하 12명의 비적들이 신천(新川)출장소 대안 집안현(輯安縣) 임강구(臨江口)를 습격해 와 임강구 앞 감시소를 향해 일제사격을 시작하였다. 감시소에 근무중이던 하라(原) 순사는 이에 응전함과 함께 신천출장소에 응원을 구했으므로 본인은 토미나가(富永) 순사 외 7명과 함께 급거 출동해서 그 곳에 응원을 왔던 야부끼(矢吹) 순사 외 2명과 합류해 참호에서 맹사격을 가하였다. 그 결과 적들은 우리 총화의 위력에 대항할 수 없어 교전 약40분 만에 오지를 향해 궤주하였다.

2. 1936년 9월 6일 오전 0시 40분 경 만주비적 제2연장 중산의(中山義)가 이끄는 약 20명이 대안 집안

현 제2구 유수림자(榆樹林子) 임강구(林江口) 동쪽 언덕으로 이동해 와서 조선 내로 침입하고자 하는 것을 상노약(上老若)감시소에서 망을 보고 있던 이케다(生田)순사가 수하해도 대답을 하지 않자 발포했다. 이 급보를 들은 본인은 요시다(吉田)부장 이하 5명과 함께 즉시 현장으로 급행하여 교전 약 40분만에 이들을 오지로 격퇴했다.

3. 1936년 9월 9일 오후 10시경 만주비적 청산호(青山好) 이하 10여 명이 대안 집안현 제2구 유수림자 임강구를 습격하여 방화와 약탈을 감행함과 동시에 조선쪽을 향해 발포했으므로 임강구 앞 감시소에서 망을 보던 야마모토(山元) 순사가 곧바로 이에 응전중이라는 급보에 따라 본인은 요시다(吉田) 부장 이하 5명과 함께 임강구 앞 감시소에 급행하여 야마모토(山元) 순사와 협력해 교전 약 40분만에 적을 오지로 격퇴했다.

4. 1936년 9월 12일 구국군 제2연장 중산의(中山義) 이하 30여 명이 집안현 제2구 유수림자 임강구 서영곡(西永谷)으로 이동해 와서 우리 월경내사반인 본인 및 요시하라(吉原), 정재범(鄭載範) 순사의 월경을 기다리고 있다가 일제히 맹사격을 퍼부었다. 이에 곧바로 응전하였으나 중과불적으로 요시하라(吉原) 순사는 마침내 적탄에 쓰러졌다. 본인은 이대로 현지에 머무는 것은 쓸데없이 적에게 희생되어 선후책을 강구할 기회를 잃는다고 생각하고 홀연히 이중포위를 뚫고 현장으로부터 약 300미터 떨어진 임강구 보갑단으로 달려가서 보갑단과 신천출장소 사이의 연락용 전화를 이용하여 신천출장소에 이상의 상황을 보고하였다. 급보를 받은 신천출장소로부터 수석 요시다(吉田) 부장 외 9명, 본서로부터 고오노(河野) 경부보 이하 17명, 송진, 구배, 사장출장소로부터 15명, 남파, 이산 두 출장소로부터 10명, 연풍 주재소로부터 5명이 곧바로 월경하여 포위 대형으로 부근을 수사하였으나 어둠이 닥쳐 적의 그림자를 찾을 수 없었으므로 조선쪽으로 철수했다.

5. 1936년 11월 29일 오후 11시 10분경 조선비적 강익순(姜益順) 이하 7명과 계통불명의 만주비적 10여 명의 합류비적이 대안 집안현 제2구 유수림자 동쪽 언덕으로 이동해 와서 상노약(上老若)감시소를 향하여 치열하게 발포하는 것을 감시소에 근무중이던 본인은 후지사와(藤澤) 순사 외 2명과 함께 응전하던 중 급보를 받고 신천출장소로부터 요시다(吉田) 부장 이하 7명이 급거 응원 출동하였으므로 이들과 합대하여 완강하게 저항하는 적에게 경기관총으로 맹사격을 퍼부어 약 10분만에 적을 오지로 격퇴하였다.

6. 1936년 12월 9일 오전 10시경 본인은 수석 요시다(吉田) 부장 외 3명의 순사와 함께 대안 임강구로 월경하여 적의 상태를 내사하던 중 집안현 제2구 황차구(荒岔溝) 오지 마석구(磨石溝)(강기슭으로부터 25리) 이주 조선인 박인서(朴獜瑞)의 집에 조선인과 만주인 혼합비적 25명이 잠복하여 임강구 부락 및 신천출장소 습격을 획책 중이라는 내용의 정보를 얻었다. 이에 적의 기선을 제압하여 일거에 격멸하기 위하여 신천출장소로부터 잔류원 이케다(生田) 순사 외 7명을 오게 하여 합류시켜 14명의 토벌대를 편성하고 요시다(吉田) 부장이 이를 지휘하여 현장으로 향해 급행하였다. 먼저 요시다(吉田) 부장은 본인과 야부끼(矢吹), 후지사와(藤澤), 오병욱 순사를 이끌고 적의 잠복가옥의 배후 산허리로부터 공격하여 퇴로를 차단하고자 그 집에서 약 150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전진하였는데 적의 보초를 발견함으로써 적이 이 집에 잠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보초가 모르게 약 60미터 지점까지 접근했을 때 교전해도

되겠다고 판단한 일행은 먼저 망을 보고 있던 적을 향해 일제히 총을 쏘아 그를 사살했다. 이후 집 안을 향하여 맹사격을 퍼붓고 불의의 공격에 당황낭패하여 재빠르게 오른편으로 도망가는 적 3명을 사살했다. 그리고 그 집으로부터 재빨리 튀어나온 다른 적들이 모두 골짜기 아래쪽으로 도망을 시작했으나, 그곳에 잠복하고 있던 이케다(生田)반이 곧바로 일제사격을 가하여 여기에서 역시 적 3명을 사살했다. 이렇게 앞뒤가 가로막힌 적은 완전히 절대절명의 궁지에 빠졌기 때문에 부근의 움푹한 곳에 몸을 숨기고 완강하게 저항하며 퇴각의 기세가 없었으므로 토벌대는 두 부대로 서로 호응하여 교전한 것이 실로 3시간에 이르러 마침내 적 1명을 사살했다. 그런데 당시 이케다(生田)반과는 300미터 이상의 거리가 생겨 양자 간의 연락이 잠시 두절되었으나, 요시다(吉田) 부장은 앞서 순직한 요시하라(吉原) 순사의 복수를 하는 것은 이때다 하고 결심을 하여 돌격명령을 내렸으므로 본인 등은 함성을 올리며 적의 맹사격을 뚫고 적진에 돌입하여 격투를 벌였다. 그리고 금새 야부끼(矢吹), 후지사와(藤澤) 순사는 모두 조선비적 각 1명을, 본인은 만주비적 1명을 그 자리에서 베어 죽이고 다른 적들을 오지로 격퇴했다. 이러한 장시간에 걸친 격전으로 적의 수괴 이하 11명을 사살하고 거의 전멸적 충격을 가하여 대성공리에 그날 오후 7시경 30분에 조선으로 철수하였다.

7. 1936년 12월 30일 특별경비대 제2분대원인 본인은 요시다(吉田) 부장 외 9명과 함께 적정 내사를 위해 집안현 제2구 유수림자 임강구로 월경 중 집안현 제3구 양수천자 세원곡(細遠谷) 독립가옥에 조선비적 4명이 잠복하여 조선 내 습격을 계획 중이라는 확실한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에 일거에 이를 섬멸하고자 오후 5시경 본인 등은 잠복가옥을 향해 급히 가는 도중 거동이 수상한 만주인 8명을 맞아 검문한 바 권총을 소지하고 발포하므로 곧바로 이에 응전하여 오지로 격퇴하였다. 이어 적이 있는 가옥으로 급히 갔더니 적은 재빠르게도 이것을 알고 일제히 맹사격을 가해 왔으므로 본인 등은 침착하고 용감하게 지물을 이용하여 적전 약 5미터의 지점까지 육박하며 맹공격을 가해 마침내 비적 수괴 이창준(李昌俊)을 사살하고 다른 자들을 격퇴하였으며, 러시아식 장총 2정과 탄약 기타 다수를 노획하였다.

8. 1937년 3월 3일 조선비적 강익순 이하 10명이 집안현 제3구 모로(模路)에서 조선 내 침입을 기도하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에 기선을 제압하여 이들을 격멸하고자 본인은 요시다(吉田) 부장 외 9명과 함께 본서로부터 지원해 온 고오노(河野) 경부보 이하 9명과 합대하여 오전 4시에 월경하여 집안현 제3구 피조구(皮條溝) 동구(東溝) 계곡의 독립가옥에 잠복 중인 조선비적 혁명군 제3중대 제1소대 무등병 최화선(崔化善)이라는 자를 체포하고 오후 10시 30분에 조선쪽으로 철수하였다.

9. 조선혁명군 총사령 김활석(金活石) 및 최종윤 이하 약 70명의 조선비적단이 잠복하고 있는 환인현(桓仁縣) 제3구 신개령(新開岺)과 문장차(門庄岔)의 산채를 공격하여 섬멸하기 위해 본인은 고오노(河野) 경부보 외 48명과 함께 총지휘관 오오와다(大和田) 고등과장의 지휘하에 1937년 3월 20일 집안현 제3구 외차구로 월경하여 오전 7시 30분에 신개령 산채에 돌입하였으나, 적은 이미 도주한 뒤였으므로 다시 부근을 수사하고 돌아오는 중에 조선비적 1명을 확인하고 곧바로 그를 체포하고 대형 모젤 권총 1정과 탄약 27발을 압수하였다.

이상의 공적이 특히 현저하여 두서의 상격이 있다고 인정한다.

〈출전 : 「功績調書(金贊熙)」, 『昭和14年度 功勞賞ニ關スル書類綴滿洲事變第3次行賞』, 국가기록원 소장〉

14) 김철홍(金哲弘)

조선총독부평안북도 순사　김철홍(金哲弘)
(조선총독부 도순사 후창경찰서 근무)

위 사람은 1931년 9월 18일부터 1934년 3월 31일까지 국경제일선에서 근무하면서 만주사변을 맞아 비적의 소탕 진압과 기타 국경경비근무에 밤낮으로 불면불휴하며 압록강변의 경비에 임함과 함께 조선내를 침입하려는 비적과 교전 그들을 격퇴함으로써 적의 기선을 제압하고 월경 소탕하여 이주 조선인의 보호구조에 종사하고 출동부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종 복잡다단한 근무에 복무함으로써 선만국경지대의 치안을 확보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는데 그중,

1. 1932년 6월 이후 대안 임강현(臨江縣), 장백현(長白縣)에서 자칭 구국애민철갑군(救國愛民鐵甲軍) 총사령 대도회 노사 여해정(呂海亭)의 일파 대도회비 약 1000명이 봉기하여 이주 조선인을 살상, 능욕, 약탈하는 외에 조선 내 침입을 꾀하여 50명 내지 300명의 10개 부대로 나누어 압록강 기슭으로 진출하여 준동하였으므로 엄중 경계하던 중,

1) 1932년 8월 16일 오전 11시 20분 대도회 노사 여해정의 부하 약 170명이 임강현 육도구 시가를 점거하여 전 공안분국 및 육군청사 기타 중요건물에 거점을 두고 조선 측 습격을 획책하여 약 80명이 당당히 대오를 정비하고 강안에 나타나 2개 부대로 나누어 1개 부대는 부흥경찰관주재소 정면 강안, 다른 1개 부대는 육도구 입구 강안에 산개하여 주재소 및 부근 민가에 일제히 발포하였다. 그들과 우리의 거리는 300미터 내지 500미터로서 본인은 순사부장 가네마루(金丸眞一)가 지휘하는 경찰부대 24명에 참가하여 곧바로 주재소 및 부근 참호에 들어가 응전하였는데 적은 자신들의 세력이 많아 경찰대의 월강이 불가능함을 알고 완강히 저항하여 적탄이 우리 산병선 및 주재소에 집중하였으나 본인 등은 용감하게 약 100미터의 강기슭으로 약진하여 유효과감한 사격을 가해 적 4명을 사살하여 궤주시켰다.

2) 그날 오후 3시 위 적은 다시 그곳에 나타나 조선쪽 민가 및 주재소에 발포하였으므로 본인은 순사부장 가네마루(金丸眞一) 외 23명과 함께 주재소 및 부근 참호에 산개하여 맹사격을 가하며 약 30분간 교전하여 그들을 후방 밀림속으로 격퇴하였다. 계속해서 경계하던 중 그날 오후 5시 50분 위 적이 대오를 정비하여 3차례 같은 장소에 나타나 우리가 월경하지 못함을 조롱하며 도전해 왔으므로 본인은 순사부장 가네마루(金丸眞一) 외 23명과 함께 곧바로 산개하여 그에 응사하고 다시 강기슭까지 약 100미터를 전진하여 유효한 사격을 가해 적의 지휘자로 보이는 자 1명과 다른 4명을 사살하고 수명에게 부상을 입혀 격퇴하고 곧바로 월경 추적하여 오지로 궤주시키고 장창 2본을 압수하였다.

3) 8월 17일 오후 6시 30분 육도구에 근거를 둔 대도회비 약 20명이 산위 약 400미터 지점에서 부흥경찰관주재소 상류 약 10정의 민가와 경계 중이던 본인 등에게 일제히 발포하여 습격하였으므로 본인은 다른 1명과 함께 곧바로 이에 응사하여 약 20분간 교전 끝에 적을 격퇴시켰다.

4) 8월 19일 오후 10시 30분 대도회비 약 110명이 육도구 전 공안분국 망루 밑 대안 고지로부터 부흥경찰관주재소 및 부근 민가에 사격하므로 본인은 경부보 나까가키(中垣勇雄)의 지휘에 따라 경찰대

원 23명 중에 들어가 주재소 및 부근 참호에 거점하고 곧바로 이에 응사하여 오후 0시 적 2명을 사살하고 침묵시켰다.

5) 그날 오후 5시 10분 전 공안분국 망루에 있던 적 30명이 부흥경찰관주재소 대안 고지에 나타나 그곳에 있던 약 100명과 합류하여 우리에게 일제히 사격을 시작하였으므로 곧바로 응사하여 적 3명을 사살하고 수명에게 부상을 입혀 마침내 후방 산속으로 격퇴하였다.

6) 8월 20일 새벽 본인은 경부보 나까가키(中垣勇雄)의 지휘에 따라 경찰대원 23명 중에 들어가 주재소 및 부근 참호에서 경계하던 중 오전 4시 35분 대도회비의 일단이 육도구 서쪽 포대 및 전 공안분국 망루 사이를 왕성히 왕래하며 전투준비를 갖추고 있던 적을 발견하고 일제히 사격하여 오전 5시 30분까지 적 3명을 사살하고 수명에게 부상을 입혀 적을 격퇴하였다.

7) 8월 22일 오전 11시 50분 육도구에 있던 대도회비 약 20명이 강안 산기슭에 나타나 조선쪽 교통자 및 부흥경찰관주재소에 일제히 발포하여 습격하였으므로 강안경계 중이던 본인은 다른 1명과 함께 곧바로 조선쪽 강안으로 약 100미터 가량 진출하여 적에게 맹사격을 가하며 약 30분간 교전 끝에 적 1명에게 부상을 입혀 격퇴하였다.

8) 8월 25일 오후 0시 30분 육도구에 근거를 둔 대도회비의 일부 약 15명이 대안 압록강가에 진출하여 부흥경찰관주재소 앞 조선쪽 교통자에게 발포하여 사격하였으므로 본인은 다른 2명과 함께 주재소 앞 강안으로부터 즉시 그에 응사하여 약 40분간 교전 끝에 적 2명을 사살하고 수명에게 부상을 입혀 궤주시켰다.

9) 8월 26일 오전 7시 10분 부흥경찰관주재소에서 약 600미터 떨어진 육도구 전 공안분국 망루에 근거한 대도회비 약 100명이 부흥경찰관주재소 및 부근 민가에 발포하므로 본인은 경부보 나까가키(中垣勇雄)의 지휘에 따라 경찰대원 27명 중에 들어가 곧바로 공격대형을 정비하고 적의 행동을 주시하던 중 오후 2시 20분 대안 육도구 상류 자피동(自皮洞) 강성(崗城) 방면으로부터 동일계통으로 보이는 약 200명의 비적이 나타나고 또한 육도구 시내에 있던 적 약 100명이 거리 400미터의 강기슭에 진출하여 발포하므로 곧바로 그에 응전하여 격전 분투끝에 적 6명을 사살하고 십수명에게 부상을 입혀 적을 육도구 시가 및 후방 산림속으로 격퇴하였다.

10) 8월 27일 오후 8시 15분 부흥경찰관주재소 대안 육도구에 거점을 둔 적 1개 부대 약 40명이 일제히 발포하여 주재소 하류 5정의 조선 내 강기슭을 경계 중이던 본인 등과 민가를 습격하므로 본인은 순사부장 아마노(天野勳) 외 1명과 함께 곧바로 강안에 산개하여 그에 응전하여 약 20분간 교전 끝에 적 1명을 사살하고 그들을 격퇴하였다.

11) 8월 27일 오전 10시경 대도회비 약 30명이 육도구 자피동 600미터 지점으로부터, 또한 비적 30명이 부흥경찰관주재소 대안 400미터 고지로부터 자연지물을 이용하여 조선쪽에 발포하며 도전하였으므로 본인은 순사부장 카미하라(神原一雄) 외 10명과 함께 곧바로 응사하며 약 100미터 강기슭으로 진출하여 일제히 사격을 가해 적 4명을 사살하고 격퇴하였다.

12) 9월 1일 오후 0시 5분 대도회비 약 70명이 부흥경찰관주재소 대안 고지로부터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발포함에 따라 본인은 경부보 나까가키(中垣勇雄)의 지휘에 따라 경찰대원 28명 중에 들어가 곧바

로 응사하며 맹사격을 가해 약 50분간 교전 끝에 적을 격퇴하였다.

13) 퇴각한 적은 육도구에 있던 비적을 규합하여 약 150명으로 밤을 이용해 일거에 부흥경찰관주재소를 습격할 계획이었다. 이에 적의 기선을 제압코자 오후 6시 30분 본인은 경부보 나까가키(中垣勇雄)의 지휘에 따라 경찰대원 17명과 함께 도선을 이용하여 월경해 흥경찰관주재소 대안 고지에 올라 육도구 전 공안분국 청사 후방 고지에 나타나 그곳으로부터 적의 배후를 공격해 약 200미터의 거리로부터 맹사격을 가해 적 3명을 사살하고 십수명에게 총상을 입혀 격퇴하였다.

14) 9월 2일 오전 9시 5분 육도구 대도회비 약 50명이 후창영림서 뗏목 5척 및 조선인 뗏목 3척이 떠내려오는 것에 대해 돌연 발포하므로 본인은 경부보 나까가키(中垣勇雄)의 지휘에 따라 경찰대원 28명 중에 들어가 부흥경찰관주재소 앞 참호에서 곧바로 응사하여 뗏목을 무사히 내려보냈다. 그날 오후 11시 30분 위 적의 일부가 다시 육도구 전 공안분국 600미터 지점의 망루로부터, 다른 일부 20명은 소육도구 암음 4000미터 지점에 근거하고 양쪽의 적이 서로 호응하여 조선쪽을 향해 발포하였으므로 곧바로 맹사격을 가해 적 3명을 사살하고 궤주시켰는데 일부는 전 공안분국 망루 등에서 완강히 저항하며 대치에 들어갔다.

15) 9월 4일 육도구 대도회비 일부 약 70명이 부흥경찰관주재소 대안 소육도구 고지에 나타나 참호에 들어가 조선쪽 교통자 및 민가와 부흥경찰관주재소에 발포하였다. 본인은 경부보 나까가키(中垣勇雄)의 지휘에 따라 곧바로 주재소 부근 참호에 들어가 응사하여 수분간 교전 끝에 적 3명을 사살하고 2명에게 총상을 입혀 격퇴하였다.

16) 9월 5일 군대수송을 위해 압록강 윤선공사 비행선이 뜬다는 중강경찰서로부터의 보고가 있어 본인은 경부보 나까가키(中垣勇雄)의 지휘에 따라 경찰대 24명중에 들어가 임강현 육도구와 마주보는 강기슭 일대를 경비경계하던 중 오후 6시 10분경 대안 소육도구 약 400미터 지점에 잠복하고 있던 대도회비 약 30명이 돌연 산개하여 우리 경찰대에 발포하며 도전하였으므로 본인 등은 곧바로 산개하여 이에 응사하여 격전하던 중 오후 6시 30분 군대수송선 비행선이 떠오르자 적이 이에 대해 일제히 사격을 가했으므로 승선한 육군병도 곧바로 응전하여 강과 육지에서 서로 호응하여 맹사격을 가해 8명을 사살하고 10명에게 부상을 입혀 패주시켰는데 비행선은 무사히 상륙하였으며 비행선 뒷부분에 적탄 수발이 명중하였음에도 인명피해는 없었다.

17) 9월 4일부터 장백현 팔도구와 임강현 칠도구의 대도회비 토벌을 위해서 온 강계 집성 제1중대장 보병대위 김인욱(金仁旭) 이하 140명이 9월 7일 새벽을 기해 오지방면으로부터 조선쪽을 향해 육도구의 대도회비 소탕을 시작하였으므로 본인은 경부보 나까가키(中垣勇雄)의 지휘에 따라 경찰대원 27명 중에 들어가 오전 5시 월경하여 부흥경찰관주재소 대안 육도구 전 공안분국 뒷산으로부터 서방 소육도구 방면으로 도주하는 비적에게 맹사격을 가해 적 3명을 사살하고 장총 3정, 탄약 60발, 기타 잡품 다수를 압수하여 오전 11시 돌아왔다.

18) 9월 8일 오전 10시 본인은 경부보 나까가키(中垣勇雄)의 지휘에 따라 9월 7일 강계수비대 제1중대와 협동으로 대도회비의 소탕을 위해 임강현 육도구로 월경하여 대도회비의 근거지인 공안분국 육군병사 및 동서 양 포대의 망루 6개소를 파괴하고 대도회비가 다시는 근거지로 삼지 못하도록 화근을 일

소함으로써 조선 내 인민으로 하여금 안정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민심을 안정시켰다.

이상과 같이 공적이 특히 현저하여 두서의 상격이 있다고 인정한다.

〈출전 : 「功績調書(金哲弘)」, 『昭和11年 功勞賞ニ關スル書類綴, 滿洲事變行賞(第1次)』, 국가기록원소장〉

15) 김홍육(金弘六)

조선총독부평안북도 순사 김홍육(金弘六)
(조선총독부 도순사 삼장경찰서 근무)

위 사람은 1931년 9월 18일 이래 함경북도 국경제일선 삼장경찰서에서 밤낮으로 계속 국경경비에 임했는데 1931년 9월 만주사변이 발생하고 다시 왕덕림(王德林)의 반란에 이어 1932년 4월 대안 화룡현(和龍縣) 혼동(溷洞)수비대 잔류병의 탈주 이래 대안 일대는 비적이 횡행하여 소란에 빠져있었다. 그런데 그 비적이라는 것이 종래의 비적과 달라 소위 반만항일을 목적으로 조직된 구국군으로 용맹과감한 행위가 세상에 이미 정평이 나있는 저들은 재만 조선인을 살육 박해하고 그 여세를 몰아 조선 내 국경을 침입하려고 수차례에 걸쳐 조선 내로 향해 도전 발포하는 등 대담한 행동을 하여 조선 내 민심을 자극하였으므로 이 때문에 민심은 현저히 불안동요하고 변강의 치안은 일대 위기에 빠졌다. 이에 상사의 지휘명령을 준수하여 침식을 잊고 불면불휴 진실로 신명을 바쳐 적지 깊숙이 월경 출동하여 항상 유효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19사단 삼장수비대 및 경찰대 활동을 돕고 치안의 유지에 진력하였는데 특히,

1. 1932년 6월 26일 오전 2시경 무산군 삼장면 하사동(下四洞) 대안 만주국 안도현(安圖縣) 홍기하사(紅旗河社) 상가곡(喪哥曲)에 수백 명의 비적이 습격해 와서 조선인 사장 집에서 가족 5명을 학살하고 3명에게 빈사의 중상을 입혔으며 다시 조선 내 침입을 꾀하며 조선내지를 향해 발포 도전하여 왔으므로 이를 토벌하기 위해 제19사단 제3수비대(삼장) 아오끼(青木) 중위 이하 30명과 협동하여 그 선도로 오전 1시경 상사동(上四洞)으로부터 월경하여 삼수평(三水坪) 뒷산을 점령하고 발포하며 비적을 포위하여 수비대 제일선 좌익에 연계하여 약 200미터 떨어진 비적의 우익으로 육박하였는데 그때 돌연 산속으로부터 약 30명의 비적이 홍창을 휘두르며 수비대의 좌익으로 함성을 지르며 역습함으로 우리 측이 지형상 고전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전분투하여 동료 미나미(見波) 순사 및 수비대병 수명과 협력 용감히 그들과 맞서 맹렬한 격투 약 40분에 그 반 이상을 사살하여 격퇴하고 본대를 위험에서 구출하였다. 다시 솔선하여 선두에 서서 산위 목표를 향해 돌격하여 마침내 사체 약 50구를 버려두고 궤주하는 비적을 추격하여 부상자 20명을 포로로 하고 오후 5시 귀환하였는데 이때 약 5시간에 걸쳐 용감기민하게 분투하여 수비대로 하여금 전첩을 얻도록 하였다.

2. 이상과 같은 대안 상황으로 인해 대안에서 월경경작하는 농민은 모두가 극도의 공포에 빠져 마침내 월경경작을 단념하는 자가 속출하기에 이르렀으므로 그들의 보호경계를 위해 삼장부대장의 지휘를

받아 월경 출동한 것이 17회에 이르러 마침내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

이상의 공적이 특히 현저하여 두서의 상격이 있다고 인정한다.

공적현인서

삼장경찰서 근무 조선총독부 도순사 김홍육(金弘六)

1932년 6월 26일 삼장출동부대가 삼수평 부근을 토벌할 때 통역으로 동행 도중 배가곡(裵哥曲) 토노봉(土老峰) 등지에서 각종 정보수집에 힘썼으며, 이후 삼수평 부근에서 전투가 시작되자 우리의 5배가 되는 우세한 적과 교전하여 실로 5시간 동안의 고전에 빠졌음에도 침착하게 전투에 잘 임했으므로 그 공적이 현저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상 현황을 인정한다.

1932년 6월 26일

삼장수비대출동부대장 육군보병 중위 아오끼(青木善之助)

〈출전 : 「功績調書(金弘六)」, 『昭和11年 功勞賞ニ關スル書類綴, 滿洲事變行賞(第1次)』, 국가기록원소장〉

16) 노주봉(盧周鳳)

의서(擬敍) : 사금(賜金) 120

상격(賞格) : 훈로(勳勞) 을(乙)

주공관등(奏功官等) : 판(判) 3

1940년 4월 29일 현재 관직 : 조선총독부 전라남도 경부

성명 : 노주봉(盧周鳳)

생년월일 : 1900년 7월 23일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40년 4월 28일, 계 9월 22일

주공관직 : 경찰부 고등경찰과 과료 광주경찰서 병사방공주임 경부

공적사항

1. 군사행동 직접 원호에 관한 업무

별지 공적현인서와 같음.

2. 군사기밀 보호에 관한 업무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경찰부 고등경찰과 과료로서 각 서 직원을 지도하여 군사법규 단속, 육군형법위반 예방단속에 종사하였다.

3. 동원소집에 관한 업무

광주경찰서 병사주임으로 17회 동원소집사무를 담당하여 123명의 응소자를 무사히 입대시켰다.

4. 방공에 관한 업무

광주방공감시대 부대장으로 대원을 지도 독려하였다.

〈출전 : 「功績調書(盧周鳳)」, 『支那事變功績調書』 朝鮮總督府 卷6,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17) 박근수(朴根壽)

조선총독부 도경시 종7위(경상남도 경찰부 보안과장) 박근수(朴根壽)

위 사람은 경상남도경찰부 보안과장으로서 재직 중 1931년 9월 11일부터 1934년 3월 31일에 걸치는 동안 일본 부대의 만주출동 전후를 통해 231회에 미쳤는데, 사변 직후 히로사키(弘前) 혼성제8여단이 부산을 상륙해서 통과할 당시에는 세론이 극히 혼란스러웠으므로 군대 및 군수품의 수송경계를 가장 엄밀하게 실시했다. 그런데 그 후 사변의 자극에 의하여 민심이 더욱 더 흥분하여 극우와 극좌의 행동이 발생하고, 민심이 더욱 첨예화하고 유언비어가 한창 성행하여 대구 역전에서 반전 전단지가 살포되는 사건에 이어 부산헌병분견대에서 반전비라사건, 혹은 청도 부근에서 군용열차전복사건, 또한 장학량(張學良) 휘하의 편의대가 평양에 잠입했다는 정보가 있었다. 안팎으론 사상의 착란으로 매우 혼란한 가운데에 군대수송 및 군수품의 수송을 감행했는데 원래 부산이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점에 위치하였고, 선박수송과 철도수송의 분기점으로서 경계할 장소도 바다가 있고 철도연선이 있어 경계방법도 역시 극히 복잡다단하지만, 민심의 추이를 잘 살펴서 부하직원을 지휘 감독하여 시종일관 필사적인 노력을 하였다.

1931년 12월 29일 오전 2시 조선군사령부의 의뢰에 의하여 군용자동차 징발에 관한 전화가 오자, 곧바로 부하직원을 지휘하여 자동차 관계자와 절충한 뒤 엄밀하고 또한 신속한 조사를 해서 우수한 자동차 15대와 이에 종사할 운전수 30명의 인선과 차용계약을 하고 명령 한마디로 24시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우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에 완전을 기했다.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이 발발하자 본인은 보안과장으로서 통신망이 중요함을 통감하고, 특히 사변의 진전에 따라서 민심의 동요결과에 따른 전신전화 기타의 통신기관에 대한 불온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방면과 협동을 하였는데 민심이 동요하여 극히 첨예화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고가 없었던 것은 오로지 불면불휴로 통신전화의 보호경계에 노력한 결과이다.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본인은 보안과장으로서 등화관제 사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즉시 부하직원을 지휘하거나 혹은 진해요새사령부의 각 전기사용자 및 관계자들과 수차례 협동하며 불면불휴로 등화관제의 실제응용을 맡아서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 만주사변 발발 이래 매우 중요한 사무에 종사하며 군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수송상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한 자로서 그 공로가 크므로 두서의 상격이 있다고 인정한다.

〈출전 : 「功績調書(朴根壽)」, 『昭和11年 功勞賞二關スル書類綴 滿洲事變行賞(第1次)』, 국가기록원 소장〉

18) 박명석(朴命石)

의서(擬敍) : 사금(賜金) 80
상격(賞格) : 공로(功勞)
주공관등(奏功官等) : 판(判) 3
1940년 4월 29일 현재 관직 : 조선총독부 경상남도 경부
성명 : 조림건용(鳥林建勇)
생년월일 : 1895년 1월 27일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7년 9월 30일, 계 2개월 24일
주공관직 : 경상남도 울산경찰서 사법주임 경부
공적사항

1. 군용물자 조달, 군수품 공출 조달에 관한 업무
   군용말과 식량, 군마, 모피, 돈피 공출에 종사한 것이 3회
2. 중국인 보호지도 등에 관한 업무
   재류 중국인 보호시찰에 종사한 것이 14회로 아무런 사고가 없도록 하였다.
3. 방위에 관한 업무
   비행장, 무전국 기타 중요 물건 경계에 종사한 것이 11회

주공기간 : 1937년 10월 1일 ~ 1939년 2월 17일, 계 1년 4개월 17일
주공관직 : 경상남도 마산경찰서 사법주임 경부
공적사항

1. 군사수송 경계에 관한 업무
   군대와 군수품 수송 경계에 종사한 것이 30회

주공기간 : 1939년 2월 18일 ~ 1939년 12월 3일, 계 9개월 16일

주공관직 : 경상남도경찰부 고등과 사찰주임 경부

공적사항

1. 군사수송 경계에 관한 업무

군대와 군수품 수송, 경찰 사찰에 종사한 것이 31회로 아무런 사고가 없도록 하였다.

2. 방첩에 관한 업무

부산은 중요한 병참기지인 관계상 방첩공작의 방법으로 도내의 간첩용의자 조사 및 외사요시찰인물에 대한 감시, 부산역과 교량의 방첩망 강화를 위해 1939년 7월 고등과에 외첩반을 조직하여 외부사찰을 실시하였다.

1939년 고등과에 무저기술자를 두어고용해 용의전파의 발견에 노력하였다.

3. 유언비어 기타 시국범죄의 방지, 단속, 검거에 관한 업무

유언비어 등의 단속에 관해서는 관계방면과 긴밀한 연락하에 엄벌로서 이에 임한 결과 아무런 사고가 없도록 하였다.

4. 신문 및 출판물의 지도, 단속에 관한 업무

사변하 군사기밀 보호와 민중지도, 국론통일 등의 견지에서 엄중한 검열방침으로 이에 임해 일본으로 수출입하는 신문과 출판물에 대해서도 아침, 저녁 2회씩 검열하여 사고의 전멸을 기하였다.

주공기간 : 1939년 12월 4일 ~ 1940년 4월 28일, 계 4개월 25일

주공관직 : 경상남도 북부산경찰서 사법주임 경부

공적사항

1. 방공방첩에 관한 업무

1940년 2월 7일부터 1940년 3월 31일까지 방공실시 중 방공경비에 복무하였다.

2. 방위에 관한 업무

군대 숙박지, 군수품 적재지 기타 중요한 시설의 경계에 종사한 것이 38회로 사고가 없도록 하였다.

〈출전 : 「功績調書(鳥林建勇)」, 『支那事變功勞者功績調書』 朝鮮總督府 卷12,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19) 박명진(朴明鎭)

의서(擬敍) : 사금(賜金) 70
상격(賞格) : 공로(功勞)
주공관등(奏功官等) : 판(判) 4
1940년 4월 29일 현재 관직 : 조선총독부 충청남도 경부보
성명 : 박명진(朴明鎭)
생년월일 : 1907년 2월 25일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8년 9월 2일, 계 1년 1월 26일
주공관직 : 서산경찰서 사법주임 경부보
공적사항
1. 방공에 관한 업무
1937년 8월 20일 경성지구 요지에 응급방공이 하령되자 다음해인 1938년 1월 17일까지,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5월 27일부터 7월 14일까지 3회에 걸친 방공 하령에서 경찰서의 간부로서 서장의 명을 받들어 관내 서산, 대산, 태안, 근흥, 해미의 각 감시초소의 지휘와 감독을 맡아서 그 직책을 완수하였다.

2. 여론 환기와 국방사상의 보급 선전에 관한 업무
시국좌담회, 강연회, 연극을 21회에 걸쳐서 개최하여 여론 환기와 국방사상의 보급 및 선전에 노력한 결과, 시국을 확실하게 인식하여 국방헌금으로 거둬들인 것이 18건 816원에 달했다.

주공기간 : 1938년 9월 3일 ~ 1940년 4월 28일, 계 1년 7월 26일
주공관직 : 예산경찰서 사법주임 경부보
공적사항
1. 여론 환기와 국방사상의 보급과 선전에 관한 업무
시국좌담회, 강연회, 연극을 23회에 걸쳐 개최하여 여론 환기와 국방사상의 보급 및 선전에 힘쓴 결과 시국을 확실하게 인식하여 국방헌금으로 거둬들인 것이 13건 341원 20전에 달했다.

〈출전 : 「功績調書(朴明鎭)」, 『支那事變功勞者功績調書』 朝鮮總督府 卷8,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20) 박을수(朴乙守)

[20-1]

공로 갑
조선총독부 함경북도 경부 판임관 3등 박을수(朴乙守)
(경원경찰서 근무, 회령경찰서 근무)

위 사람은 1931년 9월 18일부터 1932년 11월까지 함경북도 국경제일선 경원(慶源)경찰서에, 또한 1933년 9월 12일 이후 회령(會寧)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오로지 국경경비에 복무하였다. 당시 훈춘현(琿春縣) 토문자(土門子)에 주둔 중이던 동북육군 제8단 제2영장 왕옥진(王玉振)이 1932년 4월 반란을 일으키자 로만국경에 퍼져있던 대도회비(大刀會匪)와 홍창회비(紅槍會匪) 등 마적 및 간도와 훈춘 각지에 잠재해 있던 공산당원 등이 일제히 봉기하여 서로 호응하여 간도와 훈춘 지방에 혼란을 획책하여 무릇 포학이 그치지 않음으로써 마침내 간도와 훈춘 지방은 완전히 소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그 기간 헌신적 노력을 바쳐 비적 침입의 방지에 노력하였는데 그중

1. 4월 3일 경원수비대에서 새벽을 기해 출동한 마츠바시(松橋) 대장이 이끄는 50명의 훈춘파견대의 수송을 맡아 조선과 만주의 연도 12킬로미터 사이에 부하 17명을 배치하고 이를 지휘하여 그 수송 및 전신선 등의 보호경계에 임하였다.

2. 이어 그해 9월 15일 오후 9시경 만주국 훈춘현 사토자(沙土子)에 비적 50명이 습격해 와서 조선 내를 습격하려고 경비의 틈을 엿보고 있었으므로 곧바로 서장의 명을 받아 경원부대원 10명을 인솔하여 두만강을 넘어 유다도(柳多島)로 출동하였는데 피습당한 사토자의 주민들이 가족을 이끌고 야음을 틈타 속속 조선쪽 유다도로 피난하여 왔으므로 피난민의 구호를 맡음과 동시에 부하를 지휘하여 경계를 엄중히 하여 비적으로 하여금 조선 내 침입의 틈을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조선 내의 치안을 확보하였다.

3. 1933년 11월 6일 회령군 학포(鶴浦) 대안에 공산당의 비밀결사가 있다는 것을 탐지하고 대안 관헌에게 알려주어 관계자를 검거하고 다시 사백사(四白社)에 거주하는 심창룡(沈昌龍) 외 다수의 공비 연루자를 발견하여 영사관경찰서분서에 알려주어 비적 소탕을 용이하게 하였다.

4. 1934년 2월 7일부터 9일까지 아사히카오(旭川) 제7사단 스기하라(杉原)부대의 만주 열하(熱河) 출동,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제8사단 히라다(平田)부대의 조선내지 귀환, 3월 5일부터 7일까지 만주파견부대의 수송,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및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주만부대 조선내지귀환 등이 있을 당시에 관내 철도연선 48킬로미터 7개 역의 경계에 종사하여 군대 및 군수품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이상의 공적이 특히 현저하여 두서의 상격이 있다고 인정한다.

〈출전 : 「功績調書(朴乙守)」, 『滿洲事變功績調書』 朝鮮總督府 卷33, 1940년 7월 25일,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20-2]

의서(擬敍) : 사금(賜金) 90
상격(賞格) : 공로(功勞)
주공관등(奏功官等) : 판(判) 2
기초훈장(基礎勳章) : 서(瑞) 8등, 정례(定例)
1940년 4월 29일 현재 관직 : 조선총독부 함경북도 경부 훈8등
성명 : 송정삼천웅(松井三千雄)
생년월일 : 1900년 1월 22일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8년 11월 24일, 계 1년 4월 13일
주공관직 : 함경북도 성진경찰서 사법주임 도경부
공적사항
1. 동원 소집에 관한 업무
1) 1937년 8월 17일 제19사단에 임시소집이 하령되자 서장을 보좌하여 이것의 실시 및 경계를 맡아 지장이 없게 하였다.
2) 1938년 8월 10일 제19사단에 동원이 하령되자 서장을 보좌하여 이것의 실시 및 경계를 맡아 지장이 없게 하였다.
3) 1938년 9월 9일 제19사단에 임시소집이 하령되자 서장을 보좌하여 이것의 실시 및 경계를 맡아 지장이 없게 하였다.

2. 군사수송경계에 관한 업무
북만파견부대가 관내를 통과할 때 이의 경계를 실시하였다.

주공기간 : 1938년 11월 25일 ~ 1940년 4월 28일, 계 1년 3월 4일
주공관직 : 함경북도 나진경찰서 사법주임 겸 위생주임 도경부
공적사항
1. 군사수송 경계에 관한 업무
1939년 1월 2일부터 1940년 4월 24일까지 기간 중 24회에 걸쳐 일본으로부터 만주로 건너가는 부대가 상륙하거나 일본으로 귀환하는 부대가 수송하여 통과할 때 이에 대한 경계에 종사하였다.

2. 군용물자의 공출에 관한 업무
경찰서원을 독려하여 조선군 나남지고장(支庫長)의 의뢰에 따른 돈피공출에 전력하였다.

〈출전 : 「功績調書(松井三千雄)」, 『支那事變功勞者功績調書』 朝鮮總督府 19,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21) 송희주(宋希胄)

고 조선총독부 도순사 송희주(宋希胄)
(조선총독부 도 순사 위원경찰서 근무)

위 사람은 1931년 9월 18일부터 1932년 8월 21일에 이르는 기간에 국경제일선에서 만주사변에 따른 비적의 소탕과 진압, 기타 근무에 복무하여 밤낮으로 불면불휴 압록강 기슭의 경비와 경계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위원경찰서 대안 집안현(輯安縣) 지방에서는 1932년 3월 이후 비적수괴 당취오(唐聚五)의 일파 병비 2천5백 명, 비적수괴 류노하(劉老河) 외 수명이 이끄는 대도회비 약 500명이 봉기하여 반만항일을 표방하며 이주 조선인을 살육, 약탈, 능욕하는 외에 조선 내 침입을 기획하여 수차례 압록강 기슭에 나타나서 준동하고 국경지대에서 치안을 위협하는 일이 매우 심했다. 그런데 그해 12월 7일 제3월강부대가 집안현 외차구(外岔溝)에 월강하여 진출하게 됨에 미쳐 그 행동이 점차로 격화하여 외차구 탈환을 목적으로 대거 역습을 감행하고 여러차례 격렬한 전투를 야기했다. 이에 그달 9일 비적토벌을 위해 출동한 외차구 주둔부대 니시가키(西垣) 소대는 집안현 유수림자(楡樹林子) 부유가(富有街)에서 약 2천 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그곳 민중자위군 엽홍달(葉鴻達)이 이끄는 병비 2백 명과 충돌하여 이를 격퇴하고 부유가를 점령했다. 그런데 패주한 적이 집안현 쌍차하(雙岔河)에 준거하고 있던 대도회비 3백 명의 지원을 받아 갑자기 역습해 왔으나 때는 이미 니시가키(西垣) 부대가 철수한 뒤였으므로 일거에 조선내로 습격하기 위해 위원경찰서 신천경찰관출장소의 대안인 유수림자 강입구까지 진출하여 6월 10일 오후 1시경부터 신천출장소를 향해 발포하며 습격을 시작하였다. 이에 본인은 순사부장 나까(奈加秀吉) 외 7명과 함께 이에 응전하여 적을 침묵시켰으나, 시내로 달아난 병비들은 그날 오후 4시경 또다시 각 상점의 망루와 부근 산속 및 강기슭에 산개하여 신천출장소를 향하여 사격을 시작하였으므로 때마침 응원을 위해 도착한 위원경찰서장 이시이(石井勇) 지휘하의 대원 41명과 함께 적에게 맹사격을 가했으나 적이 시가에 근거를 두고 있어 사격효과가 적어 서로가 대치한 채로 밤이 되었다.

이후 적은 유수림자 강입구 시내에 숨어 간헐적으로 조선 내를 향해 사격하고 경찰관은 이에 응사하던 중, 다음날인 6월 11일 제3월강부대 도케마루(得丸) 소위 이하 33명이 신천경찰관출장소에 도착하였으므로 서장 이시이(石井勇)는 군대와 협력하여 유수림자 강입구의 적을 소탕하기 위해 본인 외 31명을 이끌고 6월 12일 오전 5시 월경하여 그곳 서북쪽 산허리에 산개하여 군경 협력으로 적에게 맹사격을 퍼부어 교전 약30분만에 적 30명을 사살하고 오지 유수림자 방면으로 격퇴하였다. 그 후 대안에서는 적의 그림자를 볼 수 없었고 한때 소강상태을 유지했으나 오지에서는 여전히 우세한 적이 잠복하고 있어서 그 동정의 탐지가 경비대책상 가장 필요하였으므로 위원경찰서장 경부 이시이(石井勇)는 그 정찰을 본인에게 특명하였다. 이에 따라 본인은 변장을 하고 대안으로 월경하여 대단히 위험한 곳에 들어가 귀중한 자료를 수집 보고하여 경비대책상 많은 공적을 올리고 있었는데, 1932년 8월 21일 오전 9시경 전과 같이 집안현 유수림자 강입구로 가서 각종 정보를 얻어 돌아오던 도중 그곳 왕(王) 모의 집에 용의

자 몇 명이 잠복하고 있다는 밀고를 받고 밀정 2명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부근에 잠복하고 있던 비적 약40명에게 포위되었으므로 본인은 곧바로 갖고 있던 모젤 권총으로 용감하게 이에 응전하며 약 30분에 걸쳐 분투했으나 중과부적으로 마침내 하복부 및 목에 관통총상을 입고 그날 오후 7시경 장렬히 순직하게 되었다.

이상의 공적이 특히 현저하여 두서의 상격이 있다고 인정한다.

〈출전 : 「功績調書(宋希胄)」, 『昭和11年 功勞賞二關スル書類綴 滿洲事變行賞(第1次)』, 국가기록원 소장〉

22) 양익현(梁益賢)

조선총독부 함경남도 경부 (혜산경찰서 근무) 양익현(梁益賢)

1. 위 사람은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이 발발하여 당시 대안인 중국 장백현의 정세가 급변하여 치안이 극도로 혼란하고 대안의 주민은 물론 조선 내 일반민심의 동요가 심해져 불량도배가 이 틈을 타고 불온행위를 획책할 기운이 있었으므로 부하 직원을 지휘감독하여 불면불휴 그 내사에 노력함과 함께 요시찰인과 요주의인의 언동에 대한 사찰경계에 임해 불온계획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2. 만주사변 발발 이래 대안은 완전히 혼란상태에 빠져 누차 급박함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1932년 5월 14일 원래 장백현(長白縣) 공안대대장이던 이괴무(李魁武)가 동지를 규합하여 반만항일의용군(反滿抗日義勇軍)에 투항함으로 대안의 치안은 한층 급박해졌고 조선 내 민심은 극도로 긴장되었다. 이에 서장의 명을 받아 대안에 잠입하여 다수의 밀정을 파견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부하직원을 감독하여 강안경계의 완벽을 기함과 함께 동요하는 민심의 안정을 도모하는 등 국경경비의 중임을 완수했다.

3. 1932년 6월 6일 대안 만주국의 치안유지를 위해 제19사단 제4수비대가 월강하므로 부하직원을 지휘하여 강안경계의 임무를 맡아 군대의 행동을 원조하였다.

4. 만주사변 이래 대안 만주국의 치안이 혼란하여 마적과 비적이 횡행하며 출몰하여 혹은 민가에 방화하고 또는 부녀를 능욕하고 금품을 강탈하는 등 흉포한 행위를 감행하고 다시 나아가서는 조선 내 침입을 기획하고 있었다. 이에 본인은 첩보근무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대안에 잠입하거나, 또는 다수의 밀정을 사용하여 정확한 정보수집에 노력하거나, 혹은 부하를 지휘하여 강안경계, 야간연락, 유동수사 등 경비경계 및 조선 내 불온분자의 책동 사찰 등 지난한 국경경비근무에 종사하여 그 중책을 완수하였다.

위 사람은 이상 열거한 바와 같이 1931년 9월 18일부터 1934년 3월 31일에 이르는 약 2년 7개월 동안 함경남도 혜산경찰서에서 국경경비 및 이에 관한 첩보근무와 마적, 비적 등 토벌에 종사하여 그 공적이 특히 현저하므로 두서의 상격이 있다고 인정한다.

〈출전 : 「功績調書(梁益賢)」, 『昭和9年 功勞賞二關スル書類綴 滿洲事變行賞(第1次)』, 국가기록원 소장〉

22) 오병욱(吳炳旭)

조선총독부 평안북도 순사 오병욱(吳炳旭)
(위원경찰서 근무)

위 사람은 1936년 7월 10일부터 1937년 7월 6일까지 사이에 국경제일선의 경비에 복무하며 오로지 불면불휴 국경지대의 치안확보에 진력했는데 그 기간 토비에 관한 공적은 다음과 같다.

1. 1936년 9월 12일 구국군 제2연장 중산의(中山義) 이하 30여 명이 집안현(輯安縣) 제2구 유수림자(楡樹林子) 임강구(林江口) 서영곡(西永谷)으로 이동해 와서 우리 월경내사반인 신천출장소에 근무하는 요시하라(吉原) 순사 외 2명의 월경을 기다리다가 일제히 맹사격을 퍼부었으므로 내사반은 곧바로 이에 응전했으나 요시하라(吉原), 정재범(鄭載範) 순사는 적탄에 쓰러졌다.

이 급보를 접한 본인은 송진출장소로부터 급히 지원하기 위하여 사다무네(定宗) 부장 외 13명과 함께 집안현 흑구(黑溝)로 월경하여 적의 퇴로로 보이는 대고력묘자(大高力墓子) 응취립자(鷹嘴砬子)로 급행하여 부근 일대를 수사했으나 적의 그림자를 찾지 못하고 취립자(鷹嘴砬子)에서 고오노(河野) 토벌대와 합류하여 임강구로 철수하였다.

2. 1936년 11월 29일 오후 11시 10분경 조선비적 강익순(姜益順) 이하 7명과 계통불명의 만주비적 10여 명의 합류비적이 대안 집안현 제2구 유수림자 동쪽 언덕으로 이동해 와서 상노약(上老若)감시소를 향하여 치열하게 발포하는 것을 감시소에 근무중이던 후지사와(藤澤) 순사 외 3명이 곧바로 감시소 앞 참호에서 응전하던 중이라는 급보를 받은 본인은 요시다(吉田) 부장 외 5명과 함께 급거 응원 출동하였다. 그 도중에 임강구 강어귀에서 14~15명의 적들이 갑자기 난사하므로 곧바로 산개하여 경기소총으로 맹사격을 가하여 완강하게 저항하는 적을 약 10분만에 격퇴하였다. 그러나 적이 다시 아연 일제사격을 시작하였으므로 우리 또한 이에 응사하였고 교전 약 15분만에 적을 오지로 격퇴하였다.

3. 1936년 12월 9일 오전 10시경 본인은 수석 요시다(吉田) 부장 외 3명의 순사와 함께 대안 임강구로 월경하여 적의 상태를 내사하던 중 집안현 제2구 황차구(荒岔溝) 오지 마석구(磨石溝)(강기슭으로부터 25리) 이주 조선인 박인서(朴獜瑞)의 집에 조선인과 만주인 혼합비적 25명이 잠복하여 임강구 부락 및 신천출장소 습격을 획책 중이라는 내용의 정보를 얻었다. 이에 적의 기선을 제압하여 일거에 격멸하기 위하여 신천출장소로부터 잔류원 이케다(生田) 순사 외 8명의 응원을 요구하여 그와 합대하여 현장으로 향해 급행하였는데 본인은 요시다(吉田) 부장 외 3명과 함께 적의 잠복가옥의 배후 산허리로부터 공격하여 퇴로를 차단하고자 그 집에서 약 150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전진하였는데 적의 보초를 발견하고 일제히 총을 쏘며 이를 사살한 후 집안을 향하여 맹사격을 가하였다. 적이 뜻밖의 공격에 당황낭패하고 있는 것을 알고 금세 우왕좌왕 도망치기 바쁜 적 3명을 사살하였으나 그 집으로부터 재빨리 튀어나온 다른 적들은 모두 골짜기 아래로 도주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그곳에 잠복하고 있던 이케다(生田)반이 곧바로 일제사격을 가하여 여기에서 역시 적 3명을 사살했다. 이렇게 앞뒤가 가로막힌 적은 완전히 절대절명의 궁지에 빠졌기 때문에 부근의 움푹한 곳에 몸을 숨기고 완강하게 저항하며 퇴각의 기세가 없었

으므로 토벌대는 두 부대로 서로 호응하여 교전한 것이 실로 3시간에 이르러 마침내 적 1명을 사살했다. 그런데 당시 이케다(生田)반과는 300미터 이상의 거리가 생겨 양자 간의 연락이 잠시 두절되었으나, 요시다(吉田) 부장은 앞서 순직한 요시하라(吉原) 순사의 복수를 하는 것은 이때다 하고 결심을 하여 돌격명령을 내렸으므로 본인 등은 함성을 올리며 적의 맹사격을 뚫고 적진에 돌입하여 격투를 벌였다. 그리고 금새 야부끼(矢吹), 후지사와(藤澤) 순사는 모두 조선비적 각 1명을, 김찬희(金贊凞) 순사는 만주비적 1명을 그 자리에서 베어 죽이고 다른 적들을 오지로 격퇴했다. 이러한 장시간에 걸친 격전으로 적의 수괴 이하 11명을 사살하고 거의 전멸적 충격을 가하여 대성공리에 그날 오후 7시경 30분에 조선으로 철수하였다.

4. 1936년 12월 30일 위원서 특별경비대 제2분대원인 본인은 요시다(吉田) 부장 외 9명과 함께 적정내사를 위해 집안현 제2구 유수림자 임강구로 월경 중 집안현 제3구 양수천자 세원곡(細遠谷) 독립가옥에 조선비적 4명이 잠복하여 조선 내 습격을 계획 중이라는 확실한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에 일거에 이를 섬멸하고자 오후 5시경 본인 등은 잠복가옥을 향해 급히 가는 도중 거동이 수상한 만주인 8명을 맞아 검문한 바 권총을 소지하고 발포하므로 곧바로 이에 응전하여 오지로 격퇴하였다. 이어 적이 있는 가옥으로 급히 갔더니 적은 재빠르게도 이것을 알고 일제히 맹사격을 가해 왔으므로 본인 등은 침착하고 용감하게 지물을 이용하여 적전 약 5미터의 지점까지 육박하며 맹공격을 가해 마침내 비적 수괴 이창준(李昌俊)을 사살하고 다른 자들을 격퇴하였으며, 러시아식 장총 2정과 탄약 기타 다수를 노획하였다.

5. 1937년 3월 3일 조선비적 강익순(姜益順) 이하 10명이 집안현 제3구 횡로(橫路)에서 조선 내 침입을 기도하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에 기선을 제압하여 이들을 격멸하고자 본인은 요시다(吉田) 부장 외 9명과 함께 본서로부터 지원해 온 고오노(河野) 경부보 이하 9명과 합대하여 오전 4시에 월경하여 집안현 제3구 피조구(皮條溝) 동구(東溝) 계곡의 독립가옥에 잠복 중인 조선비적 혁명군 제3중대 제1소대 무등병 최화선(崔化善)이라는 자를 체포하고 오후 10시 30분에 조선쪽으로 철수하였다.

6. 조선혁명군총사령 김활석(金活石) 및 최종윤(崔宗倫) 이하 약 70명의 조선비적단이 잠복하고 있는 환인현(桓仁縣) 제3구 신개령(新開岭)과 문장차(門庄岔)의 산채를 공격하여 섬멸하기 위해 본인은 고오노(河野) 경부보 외 48명과 함께 총지휘관 오오와다(大和田) 고등과장의 지휘하에 1937년 3월 20일 집안현 제3구 외차구로 월경하여 오전 7시 30분에 신개령 산채에 돌입하였으나, 적은 이미 도주한 뒤였으므로 다시 부근을 수사하고 돌아오는 중에 조선비적 1명을 확인하고 곧바로 그를 체포하고 대형 모젤 권총 1정과 탄약 27발을 압수하였다.

이상의 공적이 특히 현저하여 두서의 상격이 있다고 인정한다.

〈출전 : 「功績調書(吳炳旭)」, 『昭和14年度 功勞賞ニ關スル書類綴(滿洲事變第3次行賞)』, 국가기록원 소장〉

23) 오세윤(吳世尹)

의서(擬敍) : 사금(賜金) 200
상격(賞格) : 공로(功勞)
주공관등(奏功官等) : 고(高) 6
기초훈장(基礎勳章) : 서(瑞) 6등, 1938년 5월 9일 정례(定例)
1940년 4월 29일 현재 관직 : 조선총독부 군수 종6위 훈6등
성명 : 오세윤(吳世尹)
생년월일 : 1894년 11월 8일
주공기간 : 1938년 4월 16일 ~ 1940년 4월 28일, 계 2년 13일
주공관직 : 전라남도 영광군수
공적사항

1. 군인 유가족 등의 후원 위문에 관한 업무

이번 사변 발생 이래 명예로운 유가족에게는 위문과 위안회를 개최하여 부조원호에 노력하였다. 유가족 위문 40회, 유가족연호수 150호. 유가족 부조(1호) 매월 15원, 위문금 75원을 증정하였다.

2. 여론환기, 국방사상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군민 전반에 걸쳐 전시하에 시국인식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의 강연회, 영화회를 개최함으로써 정신적 긴장과 생산보국의 관념을 철저하게 하여 국방사상 보급에 노력하였다. 그 개황은 별지와 같다.

3. 전사자의 조위 및 위문에 관한 업무

군수(군사후원연맹회장)로서 전몰장병의 군민장을 집행하였다. 그 개황은 별지와 같다.

4. 국방헌금 및 애국기헌납자금 등 모집 취전에 관한 업무

후방국민의 충정발로에 의한 각종헌금을 모집 취전하였다. 그 상황은 별지와 같다.

5. 군용물자의 조달 공출에 관한 업무

부하 직원과 함께 각종물자를 공출하여 군수품 충족을 원활하게 하였다. 그 실적은 별지와 같다.

6. 국채의 소화, 저축의 장려 등에 관한 업무

후방국민의 생활저하 방지를 철저하게 지도함과 함께 저축심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그 결과 성적은 별지와 같다.

실적일람표

1. 여론환기, 국방사상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1) 강연회 5회, 총강연인원 875명
2. 전사자 조위 및 위문에 관한 업무
   1) 군민장집행 2회
   2) 조위금 100원
3. 국방헌금 및 애국기헌납자금 등 모집 취전에 관한 업무
   1) 국방헌금 5,600원
   2) 병기헌납자금 5,500원
   3) 황군위문금 470원
   4) 군사원호사업비 3,560원
4. 군용물자의 조달공출에 관한 업무
   1) 군용마량 보리 750석
   2) 군용 각종모피 3,570매
   3) 군용통조림용 생우 생돈 360두
   4) 군용부대 256,000매
5. 국채의 소화, 저축의 장려 등에 관한 업무
   1) 국채의 소화액 105,600원
   2) 저축목표액 690,000원

〈출전 : 「功績調書(吳世尹)」, 『支那事變功勞者功績調書』 朝鮮總督府 卷2,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24) 유진후(俞鎭厚)

조선총독부 경상남도 경부(부산경찰서 근무) 유진후(俞鎭厚)

위 사람은 만주사변 발발 이래 부산경찰서 고등계 주임으로 재직하던 중 올해 3월 31일에 이르는 기간에 일본 부대의 만주출동이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231회에 달하였으며, 사변 직후에 히로사키(弘前) 혼성제8여단 상륙 당시에는 각종 유언비어가 퍼져 민심이 혼란한 상태였다. 그 기간에 우익 좌익의 행동은 극히 첨예화하여 혹은 장학량(張學良)의 밀명으로 편의대의 조선 내 잠입이 있었고 한편으로 대구에서 반전삐라 살포 사건, 청도 부근에서 군용열차 전복사건, 구포 부근에서 열차 투석사건 등이 인심과 사상을 혼란하게 하였다. 이때 군대 및 군수품의 상륙 운송이 실시되었는데 이 기간에 오로지 상

사의 명을 받들어 부산철교 및 부산역에서 군대수송에 관한 경계 및 취체를 맡아 열심히 근무하였다.

1931년 12월 3일 밤 대구역 및 대구 80연대와 대구고등보통학교, 기타 지역에 반전 삐라 1천매를 인쇄하여 살포한 조선공산당 부산지부장 이승엽(李承燁) 외 5명을 검거하였다. 이어 1932년 1월 1일 밤 부산헌병분대 등에 반전 삐라를 인쇄 살포하던 반제전위동맹원 이치우(李致雨) 외 7명을 검거하였다. (중략)

이상을 통해 볼 때 사변 발발 이래 군대수송 경비경계에 종사하여 군대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각종 사건에 관계된 사찰에 철저를 기하는 등 그 공로가 크기에 두서의 상격이 있다고 인정한다.

〈출전 : 「功績調書(俞鎭厚)」, 『昭和11年 功勞賞二關スル書類綴 滿洲事變行賞(第1次)』, 국가기록원 소장〉

25) 이경화(李景和)

조선총독부 함경남도 순사 이경화(李景和)

1. 만주국이 건설된 이래 국내의 치안공작이 차차 본궤도에 오르고 있지만 대안 장백현(長白縣) 안에서는 아직도 마적과 비적의 발호가 더욱 맹렬해져 치안이 극도로 문란하고 민심의 동요가 심하였다. 이때 위 사람은 1936년 7월 10일부터 1937년 7월 6일까지 본서 외근 및 제일선 천수(泉水)주재소에 근무하며 만주사변을 맞아 특별경계근무에 종사하여 상사의 명령을 준수하고 불면불휴 강안경계와 야간연락, 입초 등 어려운 국경경비근무를 완수하였다.

2. 1937년 6월 4일 오후 10시경 보전(保田)경찰관주재소 및 그 소재지를 습격하여 방화, 살인, 약탈, 납치 등 모든 폭거를 수없이 한 비적 김일성(金日成) 일파를 토벌 할 때 이경화 순사도 이 토벌대에 참가하여 오오카와(大川) 경부 외 40명과 함께 적의 퇴로로 지목된 이십삼도구 입구에서 공격하고자 5일 오전 0시 5분에 자동차를 타고 혜산을 출발하였다. 그 도중 가림(佳林)주재소에서 자동차를 버리고 거기서부터는 도보로 어두운 밤을 헤치며 강안으로 나아가 산위(山衛)주재소로부터 약 1킬로 떨어진 지점에 다다르자 곧바로 대안 고지로부터 우리 부대를 향하여 맹사를 가해 왔으므로 곧바로 응전하여 30분만에 적을 침묵시켰다. 오전 4시 목적지인 이십삼도구 입구에 도착하여 결사적인 척후를 파견하여 적정을 정찰하였더니 적은 이미 오전 0시 30분에 아직도 차가운 압록강의 급류를 도보로 월경하였다고 하였다. 부근 부락에서 다시 적정을 정찰하고 오전 6시 30분 입구 부락을 출발해 추적으로 옮겨가 오전 8시경 마을 입구에서 약 6킬로미터 떨어진 고지의 기슭으로 진출하였다. 그런데 이 고지는 높이 약 400미터, 경사 60도의 급비탈의 험준한 작은 길이 있으며, 그 좌우 20미터에는 나무가 없이 바위와 작은 돌들이 노출되어 흩어져 있으며, 그 양쪽은 관목이 울창하여 적이 방어하는 데는 지리가 가장 좋으나, 공격하고자 하는 우리 부대에게는 극히 불리하였다. 이에 전투대형을 이루며 척후를 선두로 하고 경기관총 분대와 본대를 별도로 하여 모두 산개해서 전진했다. 우리 척후가 정상에서 50미터 떨어진 지점에 도달하자 갑자기 앞면 30미터의 돌기부로부터 경기관총으로 맹사격을 가해왔으므로 우리 부대도 곧바로 응

전하였다. 우리의 맹사로 한 때 적의 화력이 쇠퇴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차츰 점점 더 증가해 왔는데 적의 화선은 400미터에 달하고 경기관총 5정과 척탄통 1개를 보유하고 있어 우리 부대는 완전히 십자포화를 받게 되었다. 그때 이경화 순사는 제3분대에 속해 예비대에 있었으나 화선이 상호 간에 증가하자 곧바로 용감무쌍하게 시종일관 분전하며 교전하여 약 3시간 만에 적은 병력으로 많은 적을 격퇴하고 국경을 안전하게 유지하였다.

위와 같이 공적이 우수하여 두서의 상격이 있다고 인정한다.

〈출전 : 「功績上申調書(李景和)」, 『昭和14年度 功勞賞ニ關スル書類綴(滿洲事變行第3次行賞)』, 국가기록원 소장〉

26) 이관호(李官浩)

전 조선총독부 평안북도 순사
조선총독부 도순사, 후창경찰서 근무 판임관 4등 대우
훈공 갑, 이관호(李官浩)

위 사람은 1931년 9월 18일부터 1934년 3월 31일까지 국경제일선에서 근무하면서 만주사변을 맞아 비적의 소탕 진압과 기타 국경경비근무에 밤낮으로 불면불휴하며 압록강변의 경비에 임함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대안에 잠입하여 적정의 정찰을 위해 군대와 협력하고, 조선 내를 침입하려는 비적과 교전하여 그들을 격퇴함으로써 적의 기선을 제압하고 월경 소탕하여 이주 조선인의 보호구조에 종사하고, 출동부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종 복잡다단한 근무에 복무함으로써 선만국경지대의 치안을 확보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는데 그중,

1. 1932년 6월 이후 대안 임강현(臨江縣), 장백현(長白縣)에서 자칭 구국애민철갑군(救國愛民鐵甲軍) 총사령 대도회 노사 여해정(呂海亭)의 일파 대도회비 약 1000명이 봉기하여 이주 조선인을 살상, 능욕, 약탈하는 외에 조선 내 침입을 꾀하여 50명 내지 300명의 10개 부대로 나누어 압록강 기슭으로 진출하여 준동하였으므로 엄중 경계하던 중,

1) 1932년 8월 15일 오후 5시 50분 대도회비 약 50명이 장백현 팔도구를 점거하고 조선쪽 침입을 기도하며 방비시설 및 지형을 이용하여 당당히 대오를 정비하여 포평(葡坪)경찰관주재소 앞 압록강에서 약 400미터 떨어진 대안 산기슭에 산개하여 화선을 구성하고 주재소를 향해 공격을 시작하였으므로 경계 중이던 본인은 순사부장 오자끼(尾崎三治) 외 15명과 함께 주재소 및 구 헌병감시소 앞 참호에 들어가 방어진을 펼치고 응사하였다. 이에 적은 완강히 저항하였는데 오후 6시 50분 두지(杜芝)경찰관주재소로부터 응원 경찰관 12명이 도착하여 그들과 협력 맹사격을 가해 적 5명을 사살하고 8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에 적 일부가 퇴각하고 적의 사격이 완만해져 대치상태로 밤이 되었으므로 보초를 서며 불면불휴 경계에 복무하였다. 이 전투에서 적탄은 포평경찰관주재소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건물 기타에

다수의 탄환이 날아왔는데도 다행히 피해는 없다.

2) 8월 16일 오전 8시 20분 위 대도회비가 다시 포평경찰관주재소를 향해 사격을 시작하자 본인은 순사부장 오자끼(尾崎三治) 외 27명과 함께 곧바로 참호에 들어가 용감히 응사하며 교전하였다. 오전 10시 후창수비대 보병군조 사토(佐藤喜和太)가 병사 10명을 인솔하여 기관총을 휴대하고 도착하였다. 본인 등은 그들과 협력하여 뒷산에 진지를 구축함과 함께 예의 적에게 맹사격를 가하였으나 적의 망루가 견고하여 명중탄의 효력이 약했으므로 완강히 저항하는 적에게 정확한 사격을 가해 3명을 사살하고 수명에게 부상을 입혀 침묵시켰는데 해질 무렵부터 적이 간헐적으로 속칭 대포(구경 2촌 발화식)를 발사하여 대치한 채로 밤이 되었으므로 보초를 서며 주재소 및 영내 강안 일대의 경비에 복무하였다.

3) 8월 17일 오후 6시 30분경 장백현 팔도구에 근거를 둔 대도회비 약 70명이 산위 약 400미터 지점으로부터 포평경찰관주재소 및 민가에 일제히 발포 사격을 함으로 본인은 경부보 마쓰이(松戸亮)가 지휘하는 경찰대 7명에 들어가 곧바로 주재소 앞 참호에서 그에 응사하며 약 20분간 교전하여 적을 격퇴하였다.

4) 8월 18일 오전 7시 20분 팔도구 대도회비 약 120명이 포평경찰관주재소에 대해 맹사격을 시작함으로 경찰대는 경부보 마쓰이(松戸亮)의 지휘에 따라 응전하였는데 본인은 경찰대 22명중에 들어가 후창수비대 보병군조 사토(佐藤喜和太)가 지휘하는 병사 10명과 협력하여 적에게 일제사격을 가해 오전 9시 그들을 침묵시켰다.

5) 그날 오후 0시 50분 다시 주재소 대안 산 위 약 400미터 지점에 십수 명의 비적이 나타났으므로 본인 등은 군대와 협력하여 즉시 일제사격을 가해 적 2명을 사살하고 3명에게 부상을 입혀 격퇴시켰다.

6) 그날 오후 2시 50분에 이르자 동강성(東崗城) 방면으로부터 새롭게 팔도구로 원조하러 온 대도회비 약 20명이 대안 산정상에 나타나 우리를 공격하였으므로 본인 등은 군대와 협력하여 맹사격을 가해 적 3명을 사살하고 수명에게 부상을 입히며 몇 분간 교전하여 적을 궤주시켰다.

7) 8월 20일 오전 6시 30분 대도회비 약 120명이 포평경찰관주재소로부터 300 내지 500미터 떨어진 팔도구 강안 민가로부터 조선쪽 교통자와 항해선박 2척 및 뗏목 5척을 향해 사격하므로 본인은 경부보 마쓰이(松戸亮)의 지휘에 따라 그곳을 경비하던 후창수비대 보병군조 사토(佐藤喜和太) 이하 11명과 협력 적을 공격하여 침묵시켰다.

8) 그날 오후 4시 30분경 임강현 칠도구 방면으로부터 팔도구로 이동해 온 대도회비 약 20명이 약 500미터의 산 정상으로부터 우리를 사격하였으므로 본인은 경부보 마쓰이(松戸亮)의 지휘에 따라 위 군대와 협력하여 주재소 및 뒷산 진지로부터 응전하였고 다시 탄환이 빗발치는 사이를 뚫고 강안 100미터 지점까지 진출하여 맹사격을 가해 적 2명을 사살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혀 격퇴하였다.

9) 8월 21일 오전 0시 이미 평안북도 자성군 여연면(閭延面) 중강진 및 임강현 모아산(帽兒山)에 출동중이던 보병 제77연대 기관총대 육군 보병중위 하라(原善四郎)가 병사 14명 및 곡사포 1문을 휴대하고 포평경찰관주재소에 도착하여 주재소 뒤 고지에 진지를 구축하고 오전 8시 35분 그곳으로부터 팔도구에 있는 대도회비의 근거지에 포격을 시작하였다. 이때 경부보 마쓰이(松戸亮)는 이와 일치 협력하여 적의 절멸을 기하며 경찰대 24명을 지휘 후창수비대 보병군조 사토(佐藤喜和太) 이하 10명과 함께 포평

경찰관주재소 앞 참호에서 곡사포의 사격과 호응해 용감히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우리 군경의 약 1시간에 걸친 분전으로 적을 팔도구 오지 1,000미터 지점으로 궤주시켰다. 이 교전에서 적은 사상자가 12명, 중상 3명, 경상 10여 명에 달하고 우리의 피해는 없었다.

10) 8월 22일 오전 11시 50분 팔도구에 있던 대도회비 약 50명이 강기슭 산허리에 나타나 조선쪽 교통자 및 포평경찰관주재소에 일제히 사격을 가하므로 본인은 경부보 마쓰이(松戶亮)가 지휘하는 경찰대 7명에 가담하여 곧바로 조선쪽 강안 약 100미터 지점으로 진출해 적에게 맹사격을 가하며 약 30분간 교전하여 적 1명을 사살하고 1명에게 부상을 입혀 격퇴하였다.

11) 8월 23일 오전 8시 10분 위 대도회비 250명이 팔도구 산기슭 압록강가 참호 및 시내 망루를 근거로 압록강에 떠있는 조선인 뗏목 5척 및 조선인 소유 고뢰선 3척에 사격을 가하므로 본인은 경부보 마쓰이(松戶亮)가 지휘하는 경찰대 24명에 가담하여 용감하게 적탄환이 빗발치는 사이를 뚫고 약 200미터를 돌진하여 압록강 기슭으로 전진해 맹렬히 적에게 공격을 가하여 약 10분간 격전 끝에 적을 침묵시키고 뗏목과 배의 선원을 구출하였다.

12) 그날 위 대도회비가 오전 9시 30분경부터 팔도구 망루와 민가 및 강안 참호와 산위에 근거하고 사격을 시작하므로 보병중위 하라(原善四郎)가 이끄는 곡사포대 및 보병군조 사토(佐藤喜和太)가 이끄는 군대와 공동전선을 펼쳐 맹사격을 가하며 분전하여 약 1시간의 격전 끝에 적 3명을 사살하고 수명에게 중상을 입혀 1000미터 오지로 궤주시켰다. 이 교전 중 우리 주재소 및 민가에 많은 적 탄환이 명중하였으나 사람과 가축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13) 8월 24일 오후 6시 팔도구 시내 각 망루 및 수상경찰서 구내와 기타 중요 건축물을 점거한 대도회비 약 250명이 돌연 조선쪽 측 교통자 및 농경자와 포평경찰관주재소를 공격하여 왔으므로 본인은 경부보 마쓰이(松戶亮)가 지휘하는 경찰대 24명에 가담하여 위 군대와 협력해 주재소 참호에 들어가 응전하여 탄환이 빗발치는 속에서 선전하여 적 4명을 사살하고 6명에게 중상을 입혀 해질 무렵에 이르러 그들을 격퇴하였다.

14) 8월 25일 오후 0시 30분 팔도구에 근거를 둔 대도회비의 일부 약 50명이 대안 강안에 진출하여 포평경찰관주재소 앞 조선쪽 교통자에게 발포하였으므로 본인은 경부보 마쓰이(松戶亮)가 지휘하는 경찰대 7명에 가담하여 즉시 주재소 앞 강안으로부터 응사하며 약 40분간 교전하여 마침내 적 2명을 사살하고 수명에게 부상을 입혀 궤주시켰다.

15) 8월 27일 오후 8시 15분 포평경찰관주재소 대안 팔도구에 근거를 둔 적의 일대 약 40명이 일제히 발포하며 주재소 및 소재지 민가를 습격하였으므로 본인은 경부보 마쓰이(松戶亮)가 지휘하는 경찰대 6명에 가담하여 즉시 주재소 앞 참호에 들어가 응사하며 약 20분간 교전하여 마침내 적 1명을 사살하고 궤주시켰다.

16) 8월 30일 오전 11시 30분 200명의 적이 팔도구 시내 망루 및 산 정상의 참호로부터 일제히 조선내 민가와 교통자 및 포평경찰관주재소에 발포하므로 본인은 경부보 마쓰이(松戶亮)의 지휘에 따라 위 군대와 협력하여 맹사격을 가해 약 1시간 30분간 교전 끝에 적 6명을 사살하고 십수 명에게 중상을 입혀 후방 1,000미터 골짜기로 궤주시켰다.

17) 전날의 교전으로 약 1,000미터 후방으로 궤주한 적은 대형을 갖추어 다시 팔도구 시내 각 망루 및 산 위에 근거하여 우리 군경과 대치하다가 8월 31일 오전 11시 30분 팔도구의 대도회비 200명이 아연 압록강에 떠있는 뗏목 3척 및 항행 중이던 선박 2척, 조선쪽 교통자 등에게 사격을 가하여 위험에 빠뜨렸으므로 본인은 곧 경부보 마쓰이(松戸亮)가 지휘하는 경찰대 22명에 가담하여 위 군대와 협력해 맹사격을 가하여 약 50분간 교전 끝에 산위의 적 3명을 사살하고 5명에게 부상을 입혀 격퇴하였다.

18) 9월 1일 오후 4시 50분 팔도구의 대도회비 약 250명이 시내 각 망루에 근거하여 조선쪽으로 사격하고 또한 대안 산위 약 4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약 50명의 대도회비가 우리에게 사격을 가해 왔으므로 본인은 곧 경부보 마쓰이(松戸亮)가 지휘하는 경찰대 22명에 가담하여 주재소 앞 참호로부터 이에 응전해 일사불란한 통제하에 격렬한 전투를 벌여 마침내 그들을 침묵시켰다.

19) 그날 오후 6시 5분경 팔도구 서쪽 망루 부근으로부터 대도회비 16명이 나타나 장총, 장창, 회기 등을 각각 휴대하고 고뢰선에 승선하여 산 위 및 망루에 있는 적의 엄호사격하에 조선쪽 압록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고뢰선을 습격하였으므로 경부보 마쓰이(松戸亮)가 지휘하는 경찰대 11명과 함께 응전하여 적탄이 빗발같이 쏟아지는 사이를 뚫고 약 500미터 하류 적선의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돌진하여 적선에 일제히 맹사격을 가였다. 배 안에 수명의 사상자가 생기고 또한 압록강에 추락한 자가 2,3명에 미치자 적은 뱃머리를 돌려 약 20미터 가량 퇴각하였으나, 우리의 맹사격을 감당하지 못해 총기를 들고 물속으로 뛰어들거나 혹은 장총을 들고 급류 속으로 뛰어들어 그중 2명이 익사하고 8명은 간신히 도주하였다. 적선은 조선쪽에 표착하였으므로 배에 있던 사체 2구를 수용하고 장총 2정, 탄약 40발, 장창 2개, 기타 잡품 다수를 배와 함께 압수하였다.

20) 강계(江界)수비대 제1중대장 보병대위 김인욱(金仁旭)이 집성 1개 중대를 지휘하여 포평에 도착 월강하여 적의 근거지를 공격 그들을 일거에 전멸시키려고 9월 4일 오전 2시 포평 주둔의 후창수비대 보병군조 사토(佐藤喜和太)가 이끄는 1개 분대를 선두로 포평경찰관주재소 상류 약 10정의 지점으로부터 월강하였을 때, 본인은 경부보 마쓰이(松戸亮)의 지휘하에 위 분대를 엄호하고자 도항지점 강기슭에 산개하여 적의 습격에 대비함으로써 무사히 군대를 월강하게 하였다. 한편 하류 동신면 두지동으로부터 월강하는 제1중대 본대가 위 사토(佐藤)분대와 호응하여 그날 오전 7시 55분 팔도구의 포위공격을 시작하자 적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맹렬히 반격을 해왔으나 우리 군경의 급습을 감당하지 못하고 산위 망루를 버려둔 채 시가 망루, 민가 등으로 숨어들었으므로 조선쪽에 산개한 경찰대는 그들에게 맹사격을 가하여 적 십수명을 사살하였다.

21) 그날 오전 11시 50분 포평경찰관주재소 뒤 고지에 있는 곡사포로 팔도구를 포격중이던 보병중위 하라(原善四郎)가 적전도하를 결행하여 팔도구 시가지로 향했으므로 우리 경찰대는 고뢰선 2척에 나누어 타고 엄호사격하며 그 임무를 완수하였다.

22) 그날 오후 1시경 포평경찰관주재소 하류 대안에서 우리 군대의 격습을 견디지 못하고 도주하는 적에게 맹사격을 가하여 30명을 사살하였는데 적은 미친듯이 저항하였으나 다시 그날 오후 6시 비적 약 60명이 압록강 대안에서 서쪽으로 향해 궤주하였으므로 이때 본인 등은 맹렬한 사격을 가해 적 5,6명을 제외하고 전부를 사살하였다. 이날의 전투에서 적은 사체 약 180구(군경이 사살)를 유기하였으며

우리는 총기, 탄약, 장창 등 다수를 압수하였고 우리 군대는 사망자 1명, 부상자 3명이 발생했으며, 경찰대와 거주민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23) 1932년 9월 5일 오전 7시 대안 임강현 칠도구에 대도회비가 집결중이라는 정보가 있어 강계수비대 제1중대장 보병대위 김인욱은 집성 1개 중대 150명을 지휘하여 그곳으로 향해 포평경찰관주재소를 출발하였으므로 본인은 경부보 마쓰이(松戶亮)가 지휘하는 경찰대 22명(기관총 2, 소총 18)에 가담하여 군과 공동으로 팔도구로 월경하여 그곳 대도회비의 근거지인 시내 및 산위의 망루 6개소를 파괴하고 팔도구내의 잔비 소탕에 종사하던 중 약 2리 떨어진 오지에 대도회비 약 10명이 잠복중이라는 정보를 접하고 곧바로 진격하니 적은 경찰대의 진격을 두려워하여 산속 약 400미터 지점으로 도주하였으나 산개 사격하여 적 2명을 사살하고 장총 1정, 탄약 50발, 장창 1개를 압수하였다.

이상의 공적이 특히 현저하여 두서의 상격이 있다고 인정한다.

〈출전 : 「功績調書(李官浩)」, 『滿洲事變功績調書』 朝鮮總督府 卷28,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27) 이명흠(李明欽)

의서(擬敍) : 사금(賜金) 80

상격(賞格) : 공로(功勞)

주공관등(奏功官等) : 판(判) 3

1940년 4월 29일 현재 관직 : 조선총독부 평안북도 경부

성명 : 이명흠(李明欽)

생년월일 : 1898년 12월 16일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7년 9월 20일, 계 2월 14일

주공관직 : 평안북도 강계경찰서 사법주임 도경부

공적사항

1. 유언비어 기타 시국범죄의 방지, 단속, 검거에 관한 업무

사변 발발에 따라 각종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는데 감안하여 단속을 엄격히 시행, 박멸을 기하는 동시에 내사를 몰래하며 시국범죄의 방지를 철저하게 하여 후방치안의 확보에 진력하여 공헌했다.

주공기간 : 1937년 9월 21일 ~ 1940년 4월 28일, 계 2년 7월 8일

주공관직 : 평안북도 신의주경찰서 사법주임 도경부

공적사항

1. 군대 및 군수품의 수송, 경계에 관한 업무.

불면불휴로 전후 63회에 걸쳐 이에 종사하여 수송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 공헌 바가 극히 크다.

2. 군 방역 및 검역에 관한 업무.

파견군대 및 위수지에서 군 방역 및 검역에 진력하여 이에 만전을 기했다.

3. 국경지대 특별경비에 관한 업무.

대안의 험악한 정세에 응해 불면불휴 경계에 종사하고 적들의 침입 방지에 진력하여 만전을 기했다.

4. 전사자유골 수송경계 및 조위에 관한 업무.

항상 민중을 솔선지도하고 그 요충을 맡으며 순국자에 대한 경건의 뜻을 표하여 만전을 기했다.

5. 방공방위에 관한 업무.

전후 55회에 걸쳐 방공을 주지하도록 힘써 보초원 및 일반민중의 대공사상의 강화를 철저하였음에 공헌한 바가 매우 컸으므로 별첨과 같은 공적현인서를 받았다.

6. 응소군인의 환송 및 편의제공에 관한 업무.

솔선해 민중을 지도하여 환송 또는 편의제공에 처음부터 끝까지 유감이 없도록 기하였다.

7. 중요건조물의 보호경계에 관한 업무.

수원지 기타 부 내외에 산재하고 있는 중요건조물의 보호경계를 맡아 이에 만전을 기했다.

공적현인서

신의주경찰서 경부 이명흠(李明欽)

1939년 8월 15일 ~ 1939년 9월 9일

신의주경찰서 사법주임으로서 관내에 감시대 본부 및 감시초소를 개설하자 오직 방공사령관의 지휘와 명령을 준수하여 솔선해 부하 경찰관을 지휘 독려하며 밤낮으로 현장에 가서 한 뜻으로 전심하여 감시대 본부 직원 및 예하 감시초소원의 지휘를 통괄하고 지도훈련을 맡았으며, 대공감시 혹은 이에 대비한 정보통신 및 기상통보 등을 신속하게 또한 확실하게 이행하고 방공시설기관으로서 완벽을 기하여 중요임무 수행상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그 공적이 43명 중 제34등으로서 위로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함.

이상 현장 확인한다.

1939년 11월 25일

신의주지구방공사령관 육군보병소좌 백홍석(白洪錫)

〈출전 : 「功績調書(李明欽)」, 『支那事變功勞者功績調書』 朝鮮總督府 卷15,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28) 이민호(李敏浩)

의서(擬敍) : 사금(賜金) 80

상격(賞格) : 공로(功勞)

주공관등(奏功官等) : 판(判) 3

1940년 4월 29일 현재 관직 : 조선총독부 충청북도 경부

성명 : 방호민호(芳湖敏浩)

생년월일 : 1900년 5월 22일

주공기간 : 1937년 7월 10일 ~ 1940년 4월 29일, 계 2년 9개월 20일

주공관직 : 충청북도 청주경찰서 사법계주임 경부

공적사항

1. 동원소집에 관한 업무

동원소집 및 징발사무는 군의 작전과 용병상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관을 잘 보좌하고 열심히 근무하여 동원령이 내렸을 때 동원소집영장을 착실하고 기민하게 취급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사고도 없이 원활한 수행을 기할 수 있었다.

2. 여론환기 및 국방사상 보급에 관한 업무

현재시국의 중대성을 감안해 각종 강연회, 좌담회를 개최하거나 혹은 인쇄물을 배포하여 시국의 인식, 여론환기에 노력함과 함께 일반민중들로 하여금 진지한 태도로 중대시국을 인식하여 전심전력으로 생업보국에 온힘을 다하도록 하였다.

3. 방공에 관한 업무

사변발발 이래 방공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방공에 관한 시설, 훈련 교양 지도에 노력하여 국민에게 방공의 관념을 강화시켜 본 업무 목적달성에 진력하여 그 공적이 크다.

4. 군수품의 공출에 관한 업무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군수품 조달이 중대하다는 것을 통감하고 수피(獸皮) 공출을 기피하려고 하는 일반민중에게 공출에 대한 인식을 잘 강화시켜 밤낮으로 본 직무에 만전을 기하였다.

〈출전 : 「功績調書(芳湖敏浩)」, 『支那事變功勞者功績調書』 朝鮮總督府 卷7,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29) 이벽송(李碧松)

[29-1]

조선총독부 함경북도순사 훈8등 이벽송(李碧松)
(무산경찰서 근무)

위 사람은 1934년 4월 1일부터 1935년 9월 30일에 걸쳐 국경제일선 무산경찰서에 근무하던 중 목숨을 걸고 국경경비에 종사하였는데 특히,

1. 1935년 5월 27일 오후 10시 10분 무산군 동면 진화동 및 5월 28일 오전 1시 40분 동면 인선동을 습격하여 부민을 납치하고 금품을 요구하던 동북인민혁명군 제1독립사단 제1단 제2련장에 속한 비적들을 토벌하기 위해 연속으로 12일간 불면불휴하며 혹은 강안지대의 경계에, 혹은 해발 1000여미터의 산악지대 밀림 속에서 추적수사에 종사하여 적 3명을 체포하고 무기와 탄약, 기타를 노획하였다. 이에 적은 오지로 퇴각하였다.

2. 1934년 4월 1일부터 1935년 9월 30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대안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힘을 기울였으며, 기타 월경경작하는 조선인 보호경계를 위해 1934년에 5회, 1935년에 2회씩 화룡현(華龍縣) 덕화사(德和社), 숭선사(崇善社), 용화사(勇化社) 등 3방면으로 출동하여 경계에 종사하였다.

이상의 공적이 특히 현저하여 두서의 상격이 있다고 인정한다.

〈출전 : 「功績調書(李碧松)」, 『昭和9年 功勞賞二關スル書類綴 滿洲事變行賞(第1次)』, 국가기록원 소장〉

[29-2]

조선총독부 함경북도 순사, 무산경찰서 근무 판임관 4등 대우
훈로 갑, 이벽송(李碧松)

위 사람은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 발발 이래 함경북도 국경제일선 무산(茂山)경찰서에 근무하며 오로지 국경경비에 복무하였는데 당시 대안 만주국 화룡현(和龍縣) 일대는 병공비적이 각지에 횡행 출몰하여 살상, 약탈 등 포학을 다하여 사태가 용이치 않았으므로 그간 누차 월경 출동하여 비적의 토벌에 복무하고 피난민을 구호하거나 혹은 월경 농경부민의 보호를 맡는 등 밤낮으로 계속하여 신명을 바쳐 경비의 만전에 노력했는데 그중

1. 1932년 4월 2일 오후 9시경 독소(篤所)경찰관출장소 대안 간도 화룡현 숭선사(崇善社) 혼동(溷洞) 주둔 수비대병 제1연 연장 낭문환(郎文煥) 이하 병력이 병비 왕덕림(王德林) 토벌을 위해 두도구(頭道溝) 방면으로 출동하던 중 잔류부대 배장 조만해(趙萬海) 이하 20명이 왕덕림 일파에 합류하고자 돌연

병변을 일으켜 그 마을 자산가 강걸(姜傑)과 숭선사장의 친동생 이원익(李元益)을 납치하고 주민의 금품을 약탈하며 폭행을 감행하고 휘풍동(揮風洞) 방면에 집결하여 틈을 보아 조선 내를 침입하려는 기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난민 약 300명이 조선 내로 쇄도하여 사태가 급박함을 알려왔다. 이에 경부보 임학래(林學來)가 지휘하는 경찰대에 참가하여 월경 출동하니 적은 납치자를 방환하고 맹가동(孟哥洞) 오지로 도주하였으므로 피난민 보호와 질서유지에 노력하다 다음날인 3일 오후 7시 귀환하였다.

2. 1932년 4월 4일 대안 덕화사(德化社) 맹가동 방면에 90여 명의 병비가 집결하여 남평(南坪)영사관경찰분서 습격을 공언하자 대안 주민 수백 명이 조선 내로 피난하여 사태가 급박함을 알려왔다. 이에 4월 5일 오전 0시 30분 가나이(金井) 경부보가 지휘하는 경찰대에 속해 월경 남평영사관경찰분서와 연결하여 경계하였는데 적은 우리 경계가 엄중함을 보고 오지로 도망하였으므로 피난민 구호와 치안유지에 노력하다 오후 7시 귀환하였다.

3. 1932년 3월 만주국 건국에 반기를 들고 안도현(安圖縣) 오지에 잠복하여 대기중이던 병비 청산(靑山) 일파는 점차 두만강 기슭 가까이로 남하하여 흉포를 자행하고 조선 내 침입을 호언하고 있었다. 1932년 6월 21일 오전 2시경 무장한 일파 30명이 대안 만주국 화룡현 숭선사 혼동에 습격하여 조선인 1명을 사살하고 4명을 납치한 뒤 금품을 약탈하여 조선 내 침입의 기세가 농후하였으므로 가나이(金井) 경부보가 지휘하는 경찰대에 속해 월경 출동추격하여 적으로 하여금 납치자 4명을 방환케 하고 오지 안도현으로 궤주시켰다.

4. 안도현에 잠복한 구국군 제4혼성여단 제7단 독립영 가옥산(賈玉山)의 일파 200명이 7월 5일 화룡현 덕화사 하광포(下廣浦)로 이동하여 덕화사 남평(회령 상류 대안의 유일한 밀집부락)을 습격하려고 8일 아침 하광포를 출발하여 두만강을 따라 내려와 7월 9일 오전 3시 30분 남평부락에 침입하여 민가 두 채에 방화하고 조선인과 중국인 9명을 살상하고 금품 약탈을 시작하였다. 당시 남평 소재 부동(釜洞) 영사관경찰분서에서는 사력을 다해 응전하는 한편 무산 주둔 수비대 및 무산경찰서에 구원을 요청하는 특사를 파견하였다. 무산수비대와 경찰서에서는 즉시 비상소집을 하여 수비대로부터 장교 이하 70명, 경찰서로부터 20명의 토벌대를 조직하여 응원하려 할 때, 가나이(金井) 경부보의 지휘 아래 속해 월경하여 부동분서원과 협력해서 맹진 저돌적으로 적을 압도하여 적 5명을 사살하고 1명을 부상시키고 약 10킬로미터 하류인 덕화사 유동 오지 삼림 속으로 궤주시키고 오전 8시 남평으로 돌아와 그곳의 경계와 피해자의 구호를 맡았다.

5. 1932년 만주국 건국에 반기를 들고 안도현 오지에 잠복하여 대기중이던 병비 청산(靑山) 일파가 점차 두만강 기슭 가까이 남하하여 삼장경찰서 대안에서 흉포를 자행하며 일본군과 일전하겠다고 호언하는 등 조선 내 침입의 기세가 농후하였다. 1932년 12월 25일 오후 6시 50분 무장한 일파 13명이 새벽을 틈타 삼장경찰서 흥암(興岩)경찰관주재소를 향해 발포하며 공격해 왔다. 삼장경찰서에서는 곧 순사부장 츠루(鶴正藤次) 이하 9명이 출동하여 추격하였는데 적이 완강히 저항하여 우리 측의 탄약이 부족해져서 삼장경찰대장으로부터 응원 요구가 왔으므로 가나이(金井) 경부보가 지휘하는 응원대에 속해 삼장경찰서 츠루(鶴) 부대와 협력하며 영하 30도에 달하는 추위속에서 교전하여 적을 멀리 휘풍동 오지로 궤주시켰다.

6. 1933년 1월 3일 오전 6시경 관내 무산군 영북동(永北洞) 지초동(芝草洞) 우작대곡(宇作大曲)에 중국공산당 화룡현 삼도구구 소속 무장공비 12명이 침입하여 경계 중이던 자위단원 김송봉(金松峰)을 사살하고 다시 지초경찰관출장소를 습격하였다. 이에 곧바로 다나베(田邊) 경찰대장 직속분대에 들어가 출동하여 대안 덕화사 소동에서 적과 교전하여 적 2명을 사살하고 2명을 체포한 후 장총 30년식 2정, 권총 1정, 장총 실탄 6발, 기타 잡품 수십점을 노획하여 오후 7시 귀환하였다.

7. 1931년 9월 18일부터 1934년 3월 31일 사이에 월경경작농민 보호를 위해 월경경계에 종사한 것이 6회에 달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

이상의 공적이 특히 현저하여 두서의 상격이 있다고 인정한다.

〈출전 : 「功績調書(李碧松)」, 『滿洲事變功績調書』 卷34,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30) 이병식(李秉植)

[30-1]

조선총독부 함경남도 경부 (청진경찰서 근무) 이병식(李秉植)

위 사람은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 발발 당시 함경북도 청진경찰서 사법주임으로 서장을 보좌하고 서원을 지휘하여 치안유지에 임했는데 특히,

1. 당시 소련 관헌은 일본군의 만주진출을 시베리아 출병의 전제라고 판단하고, 재소련 조선인 공산당원 이학운(李學雲) 외 5명을 잠입시켜 황군의 만주진출을 방해함과 함께 후방교란을 기도하였다. 먼저 압록강 및 기타 주요 철교를 폭파하려고 군용 폭약 56관, 도화선 48척, 뇌관 19개, 기타 권총 및 탄환, 여비 현금 700원을 가지고 범선 상하이마루(上海丸)에 승선하여 조선으로 잠입하였다. 1932년 4월 16일 일행 6명은 야음을 틈타 경성군 용성면 수남동 해안에 상륙하여 휴대한 폭약 및 기타의 것을 해안 모래사장에 매몰 은닉하였다. 일행 중 2명은 게페우 본부에 무사 상륙을 보고하고자 다시 상하이마루(上海丸)에 승선하여 귀환하였고 이학운 외 3명은 압록강, 대동강 등 각 목적지의 철교 정찰을 위하여 출발하였다는 것을 탐지하고 즉시 육상의 추적대로 함남 홍원군 포청면까지 도주한 범인 2명을 체포하고 그 외에 대한 검거에 돌입하여 폭약, 기타 전부를 압수함으로써 가공할 음모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여 황군의 출동에 어떠한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2. 제19사단에서 육군 어용선 카미시마마루(神島丸)로 상하이에 급송할 가교 재료를 선적할 당시인 1932년 2월 27일에 발발한 청진 '전체 하역노무자 조합'인부 500여 명의 노동쟁의에 관해 청진경찰서 경비대 제2소대장으로서 사건발생 이래 1주간 쟁의 현장에서 불면불휴 군수품 적재작업 방해에 대한 경계, 폭동 진압 및 사찰, 주모자의 체포에 종사하여 조금의 지장도 없이 군수품 수송을 완료시켰다.

3. 1932년 9월 1일 오전 1시경 부령군 청암면 수남동 부근에서 나남에서 회령 방면으로 통하는 군부대 전용 전화선을 절단하려는 자가 있었다. 당시는 나남 제19사단이 간도 병비를 토벌중이었으므로 범인을 엄밀히 정탐한 결과 생각했던 대로 공산당원으로 판명되어 장래의 화근을 일소하였다.

이상의 공적이 특히 현저하여 두서의 상격이 있다고 인정한다.

〈출전 : 「功績調書(李秉植)」, 『昭和9年 功勞賞ニ關スル書類綴 滿洲事變行賞(第1次)』, 국가기록원 소장〉

[30-2]

의서(擬敍) : 사금(賜金) 90
상격(賞格) : 공로(功勞)
주공관등(奏功官等) : 판(判) 2
기초훈장(基礎勳章) : 서(瑞) 8등, 1934년 4월 29일 사변(事變)
1940년 4월 29일 현재 관직 : 조선총독부 함경북도 경부 훈8등
성명 : 이병식(李秉植)
생년월일 : 1892년 11월 17일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40년 4월 28일, 계 2년 9월 22일
주공관직 : 함경북도경찰부 보안과 사법계주임 도경부
공적사항

1. 시국범죄 방지, 단속, 검거에 관한 업무

1) 1938년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장고봉사건에 즈음하여 임전지대인 경흥경찰서 관내 아오지 방면으로 출장하여 현지 경찰관과 연락하며 사건관계의 범죄방지 단속을 맡았다.

2) 사변 발발 이래 각종 시국범죄의 단속, 검거를 맡았는데 1938년 11월 경제경찰제도가 시행되자 각지의 경제좌담회에 출석하여 전시하 통제경제의 인식을 철저히 하는데에 힘씀과 함께 각종 경제사범의 방지와 단속에 힘썼다.

2. 방공에 관한 업무

장고봉사건에 즈음해 방공명령이 내려지자 1938년 8월 1일부터 6일까지 도방공본부 소속으로 도내 방호단, 방공감시대에 대한 지휘 및 명령전달 업무에 복무하여 방공 실시상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출전 : 「功績調書(李秉植)」, 『支那事變功勞者功績調書』 朝鮮總督府 卷19,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31) 이영수(李榮洙)

전 조선총독부 순사 이영수(李榮洙)
훈로 을, 조선총독부 도순사 창성경찰서 근무, 판임관 4등 대우

위 사람은 1931년 9월 18일부터 1933년 3월 17일까지 국경제일선에서 근무하면서 만주사변을 맞아 비적의 진압과 기타 국경경비근무에 복무하고, 밤낮으로 불면불휴하고 압록강변의 경비에 임하여 조선 내를 침입하려고 대안에 출몰하는 비적에 대해 엄중한 경계를 하여 그 준동을 제압하는 등 조선 내 국경지대의 치안을 확보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1. 창성경찰서 대안 관전현(寬甸縣) 지방에는 1932년 7월 2일 이래 비적 수괴 청림(靑林), 이화동(李化東), 천방(天邦), 안민치국(安民治國)의 각 파 300명과 마경춘(馬景春), 장해(長海), 상산호(上山好), 마노오(馬老五), 간수봉(干秀峰), 홍산호(紅山好), 홍주(洪州)의 각 파 약 600명 및 중화민국 육군보병 제2단장의 부하 약 1500명이 봉기하여 이주 조선인을 살육, 약탈, 능욕하는 외 조선 내 침입을 꾀하여 누차 압록강변에 나타나 준동함으로 이를 엄중히 경계하던 중,

1) 1932년 6월 1일 청림, 천방, 이화동, 안민치국의 각 파 300명이 관전현 대비채구(大篦菜溝)(강안으로부터 약 1리)에 집결하여 비적 수괴 당취오(唐聚五)로부터 기관총 2정과 기관총수를 입수하여 그달 6일을 기해 조선 내 경찰관주재소와 출장소 및 부근 민가의 습격을 감행하여 총기와 금품을 강탈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정보를 얻은 본인은 그달 5일 순사 하시케치(橋口惠)와 함께 정찰한 결과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을 보고하여 창성경찰서에서는 6일 밤 미와(三輪益二) 중좌가 인솔하는 제4월강부대와 공동작전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만약 적이 도주하는 경우에는 군대의 행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인은 순사 하시케치(橋口惠)와 함께 다시 그날 정오에 적의 근거지 부근에 이르러 내정한 결과 의연히 잠복중인 것이 확실하므로 그날 오후 6시 돌아와 다시 미와(三輪) 중좌가 파견한 에가미(江上) 대위가 지휘하는 병력 150명과 공동작전을 감행하였다. 본인은 순사부장 마키우치(牧內正吉) 외 1명과 에가미(江上) 대위의 부대에 참가하여 창성군 창성면 묘동으로부터 월경하여 험악한 산길을 군대의 척후로서의 사명을 띠고 선두에 서서 적의 근거지 부근으로 군대를 유도하였다. 다음날인 7일 오전 4시 30분 창성면 어신동으로부터 월강한 별동대 다나까(田中) 대위의 부대와 연락하여 여명을 틈타 300미터 지점으로부터 적의 근거지를 일제사격하였는데 적은 지물을 이용하여 완강히 저항하였지만 우리 군경의 맹공격에 맞설 수 없어 비적 수괴 이화동 이하 74명의 사체와 러시아식 장총 24정, 대형 모젤권총 7정, 장총탄환 1300발, 기타 잡품 다수를 버려두고, 50여 명의 중경상자를 방치한 채 오지로 도주하였으며 연장 청림(靑林) 외 70명을 체포하는 등 거의 전멸적 타격을 가하였다. 오전 8시 이 교전에서 우리 군경에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이러한 대성공을 거둔 것은 항상 본인이 사비를 쪼개 밀정을 파견하거나 혹은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대안으로 월경 진출하여 그곳의 적정은 물론 지리 등을 상세히 탐구하여 항상 군대의 선두에 서서 군을 유리하게 이끈 데에 있다.

2) 본인은 계속해서 순사 나카니시(中西康人)와 함께 6월 8일부터 14일까지 창성경찰서에 근무하는

순사 사와이(澤井忠吉) 이하 5명이 배속된 제4월강부대장 미와(三輪) 중좌의 본대에 합류하여 영전성(永甸城)의 경비를 맡아 그곳 부근 촌락의 민정 정탐과 교통인마의 조사검문, 조선인, 만주인 양민의 위무 등에 종사하던 중 비적 약 300명이 우리 군경을 역습하려 한다는 확실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6월 9일 저들의 기선을 제압하여 영전성에서 격퇴하였으며, 12, 13일 양일간 월강부대를 주력으로 하는 영전성 유수경비의 임무를 맡아 능히 그 중책을 완수하여 아군의 전승에 기여한 바 크다.

3) 대안 관전현 대비채구에 근거를 둔 비적 수괴 왕가상(王家祥)은 부하 30여 명과 함께 1932년 2월경부터 다른 비적 수괴 김룡(金龍) 일파와 합류하여 그해 10월 24, 25일 야음을 틈타 창성경찰서 묘동 및 운두경찰관출장소와 부근 민가를 습격하여 조선쪽 치안을 교란하려 한다는 확실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본인은 기선을 제압하여 그것을 토벌하고자 그달 24일 오후 11시 서장 미즈노(水野宅三郎0 지휘하에 31명과 함께 월경하여 적의 근거지인 관전현 와방구(瓦房溝)로 진출하자 적들은 우리 경비대가 월경 토벌한다는 것을 탐지하고 25일 새벽 우리 포위선을 향해 지물을 이용해 돌연 발포하였으므로 우리도 또한 응전하여 격전 30분만에 적은 2명을 잃고 궤주하였고, 권총 2정, 장총 4정 기타 잡품 다수를 압수하였으며 우리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이상의 공적이 특히 현저하여 두서의 상격이 있다고 인정한다.

〈출전 : 「功績調書(李榮洙)」, 『滿洲事變功績調書』 朝鮮總督府 卷25, 1935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32) 이중수(李仲秀)

의서(擬敍) : 사금(賜金) 80
상격(賞格) : 공로(功勞)
주공관등(奏功官等) : 판(判) 3
1940년 4월 29일 현재 관직 : 조선총독부 경기도 경부
성명 : 이중수(李仲秀)
생년월일 : 1905년 2월 28일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7년 8월 2일, 계 27일
주공관직 : 평양경찰서 사법주임 경부보
공적사항
1. 군사수송경계에 관한 업무.
위 기간 중 군대 및 군수품 수송과 군용열차 경계에 종사하기를 18회.

주공기간 : 1937년 8월 3일 ~ 1938년 2월 8일, 계 1년 3월 7일
주공관직 : 경성영등포경찰서 사법주임 경부
공적사항
1. 군사수송경계에 관한 업무.
위 기간 중 군대 및 군수품 수송과 군용열차 경계에 종사하기를 204회.
2. 숙영지 급여에 관한 업무.
위 기간 중 군대의 숙영을 맡아 숙영지 급여의 원조 5회.
3. 군용물자의 조달, 군수품의 제조와 공출 및 수리와 조변에 관한 업무.
위 기간 중 모피 및 돈피의 공출을 독려 9백매.

주공기간 : 1938년 2월 9일 ~ 1940년 4월 28일, 계 1년 5월 20일
주공관직 : 이천경찰서 사법주임 경부
공적사항
1. 군용물자의 조달과 군수품의 제조공출 및 수리와 조변에 관한 업무.
위 기간 중 모피와 돈피의 공출 독려 125매.

공적현인서

조선육군창고 촉탁
경기도 경성영등포경찰서 경부 이중수(李仲秀)

위 사람은 1938년 9월 30일부터 1940년 4월 28일까지 군용자재인 모피 및 돈피의 공출독려와 제조에 관한 지도검수 및 발송의 업무에 임하여, 이 기간 동안 번잡한 위 업무를 하는 한편, 열심히 정려하여 관내의 사육과 생산 상황을 정밀히 조사하여 관계방면과 밀접한 연락을 유지하고, 또 민중에 대해서는 시국인식의 철저에 힘쓰고, 특히 본도구역은 타도에 비해 사육두수가 적기 때문에 수량획득에 한층 고심함으로써 예정 이상의 수량과 좋은 품질인 것을 공출시켰음은 오로지 침식을 잊고 시종 헌신적인 노력을 한데 따른 것으로 그 공적이 공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한다.
경기도 촉탁 147명 중 93위
위를 현인한다.

1940년 4월 29일
조선육군창고장 에다(依田袈裟太)

〈출전 : 「功績調書(李仲秀)」, 『支那事變功勞者功績調書』 朝鮮總督府 卷6,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33) 이태순(李泰淳)

의서(擬敍) : 사금(賜金) 70

상격(賞格) : 공로(功勞)

주공관등(奏功官等) : 판(判) 4

1940년 4월 29일 현재 관직 : 조선총독부 경기도 순사

성명 : 산목태순(山木泰淳), 이태순(李泰淳)

생년월일 : 1898년 12월 29일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40년 4월 28일, 계 2년 9월 22일

주공관직 : 경기도경찰부 고등경찰과 사찰계 순사(형사)

공적사항

1. 군사수송, 경계에 관한 업무

중일전쟁 발발 이래 군사 수송이 시작됨에 따라 경성과 용산 두 역에서 경계에 종사한 것이 131회.

2. 정보 수집에 관한 업무

시국하에 있어서 사상적 불온분자의 동향 및 기타 중요 정보수집을 하여 보고한 것이 91회.

3. 유언비어 기타 시국범죄 방지, 단속에 관한 업무

1) 1938년 11월 18일 이래 공원회(孔元檜) 외 10명이 조선공산당 재건을 목적으로 경성그룹을 결성한 사건의 검거에 관여하여 치안유지법 위반 및 육해군형법 위반으로 송국할 때까지 기간 동안 이들에 대한 취조에 종사하였다.

2) 1938년 10월 8일 이래 상해에 있는 조선독립운동 지도기관인 참칭 대한임시정부의 부원 박경순(朴景淳)이 조선으로 잠입한 불온책동사건을 검거하는데 종사하고 이를 취조하는 데도 종사하였다.

3) 전 각세도 교조 이정평(李停坪) 외 2명의 불온언동 사건 검거에 관여했고 1939년 6월 1일 이래 이의 취조에 종사하였다.

4) 1939년 9월 6일 이래 유수예(劉水藥) 외 1명의 보안법 위반 사건에 관여하여 이의 취조에 종사하였다.

5) 종교결사 기독교등대사의 불경 및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 검거에 관여하고 송국에 이르는 기간 동안 조사와 취조에 종사하였다.

〈출전 : 「功績調書(山木泰淳)」, 『支那事變功勞者功績調書』 朝鮮總督府 卷6,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34) 임병식(林炳湜)

의서(擬敍) : 사금(賜金) 70
상격(賞格) : 공로(功勞)
주공관등(奏功官等) : 판(判) 4
기초훈장(基礎勳章) : 서(瑞) 8등, 1939년 9월 23일 정례(定例)
1940년 4월 29일 현재 관직 : 조선총독부 평안북도 경부보 훈8등
성명 : 임상웅(林常雄)
생년월일 : 1894년 2월 8일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40년 4월 28일 계 2년 9월 22일
주공관직 : 평안북도 구성경찰서 사법주임 도경부보
공적사항

1. 유언비어 기타 시국적인 범죄방지, 단속과 검거에 관한 업무.

민중의 시국인식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유언비어의 박멸을 기하고 반시국적인 범죄의 단속을 엄격히 이행해 36건을 검거하고 방역을 철저히 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2. 군의 행동 지원에 관한 업무.

구성군내에서 조난당한 군용비행기의 수사와 구출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기여와 공헌한 바가 컸다.

3. 여론 환기, 국방사상의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민중을 국책에 순응시키고 여론의 통일과 결속을 꾀하기 위해 전후 75회에 걸쳐 시국좌담회를 개최하여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국방사상을 보급하여 고도국방의 완수에 진력하여 공헌한 바가 컸다.

〈출전 : 「功績調書(林常雄)」, 『支那事變功勞者功績調書』 朝鮮總督府 卷16,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35) 임학래(林學來)

조선총독부 함경북도 경부보 임학래(林學來)
(무산경찰서 근무)

위 사람은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 발발 이래 함경북도 국경제일선 무산(茂山)경찰서에 근무하며 오로지 국경경비에 복무하였는데 당시 대안 만주국 화룡현(和龍縣) 일대는 병비와 공비들이 각지에 횡행하며 출몰하여 살상, 약탈 등 포학한 행위를 자행하여 사태가 용이치 않았으므로 그간 누차 월경 출

동하여 비적의 토벌에 복무하고 피난민을 구호하거나 혹은 월경 농경부민의 보호를 맡는 등 밤낮으로 계속해서 신명을 바쳐 경비의 만전에 노력했는데 그중,

1. 1932년 4월 2일 오후 9시경 독소(篤所)경찰관출장소 대안 간도 화룡현 숭선사(崇善社) 혼동(溷洞) 주둔 수비대 제1연 연장 낭문환(郎文煥)의 부대가 병비 왕덕림(王德林) 토벌을 위해 두도구(頭道溝) 방면으로 출동 중 잔류부대 배장 조만해(趙萬海) 이하 20명이 왕덕림 일파에 합류하고자 돌연 병변을 일으켜 그 마을 자산가 강걸(姜傑)과 숭선사장의 친동생 이원익(李元益)을 납치하고 주민의 금품을 약탈하며 폭행을 감행하고 위풍동(揮風洞) 방면에 집결하여 틈을 보아 조선 내 침입의 기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난민 약 300명이 조선 내로 쇄도하여 사태가 급박함을 알려왔다. 이에 서장의 명령에 따라 출동부대의 대장으로 순사부장 이하 15명을 이끌고 월경 출동하니 적은 납치자를 방환하고 맹가동(孟哥洞) 오지로 도주하였으므로 피난민 보호, 질서유지에 노력하다 다음날인 3일 오후 7시 귀환하였다.

2. 1932년 4월 4일 대안 덕화사(德化社) 맹가동 방면에 약 90여 명의 병비가 집결하여 남평(南坪)영사관경찰분서 습격을 공언하자 대안 주민 수백 명이 조선 내로 피난하여 사태가 급박함을 알려 오므로 4월 5일 오전 0시 30분 가네이(金井) 경부보가 지휘하는 경찰대 분대장으로 월경하여 무산수비대 1개 소대와 협력하여 남평영사관경찰분서와 연락 경계하였다. 적은 우리 경계가 엄중함을 보고 오지로 도망하였으므로 피난민 구호 및 치안유지에 노력하다 오후 7시 귀환하였다.

3. 1932년 3월 만주국 건국에 반기를 들고 안도현(安圖縣) 오지에 잠복하여 대기중이던 병비 청산(靑山) 일파가 점차 두만강 가까이로 남하하여 흉포한 행위를 자행하고 조선 내 침입을 호언하고 있었는데 1932년 6월 21일 오전 2시경 무장한 일파 30명이 대안 만주국 화룡현 숭선사 혼동을 습격하여 조선인 1명을 사살하고 4명을 납치하고 금품을 약탈하였으며 나아가 조선 내 침입의 기세가 농후하였다. 이에 가네이(金井) 경부보가 지휘하는 토벌대 분대장으로서 월경 출동추격하여 적으로 하여금 납치자 4명을 방환케 하고 오지 안도현으로 궤주시켰다.

4. 안도현에 잠복한 구국군 제4혼성여단 제7단 독립영 가옥산(賈玉山)의 일파 200명이 7월 5일 화룡현 덕화사 하광포로 이동하여 두만강을 따라 내려와 7월 9일 오전 3시 30분 남평 부락에 침입하여 민가 2호에 방화하고 조선인과 중국인 9명을 살상하고 금품을 약탈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남평 소재 부동영사관경찰분서에서는 사력을 다해 응전하는 한편 무산 주둔 수비대 및 무산경찰서에 구원을 요청하는 특사를 파견하였다. 무산수비대 및 경찰서에서는 즉시 비상소집을 하여 수비대로부터 장교 이하 70명, 경찰서로부터 20명의 토벌대를 응원하려 할 때 가네이(金井) 경부보의 지휘하에 분대장으로서 월경하여 부동분서원과 협력해 용맹하고 저돌적으로 적을 압도하여 적 5명을 사살하고 1명에게 부상을 입혀 약 10킬로미터 하류인 덕화사 유동 오지 삼림 속으로 궤주시키고 오전 8시 남평으로 돌아와 그곳의 경계와 피해자의 구호를 맡았다.

5. 1932년 7월 30일 오후 무산수비대장 이마세키(今關) 소좌 이하 병사 85명이 비적 토벌을 위해 합화사 하광포 방면으로 출동할 때 기관총 및 식량운반용 말을 차출하는데 협력하기 위해 서장의 명을 받고 경찰대를 지휘하여 말 7마리를 차출하여 제공함으로써 군의 행동을 용이케 하였다.

6. 1932년 9월 14일 오후 6시 무산수비대장 다카하시(高橋) 소좌 이하 108명이 병비 토벌을 위해 출동

하면서 비적의 첩자가 대안으로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근 선박의 운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을 때, 동료 경찰관들을 독려하며 임무를 수행하여 결국 수비대가 병비 20여 명을 사살하고 총기와 탄약 다수를 노획하도록 도왔다.

7. 1933년 7월 27일 비적 단석정(段錫亭) 일파 약 50명이 대안 덕화사 부동과 산양동에서 덕화사 사장 및 동민 여러명을 납치하고 부근 부락을 약탈하고 폭행을 저지름에 따라 8월 1일 오전 7시 다나베(田邊) 서장의 명을 받고 출동부대의 대장으로 순사부장 이하 10명을 지휘하여 남촌 대안에서 월경 출동하여 갈료동 및 강장동에서 적의 밀정으로 보이는 중국인 2명을 체포하고 장총 1정, 탄약 20발을 노획하였으며 나머지를 맹가동 오지로 패주시켰다.

8. 1933년 10월 20일 이래 병공비 토벌을 위해 출동 중이던 간도 남부파견부대 구라모토(倉本) 대위 이하 57명이 토벌 중 전사자 1명, 사상자 2명이 발생하여 주둔지로 귀환하게 되었는데, 이때 대장의 요청으로 자동차 2대를 차출하여 부상병의 수송에 협력하였다.

9. 1931년 9월 18일부터 1934년 3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월경 경작하는 농민보호를 위해 월경 경계에 종사한 것이 7회에 이르렀는데 그 목적을 잘 달성하여 비적의 강안진출을 방지하였다.

이상의 공적이 특히 현저하여 두서의 상격이 있다고 인정한다.

〈출전 : 「功績調書(林學來)」, 『昭和9年 昭和11年 功勞賞ニ關スル書類綴 滿洲事變行賞(第1次)』, 국가기록원 소장〉

36) 정봉한(鄭鳳漢)

고 조선총독부 함경남도 순사 정봉한(鄭鳳漢)

1. 위 사람은 1931년 9월 18일 만주사건이 발발하자 함경남도 호인경찰서 운전(雲田)경찰관주재소에서 상사의 명령을 받들어 특별사찰경계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당시 그곳의 대안 중국 장백현(長白縣) 반재구(半載溝) 내시궁(內矢弓)에서 육군병사 및 경비기관이 각지 중국신문의 역선전과 유언비어에 자극을 받아 극도로 긴장하여 급거 자위단을 증원해 각 요충지에 배치하고 또한 요소에 방비공사를 하는 등 오로지 강변의 경계에 힘써 언제 우리에게 반항하여 도전적인 태도로 나오거나 예측하지 못하는 전투를 일으킬 지 알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이러한 시기에 서장의 명령에 따라 위험을 무릅쓰고 밀정으로서 대안에 잠입하여 중국관헌의 동향을 정탐하는데 힘쓰거나 혹은 강기슭의 경계와 야간연락, 유동수사 등 불면불휴 어려운 국경경비근무에 복무하여 그 중책을 완수했다.

2. 1932년 3월 1일 만주국 건국은 중앙에서 먼 본도 대안의 조선인과 지나인에게도 커다란 충격을 주어 엄청나게 민심의 동요를 가져왔는데 본인 등의 노력에 의해 각종 불온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그렇다 해도 이 기간에 대안 만주국의 치안이 혼란스럽기가 난마와 같아 조선 내의 민심도 흉

흉해져 안정되지 않았다. 특히 마적과 비적 및 반만항일의용군 대도회비 등의 조선 내 습격이 빈번하다고 전해지고 또한 강기슭에 출몰하는 자들이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므로 소속 서장은 중국어을 잘하는 본인을 대안에 잠입시켰고 본인은 당당히 위험을 무릅쓰고 대안에 잠입하여 정확하고 유리한 정보를 수집하게 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1932년 5월 장백현 공안대대장 이괴무(李魁武)의 형세를 알 수 없는 배반의 징조가 있음을 사전에 탐지하여 소속서장에게 보고하였다.

3, 1932년 5월 13일 전 장백부 공안대대장 이괴무(李魁武)가 반만항일의용군에 투신하자 그의 부하 약 300명도 이어서 이괴무(李魁武) 아래로 들어갔다. 장백부 습격 등을 공언하는 이괴무(李魁武)의 세력이 커지자 장백현장의 위신이 땅에 떨어져 명령이 이행되지 않아 대안 장백현 내의 치안이 극도로 어지러워졌을 때 여러차례 위험을 무릅쓰고 대안에 잠입해 우리에게 유리한 정보를 수집하여 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책임을 완수했다.

4, 1932년 9월 3일 새벽에 병비 왕귀방(王貴芳) 일파 약 50명이 그 대안 만주국 내시궁을 습격해 권총 3정, 탄약 54발, 신발 15켤레를 강탈하여 십칠도구 오지로 철수한 사실을 탐지하고 소속서장에게 보고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케 했다.

5, 1932년 9월 6일 전기 류금당(劉金堂)이 대안 오지방면으로 달아난 후 부근에서 표변하여 병비를 규합해 부하 70명을 이끌고 십육도구 신창동(新昌洞)에 나타났으며 이와 전후하여 그곳으로 옮겨 온 마점발(馬占發)의 일파 83명과 합류하여 오지에 근거를 두고 흉포한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는 것을 탐지하여 소속서장에게 보고했다.

6, 본인은 밀정으로 대안에 잠입 중 1932년 9월 27일 류금당(劉金堂)의 일파 70명, 조영방(趙永芳)의 일파 60명이 다시 십육도구, 십칠도구로 옮겨와서 그날 밤 곧바로 대안 십칠도구 구동(鳩洞)의 부호 만주인 장금성(張金聲)의 집을 습격하여 약 3백엔의 금품을 강탈하고 그의 집 서기 1명을 납치해 갔으며, 또 류금당(劉金堂)의 본대는 이어 내시궁을 습격하여 일본돈 3백엔과 물품가액 4백엔 가량을 강탈하고 그곳 상무회장 손광빈(孫廣斌) 외 5명을 납치해 갔다는 사실을 탐지하고 소속서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했다.

7, 1934년 2월 중순 대안 오지에 무장마적이 출몰한다는 정보에 따라 소속서장의 명을 받고 2월 22일 대안에 잠입하여 적정을 내탐하던 중 만주국 장백현 십팔도구 어구리(於口里)에서 불령만주인 수명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마침내 장렬히 순직하였다.

위 사람은 이상에 열거한 것처럼 1931년 9월 18일부터 1934년 2월 22일 순직할 때까지 전후 2년 6개월간 호인경찰서에 재직하면서 국경경비 및 이에 관한 첩보근무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차례 대안에 잠입하여 정확한 정보수집에 노력하다 마침내 순직하게 되었으므로 그 공적이 현저하여 두서의 상격이 있다고 인정한다.

〈출전 : 「功績調書(鄭鳳漢)」, 『昭和11年 功勞賞二關スル書類綴 滿洲事變行賞(第1次)』, 국가기록원 소장〉

37) 정재범(鄭載範)

[37-1]

조선총독부 평안북도 순사 정재범
(위원경찰서 근무), 공로 갑

위 사람은 1935년 8월 31일부터 1936년 7월 9일까지 국경제일선의 경비에 복무하며 시종 불면불휴로 압록강안의 경비에 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대안에 잠입하여 적정을 탐지하고 이를 통해 비적과 교전하여 격퇴하였다. 또한 대안의 적의 규모를 파악하고 기선을 제압하여 월경토벌 또는 소탕을 용이케 하였으며 납치자, 피난민 등을 구출하는 등 매우 부지런히 근무에 임하여 조선과 만주 국경지대의 치안을 확보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녕케 하는데 노력하였다. 특히,

1. 1935년 10월 4일 새벽 만주비적 황덕유(黃德有)의 인솔아래 약 30명의 비적이 집안현(輯安縣) 제2구 관문립자(關門砬子)로 이동하여 고뢰선을 습격하여 조선 내로 침입을 기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신천출장소 순사부장 미야야마(宮山淸雄)가 후지사와(藤澤), 노구치(野口), 미즈마치(水町), 하라(原) 등 각 순사를 인솔하여 오전 9시 상노암감시소로 급행하여 경계에 임하는 동시에 후쿠지마(福島), 이케다(生田), 김(金) 순사를 대안 임강구(林江口)로 월경시켜 적정 정찰에 노력하였으며 본인 외 2명을 인접서에 파견, 연락을 하여 강안에 대한 엄중경계에 노력한 결과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2. 1935년 11월 17일 오후 10시경 만주비적 황덕유(黃德有) 이하 9명이 집안현 제2구 유수림자(楡樹林子)의 강 입구 및 동쪽 언덕으로 습격하였다. 이들은 2개 부대로 나누어 1개 분대는 상노암감시소 및 임강구(林江口) 앞의 감시소에서 발포하였으며, 다른 1개 부대는 임강구의 만주인 장덕산(張德山) 및 □상복(□尙福)의 집를 방화하였다. 이에 경계근무 중이던 신천출장소 임강구 앞 감시소 하라(原) 순사 및 상노암감시소에서 근무 중이던 도미나카(富永), 이치가와(市川) 등 순사가 직접 이에 응사하였다. 석총소리가 나자 이에 신천출장소 순사부장 미야야마(宮山淸雄)의 지휘하에 본인 외 3명은 기관총을 휴대하고 급히 상노암감시소로 출동하여 적을 향해 사격을 가하였다. 교전 약 20분이 지나자 적은 오지로 궤주하였고, 만주인 2명을 납치하였다.

3. 1936년 2월 9일 만주비적 황덕유(黃德有) 이하 30여 명이 집안현 제2구 황령(荒岭)에서 차도령(車道嶺)으로 남하하여 임강구(林江口) 및 신천출장소를 급습할 것이라는 믿을만한 정보가 들어왔으므로 위원경찰서장 경부 사카모토(坂本信作)는 서원 6명을 인솔하고 신천에 도착하여 신천출장소 순사부장 미야야마(宮山淸雄) 이하 5명 및 연풍출장소 순사부장 사다무네(定宗美義) 이하 5명으로 이루어진 토벌대를 결성하였는데 본인 또한 이 토벌대에 참가하였다. 그날 오후 7시 임강구에서 월경한 적은 우리 토벌대의 진출을 알고 제3구 석청구(石靑區) 방면으로 도주하였으므로 토벌대는 이를 급히 추격하여 다음날인 10일 오전 0시 석청구 입구에서 도주하는 적을 발견하고 이에 사격을 가하였다. 교전 10분 이후 적은 납치자 1명을 풀어주고 도주하였으며 이에 약 반리를 추격하였으나 적의 행방을 찾는데 실패하여

일선의 추격을 중지하고 오전 3시 30분 조선쪽으로 귀환하였다.

4. 1936년 6월 17일 오전 9시 만주비적 노래호(老來好), 점만주(占滿洲)의 일파 15명이 조선비적 김창화, 이일형의 일파 10명과 합류하여 집안현 제2구 고력묘자(高力墓子)에 잠복하여 임강구의 습격을 기도하고 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천출장소 요시다(吉田) 순사부장의 지휘하에 9명이 조직되어 임강구로 월경하였는데 적이 제2구 전자구(前子溝) 방면에 잠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오전 10시 10분 그곳을 출발한 요시다(吉田)반 및 본도 후지사와(藤澤)순사 이하 5명은 전자구 방면으로 전진하여 양 부대는 제2구 차도령 북서방 삼거리에서 합류하였다. 오후 0시 30분 앙실립자(迎實砬子)(강안에서 약 1리)를 통과할 때 돌연 전방 700미터의 산중턱에서 비적들이 우리를 향하여 급사하기에 응전을 시작하였다. 약 20분의 교전 후 적을 제3구 석청구 방면에서 격퇴하였으며 유수림자(楡樹林子)경찰서 16명이 응원을 왔다. 이후의 추격을 위하여 우리 부대는 오후 2시 30분 조선 내로 복귀하였다.

5. 1936년 7월 6일 오전 2시 30분 경 비적수괴 노래호(老來好) 및 조선비적 혁명군 제2중대장 김창화가 합류한 비적 약 20명이 조선 내 침입을 목적으로 위원경찰서 상노암감시소 약 800미터 위쪽을 돌파하여 만주국 측 강안으로 진출하는 것을 순찰중이던 미즈마치(水町), 정(鄭) 두 순사가 발견하여 조선측에서 공격하였다. 교전 중 총성을 듣고 상노암감시소에서 근무중이던 야마모토(山元), 도미나카(富永) 두 순사가 직접 현장으로 급행하여 미즈마치(水町), 정(鄭) 두 순사와 협력하여 적에게 맹사격을 퍼부었다. 적은 강하게 저항하였으나 우리의 공격으로 인하여 교전 25분만에 오지로 궤주하였다.

이상의 공적이 특히 현저하여 두서의 상격이 있다고 인정한다.

〈출전 : 「功績調書(鄭載範)」, 『滿洲事變功績調書』 卷182, 1938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37-2]

조선총독부 평안북도 순사 정재범(鄭載範)
(위원경찰서 근무)

위 사람은 1936년 7월 10일부터 1937년 3월 4일에 이르는 기간에 국경제일선 경비에 복무하며 늘 불면불휴 오직 국경지대의 치안확보에 진력하였는데 그간 토비에 관한 공적은 다음과 같다.

1. 1936년 8월 6일 오후 10시 40분경 조선비적 혁명군 제2중대장 김창화(金昌化) 이하 10여 명과 특무대장 박유빈(朴有彬) 이하 12명의 비적들이 신천(新川)출장소 대안 집안현(輯安縣) 임강구(臨江口)를 습격해 와 임강구 앞 감시소를 향해 일제사격을 시작하였다. 감시소에 근무중이던 하라(原) 순사는 이에 응전함과 함께 신천출장소에 응원을 구했으므로 본인은 토미나가(富永) 순사 외 7명과 함께 급거 지원하여 맹사격을 퍼부었는데 적은 마침내 우리 총화의 위력을 견뎌내 못하고 교전 약 40분만에 오지를 향하여 궤주하였다.

2. 1936년 9월 6일 오전 0시 40분 경 만주비적 제2연장 중산의(中山義)가 이끄는 약 20명이 대안 집안

현 제2구 유수림자(楡樹林子) 임강구(林江口) 동쪽 언덕으로 이동해 와서 조선 내로 침입하고자 하는 것을 상노약(上老若)감시소에서 망을 보고 있던 이케다(生田)순사가 수하해도 대답을 하지 않자 발포했다. 이 급보를 들은 본인은 요시다(吉田)부장 이하 7명과 함께 즉시 현장으로 급행하여 교전 약 40분만에 이들을 오지로 격퇴했다.

3. 1936년 9월 9일 오후 10시경 만주비적 청산호(靑山好) 이하 10여 명이 대안 집안현 제2구 유수림자 임강구를 습격하여 방화와 약탈을 감행함과 동시에 조선쪽을 향해 발포했으므로 임강구 앞 감시소에서 망을 보던 야마모토(山元) 순사가 곧바로 이에 응전중이라는 급보에 따라 본인은 요시다(吉田) 부장 이하 7명과 함께 임강구 앞 감시소에 급행하여 야마모토(山元) 순사와 협력해 이미 설치된 참호에 들어가서 교전 약 40분만에 적을 오지로 격퇴했다.

4. 1936년 9월 12일 구국군 제2연장 중산의(中山義) 이하 30여 명이 집안현 제2구 유수림자 임강구 서영곡(西永谷)으로 이동해 와서 우리 월경경찰관의 총기탈취를 계획 중이라는 정보가 있었으므로 이를 내사하기 위하여 본인은 요시하라(吉原), 김찬희(金贊凞) 두 순사와 함께 오전 10시 유수림자 임강구로 월경하여 강기슭으로부터 약 100미터 지점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서쪽 산허리 및 부근 수수밭에서 잠복해 기다리고 있던 비적 약 30명이 난사하여 요시하라(吉原) 순사가 오른쪽 대퇴부에 총상을 입었음에도 강인한 요시하라(吉原) 순사는 조금도 겁내지 않고 다시 그 자리에 엎드려 앞에 있는 적을 향해 맹사격을 퍼부어 격퇴시키고자 노력했으나 가까운 거리로서 장소의 잇점을 얻지 못하고 요시하라(吉原) 순사는 또다시 대퇴부 및 오른쪽 견비골에 관통총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혼절 인사불성에 빠졌다. 이보다 앞서 부근에서 엎드려 응전 중이던 본인 역시 오른손에 적탄을 맞고 식지가 절단되어 오른손으로는 사격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곧바로 모젤 권총을 왼손에 바꾸어 쥐고 적 앞으로 육박해서 일거에 승부를 결정짓고자 용감하게 몸을 던져서 전진하였으나 적탄은 계속해서 본인의 오른쪽 대퇴부에 명중하고 더욱이 갖고 있는 권총의 미통부에 적탄이 관통하여 사격불능이 되고 그때 왼손 약지와 새끼손가락을 절단하여 끝내 권총을 떨어뜨렸다. 이에 본인은 어쩔 수 없이 후퇴를 결의하고 권총을 적에게 빼앗겨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여 상처입은 양손으로 겨우 권총을 근처의 콩밭에 던져넣고 요시하라(吉原) 순사의 위급함을 알리기 위하여 곧바로 신천출장소에 향해 후퇴하던 중 다량의 출혈과 극도의 피로 때문에 자칫하면 그 자리에 쓰러져 혼절할 뻔 했으나 혼신의 용기를 내어 마침내 출장소 대안까지 기어와서 큰소리로 "적이 습격을 왔다"는 연락을 한 후 드디어 정력과 끈기가 다하여 선혈이 흐르는 채로 그 곳에서 혼절하였다. 급보에 의하여 본서에서는 고오노(河野) 경부보 이하 17명의 토벌대를 편성하여 현장에 급행해 근처를 수사한 후 임강구 시가지, 언덕, 산 뒤편, 차도령(車道嶺) 등을 수색하고 응취립자(鷹嘴砬子)로 나왔으나 적의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다무네(定宗) 부장반과 함께 오후 7시 20분에 임강구로 철수했다.

또한 송진, 구배, 사장출장소로부터 선발한 15명의 토벌대가 사다무네(定宗) 부장의 지휘 아래 사장출장소 대안인 집안현 흑구(黑溝)에서 적의 퇴로로 보이는 대고력묘자(大高力墓子) 응취립자(鷹嘴砬子)로 급행하여 부근 일대를 수사했으나 적의 그림자도 발견 못하고 응취립자(鷹嘴砬子)에서 고오노(河野) 토벌대와 합류하여 임강구로 철수했다.

또 남파, 이산 두 출장소에서는 마에(前) 부장 이하 10명의 토벌대를 편성하여 관문립자(關門砬子)에 잠복하고 부근 일대를 검색 수사했으나 적의 그림자도 없었기에 신천서 관내 상노약동(上老若洞) 대안 동쪽 언덕까지 남하했으나 또다시 얻는 바가 없어 오후 8시 상노약동으로 철수했다.

또 연풍주재소의 쓰치야(土屋) 부장 이하 5명이 급보에 따라 곧바로 임강구에서 월경하여 적을 급히 추적하고 차도령(車道嶺)에서 요시다(吉田) 부장반과 합류하여 수사하고 삼도하자(三道河子)에서 요시다(吉田)반과 헤어져 양수천자(凉水泉子) 주하리(朱下里)를 거쳐서 오후 8시 연풍주재소로 철수했다.

이상의 공적이 특히 현저하여 두서의 상격이 있다고 인정한다.

〈출전 : 「功績調書(鄭載範)」, 『昭和14年度 功勞賞ニ關スル書類綴(滿洲事變第3次行賞)』, 국가기록원 소장〉

38) 정재춘(鄭在椿)

[38-1]

조선총독부 함경남도 순사 정재춘(鄭在瑆)[3]

1. 위 사람은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滿洲事變)이 발발하여 대안의 치안이 혼란하고 조선내지 역시 민심이 동요하여 유언비어가 유포되어 이 틈을 타고 불량청소년 간에 불온책동의 경향이 있으므로 혜산(惠山)경찰서 고등형사로서 민심의 동향에 대한 사찰과 취체에 전념하는 한편 밀정을 대안에 몰래 보내어 정보수집에 노력함과 함께 자신도 역시 스스로 대안에 가서 내정 및 첩보근무에 종사하였다. 그중 관내 대오시천(大五是川) 방면의 화전지대에 공산당원이 잠입하여 대안의 시국을 틈타 국경지대에서 폭동을 야기하려고 계획중이라는 것을 탐지하고 관계자 전부를 검거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특별경계에 종사하였다.

2. 1932년 5월 13일 장백현(長白縣) 공안대대장 이괴무(李魁武)가 반만군(反滿軍)에 투항한 이래 장백현내는 극도로 혼란하여 조선 내를 침입한다거나 장백부를 습격한다는 유언비어가 유포되어 중국인 및 이주 조선인이 조선 내로 피난하는 일이 속출하였으므로 이들 피난민의 수용과 보호를 맡음과 함께 정보의 수집 및 민심의 동향을 내정하여 경계하는 등 경비경계에 종사하였다.

3. 1932년 6월 6일 제4수비대가 월강하여 장백부로 출동하니 장백부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낭패가 극도에 달하였다는 유언비어가 널리 퍼졌는데 일부에서는 황군(皇軍)에 대한 불온계획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으므로 헌병과 연락을 긴밀히 하여 그 사찰경계를 맡았다.

4. 대도회비(大刀會匪) 유금당(劉錦堂)의 일당 80명이 10월 1일 장백현 십팔도구 관방자(官房子) 부근에 나타나 그곳 구장 김웅준(金雄俊)을 납치하고 부근 이주 조선인으로부터 식량과 금품을 강탈한 뒤

3) 원문에는 '鄭在瑆'으로 기록되었으나 오기로 보아 수정하였음.

조선 내지를 습격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토벌대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이도강(二道崗) 방면으로 추적하여 그들을 무송현(撫松縣)으로 격퇴하였다.

5. 조선 비적 국민부원 윤정호(尹廷鎬)의 부하인 소대장 김무일(金武一)이 10월 하순 장정모집의 임무를 띠고 무송현으로부터 남하하여 장백현 십팔도구 상덕풍(上豊德)에서 활동중이라는 정보가 있었으므로 테리야마(照山) 경부보의 지휘 아래 대안으로 월강 진출하여 상풍덕에 잠복 중인 김무일을 체포하여 돌아왔다.

6. 만주사변 발발 이래 1934년 3월 31일까지 대안의 정세가 혼돈하여 마적과 비적이 횡행하고 출몰하여 금품 강탈 등의 흉포한 행위를 감행하고 조선 내 침입을 기도하므로 고등형사로서 다수의 밀정을 사용하여 그들을 대안으로 밀행시키거나 혹은 자기도 역시 대안으로 가서 첩보근무를 완수하였다. 기타 강안경계, 야간연락, 유동수사 등 경비경계 및 조선 내 불온분자의 책동을 사찰하고 취체하는 등 불면불휴 국경경비에 종사하였다.

위 사람은 이상에 열거한 것처럼 1931년 9월 18일부터 1934년 3월 31일까지의 2년 7개월간 혜산경찰서에 재직하면서 국경경비 및 사건에 관한 첩보근무와 마적과 비적의 토벌 등에 종사하며 그 공적이 특히 현저하여 두서의 상격이 있다고 인정된다.

〈출전 : 「功績調書(鄭在椿)」, 『昭和9年 昭和11年 功勞賞ニ關スル書類綴 滿洲事變行賞(第1次)』, 국가기록원 소장〉

[38-2]

조선총독부 함경남도 순사 훈8등 정재춘(鄭在春)[4]
(혜산경찰서 근무)

1. 만주국 건설 이래 나라 안의 치안공작이 점차 궤도에 올라가고 있다고는 해도, 대안 장백현(長白縣)에는 아직 비적이 함부로 날뛰고 흉포함이 극에 다달아 치안이 극도로 문란하고 민심의 동요가 심했다. 이에 위 사람은 1936년 7월 10일 이후 1937년 7월 6일에 이르기까지 혜산경찰서의 고등계형사로서 만주사변에 따른 특별경계근무에 종사하고, 상사의 명령을 잘 따라서 불면불휴 대안정보와 불령자의 사찰, 대안이주 조선인의 보호 및 강안 경계, 야간연락, 입초 등 어려운 국경경비의 중책을 완수하였다.

2, 1936년 9월 12일부터 시작된 보병 제74연대 국경수비대의 월경토벌에 따라 십구도구 오지에 우글거리던 비적단이 출동부대의 압박으로 인해 이십삼도구 채목공사의 목재운반철로 제3종점의 이북을 돌파하여 상류방면으로 도주할 것으로 예상한 정재춘 순사는 이 토벌대에 참가하여 시오타니(鹽谷) 서장 외 51명과 함께 9월 12일 오전 6시 20분에 이십도구로부터 월경하여 오후 9시 제3종점의 삼림경찰대에

4) 원문에는 '鄭在春'으로 기록되었으나 오기로 보아 수정하였음.

도착해 그곳에서 숙영하며 야간정찰 및 경계에 복무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다음날인 13일 오전 5시 50분 우리 척후가 그 전방 약 400미터의 숲속을 통과하는 적 약 30명을 발견하고 전투를 개시했으나, 적은 지형의 이점을 이용해 완강히 저항하여 수월하게 대응할 수가 없었으므로 비처럼 쏟아지는 탄환 속을 공격전진해 나아가자 적은 용감한 우리 부대의 행동에 공포를 느끼고 교전 40분만에 후방의 밀림으로 도주하였으며, 이를 추격하여 오지로 패주시키고 오후 10에 귀환하였다.

3. 1937년 5월 19일 함북 삼장서 관내 무산군 삼장면 암동 및 삼수평 임목작업장을 습격해 많은 금품을 약탈하고 인부 50명을 납치한 동북항일연합군 제2군 제1단장 최현(崔賢)과 정치부위 주수동(周樹東)의 합동부대 비적 약165명이 다음날인 20일 관내 상흥계수(上興溪水) 및 칠사장(七土場)을 습격하여 많은 금품을 약탈하고 인부 32명을 납치하였는데, 이들 적단은 경기관총 6정, 탄통 1와 각자 장총 혹은 권총을 휴대하고 있어, 국경지대의 치안이 용이치 않은 긴급한 상태였다. 이에 정재춘 순사는 이들의 토벌에 참가하여 시오타니(鹽谷) 서장 이하 백여 명과 함께 5월 21일 오전 4시 30분 혜산을 출발하여 현지로 향해 11시에 상흥계수에 도착하였다, 정찰한 결과 적은 침봉(枕峯) 부근의 거대한 밀림 속에 잠입한 흔적이 있기에, 이때부터 그달 26일까지 6일간 침봉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호우를 무릅쓰고 불면불휴로 모든 어렵고 괴로운 상황과 싸워가며 거대한 밀림 속에서 추격과 토벌에 종사하였다. 그 결과 우리의 용맹과감한 공격에 기선을 제압당한 적들은 새벽에 만주지역으로 도주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다시 추격하여 이들을 섬멸하고자 27일 오전 6시에 호언(號堰)으로부터 월경하여 한가구자(韓家溝子) 만주국 삼림경찰대 제1중대에 이르러 이들과 연락하였다. 첩보의 결과 적단이 멀리 십구도구 오지에 잠복하고 있음이 판명되었으므로 그곳에서 숙영하고 다음날인 28일 오후 4시 30분 토벌의 목적을 달성하고 천수경찰관주재소로 귀환하였다.

4. 1937년 6월 4일 오후 10시경 보전(保田)경찰관주재소 및 그 소재지를 습격하여 방화와 살인, 약탈, 납치 등 수많은 폭거를 자행한 비적 김일성(金日成) 부대를 토벌함에 있어, 정재춘 순사는 이 토벌대에 가담하여 이마무라(今村) 경부보 외 11명과 함께 오전 0시 20분 서장을 따라 보전으로 향하던 도중 가림(佳林)주재소 앞에서 현재 오오카와(大川)부대가 산위(山衛)주재소 근처에서 교전하고 있으니 급히 도우러 가라는 명령을 받고 서둘러 갔으나 오오카와(大川)부대가 이미 적들을 격퇴하고 예정지로 향했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보전으로 향했던 바 다시 산위주재소 근처를 경계하라는 명령을 받고 주재소에 가 정보를 청취하고 있을 즈음에, 오오카와(大川)부대로부터 온 전령 아이하라(相原) 순사로부터 현재 오오카와(大川)부대가 고전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즉시 출발하였다. 그 도중에 오오카와(大川)부대의 전령 야마사키(山崎) 순사가 또 와서 이십삼도구 오른쪽 기슭 대지로부터 급히 와달라는 연락을 전했으므로 현장으로 급히 가던 도중 총소리를 듣고 전진해 오오카와(大川)부대 옆까지 갔지만, 이미 적들을 격퇴하고 사상자의 치료를 하고 있었기에 그 부대의 생존자와 함께 이들을 수용하였다. 본 대원은 그 사이 교전이 없었다고 말하였지만 비적단이 본부대의 조속한 출동을 알고 갑자기 퇴각을 서둘렀다고 인정되므로 그 공적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공적이 우수함으로 두서의 상격이 있다고 인정한다.

〈출전 : 「功績調書(鄭在春)」, 『昭和14年度 功勞賞ニ關スル書類綴(滿洲事變第3次行賞)』, 국가기록원 소장〉

39) 정충원(鄭忠源)

의서(擬敍) : 사금(賜金) 200
상격(賞格) : 공로(功勞) 을(乙)
주공관등(奏功官等) : 고(高) 6
1940년 4월 29일 현재 관직 : 조선총독부 평안남도 도경시 정7위 훈1등
성명 : 정충원(鄭忠源), 오천충원(烏川忠源)
생년월일 : 1893년 5월 22일
주공기간 : 1937년 8월 6일 ~ 1940년 4월 28일
주공관직 : 도경시 보안과장
공적사항

1. 군용자동차, 운전자 징용 업무
   별지 현인서와 같음

2. 방공에 관한 사무
   별지 현인서와 같음

3. 시국적 범죄의 방지, 단속, 검거 업무

1) 1938년 10월 16일부터 1940년 2월 9일에 이르는 기간동안 경제경찰의 주무과장으로 계주임 이하 계원을 지휘하여 경제정보 수집, 각종 경제통제법령 위반방지 및 검거지도를 담당하였다. 그 동안 해당 법률 위반 검거가 84건, 위반 훈시 1,639건에 달하여 국방경제 확립을 위해 그 책무를 완수하고자 노력하였다.

2) 1937년 8월 6일부터 1940년 4월 28일에 이르는 기간동안 중일전쟁 발발과 함께 금 밀수출사범이 크게 늘어나자, 부하인 사법주임 이하 사법계 형사를 지휘하여 각서와 연락을 유지하며 수사를 계속하였다. 그 기간에 12건 112명, 금액 68만 엔의 반칙사범을 검거하여 시국하 국방경제의 확립에 기여하였다.

공적현인서

조선총독부 평안남도청 보안과
평안남도 경시 보안과장 정충원(鄭忠源)

1. 기간 : 1937년 8월 20일 ~ 1937년 8월 24일
2. 공적사항

중일전쟁이 급박해지자 관동군은 내몽고방면 작전에 임하여 자동차수송으로 후방연락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수를 급모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에 징용준비를 조선군을 거쳐 경찰관서에 요구하였다. 정충원은 이러한 요구를 접하자 전후 3일 밤낮에 걸쳐 불면불휴 징용에 노력하였던 바 소정의 기일까지 소요인원을 군에 제공함으로써 군의 작전행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이에 그 공적이 현저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1937년 8월 31일

관동군 경리부장 야베(矢部潤二)

조선총독부 도경시 정충원(鄭忠源)

위 사람은 1937년 8월 6일부터 1938년 2월 5일에 이르는 기간동안 평안남도 보안과장으로 방공업무를 주관하고, 방공법 시행 전에 방공감시대의 훈련지도에 노력하였으며, 1937년 8월 23일 응급방공이 하령되자 전 감시초를 배치하고 방공업무의 지도통괄 임무를 맡았다. 이어 도내 관민의 방공사상 계발 조장에 노력하는 한편 방공법 시행에 따른 방공사무의 원만한 수행에 노력하였다.

이에 그 공적이 현저하여 공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한다.

준위관 12명 제7위

위를 현인함.

1939년 11월 10일

평양지구 방공사령관 육군보병 대좌 사이토(齊藤正彦)

〈출전 : 「功績顯彰書(鄭忠源)」, 『支那事變功績調書』 朝鮮總督府 卷3,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40) 조연진(趙然軫)

조선총독부 함경남도 순사 조연진(趙然軫)

(혜산경찰서 근무)

1. 만주국이 건설된 이래 국내의 치안공작이 차차 본궤도에 오르고 있지만 대안 장백현(長白縣) 안에서는 아직도 공비, 마적과 비적의 발호가 더욱 맹렬해져 치안이 극도로 문란하고 민심의 동요가 심하였다. 이때 위 사람은 1936년 7월 10일부터 1937년 6월 5일 전사할 때까지 당서 외근근무에 힘쓰며 만주사변을 맞아 특별경계근무에 종사하여 상사의 명령을 준수하고 강안경계와 야간연락 및 입초와 유동수사 등 어려운 근무를 맡아 그 중책을 다했다.

2. 1936년 9월 12일 보병 제74연대 국경수비대와 서로 호응하여 실시된 장백현 내 비적단 토벌에 시오타니(鹽谷) 서장을 대장으로 하는 토벌대에 참가하여 12일 오전 6시에 이십도구로부터 월경하여 도중

에 척후로서 적정 정찰에 힘쓰며 전진해 그날 밤은 제3종점인 만주국삼림경찰대에서 숙영했는데, 다음 날 오전 5시 50분경 우리 척후가 전방 4백미터의 낙엽 진 숲속을 통과하는 적 약 30명을 발견하여 그들과 교전하자 조 순사는 교전에 참가하여 맹사격을 가해 약 50분만에 이를 격퇴함으로써 군의 작전에 공헌하여 국경경비의 중책을 다하다.

3. 1937년 6월 4일 비적수괴 김일성(金日成) 부대가 보전(保田)주재소 및 그 소재지를 습격했던 사건에 즈음하여 오오카와(大川) 경부가 지휘하는 토벌대에 참가하여 6월 5일 오전 0시 혜산을 출발해 적의 퇴로라고 짐작이 되는 이십삼도구 입구로 급행하던 도중 산위(山衛)주재소로부터 약 1킬로 떨어진 지점에 다다르자 곧바로 대안 고지로부터 우리 부대를 향하여 맹사를 가해 왔으므로 곧바로 응전하여 30분만에 적을 침묵시켰다. 오전 4시 목적지인 이십삼도구 입구에 도착하여 정찰한 결과 적은 이미 만주땅으로 철수했음이 판명되어, 오전 5시 30분에 압록강을 도강 월경하여 부근의 부민을 내탐한 결과, 적의 퇴로를 확인하고 오전 6시 30분부터 추격하는 제1분대에 참가하여 공격 전진하며 이동하였다. 그런데 이 고지는 높이 약 400미터, 경사 60도의 급비탈의 험준한 작은 길이 있으며, 그 좌우 20미터에는 나무가 없이 바위와 작은 돌들이 노출되어 흩어져 있으며, 그 양쪽은 관목이 울창하여 우리 산개부대의 전진을 더욱 곤란하게 했으나, 필사적으로 전진을 계속하였다. 우리 척후가 정상에서 약50 미터 떨어진 곳에 도달했을 때, 약 30미터 전방의 돌기부로부터 경기관총의 맹사격를 받은 조 순사는 곧바로 이에 응전하여 용감무쌍하게 몇 배의 강적들에게 많은 손해를 입혔으나, 오전 8시 40분에 마침내 적탄이 조 순사에게 명중하여 허리로부터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 및 오른쪽 가슴에 이르는 관통총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몇 배인 적 앞 50미터 내외의 지점에서 십자형 포화 아래에서 한걸음도 후퇴하는 일이 없이 잘 그 위치를 유지하고 죽음으로써 우군이 대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사람은 이상과 같이 11개월간에 걸친 국경경비근무 중 월경토벌이 두 번에 달하고, 이십삼도구 입구 약 6킬로미터 지점에서의 대격전에서 동료 6명과 죽음을 함께 함으로써 국경경비의 중책을 다하였으므로 공적이 특히 우수하여 두서의 상격이 있다고 인정한다.

〈출전 : 「功績調書(趙然鈔)」, 『昭和14年 功勞賞二關スル書類綴 滿洲事變行賞(第3次)』, 국가기록원 소장〉

41) 조종춘(趙鍾春)

[41-1]

조선총독부 도경시(경찰부 보안과장) 종7위 조종춘(趙鍾春)

위 사람은 1930년 5월 평안남도경찰부 보안과장으로 임명된 이래 본도 재근 중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이 발발하자 그해 12월 29일부터 1932년 10월 14일까지 관동군사령부 보병 제77연대, 비행 제6연대

및 조선군사령부로부터 전후 11회에 걸쳐 군용자동차 징발을 요구받자 그때마다 야간에 경찰청에 나와 부하직원을 지휘 감독하여 극히 단기간에 193대의 자동차를 징발하고 또한 필요한 운전수를 선발하고 엄중히 차체 검사를 하는 등 군부의 수용에 응하였다.

특히 1931년 12월 29일부터 1932년 1월 4일까지 금주(錦州) 방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요청받은 20대의 화물자동차와 운전수 40명에 대해서도 각 방면에 교섭하고 각 관계기관과 연락을 취하여 극히 단기간에 조달하고 순사부장 1명으로 하여금 진행을 감독시키고 봉천(奉天)으로 출동시켰으며 혹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번 철야하며 자동차의 수송 검사 및 운전수의 교양에 임하여 무사히 군부에 인도를 마치는 등 주요 시기에서 군의 작전상 도움이 된 바가 매우 컸다. 이어서 1932년 1월 보안과장으로서 부하직원 1명을 관동청에 응원을 위해 파견하라는 명을 받자, 즉시 인선을 마쳐 유감없도록 조치하였다.

나아가 1932년 4월 일본군의 행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령으로부터 다량의 폭약을 휴대하고 조선에 들어왔다는 통보를 받자, 관계 각 과장과 협력하여 사찰경계에 만전을 기하고 이와 함께 도내에서 사용 중인 화약류의 단속을 한층 엄격히 하고 각 경찰서장에 통첩을 보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출동 및 개선부대가 통과할 때마다 매번 역에 출동하여 경계 지휘를 담당하고 이와 함께 환영 및 환송에 종사하고, 전병사자의 유골 등이 발착할 때에는 정거장에서 영송하는 것을 알선하고 전상병사자의 위문 및 유족의 조문 위령제 고별식 등에 참석하는 등 그 공적이 특히 현저하여 두서의 상격이 있다고 인정된다.

〈출전 : 「功績調書(趙鍾春)」, 『功勞賞ニ関スル書類綴 滿洲事變行賞(第1次)』, 1935년, 국가기록원소장〉

[41-2]

의서(擬敍) : 훈장 단광욱일장(單光旭日章), 사금(賜金) 400
상격(賞格) : 훈로(勳勞) 을(乙)
주공관등(奏功官等) : 고(高) 5
기초훈장(基礎勳章) : 서(瑞) 6등, 1937년 2월 1일 정례(定例)
1940년 4월 29일 현재 관직 : 조선총독부 군수 종6위 훈8등
성명 : 백천원장(白川元藏), 조종춘(趙鍾春)
생년월일 : 1896년 2월 3일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40년 4월 28일, 계 2년 9월 22일
주공관직 : 고양군 군수
공적사항
1. 동원소집, 징발에 관한 업무
말 8두 징발

2. 군용물자의 조달, 군수품의 제조공출 및 수리조변에 관한 업무

1) 말의 식량으로 대맥 공출(3회에 걸쳐 13,074가마니 공출), 돈피 공출 1,926매, 토피 공출 127매, 견피 공출 621매, 건초 공출 2,700관.

3. 전사, 전상, 병사자의 조위 및 전상, 병환자의 취급, 방조, 위문에 관한 업무

1) 부상병, 병환자 위문 4회 및 위문금 취전

2) 전몰장병 조위금 취전 318원 58전(4회)

3) 육군병원 자동차 헌납금 취전 135원 46전

4. 군대, 군인 및 그 유가족 등의 후원 위문에 관한 업무

1) 황군위문금, 휼병금, 유가족위문금품 합계 1,810원 20전

2) 위문대 취전(8회) 1,519매

5. 여론환기, 국방사상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1) 강연회는 저축, 시국 인식, 사변의 진상 (16회)

6. 국채의 소화, 저축의 장려 등에 관한 업무

1) 국채소화액 및 저축채권소화액 30,444원

2) 저축액 1,717,713원

7. 국방헌금 및 애국기헌납자금 등 모집 취전에 관한 업무

국방헌금 취전 8,160원 33전

〈출전 : 「功績調書(趙鍾春)」, 『支那事變功勞者功績調書』 朝鮮總督府 卷2,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42) 조종훈(趙鐘勛)

공로(功勞) 을(乙)

전 조선총독부 도경시(조선총독부 경부 신갈파경찰서 근무)

종7위 훈8등, 판임관 2등

조종훈(趙鍾勛)

1. 위 사람은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 발발 이래 함경남도 신갈파(新乭坡)경찰서에 근무하며 오로지 상사의 명을 받들어 부하를 이끌고 특별사찰경계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당시 대안 중국 장백현(長白縣) 십삼도구에서는 육군 병사 및 경비기관이 각지 중국신문의 역선전과 유언비어에 자극을 받아 극도로 긴장하여 급거 자위단을 증원 각 요지에 배치하고 또한 요소에 방비공사를 실시하는 등 오로지 강변의 경계에 노력하여 언제 우리에게 반항적인 도전적 태도를 나타내어 불의의 전투를 야기할 지 예측키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 이에 이 기간 강안의 경계, 야간연락, 유동수사 등 불면불휴 지난한 국경경비근무에 복무하여 국경경비의 중책을 완수하였다.

2. 함경남도 삼수군 신갈파는 지형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불리한 곳으로 신갈파경찰서장은 1931년 9월 23일 특별히 본인을 선발하여 대안 중국 장백현 십삼도구 및 그 오지로 잠입시켜 중국관헌과 일반의 동향을 정탐하고 또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지형의 정찰을 하게 하였다. 이에 본인은 교묘히 변장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그 지역에 잠입하거나, 많은 밀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유리한 여러 정보를 수집하여 서장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임무를 완수하였다.

3. 1932년 3월 1일 만주국의 건국이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함경남도 대안 조선인과 중국인에게도 커다란 충격을 주어 민심의 동요를 가져왔는데, 본인 등의 노력에 의해 각종 불온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이 기간에 대안 만주국의 치안이 어지러워 조선 내 민심도 흉흉해서 안심할 수 없었는데 그중 마적과 비적 및 반만항일의용군 대도회비(大刀會匪) 등의 조선 습격설이 빈번히 전해졌다. 또한 강안에 출몰하는 것이 점차 증가의 경향을 보이므로 소속 서장의 명을 받들어 주재소에서 방비시설에 관한 지도 또는 강안의 경계를 맡는 한편 재주 중국인 및 일반 조선인의 언동 및 불온책모의 내정사찰을 하며 불면불휴 특별사찰경계를 맡았다.

4. 1932년 9월 4일부터 소속 서장은 대도회비 토벌을 위해 대안 만주국으로 월강하는 황군부대에 호응하여 함경남도 삼수군 나난보(羅暖堡)로부터 월강하여 비적의 토벌을 담당했는데 이 기간에 신갈파경찰서 본서에 남아 잔류부대를 지휘하며 경비경계를 열심히 하여 그 임무를 완수하였다.

5. 만주사변 발발 이래 1934년 3월 31일까지 대안 만주국의 정세가 혼돈하여 마적과 비적이 횡행하며 출몰하는 것이 끊이질 않고 조선 내 침입을 기획하였다. 이 기간에 밀정으로 대안에 잠행하여 유리한 정보를 수집하고 혹은 강안경계, 야간연락, 유동수사 등 지난한 국경경비에 종사하여 국경방비의 임무를 완수하였다.

위 사람은 이상과 같이 1931년 9월 18일부터 1933년 3월 8일까지 전후 1년 7개월간 신갈파경찰서에 재직하며 국경경비와 이에 관한 첩보근무 등에 종사하여 그 공적이 특히 현저하므로 두서의 상격이 있다고 인정한다.

〈출전 : 「功績調書(趙鐘勛)」, 『滿洲事變功績調書』 卷35,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43) 최두천(崔斗天)

조선총독부 평안북도 경부 최두천(崔斗天)
(조선총독부 도경부 만포(滿浦)경찰서 근무)

위 사람은 1931년 9월 18일부터 1934년 3월 31일까지 만포(滿浦)경찰서 근무 중 서장의 명을 받아 만주사변을 맞아 비적의 소탕진압과 기타 국경경비, 군대의 출동 귀환, 군수품의 수송 편의 제공, 자동차

선박 대여에 대한 원조, 기타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만주사변에 따른 제반의 사무수행 상 유감이 없도록 하였는데 그중,

1. 비적의 소탕 진압에 관한 사무

만주사변 이래 대안 민심의 동요와 관헌 취체의 완만함을 틈타 통화현(通化縣) 각 지방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던 비적 두목 서변호(西邊好), 구산(九山) 일파 500여 명이 점차 남하하여 집안현(輯安縣) 대청구(大靑溝), 대황구(大荒溝), 협피구(夾皮溝) 지방을 배회하며 계속해서 압록강안에 출몰 포학을 자행하여 선내의 치안을 위협하였으므로 본인은 밤낮으로 부하를 지도 독려하여 예의 치안의 유지에 노력하였던 바

1) 1932년 3월 14일 오후 6시 계통불명의 비적 2명이 농민으로 변장하고 만포읍 내 도섭장(渡涉場) 감시소를 습격하여 경계 중이던 순사 메시노(飯野盛)와 격투 부상을 입히고 도주하였으므로 만포경찰서장 도경시 에토오(衛藤泰)는 이때 철저한 토벌을 감행하여 장래의 화근을 없애려고 토벌대 3반을 편성하여 적의 근거지로 보이는 집안현 협피구, 대황구 및 대청구 방면으로 각각 출동시켰는데 본인은 제1반장으로서 순사부장 이노오(猪野龜之函) 이하 18명을 지휘하여 그날 오후 6시 20분 만포 도섭장으로부터 대안 집안현 양어두(羊魚頭)로 월경 적의 도주로를 추적하여 밤을 새어 통화가도(通化街道)로 진출 적극 수색 중 앞의 적 일당으로 보이는 비적 약 20명이 대황구 오지에 잠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5일 오후 6시 50분을 기하여 적의 잠복가옥을 포위 공격하였는데 적은 흙벽 또는 돌담을 근거로 우리를 향해 일제사격을 퍼부었으며 우리 역시 이에 응전하여 약 10분만에 적 4명을 부상시키고 격퇴시켜 이 지역의 비적을 모두 오지 통화 방면으로 소탕하고 3월 16일 오전 11시 무사히 조선으로 귀환하였다.

2) 6월 20일 오전 9시경 분토(盆土)경찰관출장소는 두목 주복진(朱福珍)이 이끄는 150명의 비적에게 대안으로부터 습격을 받아 순사부장 하나오카(花岡勘太郎) 이하 순사 7명과 격전중이라는 급보를 접한 본인은 만포경찰서장 도경시 에토오(衛藤泰)와 함께 순사 1명을 이끌고 현지로 출동하였는데 이미 경찰대에서 적 5명을 부상시키고 격퇴하였으나 아직도 그들은 오지로 돌아가지 않고 경찰대의 수가 적음을 업신여기며 다시 습격해올 낌새가 있어 먼저 도착한 경부보 호소카와(細川源作) 이하 순사 5명과 함께 경계 중이었으므로 이와 합류하려고 강안으로 출발하였는데 다음날 오전 5시경 적은 안자구(按子溝) 강안에 산개하여 우리를 향해 사격을 해오므로 본인은 순사 야쓰다케(安武芦太郎) 이하 4명을 이끌고 적의 우익으로 나가 호소카와(細川) 경부보의 부대와 호응하여 약 1시간에 걸쳐 교전하여 적에게 약 20명의 사상자를 내게 하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혀 궤주시켰다.

3) 6월 22일 오전 3시 10분에 이르러 지난번 월경부대 때문에 통구(通溝)로부터 격퇴당해 통구성(通溝城) 후산성자(後山城子)에서 부하를 규합하여 통구성 탈환 및 만포 습격을 기도하고 있던 임진청(林振靑)이 스스로 부하 800명을 이끌고 통구를 습격하고 부하 장(張)모가 약 400명의 비적을 이끌고 만포 대안 양어두 산꼭대기 표고 700미터의 움푹한 지점에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여 박격포 2문, 산포 3문을 걸쳐두고 부하 50명을 대비시키는 한편 강안 가까이 여러 갈래의 해자를 굴착하고 장총부대 250명을 의거해 아연 만포읍내를 향해 습격을 개시하며 결사대 100명으로 하여금 대안에 정박중인 만주인 고뢰

선(高瀨船)으로 일거에 조선 내로 침입할 것을 기도하였으므로 만포경찰서장의 지휘하에 순사 아리타(有田巖) 이하 2명과 경찰대 및 군대의 연락, 거주민 보호의 임무를 맡았으며 전투가 치열해지자 전선에 참가하여 약 1시간에 걸쳐 적 35명을 사살하고 50명에게 부상을 입혀 격퇴하였는데 다시 만포경찰서장이 경부보 카사하라(笠原廣) 이하 42명을 지휘하여 적전 도하를 감행하여 도주하는 적을 쫓아 맹사격을 가하여 적을 전멸에 빠뜨리고 박격포탄 및 산포탄 40여발, 기타 다수를 압수하여 그날 오후 6시 조선으로 귀환했는데 그간 본인은 조선 국내에 잔류하여 공포로 동요하는 주민의 보호에 노력했다.

4) 1932년 6월 5일 이래 만포읍내에 대기 중인 제2월강부대 보병 중좌 요시이(吉江協中)가 이끄는 군대 319명이 동월 7일 오전 0시 만포 도선장으로부터 월경할 때 만포경찰서장이 지휘하는 44명의 경찰부대가 가담하여 헌병대와 연락하며 군대의 도강을 엄호하였는데 당시 본인은 강안 도선장 상류 엄호반 2반의 중앙에서 연락 지휘하고 있었고 월경군의 첨병대로부터 파견한 장교 척후가 대안 도하지점으로부터 약 5,600미터까지 전진할 때 일찍이 대도회비(大刀會匪) 100여 명과 충돌 맹렬한 전위전을 전개하므로 곧바로 부하 순사부장 기무라(木村唯一) 이하 14명을 지휘 정확한 엄호사격을 하여 오전 2시 군대를 완전히 도하시켜 군의 행동을 유리하게 이끌었다.

2. 군대의 출동 귀환, 군수품 수송의 편의 제공

1) 1932년 6월 7일 고산면(高山面) 미타동(美他洞) 입석참(立石站)에서 월강부대의 집안현 통구성 공략전 엄호포격 중이던 용산포병 제26연대 마쓰다(增田) 포병대위 이하 58명이 동일 오후 0시 통구 입성 도하할 때 만포경찰서장 지휘하에 본인은 순사 9명과 함께 도하장을 설치하고 도로를 보수하여 군수품 수송, 자동차, 마필, 포차 등의 운행을 용이하게 하여 군의 행동을 원조하였다.

2) 6월 7일 보병 중위 후쿠류(福留廣義) 이하 3명의 부상자, 8일 보병 상등병 테라마에(寺前武男) 이하 4명의 부상자, 17일 보병 일등병 고가와(古川與一) 이하 4명의 부상자, 9월 4일 부상자 이등병 미와(三輪桂一郎)의 수송을 맡아 만포경찰서장 지휘하에 경찰관 40명과 함께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 수송을 원조하였다.

3) 1932년 6월 4일, 5일 양일에 걸쳐 강계(江界) 제1수비대, 용산포병 제26연대 및 평양보병 제77연대의 혼성 제2월강부대 보병 중좌 요시이(吉江協中) 이하 319명이 만포에 대기 숙영할 때 만포경찰서장 지휘하에 본인은 43명의 경찰관을 독려하여 숙영지의 설치, 식량품의 공급, 마필 선박의 대여, 인부 선부를 고용하여 군에 인도하였다.

4) 6월 15일 평양보병 제77연대 보병 대위 토오자키(藤崎數馬) 이하 99명, 16일 용산보병 제79연대 타다토모(唯友) 대위 이하 99명, 7월 22일 용산보병 제79연대 시라하마(白濱) 보병 소좌 이하 315명의 각 만포읍 숙영에 대해 본인은 만포경찰서장이 지휘하는 43명의 경찰대에 가담하여 설영 준비, 군수품, 식량품 등을 제공하였다.

이상의 공적이 특히 현저하여 두서의 상격이 있다고 인정한다.

〈출전 : 「功績調書(崔斗天)」, 『昭和十一年 功勞賞二關スル 書類綴 滿洲事變行賞(第1次)』, 국가기록원 소장〉

44) 최석현(崔錫鉉)

[44-1]

조선총독부 경상북도 경부 최석현(崔錫鉉)
(경찰부 고등경찰과 근무)

위 사람은 만주사변 발생 당시부터 현직의 경상북도경찰부 고등경찰과 사찰주임 경부로서 재임 중, 주의를 요하는 집회결사, 용의인물, 장소 및 민심의 동향에 대한 도내 23개서의 사찰에 관해 상사의 지휘하에 지도 독려의 임무를 담당함과 함께 수시로 관내 각 방면으로 출장하여 중요안건의 사찰 취조에 임했으며, 또한 계속해서 이루어진 군사수송 때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구역 앞에 임석하여 군중의 동정사찰에 종사하였던 바,

1931년 12월 4일 보병 제80연대, 대구고등보통학교, 대구중학교 및 그 부근에 '만주사변 돌발을 맞아 혁명적 병사 제군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조선공산당 XX지부의 서명이 있는 반전격문살포사건 있었다. 사태가 용이치 않은 사건임을 감안하여 경찰부 대구경찰서가 총력을 다해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관계 각 방면에 연락하여 수사망의 확충을 기했는데 본인은 일찍부터 사찰주임으로서 도내 주의자의 동정을 자세히 살피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년간의 경험에 의거하여 수사대의 수뇌자로서 노력하던 중 그해 12월 11일 용의자를 체포하여 취조한 결과 '황군의 출동은 제국주의의 침략의 발현이므로 이를 기피하고 만주사변을 내란으로 이끌어 혁명을 야기함으로써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공할 계획임이 판명되기에 이르렀다. 계속해서 그 일당의 수사에 종사하던 중, 그해 12월 9일 만주 파견부대가 대구역을 통과할 때 역 앞의 환영군중에 대해 '타도 제국주의'라는 제목으로 9항목의 표어를 기재한 반제동맹의 서명이 있는 반전격문살포사건이 일어났다. 앞서와 같이 수사에 종사하고, 그날 주요인물을 체포하여 취조한 결과 대체로 앞의 사건과 유사한 계획임이 판명되어 앞 사건의 일당에 대한 수사와 함께 계속해서 2개월여에 걸쳐 밤낮으로 수사 취조에 종사하여 일당을 모조리 체포하고 이러한 종류의 사건을 근절시키기에 이르렀다. 그 공적이 현저하여 1933년 10월 23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1차 반전격문사건 공로자 22명 중 상위, 제2차사건 공로자 17명 중 최고의 경찰상여를 받게 되었다.

이리하여 본 사례를 감안하여 반군반제의 사찰에는 한층 더 엄중히 경계한 결과 조금의 틈도 없게 하기에 이르렀다. 계속해서 사찰한 결과 시국에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현사회를 저주하고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려고 획책하는 비밀결사사건을 무려 20건 관계자 574명을 연이어 검거하였는데, 이 사건에 대해 본인은 항상 수사취조 중 중요한 역할을 담임하여 조선의 치안을 반석의 지위에 올려놓은 공적은 저들 주의자가 만주사변을 계기로 내란으로 이끌어 뜻을 관철시킬 틈을 주지 않고 모조리 적발하여 궤멸을 기하였다. 이러한 공적이 매우 클 뿐만이 아니라 항상 민심의 상세 사찰에 종사하고, 취득한 자료는 모두 상사에게 보고하여 시국에 대한 대응책에 기여했으며 또한 군사수송 때에 대구역에서 군중사찰을 주밀하게 기해 사고 없이 경과하도록 하는 등 본인의 공적이 현저하여 두서의 상격이 있다

고 인정한다.

〈출전 : 「功績調書(崔錫鉉)」, 『昭和11年 功勞賞ニ關スル書類綴 滿洲事變行賞(第1次)』, 국가기록원 소장〉

[44-2]

의서(擬敍) : 사금(賜金) 90
상격(賞格) : 공로(功勞)
주공관등(奏功官等) : 판(判) 2
1940년 4월 29일 현재 관직 : 조선총독부 경상북도 경부 훈8등
성명 : 산본상보(山本祥寶)
생년월일 : 1893년 8월 17일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40년 4월 28일, 계 2년 9월 22일
주공관직 : 경상북도경찰부 고등사찰과 사찰주임 경상북도경부
공적사항

1. 1937년 7월 7일부터 1938년 2월 28일까지 계속해서 대구역에서 군대, 군수품 수송에 관한 철도 경계 및 간첩, 반전운동자에 대한 수사, 검색근무에 종사하고, 또한 이 기간 중에 후시(藤) 형사 이하 쿠보(久保), 모리다(森田), 김성범(金成範), 후미후시(文藤裕祐), 신태균(申泰均) 등의 형사와 순사들 지휘하여,

1) 1937년 8월 대구부내 달성정, 봉산정 등에서 후방의 민심교란을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군중에 대해 중일전쟁의 군사에 관한 황당무계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범인 윤봉준(尹奉駿)을 검거하여 육군형법 제99조 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 검사에게 송치하였다. 같은 해 10월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2) 1938년 1월 남선지방을 중심으로 후방의 민심교란을 목적으로 민중에 대해 함부로 미신사설을 강설하고, 또는 군사 및 총독정치를 비방하며 약육강식이 넘쳐나는 현사회 전부를 멸망시키고 현세를 재건시킬 구세주의 출현을 강조하고, 혹은 감히 풍자적인 불경시구를 행하는 범인 손해주(孫海珠) 외 12명을 검거하여 불경죄, 사기죄, 보안법 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 검사에게 송치하였다.

3) 다년간 상해에서 주의운동에 종사하여 지난 중일전쟁 발발 시에는 상해에서 그곳 일본군인의 실제 인원수, 일본 측의 경비상황, 거류일본인의 동정 등을 조사하여 적국에게 첩보하고, 또한 1937년 8월 22일 장개석(蔣介石) 직계 제18사단 소속 군의 대교(대좌) 곽춘원(郭瑃元)으로부터 '일본의 대중국 작전계획 및 군의 수송상황, 일본 정계와 민간의 여론 내지 민심의 동향, 일본인의 재류지나인에 대한 태도' 등 첩보를 담당하라는 사명을 받고, 같은 달 25일 상해를 출발한 사변피난민에 섞여 조선으로 돌아와 적국을 위해 간첩으로서 활동하고, 또는 군사상의 비밀을 적국에 누설한 범인 김종□(金種□)을 같은 달 29일 대구역에서 체포하여 취조한 후 치안유지법, 군기보호법 위반 및 형법 제85조에 의해 관할 검사에게 송치하였다. 1928년 7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6년에 처했다.

2. 1928년 3월부터 1940년 4월 29일까지 전항과 마찬가지로 사찰, 검색 사무에 종사하고, 앞의 형사, 순사 및 왜관서장 요시오카(吉岡) 경부 이하 서원과 협력하여,

1) 1938년 3월 1일부터 1939년 10월까지의 기간 중 공산주의혁명을 목적으로 일본공산당과 기맥을 통하고, 남선지방을 중심으로 코민테른의 소위 인민전선전술에 기반하여 적색농민조합이라는 것을 조직하고 활동함으로써 민중에 대한 반전의식의 주입 내지 후방 교란을 꾀한 범인 이석(李錫) 이하 관계자 91명을 검거하여 취조한 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1939년 10월 25일 대구지방법원 검사에게 송치하였다.

2) 1938년 4월부터 1939년 12월 5일까지의 기간 중 중일전쟁을 전후하여 아국 내외의 제 정세 추이에 따른 국내교란을 예상하고 재동경 조선인유학생을 중심으로 민족공산주의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조선 내 민족공산주의 거두 여운형 등과 제휴하여 후방교란 내지 반전운동을 기도한 범인 박용칠(朴容七) 이하 관계자 14명을 검하여 취조한 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1939년 12월 5일 대구지방법원 검사에게 송치하였다.

3) 1938년 9월부터 1939년 12월 23일까지의 기간 중 재동경 일본공산당 산하에서 좌익연극 운동에 종사하고 최근 조선 내에 진출하여 경성을 중심으로 비밀결사 공산주의자협의회를 조직한 후 연극 활동을 통해 민중에게 반전의식을 선전 선동한 범인 김우현(金禹鉉) 이하 10명을 검거하여 취조한 후 1939년 12월 23일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에 송치하였다.

4) 1938년 9월 경성에서 코민테른으로부터 조선의 인민전선 수립 및 후방교란의 사명을 띠고 입선한 모스크바공산대학 출신 신문특파원 박창준(朴昌俊)을 검거하여 취조한 후 사건의 중심지인 경기도로 이송하였다.

5) 1938년 12월부터 1939년 4월 4일까지의 기간 중 도내 왜관지방에서 공산주의 폭력단 비밀결사 '와루가쿠계'사건 범인 도병철(都炳喆) 이하 18명을 검거하여 취조한 후 1939년 4월 4일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 검사에게 송치하였다.

〈출전 : 「功績調書(山本祥寶)」, 『支那事變功勞者功績調書』 朝鮮總督府11,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45) 최연(崔燕)

조선총독부 함경남도 경부 최영(崔鈴)[5]
(혜산경찰서 근무)

1. 만주국 건설 이래 나라 안의 치안공작이 점차 궤도에 올라가고 있다고는 해도, 대안 장백현(長白縣)에는 아직 비적이 함부로 날뛰고 흉포함이 극에 다달아 치안이 극도로 문란하고 민심의 동요가 심했다. 이에 위 사람은 1936년 7월 10일 이후 1937년 7월 6일에 이르기까지 혜산경찰서의 사법주임으로서 만주사변에 따른 특별경계근무에 종사하고, 서장을 잘 보좌하였고, 부하를 지휘독려하여 피난온 만주인

5) 본명은 최연(崔燕)이나 이명 최영(崔鈴)으로 공적조서가 작성되었다.

과 조선인의 보호와 수용, 일반민심의 동향과 불량청소년의 불온책동 취체 및 강안 부근의 적화방지를 위해 이의 사상 선도에 노력하는 등 불면불휴하며 지극히 어려운 국경경비의 중책을 완수하였다.

2. 1937년 5월 19일 함북 삼장서 관내 무산군 삼장면 암동 및 삼수평 임목작업장을 습격해 많은 금품을 약탈하고 인부 50명을 납치한 동북항일연합군 제2군 제1단장 최현(崔賢)과 정치부위 주수동(周樹東)의 합동부대 비적 약165명이 다음날인 20일 관내 상흥계수(上興溪水) 및 칠사장(七土場)을 습격하여 많은 금품을 약탈하고 인부 32명을 납치하였는데, 이들 적단은 경기관총 6정, 탄통 1와 각자 장총 혹은 권총을 휴대하고 있어, 국경지대의 치안이 용이치 않은 긴급한 상태였다. 이에 최 경부는 소대장으로서 토벌대에 가담하여 시오타니(鹽谷) 서장 이하 백여 명과 함께 5월 21일 오전 4시 30분 혜산을 출발하여 현지로 향해 11시에 상흥계수에 도착하였다, 정찰한 결과 적은 침봉(枕峯) 부근의 거대한 밀림 속에 잠입한 흔적이 있기에, 이때부터 그달 26일까지 6일간 침봉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호우를 무릅쓰고 불면불휴로 모든 어렵고 괴로운 상황과 싸워가며 거대한 밀림 속에서 추격과 토벌에 종사하였다. 그 결과 우리의 용맹과감한 공격에 기선을 제압당한 적들은 새벽에 만주지역으로 도주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다시 추격하여 이들을 섬멸하고자 27일 오전 6시에 호언(虎堰)으로부터 월경하여 한가구자(韓家溝子) 만주국 삼림경찰대 제1중대에 이르러 이들과 연락하였다. 첩보의 결과 적단이 멀리 십구도구 오지에 잠복하고 있음이 판명되었으므로 그곳에서 숙영하고 다음날인 28일 오후 4시 30분 토벌의 목적을 달성하고 천수경찰관주재소로 귀환하였다. 그 사이에 소대장으로서 솔선하여 수사 추격하고 대원들의 사기를 더욱 왕성하게 하여 소대장으로서의 중책을 완수하였다.

이상과 같이 공적이 우수하여 두서의 상격이 있다고 인정한다.

〈출전 : 「功績調書(崔燕)」, 『昭和14年度 功勞賞ニ關スル書類綴(滿洲事變第3次行賞)』, 국가기록원 소장〉

46) 최인범(崔仁範)

의서(擬敍) : 사금(賜金) 80
상격(賞格) : 공로(功勞)
주공관등(奏功官等) : 판(判) 3
1940년 4월 29일 현재 관직 : 조선총독부 함경북도 경부
성명 : 최인범(崔仁範)
생년월일 : 1902년 5월 15일
주공기간 : 1937년 5월 24일 ~ 1940년 4월 28일, 계 1년 11월 5일
주공관직 : 평안북도 선천경찰서 사법주임 도경부
공적사항
1. 군대 및 군수품의 수송경계에 관한 업무
불면불휴로 전후 74회에 걸쳐 수송경계업무에 복종하여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2. 첩보 정보 수집에 관한 업무

사찰을 엄격하게 수행하고 민심동향에 유의하여 작은 일 큰 일 가리지 않고 수집하여 전쟁수행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3. 군 행동에 대한 지원업무

구성군내에서 조난당한 군용비행기의 수사를 맡아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발견과 구조를 지원하였다.

4. 군용물자의 공출업무

육군창고의 부탁으로로 견피 4,812매, 돈피 3,385매, 토피 12매, 마량 건초 12만 톤의 공출에 힘을 다했다.

5. 여론 환기, 국방사상의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강연회, 좌담회를 개최한 것이 29회로 민심의 통일에 힘을 다하여 국방사상의 보급에 철저를 기했다.

6. 유언비어 및 시국범죄의 방지, 단속과 검거에 관한 업무

내사를 엄격히 하여 민심동향을 살피는데 힘을 썼으며 유언비어 및 시국범죄의 방지에 대하여 만전을 기했다.

7. 방공에 관한 업무

시국에 때를 맞추어 불면불휴로 본 업무에 힘을 다하여 그 공이 현저하므로 별첨 공적현인서를 부여한다.

〈출전 : 「功績調書(崔仁範)」, 『支那事變功勞者功績調書』 朝鮮總督府 卷15,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47) 최일환(崔日煥)

조선총독부 평안북도 순사 최일환(崔日煥)
(초산경찰서 근무)

위 사람은 1936년 7월 10일부터 1937년 7월 6일에 이르는 사이에 국경제일선의 경비에 복무하며 항상 불면불휴 오로지 국경지대의 치안확보에 진력하여 왔는데, 그간의 비적토벌에 관한 공적은 다음과 같다.

1. 1936년 9월 13일 오후 2시경, 벽동경찰서 봉곡출장소 대안 관전현(寬甸縣) 대황구(大荒溝) 강어귀에서 비적 수괴 좌사령(佐司令), 왕봉각(王鳳閣), 양사령(楊司令) 등의 합동비적 240명이 습격해 왔을 당시 대안 내사를 위하여 그 곳에 월경중이던 봉곡출장소 근무 하세가와(長谷川) 순사가 적에게 포위되어

피랍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때 본인은 벽동서장 이시이(石井) 경부가 지휘하는 64명의 토벌대에 참가하여 9월 15일 오후 5시 30분 대황구 강어귀에서 월강하여 적정을 수사하면서 오지 유수정자(赤榆頂子)를 향하여 급히 진격하던 중 오후 7시를 넘어 영도구(嶺道溝) 입구에서 사토(佐藤) 토벌대와 합류하였다. 그 수사상황에 따르면 적은 오전 11시경 유수정자의 만주인 민가에서 점심을 먹으며 현재 잠복 중이라는 것이 판명되었으므로 곧바로 부서를 정하여 그곳의 잠복 가옥을 포위하였다. 그러나 적들은 우리 토벌대의 접근을 알아차리고 식사를 그만두고 약 1시간 전에 서차(西岔) 북쪽 관문 납자령을 넘어 오지로 도망간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각 부대가 일제히 급습하여 동차(東岔)와 서차(西岔) 부근까지 갔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더 이상 추적해도 효과가 없다고 인정하고 오후 9시 봉곡출장소로 철수하였다.

2. 1937년 2월 28일 본인은 경비대원으로 대장 호리(保利) 경부보 이하 15명과 함께 초산서 연담주재소에서 대기하던 중, 대안에 마적과 비적들이 조선 국내를 습격할 계획을 세우고 대천구(大川溝) 방면에 집결해 있다는 정보를 얻었으므로 대장 이하 15명과 함께 경비를 목적으로 한 행군을 겸하여 오전 10시 연담을 출발하여 대천구에서 월경해 부근 일대를 수색했으나 아무 것도 얻지 못하였으므로 돌아왔다. 그때 본인은 황(黃) 순사와 함께 앞서 나가 적정을 내사한 결과, 계통불명의 마적 약 50명이 집안현 제3구 대고마령(大古馬嶺) 남구(南溝)의 빈 집에 숨어 있으며 그날 밤을 기하여 연담소재지를 습격하려고 밀의 중인 것을 탐지하였으므로 이를 곧바로 대장에게 보고한 결과, 부대는 이를 기습하여 일거에 적을 격멸하고자 곧바로 노경자(老古嶺子)로부터 대고마령(大古馬嶺)으로 통하는 속칭 남구(南溝) 안부(鞍部)로 전진하여 적들의 상황을 정찰했더니, 적들은 본인들이 탐지한대로 그곳 아래쪽으로 약 5백미터 지점에 있는 중국식 빈집에 잠복중인 것을 확인했다. 계속해서 야음을 이용해 이들을 포위 공격하고자 해가 지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곳 고지에 적의 보초로 보이는 자가 2명이 나타났다. 이들에게 발견되면 토벌계획도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오히려 역습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오히려 기선을 제압하고 재빨리 기습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해, 오후 7시 적들이 잠복한 가옥 앞쪽 산꼭대기로 잠행하여 그 가옥을 협격하고자 곧바로 2대로 나누어 호리(保利) 경부보는 대원을 이끌고 오른쪽으로, 본인은 다른 7명과 함께 왼쪽으로 산개하여 일거에 산을 내려가 적의 잠복 가옥 50미터까지 접근했으나, 적들은 우리 분대의 접근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담소하면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이에 양 분대는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면서 용감하게 적 앞 약 30미터까지 접근해 일제사격을 가했더니 약 50명의 적들은 매우 당황하여 가옥으로부터 튀어 나왔으나 도주로를 잃고 그 집 주위의 돌담에 기대어 궁지에 몰린 쥐처럼 반격해 왔다. 우리 쪽은 숫적 열세로 한때 전멸의 위기에 빠졌으나 본인 등의 침착하고 과감한 태도는 완전히 적들을 위압하여 아무런 일도 없었으며, 그들은 돌담으로부터 튀어나와 발포하면서 고력묘자(高力墓子)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때는 오후 9시로 야간의 추격은 불리하므로 이를 중지하고 오전 0시 30분 조선 방면으로 철수했다. 이 교전에서 적 3명을 사살하고 러시아식 장총 1정, 니켈제 권총 1정을 노획하였다.

3. 비적수괴 구국군 제5단 장(張) 단장은 1936년 10월경 만주군과 교전할 때 다리에 부상을 입어 보행이 곤란해졌으므로 부하 17명과 함께 아직 토벌을 당한 실례가 없는 집안현 제3구 남강(南江) 기슭 442

고지 동쪽 골짜기의 산채에 잠복하였다. 또한 항일비적 이(李) 연장은 부하 25명을 이끌고 그 오지 2천미터 떨어진 움막에 잠복하면서 언제라도 조선쪽을 침입하려고 획책 중이라는 정보를 얻은 본인은, 이것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비대장 호리(保利) 경부보 외 6명과 함께 그날 집안현 혼강구으로 월경하여 적정을 정찰하였다. 그러던 중 본인은 거동이 수상한 한 만주부인을 발견하고 이를 검문 추궁한 결과 위 장(張) 단장의 부하 조정방(趙井芳)의 처 고(高)씨(25세)로서 아편과 식량 구입을 위해 외차구로 향하는 도중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에 따라 장(張) 단장 일파가 위 장소에 잠복하면서 조선쪽을 습격하려고 획책 중이라는 확실한 정보를 얻었으므로 곧바로 당시 강안 제일선을 순시중이던 초산경찰서장 경부 야마다(山田俊之助)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서장은 과감히 이들을 토벌하기로 결정하고 그날 오전 9시 스스로 호리(保利) 경부보 이하 22명의 대원을 이끌고 연담주재소로부터 월경하였다. 그런데 때마침 어두운 밤에 눈이 심하게 내려서 지척을 분간할 수 없어 나아가는 길을 알 수 없었으므로 대안 사정에 정통한 본인은 고(高) 부장 및 황금룡(黃金龍)과 함께 선두에 서서 간신히 다음 14일 오전 3시 30분에 목적지인 남강 기슭(강기슭부터 약 50리 남짓)에 도착하였다. 적의 잠복가옥 약2백미터까지 접근했는데도 적들은 아직 우리의 습격을 눈치채지 못했으나 많은 수가 행동을 하면 쉽게 발견되어 오히려 대어를 놓칠 우려가 있으므로 적의 퇴로를 막고자 이시이(石井) 순사 이하 7명을 우회시킨 뒤 정신대를 조직해 적의 잠복가옥으로 육박하여 출입구를 막고 이를 체포하기로 했다. 이에 본인은 비장한 결의 아래 자진해서 참가를 신청하여 제2정신대원으로 대장 고(高) 부장과 대원 스키모토(杉本) 순사 및 첩보원 2명과 함께 앞서 말한 독립 산채를 목표로 정하고 잠행하여, 용감하고 기민하게 가옥 출입구를 막고 총을 겨누며 항복을 명령한 바, 적들은 극히 낭패하여 권총을 든 수령 장(張) 단장이 나왔으므로 “손을 들지 않으면 쏜다”고 고함을 치자 곧바로 손을 들고 반항하지 않을 것을 표시하며 옥내로부터 계속 나오는 6명도 손을 들고 항복했다. 이어서 재빨리 적이 갖고 있던 대형 모젤 권총 1정과 탄환을 압수했는데 모두 목숨을 살려달라고 함으로 신체검사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2명이 도주를 꾀하였으므로 본인과 스키모토(杉本) 순사는 틈을 주지 않고 이들을 체포하고자 했으나 완강하게 저항하며 본인의 총기를 탈취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를 사살했다. 한편 스키모토(杉本) 순사가 추적했던 적도 역시 곤봉을 가지고 완강하게 저항함으로 그는 죽을힘을 다하여 격투했으나 도저히 보통수단으로서는 이를 쓰러뜨릴 수가 없고 목숨에 위험을 느꼈으므로 소지하고 있던 탄띠로 머리를 일격하여 움찔하는 틈을 타 이를 넘어뜨려 체포했다. 또 제1정신대 호리(保利) 경부보 이하 5명도 마찬가지 수단으로 적 2명을 사살하고 4명을 체포했다. 그리고 현장으로부터 약 2천미터 떨어진 폐가에 잠복중이던 이(李) 연장 이하 51명이 총소리로 토벌대의 습격을 알아채고 고개를 넘어서 협피구 방면으로 도주를 꾀해 대오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채로 우회하며 이시이(石井) 부대가 기다리고 있는 방면을 향하여 올라오자 이시이(石井) 부대는 적들이 접근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약 50미터 지점에 접근해 왔을 때 일제히 맹사격를 퍼부어 적 3명을 사살하고 이들을 격퇴했다.

이보다 앞서 야마다(山田) 서장이 지휘하는 본대는 이(李) 단장의 잠복지를 포위하는 대형으로 전진하고 있던 중, 이시이(石井) 부대에 의해 격퇴당한 적들과 충돌하여 교전 약 40분만에 적 2명을 사살하고 러시아식 장총 2정을 노획하였으며 마침내 이들을 고마령 방면으로 격퇴했다. 그런데 부근일대에는

다른 비적들이 많이 잠복하고 있으며 또 높이 쌓인 눈 속을 추격하는 것은 우군에게도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곧바로 대원을 추스려 부근 수색을 계속하면서 오전 8시 현지를 출발하여 오후 1시에 무사히 조선 쪽으로 철수했다. 본 교전에서 적 9명을 사살하고 11명을 체포했으며, 러시아식 장총 3정, 대형 모젤 권총 1정, 사베지 소형 권총 1정을 노획했는데 본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용감하게 활동하여 대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었다.

4. 1937년 1월 이래 조선혁명군 총사령 김활석(金活石)은 경위대 대대장 홍우(洪宇) 외 백수십명을 이끌고 환인현(桓仁縣) 신개령(新開嶺)에, 조선비적 제1참모장 김윤걸(金允杰) 외 37명은 그해 1월 10일경부터 환인현 문장차(門庄岔)(신개령의 남쪽 기슭)에, 조선비적 총령 김동산(金東山)은 환인현 쌍수동(双水洞) 사앙자(沙央子)의 서쪽 약 2리에 소재한 빈집에, 제3사령 최기구(崔氣龜) 이하 40명은 환인현 대지구(大支溝) 화차(化岔) 사앙자(沙央子) 서쪽 약 3리의 골짜기 안에 모두 잠복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으므로 본도에서는 오오와다(大和田) 고등과장의 총지휘하에 관내 초산, 위원 두 경찰서원 96명으로 토벌대를 편성하여 대대적으로 토벌을 결행했다. 당시 본인은 호리(保利) 경부보가 지휘하는 49명의 부대에 참가하여 3월 20일 오후 1시 집안현 외차구에서 월경하여, 같은 날 7시에 그곳을 출발해 관전현 하루하를 경유해서 다음날인 21일에 외차구 협피구에서 비적의 산채를 습격했으나 모두 도주한 뒤였으므로 3월 22일 오후 5시 관전현 오리전자(五里甸子)에 도착해서 숙영했다. 그래서 호리(保利) 부대는 그 달 23일 오오와다(大和田) 총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환인현 경찰대와 합류하여 다음날인 24일 새벽을 기해 위원서 부대와 연락하여 신개령(新開嶺)을 포위하고 조선혁명군의 본거지를 공격하고자 그날 오후 0시에 오리전자를 출발하였다. 도중에 그날 오후 7시 유수전자(柳樹甸子)에서 환인현 경찰대 가네꼬(金子) 지휘관 이하 17명과 합류하여 계속해서 전진하던 중, 그날 10시경 요령(腰嶺) 정상에 이르렀을 때 전위대로부터 정상에 적의 그림자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있어 기선을 제압하고자 발포했는데, 산 고개에서 산개하여 대기하고 있던 적이 우리쪽을 향해 일제히 사격을 시작하였으므로 우리 부대는 이를 섬멸하고자 적 앞 약 100미터 지점으로 육박했으나, 적은 지형의 잇점을 이용하며 저항을 계속하였다. 이에 각 부대가 서로 호응하여 맹사격을 개시하며 적의 우익을 공격하면서 전진을 계속했으나, 어두운 밤에 특히 눈이 깊이 쌓여서 행동이 자유스럽지 못하고 적은 바위에 숨어 사격을 해 오면서 교전 후 40분이 지나도 퇴각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교전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 손해도 짐작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신속하게 능선을 점령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바, 각 대원은 용감하게 적들에게 접근하여 척탄통과 수류탄을 발사했더니 적들은 대포로 생각했는지 매우 당황하여 오른쪽 고지로 이동하며 퇴각할 기색을 보였다. 이때 호리(保利) 부장으로부터 돌격 명령이 내려지자 본인은 비처럼 쏟아지는 탄환 속을 용감하게 진격하여 마침내 그 능선을 점령하고 맹사격을 퍼부어 적을 패주시켰으니 때는 오후 11시였다. 이 교전에서 적 2명을 사살하고 1명을 체포하였으며 사베지식 권총 1정과 대형 모젤 권총 2정를 노획했다. 그리고 본인 등은 계속해서 적들의 잠복지인 신개령 산채를 공격하기 위하여 그달 25일 환인현의 오자끼(尾崎) 지도관이 이끄는 만주경찰 37명과 합류하여 오후 5시 용감히 오리전자를 출발하여 1004고지 아래쪽 약 80미터 지점에 도달하였을 했을 때 적과 충돌했으나, 적들은 지형의 잇점을 이용해 맹사격을 퍼붓고 총사령 김활석 및 최종륜 등 스스로가 진두에 서서 지휘했다. 우리 쪽은

불리한 지형에서도 분투했으나 고전을 면치 못했고, 호리(保利) 경부보는 이러한 상황을 외차구 토벌본부대에 비둘기편으로 보고하여 응원대 출동을 요청했다. 그런데 호리(保利) 부대장이 이때 상당한 희생을 각오하고 요시다(吉田) 제2분대를 오른쪽 고지로 우회시켜 측면으로부터 공격하도록 명령하자, 요시다(吉田) 분대장은 의연하게 선두에 서서 무릎까지 오는 눈을 헤치며 대원들을 지휘하여 갖은 고생을 무릅쓰고 적의 우측 고지에 접근하여 약 30분에 걸친 격전 끝에 마침내 그 고지(1004고지 산 움막으로부터 약 백미터)를 점령하고, 곧바로 적 측면으로부터 맹사를 퍼부었다. 이 때문에 겁을 먹은 적들에게 틈을 주지 않고 본대로부터 맹사격을 가하는 것과 동시에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적진으로 돌입했더니 적들은 당황하여 시체 2구를 내버린 채로 퇴각했다. 때는 오후 2시 30분이었다. 그런데 적들은 산 위에서 물러났으나 아직도 전방 50미터 내지 100미터 거리의 산등성이 바위뒤에 숨어 완강하게 저항하였으므로 우리는 정상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고(高) 제1분대, 오오아와(大粟) 제4분대, 오까(岡) 제3분대, 요시다(吉田) 제2분대의 순서로 산개하여 이를 공격했으나, 적은 퇴각할 듯하면서도 자리를 지켜 오후 5시 30분 날아 온 우리 경찰기와 연락한 결과 곧 오자끼(尾崎) 지도관 이하 13명의 응원이 있을 것이라고 하여, 우리 부대는 용기 백배하여 일거에 공격했지만, 적들은 바위 뒤에 숨어서 여전히 저항했다. 마침내 서로 대치한 채로 일몰이 되어, 적들이 어둠을 틈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바, 본인 등은 더욱 용기를 내어 장렬하게 돌격을 감행했더니 적들은 장시간에 걸친 격전으로 탄환이 소진되어 우리 용감한 공격에 견디지 못하고 시체 7구를 남기고 대서차(大西岔)방면으로 도주했다. 때는 오후 10시 30분이었다. 이어서 우리 부대는 때를 놓치지 않고 어두운 밤의 위험을 무릅쓰고 용맹 과감하게 추적하여 대서차 산채를 습격했으나, 적의 모습을 볼 수 없었으므로 그 산채 2채를 파괴하고 1004고지에 와서 부근 일대를 수색했으나 적진 및 그 퇴로와 우측 낭떠러지 부근에 핏자국을 많이 발견한 외에 시체를 찾지 못했다. 다음날인 26일 오전 1시 고지를 출발하여 문장차(門庄岔)로 가서 그곳 산채(홍근산(洪槿山) 일파 40명이 잠복하고 있는 곳)를 파괴하고 오전 3시 삼가와책(三家窩柵)으로 되돌아와 출동해 온 오리전자 치안대와 합류하여 오전 8시 오리전자에 도착하였으며 그달 28일 오리전자를 출발하여 다음날인 29일에 조선 방면으로 철수했다. 이 교전에서 적 9명을 사살하고 산채 4채를 파괴했으며 말 1마리를 노획했다.

이상의 공적이 특히 현저하여 두서의 상격이 있다고 인정한다.

〈출전 : 「功績調書(崔日煥)」, 『昭和14年 功勞賞ニ關スル書類綴(滿洲事變第3次行賞)』, 국가기록원 소장〉

48) 최탁(崔卓)

공적상격 : 갑중(甲中)
종합서열 : 10명 중 제4위
소속관서 : 재봉천일본총영사관

위훈공 : 정(正) 7
성명 : 최탁(崔卓)
근무명칭 : 조선인 관계사무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9년 1월 28일, 계 1년 7개월
주공관직 : 부영사
공적사항
1937년 7월 7일부터 1939년 1월 28일에 이르는 1년 7개월간 당관에서 근무하며 관장을 보좌하여 일반 조선인 관계 사무를 담당하였다. 이번 사변에서는 각 기관과의 연락 협조를 취하여 재류 조선인의 인심 지도와 계가 등에 노력을 기울여 국책수행상 필요한 실적을 얻었으므로 공적이 우수하다.
위를 확인함.

1939년 2월 28일
재봉천총영사 대리 요시무라(吉村男也)

의서(擬敍) : 사금(賜金) 250
상격(賞格) : 공로(功勞)
주공관등(奏功官等) : 고(高) 5
기초훈장(基礎勳章) : 서(瑞) 6등, 1939년 7월 11일 정례(定例)
1940년 4월 29일 현재 관직 : 조선총독부 군수 종6위 훈6등
성명 : 삼화탁(三和卓)
생년월일 : 1892년 9월 17일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39년 1월 29일, 계 1년 6월 23일
주공관직 : 재봉천일본총영사관 부영사
공적사항
1. 여론환기, 국방사상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재만조선인의 여론환기 및 시국인식의 철저에 노력함과 동시에 선전 삐라, 팜플렛 등을 사비로 인쇄하여 배부를 하는 등 열의를 가지고 황국신민의 연성에 힘을 기울였다.
2. 철수 중국인, 재류 중국인의 보호 및 재만중국인의 보호지도에 관한 업무
유랑 및 이재 조선인의 지도 구제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지도 훈련의 기관으로 봉천 관음사를 건립하여 항구적이고 조직적인 일대 생활개선운동을 전개하는 등 상당한 사재를 털어 시국하 황국신민의 연성을 위해 힘을 기울였다.

주공기간 : 1939년 1월 30일 ~ 1940년 4월 28일, 계 1년 3개월

주공관직 : 조선총독부 경기도 연천군수

공적사항

1. 물자공출에 관한 업무

공출 수량은 다음과 같다.

우피 959매, 돈피 2,726매, 견피 1,877매, 토피 5매, 생우 24매, 건초 489,244매, 대맥 8,382석, 가마니 485,029매, 밧줄 693,880관

2. 군대군인 및 그 유가족 후원 위문에 관한 업무

출정군인 유가족 위문 횟수 및 위문품 총 가격 32회 320원, 출정군인 차 대접 및 그 가격 68회 360원.

〈출전 : 「功績調書(三和卓)」, 『支那事變功績調書』 朝鮮總督府 卷2,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49) 한종건(韓鍾建)

의서(擬敍) : 사금(賜金) 250

상격(賞格) : 공로(功勞)

주공관등(奏功官等) : 고(高) 5

1940년 4월 29일 현재 관직 : 조선총독부 도경시 종6위

성명 : 한종건(韓鍾建)

생년월일 : 1902년 12월 18일

주공기간 : 1937년 7월 7일 ~ 1940년 4월 28일, 계 2년 9월 22일

주공관직 : 황해도경찰부 보안과장 경시

공적사항

1. 유언비어 기타 시국범죄의 방지, 단속, 검거에 관한 업무

도내에서 외국위체관리법, 산금령, 금사용규칙 위반죄의 단속 및 자경단을 강화하여 각종 시국범죄의 방지에 노력한 결과 외국위체관리법 위반 21건, 산금령 위반 39건, 금사용규칙 위반 2건을 검거하였다. 또한 도내 자경단의 강화 신설은 본 기간 중에 완성하여 26,656단(단원 196,122명)을 설치하였다.

2. 도내 물가의 조정, 생산력 확충 및 자원개발에 관한 업무

휘발유 및 중유의 배급 사무에 종사하여 소비규정 강화의 정세에서 본도 휘발류 등의 적정한 배급에 노력하였다. 배급한 수량은 별지 공적표에 기재한 바와 같다. 또한 생산확충상 가장 관계가 깊은 자동차 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용연차의 보급 장려에 노력한 결과 본 기간 중 약 100대의 대연차

를 출현시켰다. 이어 본 기간 중 노력한 실적으로 1941년중 대연차로 전환한 수가 300대에 달하였다. 자동차 연료난 돌파를 위하여 일제히 대증산을 요구하였는데 광산에서 증산에 가장 관계가 깊은 화약류의 사무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화약의 광산 공급을 원활하게 하였으며, 광산에서 화약기술의 지도에 노력을 기울여 본 기간 중에 실적이 확대되어 도내 광산 특히 금 증산에 공헌을 많이 하였다.

〈출전 : 「功績調書(韓鍾建)」, 『支那事變功績調書』 朝鮮總督府 卷3,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50) 허준(許俊)

[50-1]

조선총독부 평안북도 순사 허준(許俊)
(조선총독부 도순사 후창(厚昌)경찰서 근무)

위 사람은 1931년 9월 18일부터 1934년 3월 31일까지 국경 제일선에서 근무하면서 만주사변을 맞아 비적의 소탕과 진압 및 기타 국경경비근무에 밤낮으로 쉬지 않고 압록강변의 경비에 임함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대안에 잠입하여 적정의 정찰을 위해 군대와 협력하여 조선 내를 침입하려는 비적과 교전, 격퇴하여 적의 기선을 제압하고 월경 소탕하여 이주선인의 보호와 구조에 종사하고 출동부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종 복잡다단한 근무에 복무함으로써 조선과 만주 국경지대의 치안을 확보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는데 그중

1. 1932년 6월 이후 대안 임강현(臨江縣)과 장백현(長白縣)에 자칭 구국애민철갑군(救國愛民鐵甲軍) 총사령(總司令) 대도회(大刀會) 노사(老師) 여해정(呂海亭)의 일파 대도회비(大刀會匪) 약 1000명이 봉기하였는데, 그들은 조선 내 침입을 기도하여 수명을 한 무리로 강안지대를 밀행하고 조선 내의 경비상황을 정찰함과 함께 월경하는 왕래자를 검문하여 일본관헌의 주구라고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혹은 살상과 능욕 등의 포악한 만행을 일삼아 대안과의 교통이 완전히 두절되어 정보수집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안에서 비적의 정보는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었기에 이에 대한 정찰은 강안의 경비대책상 한시도 미룰 수 없으므로 극력 내사에 노력하던 중

1) 1932년 6월 4일 포평(葡坪)경찰관주재소 대안 장백현 팔도구(八道溝)의 형세가 급박해짐에 따라 본인은 후창경찰서장 미나기(皆木政右衛門)의 특명을 받아 중국옷으로 변장하고 단독으로 작은 배를 조종하여 은밀히 월경하여 팔도구의 적정을 내사 중이었던 바 돌연 여러명의 대도회비를 만나 그 검문을 받았는데, 그들은 본인을 일본관헌이라고 곧바로 체포하여 장총을 가슴에 들이대고 고문 협박하였으나 용감한 본인은 유창한 중국어로 이를 부인하였다. 그런데도 저들은 더욱 폭위를 떨쳐 도저히 탈출

을 할 수 없는 궁지에 빠져들었는데 요행히도 미리 알고 있던 그 지방의 순장(巡長) 주사료(周思料)가 와서 백방으로 석방에 노력해준 덕분에 마침내 그 위기를 면하고 귀중한 자료를 얻어 조선 내로 돌아왔다.

2) 6월 11일 본인은 다시 적 상황 정찰을 위해 중국옷으로 변장하고 단독으로 작은 배를 타고 월경하여 팔도구에 상륙하였는데, 강안에 잠복 중이던 대도회비 수명에게 발견되어 일본관헌이므로 사살하겠다고 권총을 들이대며 협박하는 것을 교묘히 변명하여 마침내 그들의 의심을 풀고 상륙하여 적 상황을 자세히 내사하고 무사히 조선 내로 돌아왔다.

3) 1932년 8월 15일 오후 5시 50분 대도회비 약 50명이 장백현 팔도구를 점거하고 조선 측 침입을 기도하여, 방비시설 및 지형을 이용하여 당당히 대오를 정비하고 포평경찰관주재소 전방 압록강에서 약 400미터 떨어진 대안 산기슭에 산개하여 화선을 구축하고 주재소를 향해 공격을 개시하였으므로 경계 중이던 본인은 순사부장 오자끼(尾崎三治) 외 15명과 함께 주재소 및 옛 헌병감시소 전면 참호에 근거하여 방어진을 펼치고 응사하였다. 적은 완강히 저항하였으나 오후 6시 50분 두지(杜芝)경찰관주재소로부터 응원 경찰관 12명이 도착함으로 그들과 협력하여 맹사격을 퍼부어 적 5명을 사살하고 8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적 일부가 퇴각하고 적의 사격이 느슨해져 대치상태로 밤이 되었으므로 보초를 서며 불면불휴 경계에 복무하였다. 이 전투에서 적탄은 포평경찰관주재소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건물과 그 주변에 많은 탄환이 날아왔는데도 다행히 피해는 없다.

4) 8월 16일 오전 8시 20분 상술한 대도회비는 다시 포평경찰관주재소를 향해 사격을 개시함으로 본인은 순사부장 오자끼(尾崎三治) 외 27명과 함께 곧바로 참호에 근거하여 용감히 응사하며 교전하던 중, 오전 10시 후창수비대 보병군조 사토(佐藤喜和太)가 병사 10명을 인솔하여 기관총을 휴대하고 도착하였다. 그들과 협력하여 뒷산에 진지를 구축함과 함께 예의 적에게 맹사격을 퍼부었으나 적의 망루가 견고하여 명중탄의 효력이 약해서 완강히 저항하는 것을 정확한 사격으로 적 3명을 사살하고 수명에게 부상을 입혀 침묵시켰는데 일몰경부터 적은 간헐적으로 속칭 대포(구경 2촌 발화식)을 발사해와 서로 대치한 채로 밤이 되어 보초를 서며 주재소 및 영내 강안 일대의 경비에 복무하였다.

5) 8월 17일 오후 6시 30분경 장백현 팔도구에 근거를 둔 대도회비 약 70명이 산위 약 400미터로부터 포평경찰관주재소 및 그 소재지 민가에 일제히 발포 사격을 함으로 본인은 경부보 마쓰이(松戸亮)가 지휘하는 경찰대 7명의 일원으로 곧바로 주재소 앞 참호에서 이에 응사하여 교전 약 20분만에 적을 격퇴하였다.

6) 8월 18일 오전 7시 20분 팔도구 대도회비 약 120명이 포평경찰관주재소에 대해 맹사격을 개시함으로 경찰대는 경부보 마쓰이(松戸亮)의 지휘에 따라 응전하였는데 본인은 경찰대 22의 일원으로 후창수비대 보병군조 사토(佐藤喜和太)가 지휘하는 병사 10명과 협력하여 적에게 일제사격을 가해 오전 9시 그들을 침묵시켰다.

7) 그날 오후 0시 50분 다시 주재소 대안 산위 약 400미터 지점에 십수 명의 비적이 나타났으므로 본인 등은 군대와 협력하여 즉시 일제사격을 가해 적 2명을 사살하고 3명에게 부상을 입혀 격퇴시켰다.

8) 그날 오후 2시 50분에 이르러 동강성(東崗城) 방면으로부터 새롭게 팔도구로 원조하러 온 대도

회비 약 20명이 대안 산정상에 나타나 우리를 공격하였으므로 본인 등은 군대와 협력하여 그들에게 맹사격을 퍼부어 적 3명을 사살하고 수명에게 부상을 입혀 교전한 지 수분 만에 적을 궤주시켰다.

9) 8월 20일 오전 6시 30분 대도회비 약 120명이 포평경찰관주재소로부터 300 내지 500미터 떨어진 팔도구 강안 민가로부터 조선 측과 연락선으로 항해하는 선박 2척 및 뗏목 5척을 향해 사격하였으므로 본인은 경부보 마쓰이(松戶亮)의 지휘에 따라 그곳을 경비중인 후창수비대 보병군조 사토(佐藤喜和太) 이하 11명과 협력하여 적을 공격해 침묵시켰다.

10) 그날 오후 4시 30분경 다시 임강현(臨江縣) 칠도구 방면으로부터 팔도구로 이동해 온 대도회비 약 20명이 약 500미터의 산 정상에서부터 우리를 사격하였으므로 본인은 경부보 마쓰이(松戶亮)의 지휘에 따라 앞서 서술한 군대와 협력해서 주재소 및 뒷산 진지로부터 이들에게 응전하였고 다시 탄환이 빗발치는 사이를 강안 100미터 지점까지 진출하여 맹사격을 가해 적 2명을 사살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혀 격퇴하였다.

11) 8월 21일 오전 0시 이미 평안북도 자성군 여연면 중강진 및 임강현 모아산(帽兒山)에 출동중이던 보병 제77연대 기관총대 육군 보병중위 하라(原善四郎)이 병사 14명 및 곡사포 1문을 휴대하고 포평(葡坪)경찰관주재소에 도착하여 주재소 뒤 고지에 진지를 구축하고 오전 8시 35분 그곳으로부터 팔도구에 있는 대도회비의 근거지에 포격을 개시하였는데 경부보 마쓰이(松戶亮)는 이들과 협력하여 적을 전멸시키기 위해 경찰대 24명을 지휘하여 후창수비대 보병군조 사토(佐藤喜和太) 이하 10명과 함께 포평경찰관주재소 전방 참호에 근거하고 곡사포의 사격에 호응하여 용감히 공격을 개시하였는데 우리 군경의 일치협력으로 약 1시간에 걸친 격전 끝에 의해 적을 팔도구 오지 1,000미터 지점으로 궤주시켰다. 이 교전에서 적은 사상자 12명, 중상 3명, 경상 10여 명에 달했고 우리의 피해는 없었다.

12) 8월 22일 오전 11시 50분 팔도구에 있던 대도회비 약 50명이 강안 산기슭에 나타나 조선쪽을 왕래하는 자와 포평경찰관주재소를 향해 일제히 사격을 가하므로 본인은 경부보 마쓰이(松戶亮)가 지휘하는 경찰대 7명에 가담하여 곧바로 조선 측 강안 약 100미터 지점으로 진출하여 적에게 맹사격을 가하며 교전한지 약 30분만에 적 1명을 사살하고 1명에게 부상을 입혀 격퇴하였다.

13) 8월 23일 오전 8시 10분 대도회비 250명이 팔도구 산기슭 압록강변의 참호와 시내 망루에 근거하고 압록강에 떠있는 조선인 뗏목 5척 및 조선인 소유 고뢰선 3척에 사격을 가해 오므로 본인은 경부보 마쓰이(松戶亮)가 지휘하는 경찰대 24명에 가담하여 용감하게 적탄이 빗발치는 사이를 뚫고 약 200미터 돌진하여 압록강변으로 나아가 맹렬하게 적에게 공격을 가하여 약 10분간 격전 끝에 적을 침묵시키고 뗏목과 배의 선원을 구출하였다.

14) 같은 날 대도회비가 오전 9시 30분경부터 팔도구 망루와 민가 및 강변 참호와 산위에 근거를 두고 사격을 개시하므로 보병중위 하라(原善四郎)가 이끄는 곡사포대 및 보병군조 사토(佐藤喜和太)가 이끄는 군대와 공동전선을 펼쳐 맹사격을 가하며 분전하여 약 1시간의 격전 끝에 적 3명을 사살하고 수명에게 중상을 입혀 1,000미터 오지로 궤주시켰다. 이 교전 중 우리 주재소 및 민가에 많은 적 탄환이 명중하였으나 사람과 가축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15) 8월 24일 오후 6시 팔도구 시내 각 망루 및 수상경찰서 구내와 기타 중요 건축물을 점거한 대도

회비 약 250명은 돌연 조선쪽 왕래자 및 농경자와 포평경찰관주재소를 공격하여 왔으므로 본인은 경부보 마쓰이(松戸亮)가 지휘하는 경찰대 24명에 가담해 전기 군대와 협력하여 주재소 참호에 근거하고 응전하며 탄환이 빗발치는 중에 선전하여 적 4명을 사살하고 6명에게 중상을 입혀 해가 질 무렵에 이르러 그들을 격퇴하였다.

16) 8월 25일 오후 0시 30분 팔도구에 근거를 둔 대도회비의 일부 약 50명이 대안 강변으로 진출하여 포평경찰관주재소 앞 조선쪽 왕래자에게 발포하고 습격하였으므로 본인은 경부보 마쓰이(松戸亮)가 지휘하는 경찰대 7명에 가담하여 즉시 주재소 앞 강변으로부터 응사하며 약 40분간의 교전 끝에 마침내 적 2명을 사살하고 수명에게 부상을 입혀 궤주시켰다.

17) 8월 27일 오후 8시 15분 포평경찰관주재소 대안 팔도구에 근거를 둔 적의 일대 약 40명이 일제히 발포하며 주재소 및 소재지 민가를 습격하였으므로 본인은 경부보 마쓰이(松戸亮)가 지휘하는 경찰대 6명에 가담하여 즉시 주재소 앞 참호에 근거하여 응사하며 약 20분간 교전 끝에 마침내 적 1명을 사살하고 궤주시켰다.

18) 8월 30일 오전 11시 30분 200명의 적이 팔도구 시내 망루 및 산 정상의 참호에 의지하여 일제히 조선 내 민가, 왕래자 및 포평경찰관주재소에 발포하였으므로 본인은 경부보 마쓰이(松戸亮)의 지휘에 따라 전기 군대와 협력하여 맹사격을 가해 약 1시간 30분간 교전하여 적 6명을 사살하고 십여 명에게 중상을 입혀 후방 1,000미터 골짜기로 궤주시켰다.

19) 8월 31일 오전 11시 30분 팔도구의 대도회비 200명이 갑자기 압록강에 떠있는 뗏목 3척 및 항행중이던 선박 2척, 그리고 조선쪽 왕래자 등에게 사격을 가하여 위험에 빠뜨렸으므로 본인은 곧 경부보 마쓰이(松戸亮)가 지휘하는 경찰대 22명에 가담하여 전기 군대와 협력하여 맹사격을 가해 약 50분간 교전 끝에 산위의 적 3명을 사살하고 5명에게 부상을 입혀 격퇴하였다.

20) 9월 1일 오후 4시 50분 팔도구의 대도회비 250명이 시내 각 망루에 근거를 두고 조선쪽을 향해 사격을 가하고, 또한 대안 산위 약 4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약 50명의 대도회비가 우리에게 사격을 가해왔으므로 본인은 곧 경부보 마쓰이(松戸亮)가 지휘하는 경찰대 22명에 가담하여 주재소 앞 참호로부터 응전하여 일사불란한 통제 아래 격렬한 전투를 벌인 끝에 마침내 그들을 침묵시켰다.

21) 그날 오후 6시 5분경 팔도구 서쪽 망루 부근으로부터 대도회비 16명이 나타나 장총, 장창, 회기 등을 각각 휴대하고 고뢰선을 타고서 산위 및 망루에 있는 적의 엄호사격 아래 조선쪽 압록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고뢰선을 습격하였으므로 경부보 마쓰이(松戸亮)가 지휘하는 경찰대 11명과 함께 응전하여 적탄이 빗발같이 쏟아지는 사이를 뚫고 약 500미터 하류의 적선과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돌진하여 적선에 일제히 맹사격을 가하여 배 안에 여러명의 사상자가 생기고 또한 압록강에 추락한 자가 2,3명에 미치자 적은 뱃머리를 돌려 약 20미터 퇴각하였으나 우리의 맹사격을 감당하지 못해 총기를 들고 물속으로 뛰어들거나 혹은 장총을 들고 급류 속으로 뛰어들어 그중 2명이 익사하고 8명은 간신히 도주하였다. 적의 배는 조선쪽에 표착하였으므로 배에 있던 사체 2구를 수용하고 장총 2정, 탄약 40발, 장창 2개, 기타 잡품 다수를 배와 함께 압수하였다.

22) 강계(江界)수비대 제1중대장 보병대위 김인욱(金仁旭)이 집성 1개 중대를 지휘하여 포평에 도

착하자 월강하여 적의 근거지를 공격해 그들을 일거에 전멸시키고자 9월 4일 오전 2시 포평 주둔의 후창(厚昌)수비대 보병군조 사토(佐藤喜和太)가 이끄는 1개 분대를 선두로 포평경찰관주재소 상류 약 1000미터 지점으로부터 월강하였을 때 본인은 경부보 마쓰이(松戸亮)의 지휘하에 위 분대의 엄호부대로서 도강지점 강변에 산개하여 적의 습격에 대비하여 무사히 군대를 월강하게 하였다. 한편 하류 동신면(東新面) 두지동(杜芝洞)으로부터 월강하는 제1중대 본대가 전기 사토(佐藤) 분대와 호응하여 그날 오전 7시 55분 팔도구 포위공격을 시작하자 적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맹렬히 반격을 해왔으나 우리 군경의 급습을 감당하지 못하고 산위 망루를 버려둔 채 시가 망루, 민가 등으로 숨어들었으므로 조선쪽에 산개하고 있던 경찰대는 그들에게 맹사격을 가하여 적 십여 명을 사살하였다.

23) 그날 오전 11시 50분 포평경찰관주재소 뒤 고지에 배치한 곡사포로 팔도구를 포격 중이던 보병중위 하라(原善四郎)가 적전 도하를 결행하여 팔도구 시가지로 향했으므로 우리 경찰대는 고뢰선 2척에 나누어 타고 엄호사격하여 그 임무를 완수하였다.

24) 그날 오후 1시경 포평경찰관주재소 하류 대안에서 우리 군대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도주하는 적에게 맹사격을 가하여 30명을 사살하였는데 적은 필사적으로 저항하였다. 다시 그날 오후 6시 비적 약 60명이 압록강 대안을 따라 서쪽을 향해 궤주하려고 했는데 이때 본인 등은 맹렬한 사격을 가하여 적 5, 6명을 제외한 전부를 사살하였다. 이날의 전투에서 적은 사체 약 180구(군경의 사살)를 유기하였으며 우리는 총기, 탄약, 장창 등 다수를 압수하였고 우리 군대는 사망자 1명, 부상자 3명이 발생했으며, 경찰대와 거주민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25) 1932년 9월 5일 오전 7시 대안 임강현 칠도구에 대도회비가 집결중이라는 정보가 있어 강계수비대 제1중대장 보병대위 김인욱은 집성 1개 중대 150명을 지휘하여 그곳으로 향해 포평경찰관주재소를 출발하였으므로 본인은 경부보 마쓰이(松戸亮)가 지휘하는 경찰대 22명(기관총 2, 소총 18)에 가담하여 군과 공동으로 팔도구로 월경하여 그곳 대도회비의 근거지인 시내 및 산위의 망루 6개소를 파괴하고 팔도구 안에 남은 비적 소탕에 종사하던 중 약 20리 떨어진 오지에 대도회비 약 10명이 잠복 중이라는 정보를 접하고 곧바로 진격하니 적은 경찰대의 진격을 두려워하여 산속 약 400미터 지점으로 도주하였으나 산개하며 사격하여 적 2명을 사살하고 장총 1정, 탄약 50발, 장창 1개를 압수하였다.

26) 1932년 9월 11일 오전 7시 대안 장백현 팔도구 신방자(新房子)에 본거지를 둔 대도회비 노사여해정(呂海亭)의 일파가 9월 6일 강계 집성 제1중대 보병대위 김인욱이 지휘하는 150명의 토벌대에 의해 오지 깊숙이 도망하였으나 재기를 도모하며 신방자 부근에 잠복중이라는 정보가 빈발하였으므로 본인은 경부보 마쓰이(松戸亮)가 지휘하는 경찰대 16명에 가담하여 팔도구로 월경하여 험준한 산과 강을 지나 오후 0시 30분 약 40리 떨어진 신방자에 도착하여 근방 촌락 등의 이주 조선인 보호경계를 담당하였는데 본인은 중국어 및 사정에 정통하였으므로 마침내 적 상황 정찰의 정확을 기해 척후로서의 중임을 완수하였다.

2. 출동부대에 정보연락사무

1932년 8월 14일 비행선 습격사건을 계기로 후창경찰서 관내 대안은 일제히 소란상태에 빠져들었다. 이때 본인은 포평경찰관주재소에서 항상 대안 상황 내사에 노력하며 정보의 수집을 맡았다. 그해

6월 이래 수차례 적에게 체포되어 총살의 위험에 처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신명을 바쳐 사지로 잠입하여 중요임무에 종사하였는데 그중

1) 1932년 8월 24일 및 29일 두 차례 본인은 일신을 희생하여 진충보국의 정성을 바쳤던 바 이때에 대도회비 약 1000명의 근거지인 팔도구 신방자에 당시 주둔군 보병중위 하라(原善四郎) 및 경부보 마쓰이(松戶亮) 명의로 8월 24일 대도회비 노사 여해정에 대한 귀순권고문을 건네었으며, 8월 29일에는 팔도구 주민 일반에게 일본군대가 정의군이라는 선전문을 산포하였다. 이 경우 생사의 사이를 방황하며 적의 수, 휴대무기, 지형, 적의 방어진지 등을 정찰하여 그것을 마쓰이(松戶) 경부보에게 보고하였으며 이 정보에 의해 8월 25일 강계수비대 보병대위 김인욱이 적 상황 조사를 위해 포평경찰관주재소에 와서 상세한 연락을 하였다.

2) 8월 29일 적의 세력, 훈련정도, 적의 강안경계 지점, 월강군의 도섭지점 등을 마쓰이(松戶) 경부보에게 보고하여 이 정보에 따라 조선군은 강계 집성 제1중대 보병대위 김인욱 이하 151명으로 9월 4일 새벽 팔도구를 포위 공격할 것을 결단하였다. 그 후 계속해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하여 9월 4일 조선군 월강 전에도 그 귀중한 정보연락의 사무에 종사하여 월강부대가 적 250명 중 180여 명을 사살하는 공전의 대첩을 세우며 완전히 적을 소탕하여 장래의 화근을 일소함으로써 강안 일대의 치안을 확보하고 국토의 안전과 민심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하였다.

이상의 공적이 특히 현저하여 두서의 상격이 있다고 인정한다.

〈출전 : 「功績調書(許俊)」, 『昭和11年度 功勞賞ニ關スル書類綴 滿洲事變行賞(第1次)』, 국가기록원 소장〉

[50-2]

의서(擬敍) : 사금(賜金) 70
상격(賞格) : 공로(功勞)
주공관등(奏功官等) : 판(判) 4 대우
기초훈장(基礎勳章) : 욱(旭) 8등, 1934년 4월 29일 사변(事變)
1940년 4월 29일 현재 관직 : 조선총독부 평안북도 순사 훈8등
성명 : 허준(許俊)
생년월일 : 1902년 3월 19일
주공기간 : 1937년 10월 8일 ~ 1940년 4월 28일, 계 2년 6개월 1일
주공관직 : 평안북도 위원경찰서 도순사
공적사항
1. 첩보 정보의 수집에 관한 업무

예수교회, 만주인과 중국인의 사찰 등을 엄격히 시행하여 시국에 대한 첩보수집에 노력하였다. 그

회수 228회.

2. 유언비어와 기타 시국적 범죄의 방지, 단속, 검거에 관한 업무

시국에 대한 유언비어가 민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를 단속함과 함께 시국적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노력하였다. 그 회수 119회.

3. 국경특별경비에 관한 업무

중국공산당의 영도하에 있는 공비들이 우글거리는 압록강 기슭에서 이들이 조선 내로 습격하여 잠입할 것에 대비해 극한의 변경에서 분골쇄신하며 경비에 임하여 치안확보에 만전을 기해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경계 회수 451회.

4. 여론환기, 국방사상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업무

시국좌담회에 통역으로 민중에게 시국을 인식시키고 국민의 각오를 불러일으켜 여론의 환기와 국방사상 보급에 철저히 기하였다. 좌담회 회수 84회. 집합 연인원 5211명.

5. 중국인 피난민, 재류 중국인의 보호 및 재만 중국인의 보호와 지도 등에 관한 업무

재류 만주인과 중국인에게 시국인식을 선전함과 함께 보호와 지도에 종사하였다. 그 호구 수 17호, 인구 173명.

6. 국방헌금 및 애국기 헌납자금 모집에 관한 업무

시국좌담회에 의해 시국을 인식하고 국방헌금과 황군위문금으로서 다음과 같이 갹출하였다. 취급 건수 18건. 총액 35원 15전

〈출전 :「功績調書(許俊)」,『支那事變功勞者功績調書』卷16,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51) 홍순봉(洪淳鳳)

조선총독부 평안북도 경부 홍순봉(洪淳鳳)
(조선총독부 도경부, 초산경찰서 근무)

위 사람은 1931년 9월 18일부터 1932년 1월 31일까지 위원경찰서, 1932년 1월 31일부터 1934년 3월 31일까지 초산경찰서에 근무하던 중 만주사변에 따른 비적의 소탕과 진압, 군대의 출동과 귀환, 군수품의 수송 편의제공, 자동차와 선박 대여에 대한 원조, 피난민의 구호 및 선후조치, 국방헌금과 애국기헌납자금, 위문금품의 모집 및 취전, 기타에 관해 각각 적절한 처치를 강구하여 제반의 사무 수행에 유감이 없도록 하였는데 그중

1. 비적 소탕·진압에 관한 사무

본인은 초산경찰서에 근무하던 중

1) 1932년 6월 10일 오후 1시경 집안현(輯安縣) 유수림자(楡樹林子) 강어귀에 병비 엽홍달(葉鴻達) 및 대도회비가 혼합된 적 약 500명이 신천경찰관출장소를 향해 습격하러 와서 교전 중이라는 급보를 받고 순사 이시하라(石原銀四郎) 외 7명을 이끌고 신천경찰관출장소로 급히 가서 출장소원과 협력하여 즉시 적에게 응사 공격하였다. 교전 2시간 만인 오후 6시에 적을 침묵시켰는데, 적이 오후 6시 20분에 다시 맹사격을 하였으므로 이에 반격을 가하여 오후 9시 적을 침묵시켰다..

2) 1932년 5월 집안현 외차구(外岔溝) 주둔 공안국장인 임향보(林香圃)가 만주국 건국에 불만을 가지고 민중자위군 총사령 당취오(唐聚五)의 산하로 도주하여 제54단장으로 집안현 노야령(老爺岭)에 근거를 두고 부하 300여 명을 이끌고 각지에 출몰하며 반만항일의 기세를 높여 폭위를 떨치고 조선 내의 치안을 위협하는 일이 심해져 압록강변의 경계는 가장 엄밀을 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인은 서장을 보좌하고 경비경계의 만전을 계속 기하였는데 마침 조선군은 그해 6월 6일을 기하여 국경지대에서 치안확보를 위해 월경진출을 감행하고 제3월강부대가 6월 7일 새벽을 기해 대안 집안현 외차구를 점거하여 부근 일대에 걸쳐 비적을 소탕하게 되었다. 이를 동기로 민중자위군은 대도회비를 전위로 외차구의 탈환을 기도하였고, 계속 강변지대로 쇄도하여 옴에 따라 강변의 경비경계는 한층 긴급하게 되었으므로 본인은 경비에 관한 계획수립에 참여하고 경찰관을 지도 독려하여 비적이 침입할 여지가 없게 함으로써 비적의 소탕진압에 노력하였다.

2. 피난민 보호 구제에 관한 사무

1932년 6월 이래 집안현 방면에 거주하는 이주 조선인으로서 비적의 난을 피해 돌아온 사람들이 2,500여 명에 달하였고, 다시 그해 9월 대안의 정세가 절박해지자 거듭 피난온 사람들의 수가 2000여 명을 헤아렸는데 본인은 그 구호에 대해 관계당국과 협력하여 식료, 피복, 신탄의 공급과 숙소의 알선 등에 극력 분주하여 보호 구제에 노력하였다.

이상의 공적이 매우 현저하여 두서의 상격이 있다고 인정된다.

〈출전 : 「功績調書(洪淳鳳)」, 『昭和11年 功勞賞二關スル書類綴 滿洲事變行賞(第1次)』, 국가기록원 소장〉

52) 황금룡(黃金龍)

조선총독부 평안북도 순사 황금룡(黃金龍)
(초산경찰서 근무)

위 사람은 1936년 7월 10일부터 1937년 7월 6일에 이르는 사이에 국경제일선의 경비에 복무하며 항상 불면불휴 오로지 국경지대의 치안확보에 진력하여 왔는데, 그간의 비적토벌에 관한 공적은 다음과 같다.

1. 1936년 9월 13일 오후 2시경, 벽동경찰서 봉곡출장소 대안 관전현(寬甸縣) 대황구(大荒溝) 강어귀

에서 비적 수괴 좌사령(佐司令), 왕봉각(王鳳閣), 양사령(楊司令) 등의 합동비적 240명이 습격해 와 민가에 방화하고 약탈하는 등 횡포가 극에 달했다. 때마침 대안 내사를 위하여 그 곳에 월경하여 만주인 부호 보흥후(寶興厚) 상점에서 비적에 대한 정보를 수집 중이던 봉곡출장소 근무 하세가와(長谷川) 순사가 적에게 포위되어 분투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마침내 피랍되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에 관할 벽동서에서는 즉시 비상소집을 하며 경찰부에 보고함과 함께 인접서에 응원을 구하였는데, 경찰부장은 스스로 토벌대를 지휘하여 하세가와(長谷川) 순사의 구출과 토벌을 시작하였다. 이때 본인은 벽동서 사토(佐藤) 경부보가 지휘하는 41명에 가담하여 9월 14일 행동을 시작하여, 오전 9시 30분 제4구 관문인 납자령(拉子岭)에서 사토(佐藤)부대와 합류하여 납자령으로부터 북쪽 약3킬로 지점에서 숙영하였다. 이어서 다음날인 15일 오전 7시 행동을 시작하여 이도양차(二道陽岔), 삼도양차(三道陽岔), 착초구(錯草溝) 일대를 수사하고, 오후 4시 녹권자구(鹿圈子溝)에 도착하여 부근일대를 수색한 후 그 곳에서 숙영하였다. 다음날인 16일 이른 아침 그곳을 출발하여 적유정자(赤楡頂子) 일대를 수사한 후 일단 철수할 예정이라는 뜻을 수사본부에 특사를 보내 보고한 뒤 숙박했다. 그 다음날 오후 7시 넘어 영도구(岭道溝) 입구에서 경찰부장이 이끄는 초산서, 벽동서 응원대와 합류하였고, 경비전화를 통한 연락과 밀정의 보고에 따라 적이 오전 11시경 유수정자의 만주인 민가에서 점심을 먹으며 현재 잠복 중이라는 것이 판명되었으므로 곧바로 부서를 정하여 그곳의 잠복 가옥을 포위하였다. 그러나 적들은 우리 토벌대의 접근을 알아차리고 식사를 그만두고 약 1시간 전에 서차(西岔) 북쪽 관문 납자령을 넘어 오지로 도망간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각 부대가 일제히 급습하여 동차(東岔)와 서차(西岔) 부근까지 갔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더 이상 추적해도 효과가 없다고 인정하고 오후 9시 봉곡출장소로 철수하였다.

2. 1936년 12월 26일 조선혁명군 제2대대 출장반 부사 강익순과 이참사(李參士) 이하 4명이 만주인 비적 2명과 함께 집안현(輯安縣) 양수천자(凉水泉子) 거주 조선인 박근우(朴根祐) 집에 잠복하여 조선쪽을 습격하고자 밀의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얻은 초산경비대 제2분대장 고(高) 부장은 부하들을 인솔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이의 토벌에 출동하였다. 그러나 이미 도주한 후였으므로 일단 조선쪽으로 철수하여 앙토주재소에서 다시 행동할 것을 약속하고 대기하던 중, 그달 28일 오후 4시 40분경 적이 양수천자에 잠복하고 있다는 첩보를 얻음으로써 고(高) 제2분대장과 함께 드디어 월경 토벌하게 되어 부대 총원 15명으로 오후 5시에 출동하여 월경하였다. 본인은 이타노(板野), 와타나베(渡邊) 두 순사와 함께 첨병이 되어 부대의 전방 10 미터를 앞서 급행하던 중, 오후 6시 50분경 첨병이 양수천자 주하리의 이주 조선인 백영철(白永喆)의 집 앞 도로에 접어들자 약 15미터 앞의 도로에 어둠을 틈타 산개하고 있던 적들이 갑자기 우리 쪽을 향하여 일제히 발포하였다. 이에 검문반원 3명은 재빨리 그 자리에서 흩어져 응사하였고, 본대장인 고(高) 부장 및 스키모토(杉本) 순사 이하 대원은 곧바로 뛰어와 산개해서 용감하게 교전하며 격퇴에 노력했다. 그러나 적들은 지형의 이점을 이용해 완강하게 저항하였으므로 부대는 이들을 격멸하고자 점차적으로 육박해 나가고, 본인은 스키모토(杉本) 순사와 협력하여 솔선해서 결사적인 각오로써 비처럼 쏟아지는 탄환을 겁내지 않고 몸을 던져 전진하면서 맹사격을 퍼부었다. 이에 대원들도 전진하며 드디어 적 수명을 쓰러뜨렸더니 불리함을 느낀 적들은 어둠을 틈타 퇴각했다.

3. 1937년 1월 20일 오전 10시부터 관전현 제사구 소청구(小靑溝) 방면에서 초산수비대 테라모토(寺

本) 군의 이하 10명이 적 백여 명과 충돌하여 고전 중이라는 정보가 있었으므로 이를 곧바로 서장에게 보고함과 함께 본인은 고(高) 순사부장 이하 15명의 부대에 가담하며 연담주재소 가와카미(川上) 경부보 이하 7명과 함께 오전 10시 40분 연담으로부터 월경하여 소청구 방면을 향해 급행하였다. 그러던 중 오전 11시 30분 관전현 남구 입구에 이르렀을 때 그곳 동쪽 산위로 도주하고 있던 적 수명을 발견하고 이들과 교전하여 5분 만에 적 1명을 사살하니, 나머지 적들은 908고지를 향해 도망하였다. 이때 마의구(螞蟻溝)로부터 백채지(白菜地)로 통하는 고개 부근에서 총성이 일어나므로 초산수비대와 적의 교전일 것이라 생각하고 그 방면으로 급히 가던 중, 마의구로부터 백채지 및 유수구자(楡樹溝子)로 통하는 삼거리에서 초산수비대 니시카와(西岡)부대와 합류하여 적에게 맹사격을 퍼부으며 격전을 벌이던 중 특별경비대 제3분대 요시다(吉田) 부장 이하 12명이 긴급구원을 왔으므로 합류하여 격전하니 실로 약 2시간 반만에 적을 격퇴하였다.

시간이 오후 7시 30분이었기 때문에 야간추격은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중지하고 부근일대를 수색한 뒤 수비대와 함께 오후 8시 30분 조선쪽으로 철수하였다.

4. 본인은 1937년 1월 21일 오후 0시 초산경찰서 특별경비대 제2분대장 고(高) 부장 휘하의 대원 14명과 함께 관전현 대천구로 월경하여 적정 정찰에 종사하던 중 반만항일 비적의 별동대 상(尙) 단장의 부하 반단부(潘團附)가 이끄는 비적 약 30명이 집안현 제3구 문취초(門炊哨) 폐가에 잠복 중이라는 확실한 정보를 얻었다. 이에 이 내용을 곧바로 연담주재소에 비둘기 편으로 통보함과 동시에 현장으로 급행하여 이를 포위해 전멸시키고자 했으나, 대원의 수가 적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특히 적의 수가 많은데다 지형의 이점을 이용하고 있었기에 분산배치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대원을 산개시킨 채로 몰래 잠복 가옥에 접근했는데 약 200미터 지점에서 이미 적들에게 발견되어 그들은 우리를 향해 발포를 시작했다. 이에 고(高) 분대장 이하 부대원과 함께 곧바로 이에 응전하며 맹사격을 퍼부었으나, 우리쪽은 지형의 이점을 얻지 못하여 매우 위험한 지경에 빠졌다. 그러나 대원들은 추호도 겁을 먹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으며, 특히 본인은 스키모토(杉本) 순사와 함께 용감하게 빗발치는 탄환 속을 솔선해서 전진하면서 사격을 계속했으나, 적들도 퇴각하는 기색이 없어 지구전이 되었다. 한편 비둘기 편으로 정보를 얻은 특별경비대장 호리(保利) 경부보는 이 호기를 놓치지 않고 한꺼번에 이를 격멸하고자 곧바로 연담소원 3명을 이끌고 급히 현장으로 월경했는데, 이미 고(高) 분대는 격렬하게 적과 교전하던 중이었으므로 호리(保利) 경부보는 고(高) 분대와 협력하여 좌익 쪽으로 돌아가서 고(高) 분대 기관총의 엄호사격 아래 맹사격을 퍼부어 교전 약30분만에 적은 저항하며 잠복 가옥 뒷산으로 퇴각을 시작하였다. 이에 호리(保利) 경부보 부대와 함께 용감하게 전진하였던 본인은 결사적인 전진을 감행하여 대원과 함께 맹사격을 퍼부어 적은 거의 궤멸되었고 남은 적들은 아직도 바위와 나무에 몸을 숨기며 완강하게 저항하였기 때문에, 몸 가까이로 탄환이 자꾸 날아와 위험하기 짝이 없는데도 이를 겁내지 않고 적 앞 50미터에까지 육박하여 약 1시간 30분에 걸쳐 맹렬히 공격하여 적 3명을 사살하니 나머지 적들은 산그늘을 이용하여 도주했다. 이 교전에서 적 3명을 사살하고 러시아식 장총 1정, 브로우닝 소형권총 1정과 탄환, 기타를 노획했다.

5. 1937년 1월 31일 비적의 정황 내사를 위해 월경하던 중, 홍군 정사령(程司令) 일파인 전(全) 대장의

부하 박춘호(朴春浩)가 결빙기를 이용 외차구(外岔溝)에 잠입하여 일본군과 만주군 군경의 경비상황을 상세하게 내탐하도록 엄명을 받아 관전현 하누하(下漏河)에 잠복하여 그때를 엿보고 있다가 그 달 상순에 드디어 외차구에 잠입하여 이주 조선인 계대근(桂大根)의 집에 잠복 중이라는 정보를 얻은 본인은 때마침 부근 강기슭을 유동경계 중이던 특별경비대장 고(高) 부장에게 급히 알려 그를 체포하자고 상세히 협의하였다. 그날 오후 8시 다른 14명과 함께 월경하여 잠복가옥을 포위하고 본인은 최명덕(崔明德) 순사와 함께 용감하게 방안에 뛰어들어 체포코자 하였다. 이에 박춘호는 뒷문으로부터 도주하고자 했으나 대원과 협력하여 격투 끝에 마침내 그를 체포했다.

6. 1937년 2월 17일 특별경비대장 호리(保利) 경부보 이하 5명과 함께 집안현 혼강구(渾江口)로 월경하여 적 상항을 정찰하던 중, 오후 5시경 거동이 수상한 만주인을 발견하여 취조한 바, 적 잠복지로 식량 등을 운반하던 중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에 더욱 추궁한 결과 비적 수괴 왕봉각(王鳳閣)의 부하 이(李) 연장 이하 약 40명이 현재 집안현 고력묘자(高力墓子) 528고지 부근 산 움막에 잠복 중이라는 것이 판명되었으므로 곧바로 본서에 보고한 결과 본서에서 51명으로 이루어진 토벌대를 편성하여 철저하게 토벌을 결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본인은 선발대로서 호리(保利) 경부보의 지휘하에 다른 29명과 함께 그날 오후 9시 야음을 틈타 출동하여, 혼구 얼음 위를 지나 집안현 대홍호자(大紅胡子)로부터 대고마령(大古馬嶺)을 넘어 진행하던 중 민가를 발견하고 가족에 관해서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이(李) 연장 이하 60명이 독처럼 생긴 골짜기에 잠복 중이라는 것이 판명었으므로 본대와 협의한 후 본인 등은 정면으로부터, 그리고 본대인 카와카미(川上) 경부보 부대는 적의 오른쪽 골짜기로부터 우회하여 포위하기로 하고, 오전 2시 각각 배치를 완료하고 대기했다. 그런데 오전 3시경에 이르러 적이 도주하려는 기색이 있으므로 맹공격을 퍼부었던 바, 적 또한 일제히 반격을 해왔으나 토벌대의 맹사격을 견디지 못하고 교전 20분 만에 적은 마침내 환인현(桓仁縣) 협피구(夾皮溝)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이에 야간추격은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중지하고 조선쪽으로 철수했다. 이 교전 결과 적 3명을 사살하고 러시아식 권총 2정과 탄환 17발을 노획했는데 본인은 본 전투 중 탄환이 비 오듯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특히 용감하게 행동하였다.

7. 1937년 2월 28일 계통불명의 마적 약 50명이 집안현 제3구 대고마령(大古馬嶺) 남구(南溝)의 빈 집에서 연담주재소 소재지를 습격하고자 밀의 중인 것으로 판명되어 이를 기습하여 일거에 격멸하고자 본인은 호리(保利) 경부보 이하 15명과 함께 곧바로 월경하여 눈이 무릎까지 쌓인 길 없는 비탈을 기어올라가, 오후 7시에 잠복가옥 약 30미터 앞까지 접근하여 일제사격을 가하였던 바 적은 잠복가옥으로부터 뛰어나와 그 집 주위의 돌담에 산개하여 완강하게 저항하였으므로 본인 등은 이를 섬멸하겠다는 비장한 결의 아래 적진지에 돌입하여 장렬한 백병전을 벌여 마침내 격퇴에 성공하였다. 이 교전에서 적 3명을 사살하고 러시아식 장총 1정, 닉켈제 권총 1정을 노획했다.

8. 부하 약 70명을 이끌고 있는 구국군 제5단장 장(張) 단장이 1936년 10월경 만주군과 교전할 때 다리에 부상을 입어 보행이 곤란해졌으므로 부하 17명과 함께 남강(南江) 기슭 동북쪽에 있는 움막 두 채에 잠복하고 있고, 또한 항일비적 이(李) 연장은 부하 25명을 이끌고 그 오지 2천 미터 떨어진 움막에 잠복하면서 언제라도 조선쪽을 침입하려고 획책 중이라는 정보를 얻은 본인은, 이것의 진위를 확인하

기 위하여 경비대장 호리(保利) 경부보 외 6명과 함께 그날 집안현 혼강구으로 월경하여 적정을 정찰하였다. 그러던 중 본인은 거동이 수상한 한 만주부인을 발견하고 이를 검문 추궁한 결과 위 장(張) 단장의 부하 조정방(趙井芳)의 처 고(高)씨(25세)로서 아편과 식량 구입을 위해 외차구로 향하는 도중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에 따라 장(張) 단장 일파가 위 장소에 잠복하면서 조선쪽을 습격하려고 획책 중이라는 확실한 정보를 얻었으므로 곧바로 당시 강안 제일선을 순시중이던 초산경찰서장 경부 야마다(山田俟之助)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서장은 과감히 이들을 토벌하기로 결정하고 그날 오전 9시 스스로 호리(保利) 경부보 이하 22명의 대원을 이끌고 연담주재소로부터 월경하였다. 그런데 토벌대는 월경 후 즉시 3분대로 편성하고 서장이 이를 지휘하여 적의 근거지로 나아갔으나, 어두운 밤인데다가 때마침 눈이 와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다. 이에 대안의 지리에 밝은 본인 및 고(高) 부장, 최일환(崔日煥) 순사를 선두에 세웠으나 눈보라 때문에 몇 번이나 방향을 잃으면서 간신히 다음날 오전 3시 30분에 남강 기슭(강기슭으로부터 약5리 남짓)에 도착하였다. 먼저 장(張) 단장이 잠복하고 있는 움막 2개소를 동시에 습격하고, 계속해서 이(李) 연장 등이 잠복하고 있는 곳을 순차적으로 습격하기로 하고, 각 부서를 정하여 오전 6시 배치를 완료하였다. 이리하여 본대는 오전 6시 서장의 명령에 따라 행동을 시작하였는데 적의 잠복가옥 2백미터까지 접근했는데도 적은 아직 토벌대가 접근한 것을 알아채지 못했으므로 이를 완전히 포위하여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전멸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많은 인원수로 적의 움막에 접근하다가는 사전에 발각되어 오히려 대어를 놓칠 우려가 있으므로 서장은 호리(保利) 경부보와 협의하여 결사적 정신대를 조직해 적의 잠복가옥에 육박하여 그 출입구를 막아 이들을 체포하기로 하였다. 이에 호리(保利) 경부보는 비장한 결의 아래 스스로 자진해서 참가를 청원하여 곧바로 정신대 제1대장으로서 본인과 하야시(林登) 순사 및 첩보원 2명을 동반하여 목표를 왼쪽 독립가옥으로 정하였다. 한편 고(高) 부장은 역시 제2분대장으로 최일환(崔日煥), 마쓰모토(松本滿盛) 순사 및 첩보원 2명을 인솔하여 오른쪽 독립 움막을 목표로 정하고, 용감하게 눈이 사타구니까지 쌓인 급한 비탈을 초목에 의지하거나 바위를 잡으며 갖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잠행하였다. 이리하여 본인들의 1대 5명의 정신대는 적의 잠복가옥 앞 약 10미터 지점까지 접근했는데, 그 지점부터는 급경사로 불과 한 가닥의 가느다란 길이 있을 뿐으로서 옆으로 길게 산개해서는 나아가지 못하고 겨우 한 사람씩 올라가는 것만이 가능하였다. 이에 호리(保利) 경부보가 선두에 서고, 다음에 본인, 하야시(林) 순사의 순으로 올라가 언제 적에게 발견되어 사격 당할지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움막에 접근하였다. 그리고 호리(保利) 경부보는 침착하고도 기민하게 움막의 흙벽에 뛰어올라가 이것을 이용하여 그 움막의 출입구에 총을 겨누며 첩보원에게 명령하여 만주말로 '우리는 조선경찰관이다, 즉시 항복하면 목숨을 살려 줄 것이나 반항하면 전멸시키겠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게 하였다. 그러자 적 한 명이 권총을 손에 들고 나왔으나, 기선을 제압한 정신대의 위압에 겁을 먹고 만사가 끝난 것으로 보고 스스로 갖고 있던 권총을 내던지며 움막 안의 부하를 불러내었다. 안에서는 모두 6명이 나왔는데 모두 항복하였으므로 호리(保利) 경부보는 적이 가지고 있던 사베지식 권총 1정과 탄환을 노획하였다. 이어 신체검사를 시작했는데 그중 2명이 갑자기 도주를 꾀하므로 본인이 재빨리 이들을 잡으려고 하자 맹렬히 저항하며 본인의 권총을 빼앗으려 하였다. 이에 굴하지 않고 본인은 용감하게 적과 몸싸움을 벌이며 이들을 체포하고자

했으나, 적들이 그래도 반항을 계속하므로 호리(保利) 경부보의 명령에 따라 이들 2명을 현장에서 사살하고 그 외 5명을 체포하였다. 한편 정신대 제2분대원 역시 호리(保利) 부대와 마찬가지로 매우 험준한 산등선이의 길도 없는 곳을 겨우 올라가 적으로부터 저격당할 위험도 생각지 않고 용감하고 기민하게 행동해 수령 장(張) 단장 이하 6명을 체포하고 1명을 사살했으며, 대형 모젤 권총 1정과 탄약을 노획하였다. 또한 제3분대 이시이(石井) 부대는 총소리에 의해 토벌대의 습격을 알게 된 이(李) 단장 이하 50여 명이 대오도 유지하지 못하고 협피구 방면으로 도주하고자 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약 50미터 지점에 접근할 즈음 일제히 맹사격을 퍼부어 적 3명을 사살하였다.

이보다 앞서 야마다(山田) 서장이 지휘하는 본대는 이(李) 단장의 잠복지를 포위하는 대형으로 전진하고 있던 중, 산 위에서 총소리가 나자 이시이(石井) 부대가 교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적의 퇴로를 막기 위해 우회하여 대기해 적이 약 백미터 지점에 접근하자 일제히 맹사격을 퍼부었다. 적은 완강하게 저항했으나 교전 약 40분만에 드디어 적 3명을 사살하고 러시아식 장총 2정을 노획하였으며 이들을 고마령 방면으로 격퇴했다. 그런데 부근일대에는 다른 비적들이 많이 잠복하고 있으며 또 높이 쌓인 눈속을 추격하는 것은 우군에게도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곧바로 대원을 추스려 부근 수색을 계속하면서 오전 8시 현지를 출발하여 오후 1시에 무사히 조선쪽으로 철수했다. 본 교전에서 적 9명을 사살하고 11명을 체포했으며, 러시아식 장총 3정, 대형 모젤 권총 1정, 사베지 소형 권총 1정을 노획했다.

9. 압록강 기슭 일대에 우글거리는 조선혁명군은 수년 동안 일본군과 만주군의 끊임없는 검거와 토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토벌대의 예봉을 피하며 아직도 집요하게 동지 규합과 군자금 조달에 힘쓰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종래의 독자적, 분산적인 전술로부터 일반 공동전선조직하에 행동하기로 방향을 전환하고, 아울러 이번 해빙기에 앞서 조선 국내로의 습격을 감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획책하고 있다는 정보가 빈번히 있었다. 특히 통화성(通化省) 환인현(桓仁縣) 오지 일대에는 조선혁명군 총사령 김활석(金活石) 이하 조선인과 만주인 혼합비적 2백 수십명이 창궐하였다. 이에 올해 3월 일만군경 합동으로 대대적인 토벌을 결행하게 되어 본도로부터는 오오와다(大和田) 고등과장 총지휘 아래 관할 위원, 초산의 두 경찰서로부터 96명의 부대를 편성해 3월 20일 오후 1시까지 집안현 외차구로 월경 집결하였다. 초산부대는 호리(保利) 경부보가 대장이 되고, 위원부대는 고오노(河野) 경부보가 대장이 되어 부대를 편성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안 사정에 정통한 본인은 대원 중의 보배같은 존재로서 필두 참가를 명령받고 호리(保利) 부대에 참가하였다. 그날 오후 1시 외차구를 출발하여 관전현 누하를 경유하여 외차구, 협피구에서 마적의 산채를 습격했으나 도주한 뒤였으므로 3월 22일 오후 5시 관전현 오리전자(五里甸子)에 도착해서 숙영했다. 그런데 다음날인 23일 오오와다(大和田) 총사령의 명령으로 호리(保利)부대는 환인현 경찰대와 합대하여 다음날인 24일 새벽을 기해 위원서 고오노(河野) 부대와 연락해 신개령(新開岭)을 포위하고 조선혁명군의 본거지를 공격하고자 그날 오후 0시 오리전자를 출발하여 신개령으로 향했다. 그날은 우리 첩보원 2명이 환인현 제3구 남로영구(南老營溝)에서 조선혁명군 제1사 사령 최종윤의 연락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있었으므로 본인은 이 기회에 연락자를 체포하자고 대장에게 진언한 결과 호리(保利) 경부보는 부대 지휘를 오오아와(大粟) 부장에게 맡겨 표자구(表子溝) 입구에서 기다리게 한 뒤, 본인 및 고(高) 부장과 첩보원 2명을 동반하여 모두 변장하고

서 오후 0시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남노영구에 도착하자마자 약 50미터 앞의 산허리에 숨어 있던 적들이 갑자기 우리를 향하여 수하를 해 왔으므로 첩보원들은 틈을 주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서 응답했더니, 혁명군 연락자 이창진(李昌珍), 최용규(崔容奎) 두 명이 각각 권총을 격발장치가 없음을 알리며 배에 대고 우리 쪽으로 약 3미터에 접근해 왔으므로 고(高) '우리는 최사령과의 약속으로 연락 때문에 왔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적 이창진은 '고맙다'고 하면서 거수경례로서 이에 응했는데, 고(高) 부장은 또 악수를 구하는 것처럼 위장해 접근하였고 본인 또한 고(高) 부장에게 몸을 붙여 같이 나아갔다. 그런데 적 최용규는 호리(保利) 경부보의 모습을 보자마자 수상하게 여기게 되고 이것을 알아차린 고(高) 부장은 틈을 주지 않고 용감하게 이창진(李昌珍)이 가진 권총을 오른손으로 잡고 일격으로 그 자리에서 넘어뜨렸으므로 적 최용규는 곧바로 첫발을 호리(保利) 경부보에게 쏘았으나, 경부보는 이에 응사할 틈도 없이 몸으로 적에게 부딪히려고 각오하고서 육박하여 전진하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순간 적탄은 다행히 그의 머리를 스치듯 지나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이에 앞서 고(高) 부장의 바로 뒤를 따라간 본인은 몸을 날리면서 적 최용규의 권총을 잡고 크게 업어치기를 하고 몸싸움을 하면서 적의 권총을 빼앗으려 했으나, 완강하게 반항해 호리(保利) 경부보는 적의 머리를 권총으로 여러 번 내리치면서 적을 비틀어 깔아 뭉개며 분투하였다. 한편 적 이창진과 경투중이던 고(高) 부장은 적이 오른쪽 손등을 물어 뜻밖의 큰소리를 질렀으므로 호리(保利) 경부보가 고(高) 부장을 위급에서 구하고자 쫓아갔더니 고(高) 부장은 이미 적의 권총을 완전히 빼앗고 이 자를 깔아 눕히며 '괜찮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호리(保利) 경부보는 권총을 뺏은 뒤에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으므로 재차 본인 곁으로 돌아와 괴력을 가진 최용규와 격투하였다. 한편 격투중이던 고(高) 부장은 한때 적의 권총을 빼앗았으나 적은 다시 권총을 되찾아 깔아 뭉개진 채로 고(高) 부장에게 총을 쐈으나, 고(高) 부장이 총구를 쥐고 몸을 피했기 때문에 위태롭게도 왼쪽 겨드랑이 아래를 스쳐서 맞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체포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고(高) 부장은 갖고 있던 권총을 적의 머리에 대고 사살하여 적이 갖고 있던 권총과 탄환을 압수했다. 그러는 한편 적 최용규가 아직 본인 및 호리(保利) 경부보와 격투 중이었으므로 고(高) 부장은 곧바로 그 자리로 뛰어오면서 권총을 겨누며 반항하면 사살하겠다고 위협하니 적은 마침내 역부족이라 체념하고 목숨을 구걸했으므로 이를 체포한 뒤 철수하여 본대와 화수전자(樺樹甸子)에서 합류했다. 이리하여 위 혁명군 제1대대 정사 최용규를 취조해서 적 상황을 조사한 결과 혁명군총사령 김활석 이하 40명은 신개령(新開嶺)에, 또 혁명군 제1사 사령 최종륜 이하 40명은 대서차(大西岔)에 잠복중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에 이들을 격멸하기 위하여 호리(保利) 부대 49명이 그날 오후 7시 화수전자에서 환인현 경찰대 가네꼬(金子) 지도관 이하 17명과 합류하여 신개령으로 향하던 도중에 오후 10시경 요령(腰嶺) 정상 부근에 도착할 즈음 정상에서 적의 모습을 발견했으므로 우리 부대는 일제히 맹사격을 시작하고 용맹하고 과감하게 적 앞 약 백미터까지 육박했다. 그때 본인 등은 호리(保利) 부대장의 돌격명령을 듣자마자 분연히 비 오듯 쏟아지는 탄환 속으로 진격하여 오른쪽 능선을 점령하고 맹사격을 가하여 드디어 이들을 패주시켰으니 때는 11시였다. 이 교전에서 적 2명을 사살하고 1명을 체포했으며, 사베지식 권총 1정, 대형 모젤 권총 2정을 노획하였으나 우리편 또한 순사 1명의 부상자를 내었다. 그리하여 본인 등은 또다시 그달 25일 환인현의 오자끼(尾崎) 지휘관이 이끄는 만주경찰 37명과 합

류하여 오전 5시 용감하게 오리전자를 출발하여 신개령으로 향했는데, 10시 30분경 1004고지 아래쪽 약 80미터에 도달하였을 때 정상에 잠복하고 있던 적이 갑자기 우리를 향하여 맹사격을 하고 총사령 김활석 및 최종륜 스스로가 진두에 서서 지휘하며 역습을 하였다. 이에 본인이 속해있는 요시다(吉田) 부대는 명령에 따라 적의 우측 고지로 육박하여 약 30분에 걸친 격전끝에 마침내 그 고지(1004 고지, 산채로부터 약 백미터)를 점령하고, 바로 적 측면으로부터 맹사를 퍼부었다, 이 때문에 당황한 적에게 틈을 주지 않고 대원들은 일거에 적진으로 돌입하니 적들은 매우 낭패하여 시체 2구를 남기고 퇴각했다. 때는 오후 2시 30분이었다.

그런데 적들은 산위에서 물러갔으나 아직도 전방 50미터 내지 100미터 거리의 산꼭대기 바위에 숨어 완강하게 저항하여 서로 대치한 채로 드디어 해가 지게 되었다. 이래서는 야음을 타고 적들이 도주할 수가 있음으로 일거에 적진에 돌입하였더니 적은 우리의 용감한 공격에 견디지 못하고 시체 7구를 남긴 채 야음을 틈타 대서차(大西岔) 방면으로 도주했다. 때는 오후 11시 30분이었다. 이어서 우리 부대는 때를 놓치지 않고 어두운 밤의 위험을 무릅쓰고 용맹 과감하게 추적하여 대서차 산채를 습격했으나, 적의 모습을 볼 수 없었으므로 다음날인 26일 오전 1시 고지를 출발하여 문장차(門庄岔) 삼가와책(三家窩柵)을 거쳐 오전 8시 오리전자에 도착하고, 그달 28일 오리전자를 출발하여 다음날인 29일에 조선쪽으로 철수하였다. 이 교전에서 적 9명을 사살하고 산채 4채를 파괴했으며 말 1마리를 노획했다.

이상의 공적이 특히 현저하여 두서의 상격이 있다고 인정한다.

〈출전 : 「功績調書(黃金龍)」, 『昭和14年度 功勞賞ニ關スル書類綴(滿洲事變第3次行賞)』, 국가기록원 소장〉

Ⅲ. 일제 말 침략전쟁 협력관계 포장(褒章) 사례

1) 국채웅(鞠埰雄)

훈3등 고바야시(小林嘉平治)외 14명에게 포장 하사의 건

이상의 내용으로 재가를 바랍니다.

1938년 8월 8일
내각총리대신 공작(公爵)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인)

상훈국 상신 제294호, 내각 123호, 1937년 8월 8일 재가

1938년 8월 5일
내각서기관장 (인) 내각서기관 (인) 내각총리대신 (인) 상훈국 총재 (인)

별지와 같이 훈3등 고바야시(小林嘉平治) 외 14명의 포상의 건을 심사하였던 바 위 사람들은 모두 공익을 위해 일만 원 이상의 사재를 기부하여 공적이 현저한 자들이므로, 이에 포장조례 제1조에 의거하여 감수포장(紺綬褒章)을 하사하기에 마땅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인포(寅褒) 제55호

1938년 6월 18일
후생대신 후작(侯爵) 기도 신이치(木戸幸一) (인)
상훈국 총재 시모죠 야스마로(下條康麿) 귀하

신첩(申牒)
미에(三重)현 지사로부터 기부자 행상(行賞)의 건

별지와 같이 위의 내용에 대해 감수포장(紺綬褒章) 하사를 전의(詮議)바랍니다.

관비 제2,309호

1938년 7월 8일
척무대신 우가키 카즈시게(宇垣 一成)
상훈국 총재 시모죠 야스마로(下條康麿) 귀하

감수포장(紺綬褒章) 하사의 건

조선총독으로부터 사재(私財) 기부자 국채웅(鞠埰雄)에 대한 행상은 별지와 같이 신첩(申牒)이 있는 바 위 사람에 대하여 전의를 바랍니다.

비보(秘補) 제656호

1938년 7월 2일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 (인)
상훈국총재 시모죠 야스마로(下條康麿) 귀하

감수포장(紺綬褒章) 하사의 건

국채웅(鞠埰雄)으로부터 별지 기부취조표와 같은 금원의 기부가 있어 이에 감수포장 하사를 전의바랍니다. 이에 관계 서류 및 신첩을 함께 첨부하여 보고 드립니다.

기부취조표 －조선총독부

기부수령 연월일 : 1937년 7월 22일
기부목적 : 조선 전라남도 농촌중견부인양성소 건축비
기부금원 또는 물건 : 금 원
가격 : 13,000원
위훈 공작 : 없음
본적지 또는 소재지 : 조선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면 담주리 105번지
처형 유무 : 없음
성명 또는 단체명 : 국채웅(鞠埰雄)

기부금채납원(寄附金採納願)

일금 15,000원
위는 전라남도 농촌중견부인 양성소 건축비로 기부한 것으로 이에 채납을 바랍니다.

1937년 3월 31일
담양군 담양면 담주리 105번지
국채웅(鞠埰雄) (인)
전라남도지사 전

위 등본은 원본과 상위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조선총독부 전라남도지사 신카이 하지메(新貝肇)

담양군 담양면 담주리 국채웅(鞠埰雄)

1937년 3월 31일부로 전라남도 농촌중견부인양성소 건축비로 금 일만오천 원을 전라남도에 기부한 건 채납함.

1937년 4월 1일
전라남도지사 마쓰모토 이오리(松本伊織)

위 등본은 원본과 상위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조선총독부 전라남도지사 신카이 하지메(新貝肇)

제8호

전라남도
취급청 : 전라남도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면 담주리 105번지
국채웅(鞠埰雄) 납

1937년도
세입(歲入) 임시부
관 기부금
항 교육비 기부

종목
일금 일만오천 원

위를 영수합니다.

1937년 7월 22일 전라남도 금고(金庫)

위는 원본과 상위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전라남도지사 관방주사

신분조사 －1938년 7월 2일 조제

본적지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면 담주리 105번지
현주소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면 담주리 105번지
호주 : 국채웅(鞠埰雄), 농업, 1870년 9월 30일 생
1. 약력
별지 이력서와 같음
2. 위훈 공작의 유무 및 그 서사 연월일
해당사항 없음
3. 포장조례에 의거하여 표창받은 적과 그 사실.
1) 1913년 6월 17일 이재자(罹災者) 구조금원 기부로 목배(木杯) 하사와 조선총독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2) 1933년 8월 28일 담양공립보통학교에 비품으로서 악대기구 한 벌을 기부하여 조선총독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이력서

성명 : 국채웅(鞠埰雄) 1870년 3월 30일생
원적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면 담주리 105번지
현주소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면 담주리 105번지
1910년 3월 12일 : 담양공립보통학교 학무위원을 촉탁(囑託)함
1910년 6월 24일 : 담양지방금융조합 설립위원에 임명
1910년 9월 30일 : 담양지방금융조합장에 임명
1911년 9월 30일 : 담양군 참사에 임명
1912년 10월 14일 : 담양지방금융조합장 임기만료에 중임
1913년 4월 28일 : 담양군 참사를 사임
1913년 6월 17일 : 이재자구조금원 기부로 목배 하사

1915년 10월 17일 : 시정(始政)5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 금패 수여
1916년 4월 30일 : 담양지방금융조합장 중임
1916년 6월 2일 : 전라남도 대지주회 평의원에 임명
1916년 6월 19일 : 담양소방조 부조두에 임명
1916년 6월 30일 : 메이지신궁봉찬회 조선지부 전라남도 위원을 촉탁함
1917년 6월 30일 : 메이지신궁봉찬회 조선지부 전라남도 위원을 사임
1917년 10월 14일 : 담양공립보통학교 학무위원을 사임함
1920년 5월 12일 : 금융조합장 중임
1921년 4월 12일 : 소방조 부조두를 사임
1922년 5월 13일 : 전조선금융조합연합회로부터 표창을 받음
1923년 5월 11일 : 금융조합장을 사임
1933년 8월 28일 : 담양공립보통학교 비품용 악대기구 한 벌을 기부하여 이에 포상받음
1934년 9월 25일 : 애국부인회 2등 유공장 부가장을 증여받음

〈출전 : 日本內閣, 『公文雜纂』 卷13, 1938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2) 김기태(金琪郃)

정4위 남작 곤도(近藤滋彌) 외 5명에 포장 하사의 건

이상의 내용으로 재가를 바랍니다.

1938년 3월 23일
내각총리대신 공작(公爵)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상훈국 상신 제85호, 내각 제41호, 1938년 3월 24일 재가

1938년 3월 22일
내각서기관장 (인) 내각서기관 (인) 내각총리대신 (인) 상훈국 총재 (인)

별지와 같이 정4위 남작 곤도(近藤滋彌) 외 5명의 포상의 건을 심사하였던 바 위 사람들은 모두 공익을 위해 일만 원 이상의 사재를 기부하여 공적이 현저한 자들이므로, 이에 포장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감수포장(紺綬褒章)을 하사하기에 마땅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기부취조표 －조선총독부

기부수령 연월일 : 1935년 4월 23일
기부목적 : 재단법인 조선나예방협회 기금으로서
기부금원 혹은 물건 : 금원(金員)
가격 : 10,000원
위훈 공작 : 정7위
현주소 및 단체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군 문산면 소문리 128번지 26
처형 유무 : 없음
성명 및 단체명 : 김기태(金琪郃)
비고〉
1. 본건 기부수령 후 신청에 이르기까지 다소 시일이 경과한 것은 사무의 폭주와 조사조회에 시일이 필요했기 때문임.

기부신청서

일금 10,000원
위를 조선나예방협회 기금으로 기부하고자 이에 신청합니다.
1935년 1월 19일

현주소 및 단체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군 문산면 소문리 128번지 26
김기태(金琪郃) (인)
조선나예방협회장 이마이다 기요노리(今井田淸德) 귀하

위의 등본은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1937년 4월 26일
조선나예방협회 경상남도 지부장 (인)

영수증

일금 10,000원
위를 정확히 영수하였음.
1935년 4월 23일
조선나예방협회 (인)
김기태(金琪郃) 전

위의 등본은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1937년 4월 20일

조선나예방협회 경상남도 지부장 (인)

감수포장하사조(紺綬褒章下賜調) －상훈국

성명 : 김기태(金琪邰)

수여 연월일 : 1921년 12월 26일

부책번호 : 533

적요 : 1921년 3월 조선 경상남도 진주군 진주면 도로개수 비용 금 일만 원을 기부함.

신분조사(身分調査) －1937년 4월 20일 조사

본적 : 경상남도 진주군 나동면 독유리 598번지

주소지 : 경상남도 진주군 문유면 소문리 128-26번지

호주 : 김기태(金琪邰), 농업, 1887년 8월 5일생

1. 약력

1902. 10. 27 ~ 1904. 4. 8 : 탁지부 세무주사로서 경상남도 세무감부 근무 임명

1913. 7. 1 ~ 1914. 6. 28 : 주식회사 농공은행 감사역

1915. 11. 10 : 상훈국 총재로부터 1915년 칙령 제155호에 의거 대례기념장 수여

1915. 3. 2 ~ 1918. 10. 10 : 진주 사립 봉양(鳳陽)학교장

1918. 10. 1 ~ 현재 : 식산은행 상담역 촉탁(囑託)

1920. 12. 20 ~ 1924. 4. 1 : 경상남도평의회원

1921. 4. 20 ~ 1927. 7. 21 : 경성 보성전문학교 이사

1921. 4. 27 ~ 1924. 4. 27 :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1924. 4. 1 ~ 1930. 6. 12 : 사립 일신여자고등보통학교 이사

1924. 4. 1 ~ 1927. 4. 1 : 경상남도회 평의원

1926. 10. 28 ~ 1930. 3. 31 : 경상남도농회 특별의원

1913. 9. 29 : 일본적십자사 총재로부터 유공장 증여를 받음

1927. 7. 10 ~ 현재 : 경상남도 사회사업협회 고문 촉탁

1927. 7. 21 ~ 현재 : 경성 보성전문학교 고문

1930. 6. 12 ~ 현재 : 사립 일신여자고등보통학교 이사

1932. 6. 30 ~ 현재 : 대구경상합동은행 취체역 피선

2. 처벌 유무 : 없음

3. 위훈 공작 등의 유무 : 1924년 5월 29일 정7위에 오름

4. 이전에 포장조례에 의거하여 표창받은 적과 그 사실

1) 1910년 경상남도 진주공립보통학교의 건물 1동을 기부하여 상훈국 총재로부터 은배(銀杯) 하나를 하사받았다.

2) 1921년 3월 진주면 도로개수 비용으로 금 1만 원을 기부하여 같은 해 12월 26일 감수포장(紺綬褒章)을 하사받았다.

(1930년 2월 충북 옥천면 죽향리에서 화재로 포장의 기록을 소실하여 포장부책 등록번호가 불분명하지만 포장은 현존한다)

〈출전 : 日本內閣, 『公文雜纂』 卷11, 1938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3) 김기홍(金基鴻, 金川基鴻)

기부취조표

기부수령 연월일 : 1944년 5월 19일
기부목적 : 제국재향군인회 신의주지부 교육자금
기부금원 또는 물건 : 금원
가격 : 10,000원
1) 위훈 공작 : 정7위
2) 현주소 또는 단체소재지 : 평북 용천군(龍川郡) 양서면(楊西面) 용봉동(龍峰洞) 81번지
처형의 유무 : 없음
성명 또는 단체명 : 금천기홍(金川基鴻)

기부신청서

일금 10,000원
위 금액을 제국재향군인회 신의주지부 교육자금으로 기부하고자 신청합니다.

1944년 5월 19일
평안북도 용천군 양서면 용봉동 81번지
금천기홍(金川基鴻)
제국재향군인회 신의주지부장 귀하

위는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1944년 5월 19일

제국재향군인회 신의주지부장 육군대좌 천□□이(川□□二)

영수증

일금 10,000원

위 금액을 제국재향군인회 신의주지부 교육자금으로 수령합니다.

1944년 5월 19일

제국재향군인회 신의주지부장 육군대좌 천□□이(川□□二)

금천기홍(金川基鴻) 귀하

위는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1944년 5월 19일

제국재향군인회 신의주지부장 육군대좌 천□□이(川□□二)

감수포장(紺綬褒章) 하사조(下賜調) 상훈국

성명 금천기홍(金川基鴻)

수여 연월일 : 1943.10.4

부책번호 : 6,522

적요 : 1942년 5월 평안북도 신의주 남공립고등여학교 증축비 1만 원 기부

신분조서

본적지 : 평안북도 용천군 양서면 용봉동 81번지

현주소 : 평안북도 용천군 양서면 용봉동 81번지

호주 : 금천기홍(金川基鴻) (1883년 8월 9일생)

1. 약력

1916년 3월 : 광주군(廣州郡) 광성(光城)면장을 임명받음

1917년 7월 : 면장 의원면직

1918년 12월 : 신의주부협의회원(관선)을 임명받음

1920년 11월 : 신의주부협의회원(관선)을 임기 만료와 함께 재차 당선됨

1923년 11월 : 신의주부협의회원(관선)의 임기 만료
1927년 5월 : 신의주 □대조합 업무 집행자에 선임
1931년 6월 : 국경장학회 위원장에 선임
1933년 4월 : 압록강토지개량주식회사 취체역 사장에 선임
1937년 8월 : 대동(大東)산업주식회사 취체역 사장에 선임
1938년 4월 :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에 임명받음
1941년 4월 :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임기 만료
1) 처형의 유무 : 없음
2) 위훈 공장 등의 유무 및 서사(敍賜) 연월일 : 1940년 11월 1일 정7위
3) 일찍이 포장 조례에 의하여 포장을 받은 적의 유무
공익을 위하여 사재를 기부하여, 이에 포장 조례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표창을 함

기부 금액	기부 연월	표창 연월일 및 표창자	기부한 곳
200원	1934년 4월	1936년 4월 19일 조선총독	□□□□□
300원	1939년 11월	1941년 7월 7일 조선총독	평안북도
2,000원	1942년 5월	1942년 10월 19일 상훈국총재	평안북도
10,000원	1942년 5월	1943년 10월 4일 상훈국총재(감수포장)	평안북도

〈출전 : 日本內閣, 『公文雜纂』 卷40, 1944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4) 김낙선(金樂先)

관비 제75호

1940년 11월 2일
척무대신 아키타 쇼우(秋田淸) (인)
상훈국 총재 시모죠 야스마로(下條康麿) 귀하

녹수포장(綠綬褒章) 하사의 건

조선총독으로부터 1940년 덕행자 김낙선(金樂先)에 대한 녹수포장 하사의 건 신첩이 있어 조사하였던바 덕행이 탁절한 사람이므로 하사에 대하여 전의를 바라면서 이에 신첩합니다.

인비 제2469호

1940년 11월 2일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 (인)
상훈국 총재 시모죠 야스마로(下條康麿) 귀하

녹수포장(綠綬褒章) 하사의 건 신첩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김낙선(金樂先)

위 사람은 빈농의 가정에서 태어나 온갖 고난을 겪으며, 가업의 발전에 힘쓴 결과 가운이 점차 회복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동생의 궁핍을 보자 자기의 전재산을 내어 이를 정리하여 다시 무일푼이 되었다. 이래 다시 분투하여 영농에 힘을 기울였으며 특히 농구의 개량, 영농법의 개선에 전념하여 가업의 만회를 도모함과 함께 양잠에 공헌한 공적이 적지 않아 일반인에게 모범이 되었다고 인정되어 기원 2600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녹수포장을 하사하기 위해 공적조서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첩하는 바이다.

〈공적조서〉

김낙선(金樂先)

위 사람은 천지자연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에 의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전심(專心)[6]으로 농사짓기를 50년, 그 간 온갖 난관을 극복하며 처음의 신조에 바탕을 두어 초지일관으로 매진하여 자신의 집안을 융성하게 함과 함께 농업의 개량에 기여한 공적 또한 실로 높이 평가할 만하여 타의 모범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 사적은 다음과 같다.

1. 약력

빈곤한 농가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20세 전후에 부모와 사별한 이래 홀로 생계를 꾸려나갔는데 어려서부터 몹시 가난하여 지금까지 고생한 것이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었다. 하지만 초지일관 근면역행을 신조로 밤낮으로 영농에 노력한 결과 30세 미만의 나이에 논 삼반보(三反步)와 밭 일정보(一町步)의 토지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형이 고리채에 고생하는 것을 동정하여 전 재산을 내어 이를 정리하였기 때문에 또 다시 무일푼이 되었다. 그 후 더욱 분려하고 용기를 배로 하여 갱생의 길에 저돌적으로 나섰는데, 마침 1904년 경부선 공사가 시작되자 잡역 인부로서 일하였으며 부인은 영농에 종사하고 이

6) 마음을 오로지 한 일에만 모아서 씀.

면 짚신을 만들어 인부들에게 판매하는 등 수입의 증가를 도모하였다. 이로 인해 가세가 점차 좋아지게 되었다. 이후 오로지 영농에 정려하였으며 특히 농구 개량과 영농법 개선에 전념한 결과 관청에서 포미(褒美)를 수여받았다. 이로 인해 일반 군민들은 살아 있는 농신(農神)이라고 숭앙하는 상태이다.

2. 농사개량

1) 면작

1912년 봄 처음 관청에서 육지면 종자를 무상으로 배부하여 장려에 노력하였으나 무지한 부락민은 이를 기피하여 종자의 배급을 거절하였다. 하지만 본인은 관의 지도 장려를 신뢰하여 주저하지 않고 경작하였던바 초년의 수확량은 반당 150근에 이르렀다. 이래 더욱 연구를 거듭하여 경작을 계속한 결과 재배기술은 매년 진보하여 오늘날 반당 수확량은 실로 400근의 기록을 돌파하였다. 원래 면 파종은 보통 평면점파(平面點播)로 하지만 본인은 다년간 공부 연구하여 공들인 결과 휴간조파(畦間條播)의 유리함을 깨닫고 이의 실시에 노력하였다. 지금은 인접 부락민은 물론 두루 전조선에 확산되어 이를 김낙선식 면작법이라고 칭한다. 더욱 유래 면의 이식 불가능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여 이식만을 창제하여 발아가 고르지 않은 지면에 자유롭게 이식하여 조금의 공간도 남기지 않아 수확의 증가를 도모하였다. 한편 과거 20여 년간 면 공동판매전표를 보존해 다른 작물과 비교대조하여 면작의 유리함을 선전 종용하는데 힘쓴 결과 부근 부락은 물론 이원면(利院面) 일대는 도내 굴지의 면작지가 되었다. 이로 인해 농한기에는 도내는 물론 인접 도군 농회로부터 면작 순회강습을 의뢰받아 쉴 시간이 없을 정도였다.

2) 대맥(大麥)

당국의 지도 방법에 한층 자기의 연구를 더하여 종자는 수선(穗選) 및 염수선(鹽水選)에 따라 이를 선택하고 비료의 합리적 시비 및 퇴비 증산에 노력하고 광파(廣播) 토입(土入) 답압(踏壓) 등의 실행에 따라 반당 5석 이상의 기록을 만들었다. 특히 토입(土入)의 간편한 방법 연구에 몰두한 결과 1930년에는 토입차(土入車)를 창제하였다. 이 토입차는 하부에 두 바퀴를 상부에 칠비편(漆稗編)을 붙인 것으로 인력으로 끌고 밭 사이를 달리면 끌어 올려진 흙이 자연스럽게 밑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실로 사용이 간편하고 또한 효과는 컸으므로 부근 부락 일반에게 널리 보급 사용되었다.

3) 벼농사

벼농사 개량은 우선 튼튼한 묘(苗)의 육성에 있음을 자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1931년 묘취기(苗取機)를 발명하여 묘의 취급을 개선한 것은 물론 우량종자의 선택, 적미(赤米) 제거, 염수선(鹽水選) 실행, 묘대(苗垈)의 양상(揚床), 일본식(一本植) 혹은 견족식식(犬足式植) 등을 실행하여 최고 반당 8석의 증수를 얻었다.

4) 부업

농가의 합리적 경영은 우선 많은 유형의 영농법에 있음을 깨닫고 나아가 부업에 뜻을 두었다. 최선의 노력과 공부에 열중하여 양잠, 축산, 가마니짜기 등을 합리적으로 경영한 것을 시작으로 잉여노동력의 소화를 도모하여 가정의 근로의 실적을 올렸다.

개요에 서술한 바와 같이 항상 열성으로 농사 개량에 전념하는 한편 신을 공경하는 마음이 두터워 자택에서 대마(大麻)를 재배하여 아침마다 신에게 바쳤는데, 아침에는 그날의 할 일을 맹세하여 하루의

의무를 다짐하는 등 실로 안심입명(安心立命)의 모습이 일반 농민의 귀감으로 사회풍교에 미치는 바가 컸다.

이상과 같이 모범적 생활 행상에 따라 초등학교 수신서에 실린 '자연의 은혜'의 주인공인 영예를 힘써 얻은 자로써 一宮翁의 생활을 방불케 하는 자이다.

〈참고조서〉

김낙선(金樂先)

1. 인물 성행(性行)

타고난 성격은 쾌활하고 의지가 강하며, 근면역행의 기개가 풍부하고 책임관념이 강하다. 일단 계획을 하면 불요불굴(不撓不屈)로서 이것을 관철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항상 자력갱생을 생애의 신조로 삼아 실천하여 스스로 일반 부락민에게 모범을 보여 그 신망이 더욱 두터웠다.

2. 가정 상황

현재 처와 아들, 손자 등 7인 가족으로 약 1만 엔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극히 원만할 뿐만 아니라 가족 또한 그에게 감화를 받아서 근농정신이 풍부하여 가정으로서도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력서

본적 :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412번지
현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412번지
현재 직업 : 농업
김낙선(金樂先) (1875년 7월 16일생)
1885년 3월 15일 : 농사에 종사
1918년 2월 8일 : 충청북도 주최 농사강습회에 있어서 강습을 받음
1923년 11월 30일 : 육지면 수확으로 1등상을 받음 (옥천군 농회)
1926년 11월 23일 : 면작 경영 성적 우수로 2등상을 받음 (조선농회)
1930년 11월 4일 : 육지면 지정 리동 경작 성적 우수로 1등상을 받음 (옥천군 농회)
1931년 3월 16일 : 면작 순회 강사로 촉탁 (옥천군 농회)
1933년 3월 10일 : 면작 순회 강사로 촉탁 (영동군 농회)
1934년 2월 12일 : 농사개량 성적 우수로 표창금을 받음 (충청북도 농회)
1934년 4월 10일 : 대맥수확품평회의 심사결과 성적 우수로 2등상을 받음 (옥천군 농회)
1935년 4월 10일 : 면작 순회 강사로 촉탁 (경기도 농회)
1935년 5월 1일 : 농사개량 공적으로 표창받음 (충청북도 농회)
1936년 3월 15일 : 건진리 건천진흥회장에 당선됨 (충청북도 농회)

1936년 5월 5일 : 농사개량 공로자로서 표창을 받음 (대일본 농회)
1936년 4월 20일 : 면작 순회 강사로 촉탁 (경기도 농회)
1937년 4월 17일 : 우량 유축농가로서 표창을 받음 (옥천군 농회)
1937년 4월 20일 : 면작 순회 강사로 촉탁 (경기도 농회)
1937년 5월 30일 : 우량조합원으로서 표창을 받음 (조선금융조합연합회)
1937년 7월 1일 : 면작 순회 강사로 촉탁 (경기도 농회)

〈출전 : 日本內閣, 『公文雜纂』 卷36, 1940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5) 김연수(金季洙)

이노우에 사토(井上サト)외 37명에게 녹수포장 하사의 건

이상의 내용으로 재가를 바랍니다.

1943년 11월 2일
내각총리대신 도죠 히데키(東條英機)

상훈국 상신 제550호 1943년 11월 2일 재가

1943년 11월 1일
내각서기관장 (인) 내각서기관 (인) 내각 총리대신 (인) 상훈국 총재 (인)

별지 내무, 대장, 해군, 농림, 철도, 후생 각 대신, 조선총독 및 대만총독 신첩(申牒)에 관계있는 이노우에 사토(井上サト)외 37명의 포상의 건 심사에 대해 별지 기록과 같이 포장조례 제1조에 의거하여 녹수포장(綠綬褒章)을 하사하기에 마땅하다고 인정하여 상신합니다.

김연수(金季洙)

일찍이 방직업에 뜻을 두어 솔선하여 경성방직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사장이 되어 많은 곤란을 극복하고 발전을 도모하여 방직 공업의 선구가 되었다. 이어 남만방직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장이 되었다. 또한 조선방직공업조합 이사장에 추천되어 진력하는 등 실업에 정려하여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다.

종업원　2,817명
1941년도 제조고(高)　10,604,000원(차량)　549,000원(신호기)
1942년도 제조고　기관차　8량(輛)　객차 30량　임차(賃車) 2,100량

본적 : 경성부 종로구 성북동 41번지
현주소 : 경성부 종로구 성북동 41번지
직업 : 방직업
김연수(金季洙) (1896년 8월 25일생)

1. 성행(性行)

타고난 성격이 온후하며 인격이 고결하다. 진취적 기업심이 넘쳐나 일찍이 각종 기업을 경영하여 조선 산업의 진전에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조선 민중의 지도 계몽에 노력을 다하여 그 행위가 공업가로서 일반의 모범이 되었다.

2. 열력(閱歷)

1921년 4월 교토(京都)제국대학 경제학부 졸업. 1922년 4월 경성방직주식회사 취체역에, 1933년 6월 조선공업협회 부회장에, 1935년 3월 경성방직주식회사 취체역 사장에, 1937년 4월 중앙상공주식회사 취체역 사장에, 1937년 6월 조선직물협회 부회장에, 1939년 12월 남만방직주식회사 취체역 사장에, 1940년 2월 조선방직공업조합 이사장에, 1941년 8월 삼양상사주식회사 취체역 사장에 각각 취임하였다. 그 밖에 각종 회사의 취체역 또는 감사역에 취임하여 조선 산업의 진전에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1939년 6월 만주제국 경성명예총영사, 1939년 11월 조선중앙자금위원회 위원, 1941년 5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가 되어 조선통치에 공헌한 점이 적지 않다.

3. 사적(事績)

1) 경적방직주식회사의 설립

천성이 명민하고 기업심이 넘쳐나는 김연수는 조선에서 방직공업이 아직 극히 유치한 시대에 조선이 면화 생산에 적합하다는 사정에 착목하여 필수적이고 중요한 의복 재료인 면포(綿布)의 자급자족을 꾀하여 다른 이들보다 앞서서 경성방직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중역으로 회사 경영에 몸을 바쳤으며 그 후 사장에 취임하여 참으로 분골쇄신 사업의 발전에 많은 고심을 기울였다. 그 신념과 노력으로 모든 악조건을 극복 ……(2줄 판독불가)…… 방직공업에서 성적 또한 매우 양호하다.

2) 남만방직주식회사의 설립

조선에서 방직공업에 비범한 수완을 발휘한 김연수는 1939년 12월 만주국에 남만방직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장에 취임하였는데 이 회사는 자본금 천만 원, 설비로 방직기 35,000추(錘), 직기 1,000대를 설치하여, 1942년 9월 15일부터 조업했던 바 만주에 대한 조선인의 진출이 개척민의 이식 이외에는 사업으로서의 진출은 거의 없던 때에 김연수의 기업 진출은 선만(鮮滿) 일체화 촉진상 도움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된다.

3) 방직공업조합 이사장으로서

조선에서 방직공업은 종연방직, 동양방직, 경성방직, 조선방직의 4개 회사 6개 공장이 있었는데 이들 공장이 시국의 요청에 응하여 공업조합을 조직하자 김연수가 추천되어 이사장의 중역을 맡았다. 중일전쟁 후 원면 수입이 끊기는 것을 시작으로 각종 영향이 방직업에 대해 심대한 압박을 가했지만 김연수는 당국의 방침을 따라 조합원의 사업을 통제 지도하여 업계의 혼돈을 방지하고 전시하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강력한 발전으로 이끈 공적 역시 크다.

4) 농사개발

김연수는 농사개발에 큰 열의를 가지고 일찍이 삼양사를 세워 전남, 전북, 충남에 걸쳐서 상당 규모의 여러 개의 농장 및 정미소를 경영하며 농사개량, 농촌진흥에 노력하였다. 또한 간척지를 개간하여 식량 증산에 노력하는 등 농사에 대한 사적이 대단하다. 농사에 대해서는 또한 만주국에서 영구(營口), 휘남(輝南), 매하구(梅河口), 반석현(磐石縣) 등 각지에서 농장을 경영하며 수전개발과 농사개량에 계속해서 임하였다. 또한 간도성(間島省)에서는 조선계 이민으로 임업개척 등의 사업을 경영하였다.

5) ……(판독불가)……

6) 만주국 명예총영사로서

김연수는 1939년 6월 만주제국 주(駐)경성 명예총영사에 임명되어 일만(日滿)일체 심화에 노력하였다.

4. 영예 (榮譽)

1) 1939년 1월 17일 중일전쟁에 그 재산을 기부하여 포장조례에 따라 목배(木杯) 한 개를 하사받았다.

2) 1939년 10월 재단법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사업자금으로 금 삼만 원을 기부하여 1940년 9월 21일에 감수포장을 하사받았다.

3) 1939년 12월 조선총독부 시정25주년 기념박물관 건설자금으로 금 일만 원을 기부하여 1942년 4월 23일에 감수포장 식판(飾版)을 하사받았다.

이력서

본적　경성부 종로구 성북동 41번지
생년월일　1896년 8월 25일
성명　김연수(金季洙)
1921년　4월　1일 : 교토제국대학 경제학부 졸업
1922년　4월　1일 : 경성방직주식회사 취체역에 취임
1922년　4월　1일 : 중앙상공주식회사 취체역에 취임
1929년　6월 27일 : 조선저축은행 감사역에 취임
1931년　5월　　: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취체역에 취임
1932년 11월 16일 : 조선신탁주식회사 감사역에 취임

1933년 6월 : 조선공업협회 부회장에 취임
1933년 12월 8일 : 조선기린맥주주식회사 취체역에 취임
1934년 11월 20일 : 합자회사 삼양사 취체역사원에 취임
1935년 2월 3일 : 조선제진주식회사 감사역에 취임
1935년 3월 16일 : 경성방직주식회사 취체역 사장에 취임
1935년 6월 23일 : 조선석유주식회사 취체역 사장에 취임
1935년 12월 10일 : 봉광업주식회사 취체역에 취임
1936년 2월 15일 : 경동(京東)철도주식회사 취체역에 취임
1936년 3월 2일 : 대창(大昌)산업주식회사 취체역에 취임
1936년 7월 20일 : 경춘(京春)철도주식회사 취체역에 취임
1937년 4월 27일 : 중앙상공주식회사 취체역 사장에 취임
1937년 6월 28일 : 조선직물협회 부회장에 취임
1938년 1월 25일 : 서선(西鮮)중앙철도주식회사 감사역에 취임
1938년 3월 22일 : 조선근농주식회사 취체역에 취임
1938년 7월 2일 : 조선거래소 감사(監事)[7]에 취임
1939년 2월 1일 : 한강수력전기주식회사 감사역에 취임
1939년 2월 6일 : 대동(大東)직물주식회사 취체역에 취임
1939년 6월 17일 : 국산자동차주식회사 감사역에 취임
1939년 6월 20일 : 만주제국 주(駐)경성 명예총영사에 임명
1939년 6월 26일 : 동광생사(東光生絲)주식회사 취체역에 취임
1939년 7월 27일 : 주식회사 한성(漢城)은행 취체역에 취임
1939년 11월 2일 : 조선중앙자금위원회 위원에 임명
1940년 9월 21일 : 감수포장(紺綬褒章)을 수여받음
1939년 12월 18일 : 남만(南滿)방직주식회사 취체역 사장에 취임
1938년 2월 1일 : 조선방직공업조합 이사장에 취임
1941년 3월 : 선만(鮮滿)척식주식회사 감사에 취임
1941년 3월 27일 : 동아(東亞)무역주식회사 취체역에 취임
1941년 5월 12일 :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에 임명
1941년 5월 12일 : 칙임관(勅任官)으로 대우받음
1941년 8월 4일 : 삼양(三養)상사주식회사 취체역 사장에 취임
1941년 10월 25일 : 주식회사 화신(和信) 취체역에 취임
1941년 10월 25일 : 화신(和信)상사주식회사 취체역에 취임
1942년 4월 23일 : 감수포장 식판(飾版)을 하사받음

7) 공공 단체의 서무를 맡아 보는 직책, 또는 그 직책의 사람.

1942년 11월 : 국민총력조선연맹 사무국 후생부장에 임명받음
1942년 11월 : 조선총독부 교육심의위원회 위원에 촉탁
1942년 11월 : 국민총력운동연락위원회 위원에 촉탁
1942년 12월 : 일신상의 이유에 의해 조선저축은행, 조선신탁주식회사, 서선(西鮮)중앙철도주식회사, 조선거래소, 한강수력전기주식회사, 국산자동차주식회사 6곳 회사의 감사역을 사임.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쇼와(昭和)기린맥주주식회사, 조선제진(製鎭)주식회사, 조선석유주식회사, 봉광업주식회사, 경동철도주식회사, 대창산업주식회사, 경춘철도주식회사, 조선근농주식회사, 대동직물주식회사, 한성은행, 동아무역주식회사, 주식회사 화신, 화신상사주식회사 14곳 회사의 취체역을 사임. 조선공업협회 부회장, 조선직물협회 부회장을 사임.
1943년 1월 : 조선농지개발영단 평의원으로 임명됨
1943년 4월 : 일신상의 이유에 의해 국민총력조선연맹 사무국 후생부장을 사임
1943년 4월 : 일신상의 이유에 의해 국민총력운동연락위원회 위원을 사임
1943년 6월 12일 : 삼성(三盛)면업주식회사 취체역 사장에 취임

현주소 : 경기도 경성부 종로구 성북동 41번지
직업 : 방직업
김경중(金暻中)의 차남 김연수(金季洙) (1896년 8월 25일생)

1) 약력
1921년 4월 : 교토제국대학 경제학부 졸업
1922년 4월 : 경성방직주식회사 취체역에 취임
1922년 4월 : 중앙상공주식회사 취체역에 취임
1935년 3월 16일 : 경성방직주식회사 취체역 사장에 취임
1937년 4월 27일 : 중앙상공주식회사 취체역 사장에 취임
1941년 5월 12일 :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에 임명받음
1941년 5월 : 칙임관으로 대우받음
2) 개명(改名)과 그 외에 신분이동사항 : 없음
3) 위훈(位勳) 공작(功爵) : 없음
4) 포장조례에 의한 행상(行賞)의 유무
1940년 9월 21일 감수포장(紺綬褒章) 하사 (4419호)
1942년 4월 23일 감수포장(紺綬褒章)에 붙이는 식판을 하사 (5361호)
5) 처형의 유무 : 없음

경성방직주식회사

대표자 : 취체역 사장 김연수(金季洙)
본사 소재지 : 경기도 경성부 중구 남대문 거리 1정목(丁目) 115번지
공장 소재지 : 영등포공장 경성부 영등포구 영등포동 441번지
시흥공장 경기도 시흥군 동면 독산리 464번지
남천조면공장 황해도 평산군 보산면 남천리 83번지 8
은율조면공장 황해도 은율군 은율면 조산리 30번지
공칭자본금 : 1,000만 원
불입자본금 : 750만 원
적립금 : 308만 원
배당률 : 1942년 연 1할 1943년 상기 연 1할
설정 연월일 : 1919년 10월
설비기계 : 방직 30,200추(錘)
직기(織機) 1,127대
직사기(織絲機) 3,360추
연사기(撚絲機) 70대
생산능력(年産額) : 면직물 782,000반(反) (1,100만 원)
면사 7,200곤(梱) (300만 원)
조면 5,600담(擔) (700만 원)
종업원 : 2,550명(직원 포함)

남만방직주식회사

대표자 : 취체역 사장 김연수(金季洙)
본사 및 공장 소재지 : 만주국 봉천성 심양현 소가둔가(蘇家屯街) 대동구(大同區) 번지 외
공칭자본금 : 1,000만 원
불입자본금 : 1,000만 원
적립금 : 없음
배당률 : 무배당
설립 연월 : 1939년 12월
조업 연월 : 1942년 9월
설비기계 : 방기(紡機) 35,000추
직기(織機) 1,000대

생산능력(연산액) : 면사 9,000곤 (4,100,000원)
면직물 585,000반 (7,700,000원)
종업원 : 2,500명 (직원 포함)

〈출전 : 日本內閣, 『公文雜纂』 卷65, 1943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6) 김종필(金鍾弼)

가시와기(柏木進)외 13명에 포장 하사의 건

이상의 내용으로 재가를 바랍니다.

1944년 7월 13일
내각 총리대신 도죠 히데키(東條英機)

상훈국 상신 제369호 내각 183호 1944년 7월 13일 재가

1944년 7월 10일
내각서기관장 (인) 내각서기관 (인) 내각 총리대신 (인) 상훈국총재 (인)

별지와 같이 가시와기(柏木進) 외 13명 포상의 건을 심사한 바 위 사람들은 모두 공익을 위해 일만 원 이상의 사재를 기부하여 공적이 현저한 사람들이므로 이에 포장조례 제1조에 따라 감수포장(紺綬褒章)을 하사하기에 마땅하다고 인정되어 이에 상신합니다.

1944년 6월 9일
조선총독 고이소 쿠니아키(小磯國昭) (인)
상훈국 총재 세코 야스지(瀨古保次) 귀하

감수포장(紺綬褒章) 하사의 건

김종필(金鍾弼)로부터 별지의 기부취조표와 같이 금원의 기부가 있었으니 이에 대해 감수포장(紺綬褒章) 하사의 전의(詮議)를 바라며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고드립니다.

기부취조표

기부수령 연월일 : 1943년 5월 23일
기부목적 : 조선 전라남도 방공통신용 경찰전용전화 건설비
기부금원 또는 물건 : 금원
가격 : 10,000원
1) 위훈 공작 : 없음
2) 현주소 또는 소재지 : 조선 전라남도 순천군 순천읍 영정 6번지
3) 처형의 유무 : 없음
성명 및 단체명 : 김종필(金鍾弼)
비고〉
본건이 기부 신청 후 채납에 이르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린 것은 기부예정액을 일괄 채납하려고 했기 때문임.

기부신청서

일금 10,000원
위 금액을 전라남도 방공통신용 경찰전용전화 건설비로 기부를 신청합니다.
1941년 4월 12일
조선 전라남도 순천군 순천읍 영정 6번지
김종필(金鍾弼)
전라남도지사 전

위 등본은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함.

1943년 5월 10일
전라남도지사 무영헌수(武永憲樹)

채납지령서

조선 전라남도 순천군 순천읍 영정 6번지
김종필(金鍾弼)
1941년 4월 12일부 전라남도 방공통신용 경찰전용전화 건설비로서 금 일만 원 기부의 건을 채납하였다
1942년 9월 30일
전라남도지사 무영헌수(武永憲樹, 嚴昌燮) (인)

위 등본은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함.

1943년 5월 10일
전라남도지사 무영헌수(武永憲樹)

영수증

일금 10,000원
단 전라남도 방공통신용 경찰전용 전화 건설비로서 위와 같이 영수하였다
1943년 3월 25일
전라남도지사 무영헌수(武永憲樹) (인)
조선 전라남도 순천군 순천읍 영정 6번지
김종필(金鍾弼) 귀하

위 등본은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함.

1943년 5월 10일
전라남도지사 무영헌수(武永憲樹)

공적조서

본적 : 전라남도 순천군 월량면 대평리 422번지
현주소 : 전라남도 순천군 순천읍 영정 6번지
호주 : 김종필(金鍾弼) (농장경영) (1894년 1월 19일)

1. 소행(素行)
   소행이 양호하여 하등의 흠이 없고 특기사항 없음
2. 약력
   1920년 7월 20일 : 와세다대학 영어과 졸업
   1933년 5월 10일 : 전라남도 도회의원선거에서 당선
   1934년 6월 1일 : 순천세무관소 소득조사위원으로 임명
   1936년 1월 23일 : 광주호남은행 취체역으로 취임
   1937년 5월 10일 : 전라남도 도회의원선거에 따라 계속해서 의원으로 임명
   1938년 6월 1일 : 순천세무관소 소득조사위원 기간만료로 재임명
   1939년 1월 23일 : 광주호남은행 취체역 기간만료에 의해 재취임
   1941년 5월 9일 : 도회의원 기간 만료에 의해 사임
   1940년 1월 20일 : 재단법인 우석학원 ○○에 취임하여 오늘에 이름

3. 위훈 공작 등의 유무 : 없음
4. 이전에 포장조례에 따라 표창받은 적 유무 : 없음
5. 처벌의 유무 : 없음
6. 참고사항 : 없음

조포(朝褒) 제92호

1944년 4월 26일
내무차관 가라사와 도시키(唐澤俊樹) (인)
상훈국 총재 세코 야스지(瀨古保次) 귀하

감수포장 하사의 건

김종필(金鍾弼)로부터 별지 기부취조표대로 금원의 기부가 있었으므로 감수포장 하사의 전의를 바라며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고드립니다.

비보(秘補) 제837호 김종필(金鍾弼)의 분(分)

〈출전 : 日本內閣, 『公文雜纂』 卷39, 1944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7) 박기효(朴基孝)

야마모토 요사부로(山本與三郎)외 11명에게 포장 하사의 건

이상의 내용으로 재가를 바랍니다.

1940년 9월 13일
내각총리대신 공작(公爵)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인)

상훈국 상신 제344호, 내각 433호, 1940년 9월 13일 재가

1940년 9월 11일
내각서기관장 (인) 내각서기관 (인) 내각총리대신 (인) 상훈국 총재 (인)

별지와 같이 야마모토 요사부로(山本與三郎) 외 11명의 포상의 건을 심사하였던 바 위 사람들은 모두

공익을 위해 일만 원 이상의 사재를 기부하여 공적이 현저한 자들이므로, 이에 포장조례 제1조에 의거하여 감수포장(紺綬褒章)을 하사하기에 마땅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관비 제2763호

1940년 8월 2일

척무대신 마쓰오카 히로오(松岡洋雄), 상훈국 총재 시모죠 야스마로(下條康麿) 귀하

감수포장(紺綬褒章) 하사의 건

조선총독으로부터 사재 기부자 박기효(朴基孝)에 대한 행상은 별지와 같이 신첩(申牒)이 있는 바 위 사람에 대하여 전의를 바랍니다.

비보 제870호

1940년 7월 25일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 상훈국총재 시모죠 야스마로(下條康麿) 귀하

감수포장(紺綬褒章) 하사의 건

박기효(朴基孝)로부터 별지 기부취조표와 같은 금원의 기부가 있어 이에 감수포장(紺綬褒章) 하사를 전의바랍니다. 이에 관계 서류 및 신첩을 함께 첨부하여 보고 드립니다.

기부취조표 －조선총독부

기부수령 연월일 : 1938년 3월 29일
기부목적 :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 생도교양시설비
기부금원 또는 물건 : 금원(金員)
가격 : 10,000원
위훈 공작 : 없음
현주소 또는 단체 소재지 : 조선 경기도 경성부 동사헌정 100번지
처형의 유무 : 없음
성명 또는 단체명 : 박기효(朴基孝)

기부신청서

일금 10,000원
위를 귀 훈련소 생도교양시설비로서 기부하고자 이에 신청합니다.
1940년 5월 29일
조선 경기도 경성부 동서헌정 100번지
박기효(朴基孝)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장 귀하

위는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한다.

1940년 5월 29일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장 시오하라 산지로(鹽原三次郎)

채납지령서

박기효(朴基孝)
일금 10,000원
위는 1940년 5월 29일 기부 신출의 건을 채납함.
1940년 5월 29일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장 시오하라 산지로(鹽原三次郎)

위는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한다.

1940년 5월 29일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장 시오하라 산지로(鹽原三次郎)

수령서

일금 10,000원
위를 당 훈련소 생도교양시설비로서 기부하였으므로 수령하였다.
1940년 5월 29일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장 시오하라 산지로(鹽原三次郎)
박기효(朴基孝) 귀하

위는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한다.

1940년 5월 20일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장 시오하라 산지로(鹽原三次郎)

신분조서

- 본적지 : 조선 함경남도 북청군 북청읍 서리 63번지
- 현주소 : 조선 경기도 경성부 동서헌정 100번지
- 호주 또는 그 친족 : 호주
- 직업 : 광업
- 성명 : 박기효(朴基孝)
- 생년월일 : 1897년 6월 11일
- 약력 : 별지 이력서와 같음.
- 포장조례에 의거하여 표창받은 사실 : 없음

1940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장 시오하라 산지로(鹽原三次郎)

이력서

본적 : 함경남도 북청군 북청읍 서리 63번지

현주소 : 경기도 경성부 동서헌정 100번지

호주 : 박기효(朴基孝), 광업, 1897년 6월 11일생

1908년 4월 1일 : 함경남도 북청군 공립보통학교에 입학

1912년 3월 25일 : 함경남도 북청군 공립보통학교 졸업

1912년 4월 1일 : 북청 공립농업학교에 입학

1914년 3월 25일 : 북청 공립농업학교 졸업

1914년 4월 10일 : 북청 공립농업학교 농업조수에 임명

1916년 3월 10일 : 북청 공립농업학교 농업조수를 사임

1916년 4월 10일 : 산십조제사회사(山十組製絲會社) 경성지점 사원으로 입사

1918년 6월 10일 : 산십조제사회사(山十組製絲會社) 경성지점 사임

1918년 9월 : 북청군 북청읍에서 미곡무역상 경영

1914년 4월 : 위 경영조직을 회사로 변경하여 타인에 양도

1914년 6월 10일 : 편창제사방적주식회사 조선사업감독부 입사 상근역 근무(연봉 5천 원)

1918년 4월 10일 : 편창제사방적주식회사 조선사업감독부 사면
1918년 6월 : 광산업을 경영하며 현재에 이름

위와 같이 다르지 않음을 증명한다.

1940년 7월 10일
위 박기효(朴基孝) (인)

〈출전 : 日本內閣, 『公文雜纂』 卷26, 1940년, 일본공문서관 소장〉

8) 윤덕영(尹德榮)

고 종2위 훈1등 자작(子爵) 윤덕영(尹德榮) 사배(賜杯)의 건

이상의 내용으로 재가를 바랍니다.

1940년 10월 26일
내각총리대신 공작(公爵)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상훈국 상신 제412호, 내각 512호, 1940년 10월 26일 재가

1940년 10월 26일
내각서기관장 (인) 내각서기관 (인) 내각총리대신 (인) 상훈국 총재 (인)

고 종2위, 훈1등 자작 윤덕영(尹德榮)은 한일병합 시 시종원경(侍從院卿)[8]으로 병합의 추기(樞機)에 참가하였으며, 계속해서 이왕직(李王職) 찬시(贊侍)로서 이왕(李王) 전하의 지도에 노력하였다. 또한 이왕 전하의 동상(東上)과 왕세자 전하의 결혼 등에 온 힘을 기울였으며, 1925년 7월 이래 15년간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또는 부의장으로서 총독 시정을 익찬하고 방조하는데 힘썼다. 또한 교육제도 개정과 지원병제도 창설에 힘을 기울였으며, 그 밖에 경학원(經學院) 대제학, 명륜학원 총재로서 인재양성에 힘썼고, 혹은 사설강습소를 열어 빈농자제의 교양에 힘을 다하는 등 공적이 현저하였던 바 이달 18일 사거(死去)하였으므로 이에 그날 부로 은배 1개(제2호)를 하사하려고 하니 윤재하시기를 바랍니다.

8) 대한제국 때 궁내부에 딸렸던 관청. 임금의 비서 어복 어물 위생 진후(診候)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음.

관비 제3779호

1940년 10월 25일
척무대신 아키타 쇼우(秋田清)
내각총리대신 공작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귀하

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귀족원 의원 왕공족심의회 심의관 종2위 훈1등 자작 윤덕영(尹德榮) 사배(賜杯)

위 사람은 조선 굴지의 명문 출신으로 한국정부의 지방국장, 법무국장, 관찰사, 의정부 찬정, 황후궁 대부, 시종원경 등을 역임하였으며, 병합 시는 시종원경으로 병합의 추기에 참획하였으며 계속해서 이왕직(李王職) 찬시(贊侍)로서 이왕 전하의 지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궁내(宮內) 구사상(舊思想)의 갱신을 도모하였으며, 이왕 전하의 동상(東上)과 왕세자 전하의 결혼 등에 공헌하였습니다.

1906년 보호정치 이래 제국의 대륙정책 및 조선통치에 몸바쳐 알선하기에 노력한 공적이 현저할 뿐만 아니라, 1924년 욱일대수장을 수여한 이래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또는 부의장으로서 친임대우의 직에 있으면서 15년간 열의로 총독 시정(施政)의 익찬과 방조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이래 경학원 대제학, 유도(儒導)연맹 회장, 국민정신총동원연맹 주요 간부 등의 직을 겸하여 황군의 현지위문 및 애국사상 선도운동에 활약하였으며, 애국운동과 국방헌금운동 혹은 상병(傷病) 장병, 군인유가족의 위문에 노력하는 등 그 여러 공적이 심대하였던 차에, 병으로 인해 이달 18일에 홍거(薨去)하였습니다. 동인 생전의 공적에 비추어 특별히 두서와 같이 사배(賜杯)의 의례를 조선총독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니 전의를 바라며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이에 품청합니다.

〈공적조서〉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귀족원 의원, 왕공족심의회 심의관, 종2위, 훈1등, 자작(子爵) 윤덕영(尹德榮), 1873년 12월 27일생

위 사람은 조선 굴지의 명문가 출신(이왕대비(李王大妃) 전하의 백부)으로 일찍이 과거의 문과에 급제하여 총리대신 박정양의 비서관 겸 내각참서관으로, 이어 내부 지방국장, 법부 법무국장 겸 평리원(대심원) 재판장, 경기도관찰사, 황해도관찰사, 의정부 찬정(무임소대신과 유사) 등에 임명된 후, 궁중에 들어가 비서원경(궁내대신과 유사), 대의원경(시의두(侍醫頭)와 유사), 장례원경(종질료총재와 유사), 황후궁 대부, 시종원경 등을 역임하여 정1품 보국대훈위에 서훈되었으며, 한국병합 시에는 시종원경의 직에 있으면서 병합의 추기에 참획하여 위훈을 세워 자작을 수여했다. 계속해서 이왕직(李王職) 찬시(贊侍)에 임명되어 장시사장(掌侍司長)으로 이왕 전하를 도와 바르게 이끌도록 노력하였으며, 또한 궁내

구사상의 갱신을 도모하여 크게 면목을 일신하고, 다시 이왕 전하의 동상(東上) 및 왕세자 전하의 경사(慶事) 결정 등 예의 황실존숭의 관념 배양과 왕가의 영원한 안녕을 도모함과 함께 제국의 국책에 공헌한 바가 컸다. 1919년 이왕직을 그만두었으며, 1924년 금상 폐하 경사 때는 욱일대수장을 1925년 중추원 고문을 맡았으며 1938년 경학원 대제학이 되었다. 1940년 8월 중추원 부의장에 올랐으며 귀족원 의원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자작(子爵)은 천성이 강직하고 두뇌가 명석하여 일을 맡아서는 신념을 굽히지 않고 승낙을 하면 과감히 감행하여 추호도 두려워하는 바가 없었다. 이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동족의 감정을 해치거나 혹은 세인의 오해를 초래하는 일이 없지 않았지만 그 정신은 일관되게 황실의 존숭과 왕가의 안녕을 도모함과 함께 동아시아의 영원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한 것 외에는 없다. 이제 자작의 과거 30여 년에 걸친 중요한 사적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1907년 헤이그밀사사건이 발각되어 황제(이태왕(李太王))가 책임을 지고 퇴위하였지만, 새 황제(이왕(李王) 척(坧))가 여전히 덕수궁에 태황제와 동거하고 있었던 바 구폐확청(舊弊廓淸)의 실적을 올릴 방법이 없었다. 특히 이토(伊藤)통감(統監)의 시정(施政)지도 실적도 또한 뜻대로 이뤄지지 않아 통감 이하의 사람들이 염려하였다. 때마침 윤 자작의 내부적 활약에 의하여 급전직하 창덕궁으로 이어가 결정되어 통감 이하 모든 사람들이 자작의 기책에 경탄하였다. 즉 이에 따라 자작은 새 황제 보좌와 지도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어, 그해 10월 선제폐하(先帝陛下)의 한국 방문 시는 훈1등에 서훈되어 서보장(瑞寶章)을 하사받기에 이르렀다.

2. 한국 병합은 일면 이완용 후작의 활동에 의하여 확립된 것이지만, 일면 윤 자작의 내부적 활동에 의하여 완성을 본 것이기도 하다. 즉 당초 테라우치(寺內) 통감으로부터 병합의 교섭이 있었을 때 수상 이완용은 내각의 의견을 통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에 임하여 완수하였지만 황제의 결의를 주청하는 일에 대해서는 당시 세력 다툼으로 대립적 관계에 있었으므로 윤 시종원경을 제쳐놓고 스스로 이에 임하는 것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윤 자작과의 교섭를 권유하였으며 또한 윤 자작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통감으로부터 직접 의뢰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테라우치(寺內) 통감은 야간에 코쿠후(國分) 참여관(후에 이왕직 차관)을 윤 자작의 집에 파견하여 뜻을 전달하였으며, 다음날 윤 자작을 관저로 불러 간담을 하며 황제 설득의 대임을 자작에게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윤 자작은 궁상(宮相) 민병석(閔丙奭) 및 동생 윤택영(尹澤榮) 후작(황후의 아버지)과 숙의하여 죽을 각오로 감연히 황제에게 결의를 청하였다. "왕가의 장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안태를 도모하여 받들 것이다"라고 아뢰고 성공적으로 윤허를 받았으며, 이에 왕족의 찬조를 구하고자 다시 원로대신을 왕궁으로 소집하여 회의를 열고 황제로부터의 병합의 결의를 분명히 밝히고 이(李) 수상에게 교섭의 임무를 맡긴다고 명하여 순조롭게 병합의 대업을 완성하는데 위훈을 세웠다.

3. 병합 이래 일본과 조선 사이에 최대의 의례로서 남아있던 이왕(李王) 전하의 동상(東上)과 천기봉사(天機奉伺)의 의례(군신의 서례)는 이래 이왕 전하의 내키지 않는 마음을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곤란하였는데(그동안 1,2회 시험삼아 아뢰었으나 실패로 끝났다), 특히 귀족과 구신하 등이 회의하여 저지할 우려도 있어 병합 이래 일대 현안이었다. 그런데 1916년 하세가와(長谷川) 총독은 본건의 해결

을 총독 취임의 중요 안건으로 배수(拜受)하기에 이르러 부임 후 이 해결을 코쿠후(國分) 이왕직 차관에게 계획하도록 하였다. 이에 코쿠후(國分) 차관은 즉시 윤 자작으로 하여금 그 임무를 맡도록 획책 알선하였다. 이에 윤 자작 등은 심모원려(深謀遠慮)하여 우선 함흥 정화릉(定和陵)으로 성묘를 결행해 이왕 전하의 건강을 시험하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동상(東上)을 거절한다고 할 수 없게끔 하였으며, 일주일에 걸쳐 밤을 새워가며 여러 방법으로 이태왕(李太王) 전하를 움직여 부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이왕 전하에게 태왕 전하로부터의 명령을 내리도록 조처하여 마침내 그 성공을 보기에 이르렀다. 이 결의는 이왕 전하의 신상에 관한 의심도 있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안심할 수 있도록 각종 말씀을 올렸는데, 특히 주위로부터 여러 말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결의를 발표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그간 다대의 고심을 거듭하여 마침내 성공을 거두기에 이를 수 있었다.

4. 왕세자 전하(현 이왕 전하)와 방자(方子) 여왕전하의 결혼은 원래 윤 자작 등이 권유하고 신청하던 바이다. 고로 결혼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깊이 알선하여 원만하게 성립을 보려던 시기에 마침 덕수궁 내에 일종의 음모가 기획되었던 것이 1917년에 발각되어 몹시 우려할 만한 상태로 있었다. 즉 하세가와(長谷川) 총독을 시작으로 이왕직 최고간부의 가장 고심하는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 역시 윤 자작에게 일임하여 그 해결을 도모하려 하였다. 이에 윤 자작 등은 결연히 이것을 맡아 극비리에 은밀하게 수사를 펼쳐 무사히 해결할 수 있었다. 본 건은 왕가흥망에 관한 중대사건으로 이 해결에 대해서는 윤 자작으로서는 인정상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었음에도 마침내 왕가를 위해 사사로운 정을 버리고 분연히 이를 완수하였다.

5. 윤 자작은 열렬한 황실중심주의자로서 또한 이왕가에 대하여 충성의 뜻이 두터웠다. 왕가의 안녕은 황실에 대한 충성과 공순의 진심을 다할 때에만 유지되고 황실을 떠날 때에는 폐멸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즉 윤 자작은 이 신념으로 분위기의 혁신에 힘썼는데, 적어도 황실에 관하여 언급할 때는 반드시 체용을 바로하여 황실의 존엄에 마음을 썼으며, 또한 일본이라고 말할 때는 내지(內地)라고 말함으로써 한일병합의 정신을 강조하는 등 일상 언동에도 주도면밀하게 마음을 쓰고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내전에 출입하는 자를 엄선하여 문감(門鑑)을 부여함으로 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출입을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잡배의 출입을 금하였다. 또한 왕과 왕비와의 접견에는 근친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찬시를 입회시키는 등 궁내의 면목을 일신하는 것에 마음을 썼는데, 이런 극단적인 취체주의는 친척 및 일부 귀족의 감정을 상하게 하였으며 특히 윤 자작의 강복한 태도는 한 때 세평을 받기도 했지만 자작은 그 신념에 바탕을 두고 아무런 움직임 없이 끝까지 왕가 및 조선 통치를 위해 공헌한 바가 있다.

6. 만주사변 이래 선만일여(鮮滿一如)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은 사상적으로 상호 통정, 융화하는 것과 같다고 하여 우리 신도(神道)에 가깝고 유교와 불교에도 가까운 홍만회(紅卍會)를 만주인들과 중국인들이 신앙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받아들여 사재 10만 원을 들여 가택의 일부를 수선해 회당으로 제공하며 동지들과 함께 신앙을 계속하였다. 그 효과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자작의 배려와 노력은 역시 인정할 만하다.

7. 윤 자작은 원래 유자(儒子)로서 근년 서양사상의 침입에 따라 동양도덕인 오륜의 도가 퇴폐함을

개탄하고 있던 바 작년 경학원 대제학에 취임하였다. 즉시 유도(儒道)의 진흥을 도모하는 호기가 되리라고 생각하여 작년에 유도연맹을 만들어 정무총감을 총재로 받들고 각 도지사를 지부장에 촉탁하여 전조선의 유생을 동원해 그 도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사상의 선도와 민풍의 개선에 노력하였다.

8.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자작은 곧 애국의 정념을 누르기 어려워 황군의 무운장구 기원으로부터 황군 북중국으로의 위문, 출정군대 환송영, 상병(傷病) 장병의 위문 등에 분주하였다. 게다가 부인 김복수(金福綏) 여사를 움직여서 애국금차회를 세워 자신의 집을 사무소로 하고 부내 각 유식계급의 부인들에게 호소하여 다수의 부인으로 하여 일신일가(一身一家)의 대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손에서 빼지 않는 결혼 예물의 금비녀 또는 금반지를 다수 모아서 이것을 제20사단의 애국부에 헌납하였고, 혹은 그들로 하여 여러 차례 상병 장병 및 그 유가족의 위문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의하여 본 사변에 대한 조선 내 인사들의 분발을 재촉하고 민심에 주는 반향을 더욱 크게 하였다.

9. 1925년 중추원 고문, 1940년 동 부의장을 맡아 그간 친임대우로서 재직하였던 것이 실로 15년간에 걸쳤다. 고 후작 박영효(朴泳孝) 및 고 자작 민병석(閔丙奭)과 함께 원내에 중점을 두어 항상 대승적 견지에 서서 총독 시정에 참획하여 공헌한 바가 다대하다.

이상과 같이 윤 자작은 1906년 보호정치 이래 제국의 최고위로서 또한 중요한 국책의 해결에 항상 일신을 버리고 일을 맡아 모든 일을 성공시킴으로써 제국의 대륙정책 및 조선통치에 기여 공헌한 공적이 현저하였는데 70여 인의 작위자 중에 다른 이에게 비할 바가 없다.

– 동인의 공적은 병합 당시 자작을 수여하며 밝혀졌는데 이완용(李完用)과 표리일체가 되어 병합에 힘을 다한 자로서 당시의 공적자 중 생존한 '반도인(半島人)' 중 최후의 한 사람이었다. 중추원 고문으로 재직한 15년간의 긴 시간은 원의 내외에 중점을 두며 열의로 총독 정치를 익찬하였다. 또한 내선융화일체에 몸과 마음을 바쳐 나이가 들수록 더욱 명성과 덕망을 떨쳤다.

일찍이 교육과 산업에 마음을 기울여 교육제도개정과 지원병제도 창설에 대해서는 음으로 양으로 힘을 다하였으며 또한 반도 산업 흥륭에 대해서도 항상 당국에 진언을 하는 등 통치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였다.

1. 1932년 조선국민정신총동원연맹이 결성되자 고문으로 추천되어 시국하 조선민중의 황도 실천에 힘을 다하였다.

2. 1938년 이후 경학원 대제학, 명륜학원 총재로서 충량하고 유능한 인재 양성에 진력하였다.

3. 1939년 전조선의 유생을 망라하여 아동연맹을 조직하고 사업자금의 일부로서 사재 일만 원을 기부하여 전조선을 순회강연함으로써 동양도덕 진흥을 도모하고 사변하 유생의 각성을 재촉하여 시국의 인식에 노력하였다.

4. 중추원 고문, 부의장으로서 원내에 중점을 두고 항상 내선일체를 주창하여 다수의 참의는 말할 것도 없이 조선귀족 및 상류계급을 유세하여 내선일체의 실적을 올렸다.

5. 사변발발 이래 몸소 난국 타개에 나서 출정군인의 격려, 상병(傷病) 장사(將士)의 위문, 혹은 군인유족의 원호구제는 말할 것도 없고, 노령의 몸으로 친히 북중국 제일선으로 황군을 위문하였다. 게다가

부인으로 하여금 금차회를 세워 금을 헌납하도록 하여 국방헌금운동의 선두에 섰다.

6. 지원병제도 실시 이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취지의 철저에 노력하였다.

7. 또한 항상 빈농 자제의 교육을 배려하여 사재를 던져 경기도 고양군에 사설강습소를 열어 교육에 노력하는 등 만년에 이르기까지 총독 시정에 익찬하여 공헌하였다.

이력서

위훈 작위 : 종2위 훈1등 (욱) 자작
성씨명 : 윤덕영(尹德榮)
생년월일 : 1873년 12월 27일
본적 : 경성부 옥인정 47번지
현주소 : 경성부 옥인정 47번지
1894년 3월 : 문과급제
1895년 7월 3일 : 비서감 우비서랑으로 임명
1895년 7월 14일 : 의원면직
1896년 3월 6일 : 내각총리대신 비서관 겸 내각참서관(參書官)에 임명
1896년 5월 6일 : 의원면직
1896년 5월 16일 : 규장원 교서(校書)로 임명
1896년 7월 22일 : 경연원(經筵院) 시독(侍讀)으로 임명
1896년 7월 27일 : 의원면직
1896년 9월 24일 : 경연원 시독(侍讀)으로 임명
1896년 9월 27일 : 6품에 오름
1896년 10월 22일 : 시강원 시독관에 임명
1897년 4월 13일 : 규장각 직각(直閣)에 임명
1897년 7월 6일 : 의원면직
1897년 7월 6일 : 홍문관 시독에 임명
1897년 8월 9일 : 의원면시독
1897년 10월 8일 : 중추원 삼등의관(參等議官)에 임명
1897년 10월 14일 : 정3품에 오름
1897년 12월 6일 : 의원면직
1897년 12월 6일 : 중추원 2등의관에 임명
1897년 12월 15일 : 비서원승에 임명
1897년 12월 29일 : 장례원(掌禮院)[9] 장례를 겸임
1898년 2월 1일 : 의원면직

1898년 2월 10일 : 중추원 2등의관에 임명
1898년 4월 30일 : 의원면직
1898년 5월 5일 : 봉상사(奉常司) 부제조(副提調)에 임명
1898년 10월 10일 : 농상공부 참서관에 임명
1898년 11월 1일 : 의원면직
1899년 1월 16일 : 태복사(太僕司)[10]장에 임명
1899년 4월 1일 : 장례원 장례를 겸임
1899년 4월 9일 : 의원면직
1899년 7월 4일 : 내부 지방국장에 임명
1899년 7월 24일 : 의원면직
1899년 7월 25일 : 내부 지방국장에 임명 (칙임(勅任))
1900년 1월 24일 : 법부 법무국장에 임명
1900년 3월 13일 : 비서원승과 장례원 장례를 겸임
1900년 4월 21일 : 본인의 원에 의하여 겸임에서 물러남
1900년 5월 14일 : 비서원경을 명받음
1900년 5월 21일 : 장례원장례를 겸임
1900년 5월 23일 : 의원면직
1900년 6월 4일 : 가의(嘉義)에 오름
1900년 6월 19일 : 전선사(典膳司) 부제조(副制調)에 겸임
1900년 6월 25일 : 의원면직
1900년 6월 26일 : 궁내부 특진관을 명받음
1900년 11월 13일 : 비서원경을 명받음
1900년 11월 16일 : 궁내부 특진관을 명받음
1900년 11월 19일 : 비서원경을 명받음
1900년 12월 5일 : 규장각 직학사를 겸임
1900년 12월 11일 : 의원면겸임
1900년 12월 21일 : 서북철도국(西北鐵道局) 의사장(議事長) 겸임을 명받음
1901년 1월 26일 : 경기도관찰사에 임명 (지사)
1901년 1월 30일 : 경기재판소 판사를 겸임
1901년 3월 15일 : 궁내부 특진관을 명받음
1901년 4월 28일 : 상소하여 벼슬에서 물러남

9) 조선 말에서 대한 제국 때까지 궁내부(宮內府)에 딸리었던 관청. 궁중의 의식 제향 조의(朝儀) 시호 능원 종실(宗室) 등의 일을 맡아보았음.
10) 조선시대에 임금의 거마(車馬)와 조마(調馬) 따위를 맡아보던 관아로 고종 때에 사복시(司僕侍)를 폐하고 설치하였음.

1901년 5월 5일 : 황해도관찰사에 임명
1901년 5월 18일 : 황해도재판소 판사를 겸임
1902년 6월 28일 : 상소하여 벼슬에서 물러남
1902년 8월 28일 : 궁내부 특진관을 명받음
1902년 9월 7일 : 철도원 부총재를 명받음
1902년 10월 4일 : 지계아문 부총재를 명받음
1902년 11월 12일 : 상소하여 벼슬에서 물러남
1903년 4월 22일 : 봉상사 제조를 명받음
1903년 7월 18일 : 비서원경을 명받음
1903년 9월 24일 : 내장원(內藏院) 감독 겸임을 명받음
1903년 11월 6일 : 시강원(侍講院) 첨사(詹事)를 명받음
1903년 11월 8일 : 정2품에 오름
1903년 11월 9일 : 비서원경을 명받음
1903년 11월 14일 : 궁내부 특진관을 명받음
1903년 12월 25일 : 비서원경을 명받음
1903년 12월 18일 : 상소하여 내장원 감독 겸임에서 물러남
1904년 3월 1일 : 의정부 참찬으로 임명 (내각 서기관장)
1904년 4월 15일 : 홍문관 직학사 겸임을 명받음
1904년 5월 6일 : 상소하여 학사 겸임에서 물러남
1904년 5월 27일 : 평리원 재판소를 겸임 (대심원장)
1904년 7월 16일 : 의정부 찬정으로 임명 (무임소 대신)
1904년 7월 22일 : 상소하여 벼슬에서 물러남
1904년 7월 28일 : 평리원 재판장을 명받음 (칙임 1등)
1904년 8월 31일 : 상소하여 벼슬에서 물러남
1904년 8월 31일 : 홍문관 학사를 명받음
1904년 11월 5일 : 장례원경을 명받음
1904년 11월 15일 : 시종원경을 명받음
1904년 12월 20일 : 상소하여 벼슬에서 물러남
1907년 3월 4일 : 궁내부 특진관을 명받음
1907년 3월 18일 : 홍문관 학사를 명받음
1907년 4월 15일 : 규장각 학사를 명받음. 시강원일강관을 겸임
1907년 5월 26일 : 태의원경을 명받음
1907년 9월 9일 : 정헌(正憲)에 오름
1907년 10월 10일 : 서훈 2등 태극장(太極章)을 하사받음

1907년 10월 10일 : 친임관대우
1907년 10월 14일 : 황후궁 대부 겸임을 명받음
1907년 10월 22일 : 서훈 1등 서보장(瑞寶章)을 수여받음
1907년 10월 30일 : 서훈 1등에 오름. 팔괘장을 하사받음
1907년 11월 1일 : 임시황실어진용 및 위호사무정리위원장을 명받음
1907년 11월 30일 : 태의원경을 물러남. 황후궁 대부를 겸임
1907년 11월 30일 : 황후궁 대부에 임명. 서 칙임관 1등
1907년 12월 1일 : 급 1급
1908년 1월 31일 : 친임관대우를 특사
1908년 2월 24일 : 특사금 연액 8백 원을 받음
1908년 6월 26일 : 시종원경에 임명 (친임관) (내대신)
1908년 6월 26일 : 급 2등봉
1908년 9월 9일 : 종1품에 오름
1908년 11월 2일 : 국조보감 교정관에 선택
1909년 2월 12일 : 태극장을 하사받음
1909년 9월 25일 : 국조보감 교정관을 해임
1909년 9월 23일 : 숭록에 오름
1910년 8월 5일 : 정1품 보국(輔國)에 오름
1910년 8월 26일 : 서대훈에 오름. 이화장을 하사받음
1910년 10월 7일 : 조선귀족령에 의하여 자작을 수여받음
1910년 8월 29일 : 잔무취급 (통감부 훈령 제15호에 의하여)
1911년 2월 1일 : 이왕직 관제보
1911년 2월 1일 : 이왕직 찬시에 임명
1911년 2월 1일 : 고등관 2등에 정해짐
1911년 2월 1일 : 1급봉을 하사받음
1912년 12월 7일 : 종4위에 정해짐
1912년 8월 1일 : 한국병합기념장을 수여받음
1915년 4월 1일 : 장시사장(掌侍司長)을 명받음
1915년 11월 10일 : 대례기념장을 수여받음
1917년 5월 31일 : 이태왕부 겸근을 명받음
1917년 10월 30일 : 연봉 3백 원을 받음
1917년 12월 20일 : 정4위에 정해짐
1919년 10월 20일 : 연봉 7백 원을 받음
1919년 10월 20일 : 의원면본관

1919년 10월 20일 : 종3위에 정해짐
1924년 2월 11일 : 욱일대수장을 수여받음
1925년 7월 6일 :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으로 받들어짐
1925년 7월 6일 : 수당연액 3천 원을 하사받음
1926년 4월 30일 : 고(故) 대훈위 이왕 장의(葬儀)위원으로 받들어짐
1926년 6월 14일 : 고(故) 대훈위 이왕 장의(葬儀)위원에서 물러남
1928년 7월 5일 :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임기만료
1928년 7월 6일 :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으로 받들어짐
1928년 7월 6일 : 수당연액 3천 원을 하사받음
1928년 11월 1일 : 정3위에 정해짐
1931년 7월 5일 :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임기만료
1931년 7월 6일 :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으로 받들어짐
1931년 7월 6일 : 수당연액 3천 원을 하사받음
1934년 7월 5일 :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임기만료
1934년 7월 6일 :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으로 받들어짐
1934년 7월 6일 : 수당연액 3천 원을 하사받음
1937년 7월 5일 :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임기만료
1937년 7월 6일 :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으로 받들어짐
1937년 7월 6일 : 수당연액 3천 원을 하사받음
1938년 5월 20일 : 경학원 대제학을 명받음
1938년 5월 20일 : 명륜학원 총재를 명받음
1938년 8월 28일 :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 위원으로 받들어짐
1939년 3월 1일 : 종2위에 정해짐
1939년 12월 19일 : 귀족원령 제1조 제4호에 의하여 귀족원 의원으로 임명
1940년 7월 5일 :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임기만료
1940년 7월 6일 :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으로 받들어짐
1940년 7월 6일 : 수당연액 3천 원을 하사받음
1940년 8월 26일 :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으로 받들어짐
1940년 8월 26일 : 수당연액 3천 5백 원을 하사받음
1940년 9월 4일 : 조선총독부 교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1940년 10월 1일 : 왕공족심의회 심의관으로 받들어짐

〈출전 : 日本內閣, 『公文雜纂』 卷29, 1940년, 일본공문서관 소장〉

9) 이갑용(李甲用, 大田一夫)

기부취조표 —조선총독부

기부수령 연월일 1943년 3월 29일
기부목적 조선 경상남도 황민연성도장 신전 건설자금
기부금원 또는 물건 금원
가격 12,500원
1) 위훈 공작 없음
2) 현주소 또는 단체 소재지 조선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동 271번지
처형의 유무 없음
성명 또는 단체명 대전일부(大田一夫)
비고〉
기부 신청과 채납지령이 2회에 걸쳐 있는 것은 제1회 기부신청 후 기부금 기부금 납입이 끝나지 않아 다시 추가기부를 신청하였기 때문으로 기부금은 일괄 납부하였다.

기부신청서

일금 10,000원
위 금액을 경상남도 황민연성도장 신전 건설자금으로 기부하고자 신청합니다.
1941년 12월 23일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동 271번지
대전일부(大田一夫)
경상남도지사 귀하

위는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1943년 8월 3일
경상남도 농정과장 조선총독부 도소작관(道小作官) 도이 요시히코(土井芳彦)

기부신청서

일금 2,500원
위 금액을 경상남도 황민연성도장 신전 건설자금으로 기부하고자 신청합니다.

1942년 3월 26일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동 271번지
대전일부(大田一夫)
경상남도지사 귀하

위는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1943년 8월 3일
경상남도 농정과장 조선총독부 도소작관(道小作官) 도이 요시히코(土井芳彦)

채납지령서

대전일부(大田一夫)
일금 10,000원
위 금액을 1941년 12월 23일 기부 신청의 건으로 채납하였다.
1941년 12월 30일
경상남도지사 니시오카 요시지로(西岡芳次郎)

위는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1943년 8월 3일
경상남도 농정과장 조선총독부 도소작관(道小作官) 도이 요시히코(土井芳彦)

채납지령서

대전일부(大田一夫)
일금 2,500원
위 금액을 1942년 3월 26일 기부 신청의 건으로 채납하였다.
1942년 4월 8일
경상남도지사 니시오카 요시지로(西岡芳次郎)

위는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1943년 8월 3일
경상남도 농정과장 조선총독부 도소작관(道小作官) 도이 요시히코(土井芳彦)

영수증

일금 12,500원
위를 영수하였습니다.
1943년 3월 29일
경상남도 수입출납리 조선총독부 경상남도 속　스노우치 슈이치(須之內秀一)
대전일부(大田一夫) 귀하

위는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1943년 8월 3일
경상남도 농정과장 조선총독부 도소작관(道小作官)　도이 요시히코(土井芳彦)

신분조서

본적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동 271번지
현주소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동 271번지
관계 : 호주
직업 : 상업
성명 : 대전일부(大田一夫)
생년월일 : 1894년 4월 4일
위훈 공작 : 없음
약력 :
1901년　1월 23일 : 한문당(漢文堂)에 입학
1912년 12월 20일 :　상업에 종사함
1927년　4월 15일 ~ 1938년　4월 25일 : 고성금융조합감사에 매기(每期) 당선됨
1927년　4월 25일 ~ 1943년　7월 : 고성공립보통학교 학무위원을 매기 촉탁
1929년 10월　1일 : 와세다대학 교외생으로 정치경제과를 수료함
1929년 11월　1일 ~ 1938년　7월　5일 : 통영조선주조조합장에 매기 당선됨
1930년　1월 30일 ~ 1938년　7월　5일 : 고성소방조 소두(小頭)로 임명됨
1931년　5월 21일 ~ 1943년　5월 20일 : 고성읍회 의원에 매기 당선됨
1932년　3월 20일 ~ 1938년　7월 : 고성수리조합 평의원에 매기 당선됨
1932년 11월 20일 : 고성군 농촌지도위원회 위원으로 촉탁
1933년　5월　5일 : 고성군 소작위원회 위원으로 촉탁
1933년　5월 11일 : 경상남도회 의원에 당선됨

1935년 11월 4일 ~ 1941년 12월 8일 : 고성산업조합장에 매기 당선됨
1936년 10월 21일 : 고성군 미곡(米穀)통제조합 부조합장에 임명됨
1936년 10월 26일 ~ 1943년 7월 : 고성군 농회 부회장을 임명받음
1937년 5월 10일 : 경상남도회의원에 당선됨
1939년 8월 1일 ~ 1943년 7월 : 조선인사조정위원에 선임됨
1940년 1월 14일 : 경상남도 유림연합회 평의원으로 촉탁
1940년 11월 1일 : 국민총력고성군연맹 평의원으로 촉탁
1942년 6월 1일 : 통영세무서 관할 내 소득조사위원으로 임명됨
1942년 6월 3일 :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어 주임관(奏任官)으로 대우받음
1942년 6월 3일 : 조선총독부 중추원 시정(施政)연구회 위원으로 임명받음
1942년 6월 15일 : 해군협회 고성군분회 고문으로 촉탁

표창관계 :

1933년 10월 3일 : 1933년 조선나병예방협회 기금으로 100원을 기부하여 포장조례에 의하여 표창을 받음
1936년 11월 13일 : 1935년 10월 경상남도 고성공립농업실수학교 건축비 1,000원을 기부하여 포장조례에 의하여 표창을 받음
1937년 2월 25일 : 1936년 4월 1일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면 화견(火見) 및 시보용(時報用)으로 화견노탑(火見櫓塔) 및 사이렌을 기부하여 포장조례에 의하여 표창을 받음
1941년 11월 19일 : 1940년 5월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공설운동장 설치자금으로 3,000원을 기부하여 포장조례에 의하여 표창을 받음

본 조서는 1943년 8월 3일 현재를 기준으로 조제함

조제자 조선총독부 경상남도 속 후루이치 켄지(古市賢次) (인)

대전일부(大田一夫)의 기부 신청이 2회에 걸친 이유 설명서

황민연성도장 신전 건설자금으로 10,000원의 기부 신청을 하였던 바 공사착수 결과 2,500원이 부족하였으므로 이에 대전일부(大田一夫)는 자발적으로 다시 부족분 2,500원의 기부를 신청하였다.

조포(朝褒) 제53호

1943년 11월 2일
내무차관 (인)
상훈국 총재 귀하

별지 조선총독 제출의 기부자 행상의 건 신청서를 송부합니다.

비보 제1535호 대전일부(大田一夫)의 분(分)

〈출전 : 日本內閣, 『公文雜纂』 卷23, 1939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10) 조상옥(趙尙鈺, 高山尙鈺)

기부취조표 —평안북도

기부수령 연월일 : 1944년 3월 29일
기부목적 : 평안북도 취학불우아동 구제자금
기부금원 또는 물건 : 금원
가격 : 10,000원
1) 위훈 공작 : 없음
2) 현주소 또는 단체소재지 : 평안북도 신의주부 영정(榮町) 7정목 21번지
처형의 유무 : 없음
성명 또는 단체명 : 고산상옥(古山尙鈺)

기부신청서

일금 10,000원
위 금액을 평안북도 취학불우아동 구제자금으로 기부하고자 신청합니다.
1944년 5월 19일
평안북도 신의주부 영정 7정목 21번지 고산상옥(古山尙鈺)
평안북도지사 귀하

위는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1944년 6월 5일
평안북도지사 노부하라 세이(信原聖)

채납지령서

고산상옥(古山尙鈺)
일금 10,000원
위 금액을 1944년 5월 10일 기부 신출의 건으로 채납하였습니다.
1944년 5월 15일
평안북도지사 노부하라 세이(信原聖)

위는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1944년 6월 5일
평안북도지사 노부하라 세이(信原聖)

영수증

일금 10,000원
위 금액을 평안북도 취학불우아동 구제자금으로 기부 신청한 것을 영수합니다.
1944년 5월 29일
평안북도지사 노부하라 세이(信原聖)
고산상옥(古山尙鈺) 귀하

위는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1944년 6월 5일
평안북도지사 노부하라 세이(信原聖)

감수포장하사조(紺綬褒章下賜調) －상훈국

성명 고산상옥(古山尙鈺)

수여 연월일	부책번호	적요
1942.8.2	5,605	1942년 6월 평안도 신의주 운정공립국민학교 어진영(御眞影) 봉 안전 건설비 1만 원 기부

신분조서 (1944년 6월 14일 조)

본적 : 평안북도 신의주부 □□동 310번지
현주소 : 평안북도 신의주부 영정 7정목 21번지
고산상옥(古山尙鈺) (1896년 3월 3일생)

1. 약력

1914년 : 선천사립□□학교 졸업 후 본적지에서 농업에 종사함.

1927년 10월 : 이후 목재상 경영

1933년 5월 : 신의주부회 의원에 당선된 이후 재선되어 오늘에 이름

1938년 9월 : 신의주상공회의소 부회두에 선임된 이후 재선되어 오늘에 이름

1941년 3월 : 국민총력평안북도연맹 이사를 위탁받음

1941년 4월 : 조선총독부 보호관찰소 보호사를 촉탁

1941년 5월 : 평안북도회 의원(관선)에 임명

1941년 11월 : 국민총력조선연맹 이사를 위탁받음

1942년 6월 :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에 임명

2. 처형의 유무 : 없음

3. 위훈 공작 등의 유무 : 없음

4. 일찍이 포장 조례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적의 유무

공익을 위해서 사재를 기부하여 이에 포장 조례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표창을 받음

기부 금액	기부 연월	표창 연월일 및 표창자	기부한 곳
1,000원	1936년 7월	1937년 7월 29일 조선총독	평안북도
10,000원	1942년 6월	1942년 8월 11일 상훈국총재(감수포장)	평안북도
8,000원	1942년 5월	1943년 9월 30일 상훈국총재	평안북도
200원	1942년 9월	1943년 2월 1일 조선총독	평안북도

조포(朝褒) 제109호

1944년 8월 19일

내무차관 (인)

상훈국 총재 귀하

별지 조선총독 제출의 기부자 행상의 건 신청서를 송부합니다.

식판(飾版) 비보(秘補) 제854호 고산상옥(古山尙鈺)의 분(分)

〈출전 : 日本內閣, 『公文雜纂』 卷23, 1939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11) 최상현(崔相鉉)

이노우에(井上貞治郎)외 15명에게 포장 하사의 건

이상의 내용으로 재가를 바랍니다.

1937년 7월 31일

내각총리대신 공작(公爵)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상훈국 상신 제252호, 내각 제81호, 1937년 7월 31일 재가

1937년 7월 7일

내각서기관장 (인) 내각서기관 (인) 내각총리대신 (인) 상훈국 총재 (인)

별지와 같이 이노우에(井上貞治郎) 외 15명의 포장의 건을 심사하였던 바 위 사람들은 모두 공익을 위해 일만 원 이상의 사재(私財)를 기부하여 공적이 현저한 자들이므로, 이에 포장조례 제1조에 의거하여 감수포장(紺綬褒章)[11]을 하사하기에 마땅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기부취조표 －조선총독부

기부수령 연월일 : 1936년 7월 24일
기부목적 : 재단법인 조선나(癩)예방협회 예치기금으로서
기부금원 혹은 물건 : 금원(金員)
가격 : 10,000원
위훈 공작 : 없음
본적지 혹은 소재지 : 전라남도 광주부 양림정 166번지
성명 혹은 단체명 : 최상현(崔相鉉)
비고〉
현주소 : 전라남도 광주부 양림정 166번지
처형 유무 : 없음
1. 본건은 신청서에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기부자의 사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분납하였다.
  1) 1933년 5월 8일 3,400원
  2) 1935년 1월 31일 3,300원
  3) 1936년 7월 24일 3,300원

11) 공익을 위해 재산 등을 바친 유공자에게 정부가 주는 감색 리본이 달린 훈장.

계 10,000원

2. 기부서의 본적지 및 현주소가 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1935년 10월 1일 행정구역 변경에 의한 것임.

기부신청서

일금 10,000원

위 금액을 귀회(貴會)의 설립의 취지에 찬동하여 기부하고자 이에 신청합니다.

1933년 3월 31일

본적 :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읍 양림정 166번지

주소 :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읍 양림정 166번지

최상현(崔相鉉) (인)

조선나예방협회 회장　이마이다 기요노리(今井田淸德) 귀하

영수증

일금 3,400원

위 1933년 3월 30일 기부신출의 건을 수령하였습니다.

1933년 5월 8일

조선나예방협회 (인)

최상현(崔相鉉) 귀하

위와 다르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위생과장　요시오카(吉岡貞藏) (인)

영수증

일금 3,300원

위 1933년 3월 30일 기부신출의 건을 수령하였습니다.

1935년 1월 31일

조선나예방협회 (인)

최상현(崔相鉉) 귀하

위와 상위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위생과장　요시오카(吉岡貞藏) (인)

영수증

일금 3,300원
위 1933년 3월 30일 기부신출의 건을 수령합니다.
1936년 7월 24일
조선나예방협회 (인)
최상현(崔相鉉) 귀하

위와 상위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위생과장 요시오카(吉岡貞藏) (인)

신분조서

본적지 : 전라남도 광주부 양림정 166번지
현주소 : 전라남도 광주부 양림정 166번지
호주 : 최상현(崔相鉉), 농업
1880년 3월 26일생
1. 약력 : 별지 이력서와 같음
2. 위훈 공작의 유무 : 없음
3. 표창조례에 의거해 표창된 적은 없다.

이력서

원적 : 전라남도 광주부 양림정 166번지
현주소 : 전라남도 광주부 양림정 166번지
최상현(崔相鉉)
1880년 3월 26일생
학력 및 경력
1887년 2월 11일 : 한문서숙(書塾) 입학
1904년 4월 27일 : 한문 수업
1905년 7월 5일 : 전라남도관찰부 주사(主事) 임명, 판임관 6등
1906년 1월 29일 : 평안북도관찰부 주사 임명, 판임관 8급봉
1907년 3월 8일 : 전라남도관찰부 주사 임명, 판임관 8급봉
1907년 5월 21일 : 6품 승진

1907년 6월 27일 : 광주경찰서 총순서리(署理)에 임명
1907년 10월 30일 : 광주경찰서 총순서리 해임
1908년 4월 24일 : 전라남도관찰부 주사 의원면관
1913년 8월 18일 : 광주농공은행 감사역 선임
1914년 1월 13일 : 광주보통학교 학무위원에 임명
1914년 8월 18일 : 광주농공은행 감사역 재선임
1915년 5월 4일 : 학무위원 의원해임
1915년 4월 18일 : 광주농공은행 감사역 해임
1918년 12월 5일 : 광산금융조합 감사역 선임
1920년 4월 26일 : 광주군 참사 임명
1920년 10월 1일 : 광주군 참사 제도 변경 시 해임
1920년 4월 28일 : 광산금융조합 감사역 해임
1920년 5월 5일 : 광산금융조합장 선임
1923년 5월 10일 : 광산금융조합장 임기만료 해임
1920년 11월 20일 : 광주군 효천면(孝泉面)협의원 선임
1920년 12월 20일 : 광주군 학교평의원 선임
1920년 12월 20일 : 전라남도평의원 선임
1923년 12월 20일 : 전라남도평의원 임기만료 해임
1921년 5월 30일 : 전라남도 금융조합연합회 감사 선임
1924년 5월 30일 : 전라남도 금융조합연합회 감사 임기만료 해임
1927년 1월 20일 : 호남은행 대표 선임
1928년 1월 16일 : 광주군 학무평의원 선임
1928년 5월 7일 : 전남주조회사 대표
1930년 12월 1일 : 광주공제조합장
1932년 4월 3일 : 광주보통학교 학무위원에 임명
1933년 5월 8일 : 학무위원 의원해임
1935년 3월 15일 : 문진(文鎭) 하사품을 받음

〈출전 : 日本內閣, 『公文雜纂』 卷15, 1937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12) 최준집(崔準集, 丸山隆準)

기부취조표 —조선총독부

기부수령 연월일 : 1943년 11월 16일
기부목적 : 재단법인 국민총력조선연맹 사업비
기부금원 또는 물건 : 금원
가격 : 10,000원
1) 위훈 공작 : 정7위
2) 현주소 또는 단체소재지 : 조선 강원도 강릉군 강릉읍 대정동 178번지
처형의 유무 : 없음
성명 : 환산륭준(丸山隆準)
비고〉
최준집(崔準集)은 1940년 8월 9일, 10일 환산륭준(丸山隆準)으로 창씨개명

기부신청서

일금 10,000원
위 금액을 조선에서 징병제실행을 기념하기 위해 총력연맹 사업비의 일부로 기부하려고 신청합니다.
1943년 11월 16일
강원도 강릉군 강릉읍 대정동 178번지
정7위 환산륭준(丸山隆準)
국민총력조선연맹 귀하

위는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1944년 2월 29일
재단법인 국민총력조선연맹 총재
고이소 쿠니아키(小磯國昭)

채납지령서

1943년 11월 16일
재단법인 국민총력조선연맹 간사 한상룡(韓相龍) (인)
환산륭준(丸山隆準) 귀하

기부금에 관한 건
1943년 11월 16일 신청한 금 10,000원을 기부의 건을 채납할 것을 결정하였음을 상신합니다.

위는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1944년 2월 29일
재단법인 국민총력조선연맹 총재 고이소 쿠니아키(小磯國昭)

영수증

일금 10,000원
단 국민총력조선연맹에 관한 기부금
위와 같이 수령하였다.
1943년 11월 16일
재단법인 국민총력조선연맹
간사 한상룡(韓相龍) (인)
환산륭준(丸山隆準) 귀하

위는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1944년 2월 29일
재단법인 국민총력조선연맹
총재 고이소 쿠니아키(小磯國昭)

감수포장하사조(紺綬褒章下賜調) －상훈국

성명 정7위 최준집(崔準集)

수여 연월일	부책번호	적요
1939.12.18	4,131	1938년 7월 강원도 강릉공립상업학교 신설비 1만 원을 기부함

신분조서

본적 강원도 강릉군 강릉읍 대정동 178번지
현주소 강원도 강릉군 강릉읍 대정동 178번지
호주 환산륭준(丸山隆準)(상업 겸 수산업)(1893년 10월 25일생)

약력

1924년 3월 25일 : 사립 메이지(明治)대학 정치경제과 졸업
1926년 4월 1일 : 강릉상사주식회사 전무취체역 취임
1926년 9월 1일 : 동양상사주식회사 취체역 사장에 취임
1931년 6월 1일 : 강릉합동양조주식회사 취체역 사장에 취임
1933년 4월 1일 : 강원도자동차협회 부회장 취임
1933년 4월 20일 : 강원도회 의원에 선임
1935년 4월 20일 : 관동운수주식회사 취체역 사장에 취임
1936년 6월 3일 :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임명되어 칙임관(勅任官) 대우를 받음
1936년 6월 15일 : 조선□자주식회사 취체역 취임
1936년 10월 10일 : 동양흥업주식회사 취체역 취임
1937년 2월 15일 : 동양석유조합장에 취임
1937년 5월 11일 : 강원도회 의원에 임명
1937년 7월 10일 : 조선중앙무진주식회사 감사역 취임
1937년 8월 10일 : 군사원조연맹 강원도지회 지회장에 취임
1937년 12월 21일 : 강원식산주식회사 취체역 사장에 취임
1937년 12월 21일 : 중앙양조주식회사 취체역 취임
1937년 12월 21일 : 쇼와(昭和)수산합자회사 대표자 취임
1938년 2월 1일 : 강원항만건축주식회사 취체역 취임
……(판독불가)……
1938년 4월 10일 : ……(판독불가)……
1938년 8월 15일 : 강릉조선주 주조조합장 취임
1938년 9월 3일 : 관립사범학교설립기성회 고문으로 촉탁
1938년 9월 22일 : 조선방공협회 강원도연합지부 평의원 촉탁
1939년 4월 10일 : 강릉 육해군특별지원병후원회 고문
1939년 6월 3일 : 조선총독부 중주원 참의로 임명되어 칙임관으로 대우받음
1939년 7월 1일 : 정7위
1939년 7월 31일 : 호국신사봉찬회 강릉위원회 위원
1939년 8월 5일 : 조선인사조정위원으로 임명
1939년 8월 29일 : 장고봉(張鼓峯)사건 기념회원으로 위촉
1939년 9월 22일 : 강릉지방방공위원회 위원으로 촉탁
1939년 11월 1일 : 조선유도연합회 평의원으로 위촉
1939년 12월 18일 : 감수포장 하사(제2,121호)
1939년 12월 27일 : 강원도 수산회 특별의원에 임명

1940년 1월 4일 : 강릉경방단 고문으로 촉탁
1940년 10월 21일 : 국민총력강원도연맹 이사로 위촉
1942년 5월 25일 : 강원도양곡주식회사 취체역 사장에 취임
1943년 1월 21일 : 국민총력조선연맹 지방이사로 위촉
처형의 유무 없음

조포(朝褒) 제90호

1944년 4월 5일
내무차관 가라사와 도이키(唐澤俊樹) (인)
상훈국총재 세코 야스지(瀨古保次) 귀하

별지 조선총독 제출의 기부자 행상의 건 신청서를 송부합니다.

식판(飾版) 비보(秘補) 제257호 환산륭준(丸山隆準)의 분(分)

〈출전 : 日本內閣, 『公文雜纂』 卷34, 1944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13) 최창학(崔昌學, 松山昌學)

종6위 우에무라(植村澄三郎) 외 12명 포장에 붙이는 식판 하사의 건

이상의 내용으로 재가를 바랍니다.

1939년 9월 16일
내각총리대신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

상훈국 상신 제351호 내각 161호 1939년 9월 16일 재가

1939년 9월 15일
내각서기관장 (인) 내각서기관 (인)내각총리대신 (인) 상훈국 총재 (인)

별지와 같이 종6위 우에무라(植村澄三郎) 외 12명 포상의 건을 심사하였던 바 위의 사람들은 모두 공익을 위해서 일만 원 이상의 사재를 기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들이므로 이에 포장조례 제3조에 의거

하여 감수포장(紺綬褒章)을 하사하기에 마땅하다고 인정하여 이에 상신합니다.

기부취조표 —경기도

기부수령 연월일 : 1938년 11월 25일
기부목적 : 조선 경기도 경성 서대문경찰서 및 경성소방서 서대문파출소 신축비
기부금원 또는 물건 : 금원
가격 : 62,216원
1) 위훈 공작 : 없음
2) 현주소 또는 단체소재지 : 조선 경기도 경성 죽첨정(竹添町) 1정목(丁目) 1번지
처형의 유무 : 없음
성명 또는 단체명 : 최창학(崔昌學)
비고〉
기부 금원에 우수리가 생긴 것은 기부예정금액을 채우기 위해 부족액을 부담하였기 때문임.

기부신청서

일금 62,216원
위 금액을 경기도 경성 서대문경찰서 및 경성소방서 서대문파출소 신축비로 기부하려고 신청합니다.
1938년 8월 15일
경성 죽첨정 1정목 1번지
최창학(崔昌學) 인
경기도지사 귀하

위 등본은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1939년 6월 30일
경기도지사 간죠 요시쿠니(甘蔗義邦)

채납지령서

경성 죽첨정 1정목 1번지
최창학(崔昌學)
1938년 8월 15일부로 신청한 경기도 경성 서대문경찰서 및 소방서 서대문파출소 신축비로서 금

62,316원 기부의 건을 채납합니다.

1938년 11월 25일

경기도지사　간죠 요시쿠니(甘蔗義邦) (인)

위 등본은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1939년 6월 30일

경기도지사　간죠 요시쿠니(甘蔗義邦)

영수증

일금 62,316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1938년 11월 25일

경기도지사　간죠 요시쿠니(甘蔗義邦) (인)

최창학(崔昌學) 귀하

위 등본은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1939년 6월 30일

경기도지사　간죠 요시쿠니(甘蔗義邦)

감수포장(紺綬褒章) 및 식판 하사조(下賜調) －상훈국

성명 : 최창학(崔昌學)

수여 연월일	부책번호	적요
1930.12.13	2,609	1928년 10월 평안북도 2등도로 안주－의주선 개수비 1만 원 기부
1933.10.19	2,988	1933년 3월 재단법인 조선나병예방협회 기금 1만 원 기부
1936.09.15	3,331	1934년 8월 경성공업학교 광산과 교사 1동과 부속건물 설비 기부
1936.11.14	3,368	1936년 7월 평안북도 산업장려관 건축비, 설비비 3만 6천 원 기부

신분조서

본적지 : 경기도 경성 죽첨정 1정목 1번지

현주소 : 경기도 경성 죽첨정 1정목 1번지

최창학(崔昌學)(1890년 11월 5일생)

1. 약력

유년시절 향리 사숙에서 공부를 하였으며, 1910년 4월 평안북도 구성군(龜城郡) 사기면(沙器面) 진명학교에 입학하여 1912년 2월에 퇴학하였다

후에 상업에 종사하였으며 1923년부터 광산업에 종사하여 오늘의 기업을 구축하였다

2. 처형의 유무 : 없음

3. 위훈 공작의 유무 : 없음

4. 일찍이 포장 조례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적이 있는지의 유무

1) 1930년 12월 13일 감수포장(紺綬褒章) 하사

2) 1933년 10월 19일 감수포장과 식판 1개 하사

3) 1936년 9월 15일 감수포장과 식판 1개 하사

4) 1936년 11월 14일 감수포장과 식판 1개 하사

〈출전 : 日本內閣, 『公文雜纂』 卷23, 1939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Ⅳ. 박영효의
욱일대수장(旭日大綬章)
수여 '공적조서'(1939)

□□□□[1]

1939년 9월 28일
내각총리대신(인) 상훈국 총재(인)

고 종2위, 훈1등, 후작 박영효는 한국 명문 출신으로 1892년 특파대사로서 일본에 파견된 이래 친일주의로 일관하여 동지들과 함께 국가의 혁신을 꾀하였으며, 일본에 망명한 지 10년만인 1894년 사면을 받아 귀국하여 내부대신이 되었다가 이듬해 다시 일본으로 망명하여 1907년에 귀국하여 궁내부대신에 임명되었다가 곧 관직에서 물러났다. 1921년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1926년 중추원 부의장에 임명되었으며, 1932년 귀족원 의원에 칙임되어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그간 중추원 부의장으로서 14년 동안에 걸쳐 통치 전반의 시설에 관한 총독의 자문에 대해 연구와 조사를 진행하여 그 시대에 적응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기타 조선귀족을 지도하고 통솔하고 또한 조선 내 각종 사업의 시설에 관여하여 수많은 모임의 고문, 이사, 위원 등으로서 그 직에 진력하는 등 조선통치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였던 바, 이달 21일 사거하였으므로 이에 특별히 동일부로 욱일대수장을 가수하고자 하니 이를 윤허, 재가하기 바람.

관비(官秘) 제3251호

1939년 9월 23일
척무대신 가네미츠(金光庸夫), 내각총리대신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 귀하

욱일대수장(旭日大綬章)
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귀족원 의원, 종2위, 훈1등, 후작 박영효(朴泳孝)

위 사람은 한국 명문 출신으로 약관에 한국 궁정의 주요 관직에 임명되었으며, 1882년 특파대사로서 일본에 파견된 이래 친일주의로 일관하여 동지들과 함께 국가의 혁신을 기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일본으로 망명한 지 10년만인 1894년 사면을 받아 귀국하여 내부대신이 되었으나 1895년 다시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그간 일본의 문물제도를 연구함과 함께 조야의 명사들과 교우하며 일본의 대한정책에 공헌한 바가 적지 않다. 1907년 귀국하여 궁내부대신에 임명되었다가 곧 관직에서 물러났으나 한일합방의 대업에 대한 훈공으로 후작을 받았으며, 1921년 중추원 고문, 1926년 중추원 부의장에 임명되었고 1932년 귀족원 의원으로 칙선됨과 동시에 오늘에 이르렀다. 그간 조선귀족을 지도하고 통솔하는데 신망이 두터웠으며, 조선 내 각종 사업의 시설에 관여하고, 조선통치에 공헌한 공적이 참으로 현저하였던 바, 병으로 9월 21일 사망함에 이르러 그의 생전의 공적에 비추어 두서와 같이 특별히 서훈의 의례로 조선총독으로부터 신청이 올라왔으니 이를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공적조서와 이력서 등을 첨부하여 품신

1) 문서번호 판독불가.

하여 청원합니다.

공적조서

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귀족원 의원, 종2위, 훈1등 박영효(朴泳孝)
1861년 6월 12일생

위 사람은 조선 제25대(이태왕 전대) 철종대왕의 사위로서 일찍이 정1품을 받고 왕족 대우를 받았다. 1892년 하나부사(花房) 공사 재임 시절에 일어났던 사변 당시 특파대사(수신사)로서 제국에 파견된 이래 제국의 사정에 통달하여 친일주의로 일관하였으며, 한국시대에는 약관의 나이로 궁중 주요 요직에 들어섰으며, 동지 김옥균 등과 함께 개화당을 조직하여 일본의 대한정책에 협력하면서 국가의 혁신을 단행하려고 기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여 1884년 일본으로 망명한 지 10년이 되었다. 그간 일본 조야의 명사들과 교우하면서 본인이 직접 제도, 문물을 연구하였다. 1894년에 특별 사면을 받아 한국으로 귀국하여 내부대신으로서 내각에 참여하였지만 그 탁월한 식견은 쉽게 총리 이하의 각료들에 비할 바가 아니었으며, 모반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체포명령을 피해 다시 일본으로 망명한 지 12년이 되었다. 1907년 귀국하여 궁내부대신으로 임명되었으나 곧 관직에서 물러났으며 한일합방 때에는 직접 관계하지 않았지만 그 동지들은 그의 의도를 받들어 병합 당시 모두 요직에 있으면서 치안에 힘쓴 공적이 적지 않았다. 그 훈공에 따라 후작이 수여되었고, 1921년 중추원 고문에, 1926년에는 이완용 후작의 뒤를 이어 중추원 부의장에 피선되었으며, 다시 1932년 귀족원 의원으로 칙선됨과 동시에 금일에까지 이르렀다. 그간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받아 조선귀족회장에 천거되어 60여 귀족을 잘 지도, 통솔하여 신망이 두터웠다. 특히 1919년 독립소요사건(이른바 만세사변)에 처해서는 대국을 바로 살펴 의연하게 군중이 향하는 바를 오도하지 않고 귀족을 이끌면서 중용을 지켰다. 기타 병합 이래 조선 내 각종 공사 사업의 시설에 관여하여 그 이름을 올리지 않은 데가 없으며, 조선통치에 공헌한 것이 감히 조선인 생존자 중 제일인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손녀는 이우(李鍝)공 전하의 비가 되었다.

또한 1892년 사변, 모반사건, 만세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92년 조선변란(제3 정한론 사건)

하나부사(花房) 공사가 인천 개항장의 거류지를 선정하는 등 일한수교가 더욱 깊어져가는 것을 본 대원군과 그 일파는 높은 베개를 베고 편히 잘 수 없다고 생각하여 완고한 무리들이 대원군을 옹립하고 '쿠데타'를 실행하여 수백의 관리를 참살하였다. 폭도들이 일본공사관을 습격하여 하나부사(花房) 공사는 한때 죽음을 무릅쓰고 왕궁에 이르러 왕실과 사생을 함께 하고자 하였으나 길이 막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침내 인천으로 달려가 일개 어선을 빌려타고 항해하여 남쪽으로 가던 중 영국군함에 구조되어 나가사키(長崎)에 도착하여 이 변란을 정부에 보고하였다. 이에 조야에서 분연히 제3 정한론이 일어났다.

이 소식 텐진(天津)에 전해지자 이중당(李中堂), (鴻章)은 일한 간의 파멸을 두려워하여 정여창(丁汝昌)으로 하여금 북양함대를 이끌고 조선으로 향하게 하고, 마건충(馬建忠) 등에게 병력을 주어 경성에 진입하게 하여 일한평화의 대책을 세우게 하는 한편으로 대원군을 청국병영으로 오게 하여 갑자기 텐진으로 호송하게 하였다. 이에 조선의 정론 역시 일변하여 일한 양국 전권대사는 인천에서 회의를 열어 한국은 일본의 요구인 6개 조항에 응하여 그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박영효는 수신사로서 일본에 파견되었으며, 그 이후 제국의 사정에 정통하여 친일주의로 일관하였다.

불궤(不軌)사건[2)]

박영효, 김옥균 등의 주창 아래 독립당이라는 일파를 조직되고, 당시의 그릇된 정치를 우려하여 박영효 등과 함께 국왕에게 권면하여 하루 빨리 영단을 내려 국운을 만회하여 독립의 기초를 닦을 책략을 상주하였으나 국왕이 주저하여 결단을 내리지 못하였다. 이해 12월 4일 조선우정국을 새로이 낙성하는 개국식이 거행될 때 김옥균, 박영효 등은 이 기회를 틈타 각 대신을 습격하여 참살하고자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서광범 등이 이에 왕에게 입시하여 별궁으로 이어시키고, 병사를 매복시키고 대신 등을 소집하여 이들을 참살하였다. 그리고 김옥균 등은 왕명으로 일본 공사에게 부탁하여 병사를 이끌고 대궐을 호위케 하고 내치, 외정을 혁신하고자 신정부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청국정부에서 파견하여 주둔하고 있던 원세개(袁世凱) 등이 병사를 이끌고 궁궐에 당도하였으며, 한국병사들 역시 가세하여 일본군과 교전을 벌였다. 이때 국왕은 경우궁 후원으로 피신하였으나 청병이 쏜 탄환이 자주 그쪽으로 떨어졌으므로 김옥균은 사태가 급박함을 알고 국왕으로 하여금 궁 밖으로 탈출하게 하였으며,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등은 앞 다투어 일본으로 달아났다. 일본공사관 역시 한국군의 공격을 받아 다케조에(竹添) 공사는 국기를 내리고 호위병을 이끌고 경성을 떠났다. 이를 불궤사건이라 칭한다.

1919년 사변(만세소요 사건)

1919년 3월 1일 '윌슨'의 민족자결에 자극을 받은 천도교주 손병희를 위시하여 예수교, 불교, 기타를 망라한 33명은 솔선해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거나 혹은 조선총독에게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재미 조선인은 연서하여 '윌슨'에게 독립청원을 하는 등 그 맹동은 여러 수단과 방법에 따라 나타나, 독립을 부르짖는 표현으로 만세를 외치거나 각도에 선전 격문을 날리고 각도에서 동일한 형식으로 일제히 소요를 발발시켰다. 이 운동은 조선의 내외에 왕성해져 조선인 대부분에게 이 사상이 주입되어 조선인의 최후 목표는 독립에 있다는 방언이 유포되기에 이르렀으나, 박영효는 크게 이를 우려하여 솔선하여 귀족들 사이와 기타 민심의 안정에 노력하였다.

2) 1884년 갑신정변을 뜻함.

위훈작 박사	후작		씨명	박영효	
부현족적			구씨명		
원적	전라남도 나주군 반남현		생년월일	1861년 6월 12일	
년	월일	경력			관아 기타
1872	4	철종장황제 장녀 영혜옹주와 혼인. 금릉위 정1품에 봉해져 보국숭록대부에 오름.			
1878	2	오위도총부 도총관에 임명, 동년 사면.			
1879		혜민서 제조에 임명.			
1882	8	특명전권대사로 임명되어 일본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와 함께 청의 주의를 받음. 특명전권대신 겸 수신사가 되어 부사 김윤식과 일본 동경에 가서 속약 겸 변전을 교환 비준하고 우의를 체결하였음. 12월 한성촌 판윤으로 임명되어 좌윤 박정양, 우윤 조병직과 함께 치도, 경순, 박문 3국을 신설하여 치도, 경찰, 학교 등의 사무를 시행함.			
1882		3국을 신설한 일로 인해 원로대신의 반대를 받아 체임되고 3국의 일 역시 정지됨. 그해 4월 광주부 유수 겸 수어관사로 임명되어 일본식으로 병대를 조련함. 12월에 사임.			
1884	2	장차 미국유람을 가고자 미대사와 상의하였다. 일본외무경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가 이 소식을 듣고 아사야마(淺山顯藏)를 보내 말하기를 “바야흐로 이제 동양에 일이 있을 터인데 나라를 떠남은 불가하니 미국행을 그만두길 청합니다.”하니 이내 그만두었다. 홍영식, 김옥균, 서광범, 서재필 등과 정부개혁과 배청독립을 공모하고 일본공사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郎)과 원조를 협의하여 10월 거사했으나 3일만에 실패하고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1885	2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갔다가 그해 겨울 일본으로 돌아왔다.			
1894		이세식 감금혐의로 동경가야교감옥에 3개월간 수감되었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방면. 청일전쟁이 일어남과 동시에 일본외무성의 권고로 귀국. 8월 죄명을 없이하였으며 11월 작위를 복구하고 내부대신에 임명.			
1895	2	외부대신 김윤식, 탁지부대신 어윤중, 법부대신 서광범과 정사 개혁을 공모하였다. 대군주가 러시아공사로 하여금 일본대리공사 스기무라 후카시(杉村濬)에게 말해 사직을 권고하였다. 5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일본공사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가 동경에서 이 소식을 듣고 스기무라(杉村) 대리공사에게 전보를 보내 사직서를 내지 않도록 권했으나 듣지 않았다. 체포하라는 명이 내려져 다시 일본으로 망명하였으며 7월 미국 수도로 옮겨갔다.			
1899		일본으로 돌아왔다.			
1903		본국사건으로 일본외무성은 일본 홋까이도(北海道)로 갈 것을 권유하였다.			
1904		고베(神戶)로 돌아옴.			
1907	6	귀국하니 아직 체포명령이 철회되지 않았는데 환수직첩의 소직이 내려져 7월 궁내부대신에 임명되었다. 같은 달 황태자 대리청정예식에			

		불참하여 법부의 주청에 의해 경무청에 수감되고 궁내부 특진관으로 전임되었다. 8월 평리원 판결로 석방되었다가 그달 다시 경시청에 체포되어 6일 보안조례에 따라 제주도에 1년 유배되었다.	
1910	9	서울로 돌아와 10월 후작을 수여함.	
1911	12.7	정4위	궁내성
1912	8.1	메이지45년 칙령 제56호에 따라 한국병합기념장을 수여함.	상훈국
1912	9.14	귀족회 회장 피선	
1915	11.10	다이쇼4년 칙령 제154호에 따라 대례기념장을 수여함.	
1918	5.25	조선귀족회 회장 만기 사임	
1918	11.20	종3위	궁내성
1921	4.27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추대.	내각
1921	4.27	수당 연액 3,000원 하사	조선총독부
1924	2.11	서훈1등 서보장 수여	상훈국
1924	4.26	임기만료	
1924	4.27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추대	
1924	4.27	수당 연액 3,000원 하사	
1925	7.20	조선사편수회 고문 추대	
1925	12.28	정3위	궁내성
1926	3.12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에 추대.	내각
1926	3.12	수당 연액 3,500원 하사	조선총독부
1926	4.30	고 대훈위 이왕 장의위원에 추대	내각
1926	5.10	고 대훈위 이왕 장의부위원장에 추대	내각
1926	6.14	고 대훈위 이왕 장의부위원장 피면	내각
1928	2.10	조선귀족세습재산심의회 회원에 임명	조선총독부
1928	7.7	왕공족심의회 심의관 추대	
1928	11.10	대례기념장 수여	상훈국
1929	3.11	임기만료	
1929	3.12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추대	내각
1929	3.12	수당 연액 3,500원 하사	조선총독부
1932	3.11	임기만료	
1932	3.12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추대	내각
1932	3.12	수당 연액 3,500원 하사	조선총독부
1932	12.23	귀족원령 제1조 4호에 따라 귀족원 의원에 임명	내각
1934	1.15	종2위	궁내성
1934	4.29	금배 1개를 하사(1931년에서 1934년 사변의 공)	
1935	3.11	임기만료	
1935	3.12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추대	내각

1935	3,12	수당 연액 3,500원 하사	조선총독부
1938	3.11	임기만료	
1938	3.12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추대	내각
1938	3.12	수당 연액 3,500원 하사	조선총독부

후작 박영효 사적 개요

박영효는 반남(潘南) 박씨 출신으로 공조판서 박원양의 아들로서 1861년 6월 12일생이다. 자라서 조선 제25대 철종의 장녀 영혜옹주와 혼인하여 정1품 금릉위에 봉해졌다. 바로 왕족으로 예우를 받았다.

당시 조선은 국가적 말기에 이르러, 안으로는 외척 민씨와 조씨의 전횡으로 국정이 문란하고, 밖으로는 종주국인 청국의 강력한 압박을 받아 독립왕국다운 실권이 없었다. 박영효는 일찍이 국사가 날로 잘못되어 감을 개탄하여 왕실의 부마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정무에 간여하였다. 당시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일찍이 일본이 메이지유신을 단행하여 국운을 진흥시켰다는데 교훈을 얻어 일대혁신을 기도하였다. 박영효는 친형 박영교 등과 함께 김옥균과 결의하고 그 주동자 중 한명이 되었다. 때마침 1882년 8월 조선사변 후 전권대사로서 일본에 도착하자 김옥균과 함께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를 방문하고 가르침을 청하였다.

그의 지도를 받아 개혁의 시행에 착수하였다. 즉, 박영효 형제 등이 기도한 바는 일본국 정부와 공고히 제휴하여 청의 종주권을 폐기하고, 청의 세력을 등에 업은 외척을 정부에서 일소하고, 일본국 정부의 지도 아래 일대 혁신을 단행하여 신정부를 건설하고, 동양에 영원한 평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대이상을 실현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그 당은 독립당 혹은 개화당이라 불려졌다. 그때 국내에서는 국왕이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외척은 종주국의 원조를 받아 독립당에 압박을 가하였던 바, 국내의 유력자로서 독립당에 가담하는 자가 극히 드물어 박영효, 김옥균은 자금조달과 동지획득에 매우 곤란을 느끼며 자금과 동지 양쪽 모두 심각하게 부족함을 면치 못했다. 1894년 가을에 이르러 독립당의 지위는 더욱 위태로워졌다. 이에 박영효 형제, 김옥균 등은 당시 귀임한 다케조에(竹添) 변리공사와 모의하여 일본군 병력에 의지해 혁신을 단행하고자 하였으나 공사와 박영효 등이 잘못 계산하여 일패도지, 일본으로 망명하기에 이르렀다. 박영효는 성명을 야마자키 에이하루(山崎永春)로 바꾸고, 처음에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의 보호를 받았으며, 이듬해인 1885년 미국으로 건너갔으나 어쩔 수 없이 다시 일본으로 귀환하였다.

이러한 변란 중에 형 박영교는 청병에 의해 척살되고, 부친 박원양은 사사(賜死)하여 일가가 이산하는 비참한 경지에 빠졌다.

박영효는 김옥균의 맹우이나 그 성격이 상반되어 이때쯤부터 결별하여 마침내 죽을 때까지 재회하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 독립당의 일본 망명자들 다수가 박영효를 영수로 받들고, 김옥균을 따르는 자들이 극히 드문 것을 보면 그의 신망이 두터웠음을 알 수 있다. 박영효는 이들을 수용하고 또한 신조선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도쿄(東京)에 친린의숙(親隣義塾)을 창립하였다. 그러나 당시 박영효는 궁박함이 심해서 근근이 책을 팔아 생계를 이어나갈 정도였으므로 만사가 여의치 않아 이 역시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간 이태왕은 박영효가 왕실의 친척임을 고려하여 뜻을 고쳐먹고 귀국한다면 구작(舊爵)을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박영효는 의연히 이를 거절하여 따르지 않았다. 1894년 3월 외척 민씨는 자객 이일식 등을 시켜 박영효를 모살하려고 하였다. 박영효는 이를 인지하고 이일식을 앞서 체포하여 친린의숙에 가두어 두었던 바 불법감금의 죄목으로 기소되어 도쿄지방재판소 공판에 회부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다.

1894년 말 조선국 내정대개혁에 즈음하여 박영효는 귀국하여 죄를 사면받고 구작을 회복하여 내각총리대신 김홍집 아래에서 내부대신으로 임명되었다.

내부대신 재임기간은 길지 않았으나 그간 흡사 일본의 메이지유신처럼 조선건국 이래 공전의 대변혁을 단행하였는데 현재 조선의 제도, 풍속 등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적지 않다. 그 2, 3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제도 개혁

조선 8도를 바꿔서 26관찰부로 하고, 다시 13도로 변경함.(현행 제도)

목, 부, 군, 현에 대해 큰 폭의 개폐를 실시하여 모두 군으로 호칭함.(현행제도)

2. 풍속 개혁

단발을 엄명하고 조선복장을 간소화 함.(현행 풍속임).

3. 일본 유학생 파견

출신지를 불문하고 능력있는 청년을 발탁하여 전후 2백수십명의 유학생을 일본에 파견함. 이들은 박영효의 실각 후 귀국해 일본문화의 충실한 전달자가 되어 훗날 한국병합, 총독정치에 다대한 공적을 남김. 이병무, 조성근, 박영철, 어담 등이 모두 이때의 유학생 출신임.

박 내부대신의 개혁이 너무나 과격하여 민심을 격동시켜 내란이 빈발하고, 왕비 민씨가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1895년 체포명령이 떨어지자 그는 재차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19047년 일한보호조약 성립 후 죄를 사면받고 귀국하여 구작을 회복하고, 궁내부대신에 임명되었다. 당시는 궁내부대신이 왕명으로 일체의 내정을 총리하였고, 내각총리대신은 유명무실한 자리였다. 때마침 1907년 이태왕의 헤이그밀사 파견사건이 일어나 황제 퇴위문제가 발생하자 박영효는 이태왕의 뜻에 따라 관작을 삭탈당하고 제주로 유배되었다.

1910년 8월 한국병합이 이루어지자 과거의 훈적을 살려 후작을 내리고 공채 15만 원을 하사하였다.

박영효 후작의 1924년 서(瑞)1등을 수여한 이후 공적은 다음과 같다.

1. 1911년 조선귀족회 설립에 즈음하여 초대 회장에 추대된 후 중간에 잠시 사임하고 이완용이 취임하였으나, 1926년 다시 회장에 취임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간 회장직에 재임한 것이 20년, 출사한 이래 친일로 일관하며 수차례 사지를 벗어나면서 굴하지 않고 그 태도를 분명히 함으로써 일본정신의 훈화에 주력을 기울여 다수 귀족을 이끌고 일반 민중의 사상적인 유도에 다대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주지의 사

실이다. 1919년 소요사건에서 후작의 태도를 보더라도 그의 불변의 일단을 알고도 남음이 있으며, 이번 사변에서는 귀족회장으로서 동족을 규합하여 충성, 봉사의 거사에 나서 제1회 국방헌금 1만 원을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쳐 황군위문헌금을 하는 등 조선민중을 움직이는데 항상 지도의 선구에 섰으니 오늘날 조선인의 시국관을 만주사변 당시의 실정과 비교했을 때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2. 중추원 부의장으로서 1926년 이래 14년의 오랜 기간에 걸쳐 통치 제반의 시설에 관한 총독의 자문에 대해 조선의 관습을 참작하고 언제나 높은 견지와 넓은 관점에서 열심히 연구조사를 진행하여 제반 시설로 하여금 시대에 적응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총독정치를 익찬한 바가 매우 크다.

3. 조선식산은행 창립을 알선하여 이사로서, 그 후 물러나서는 고문으로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간 후작의 기탄없는 의견은 능히 아리가(有賀) 두취가 받아들였다. 이 은행의 지도적 금융이 오늘날 조선에서 식산흥업의 융창을 초래하게 된 데에는 후작의 노력 또한 묻혀져서는 안된다.

4. 1930년 조선농회 부회장에 추대되었고, 계속해서 1934년부터 1938년까지 농회 회장으로 중직을 맡았으며, 본인 스스로도 농원을 경영하며 농정 연구에 노력하여 조선인구의 약 8할을 점하는 조선 농업계에 힘을 발휘해 그 개량과 발달을 꾀하고, 제국의 식량정책과 농가경제에 미친 공적이 적지 않다.

5. 기타 조선미술심사위원회 위원, 조선사편수회 고문, 조선귀족세습재산심의회 위원, 조선귀족에 관한 심사위원회 위원, 임시교육심의위원회 위원, 왕공족심의회 심의관, 금융제도조사회 위원, 재단법인 창복회 이사, 조선간이생명보험사업자문위원회 위원 등의 직에 취임하여 공사 양면의 제반 시설에 걸쳐 직간접으로 공헌한 바가 심대하다.

6. 덧붙여서 후작은 출신가문이 높고 구한국에서는 왕족의 대우를 받아 24세에 대신급의 요직에 들었으나, 항상 동양의 대세를 달관하는 선견지명이 있어 마침내 친일개신운동에 투신하여 한국의 요로와는 서로 맞지 않아 제국으로 망명한 것이 2회, 20여년에 이르렀는데, 만약 후작이 평범하게 시종 한국의 요로에 머물렀다면 후작의 가문과 성망으로 보건대 수많은 지위를 역임하고 오늘날 이상의 우대를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즉, 후작의 후배 내지 아랫사람으로 대훈위에 서위된 이완용 후작, 욱일동화대수장을 받은 이윤용 남작, 민병석 자작, 이지용 백작, 조중응 자작, 이하영 자작, 송병준 백작, 민영기 남작이 있고, 기타 욱일대수장을 받은 다수를 비추어보아도 분명한 바이며, 그 공적과 출신으로 보아도 역시 그러하며, 이상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아도 차제에 욱일대수장을 수여하여 후작이 조선통치에 기여한 불멸의 공적을 표징하는 것이 일반 조선인의 민심에 끼치는 영향이 심대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1910년 한일합방이 성립되자 조선총독부 중추원 관제를 제정하여 조선총독의 자문기관으로 의장(정무총감으로 충당), 부의장, 고문, 참의, 서기관장(겸임), 서기관, 통역관, 속, 통역생을 두었다. 참의는 정원 65명(칙임대우 및 주임대우)으로 확대하여 전조선의 인재를 모으는 것을 취지로 일부는 총독부에서 직접 선발하고, 일부는 각도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다시 선발하여 내각에서 임명하였다. 그리고 회기 이외에도 시정상 중요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해 1933년 7월에는 시정연구회(부회라 칭함)를 설치하고 참의로 위원을 삼고, 내용을 경제, 산업, 학예, 사회, 제도의 5부로 나누어 총독부로부터 자문을 받은 사항 또는 중추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상시 연구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시정의 참고자료로 삼았다. 덧붙여 연구조사를 시행한 각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경제부

1. 시대의 변천이 개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2. 계의 득실과 개선 방책
3. 재래시장의 개선 발달책

산업부

1. 적지 적종의 부업 선정
2. 농산어촌에서 적당한 부업 여하

학예부

1. 동양도덕의 진수를 천명하여 일반교화의 근간으로 할 방책

사회부

1. 무당 단속 규칙 제정의 가부
2.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사람에 대한 보호 사업의 확충 방책
3. 각 역의 명찰, 기타 철도 게시류의 한글 폐지 가부
4. 선로 통행 출입 및 기타 장애사고 방지책

제도부

1. 의례준칙 제정에 관한 사항

중추원회의 자문 사항

제1회 회의 (1919년 9월)

1. 묘지 화장장 취체규칙 개정의 건

제2회 회의 (1921년 5월)

1. 성년, 처의 능력, 금치산, 준금치산에 관한 규정 설치 및 친권자, 후견인, 보좌인, 친족회 등의 제도를 설치하고자 함.

제3회 회의 (1921년 12월)

1. 남자는 만 17세, 여자는 만 15세에 이르지 아니하면 혼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설치할 것.
2. 부부는 협의로써 이혼할 수 있으며, 또 민법 제813조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한쪽으로부터 이혼의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소에 의해 이혼할 수 있다는 규정 설치할 것.

제4회 회의 (1923년 7월)

법무국장으로부터 조선인의 능력, 친족, 상속에 관한 민사령 개정(제2회의 자문안)의 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제5회 회의 (1924년 9월)

1. 상속자 중 남자가 없고 여자만 있을 때는 그 여자에게 다른 성의 남자를 양자로 취할 수 있고,

그 경우 양가의 성을 칭하게 하는 제도를 제정하는 것의 여부
2. 가정에 칭호를 부치는 것을 정하는 것의 여부
3. 지방 문묘에서 상당한 격식을 갖춘 사성을 설치할 것을 정하는 것의 가부
4. 시정 개선에 관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회 회의 (1926년 1월)

자문사항 없이 각 참의가 지방상황과 함께 의견을 개진함.

제7회 회의 (1927년 8월)

1. 국유임야의 모경(冒耕 : 임자의 허락없이 남의 땅에 농사를 지음), 화전 정리와 화전민 구제에 관한 방책
2. 지방 개선에 관한 의견 여하

제8회 회의 (1928년 1월)

자문사항 없이 각 참의가 지방상황과 함께 의견을 개진함.

제9회 회의 (1929년 5월)

1. 산업진흥에 관해 장래 총독부에서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최근 지방민정에 특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 및 이에 대한 의견

제10회 회의 (1930년 9월)

1. 지방상황에 비추어 농산어촌 진흥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의례준칙 제정에 관한 사항

제11회 회의 (1931년 9월)

1. 현재 상황에 비추어 민중의 생활안전을 위한 시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소작관행의 개선과 소작입법에 관한 사항

제12회 회의 (1932년 3월)

자문사항 없이 각 참의는 지방상황과 함께 의견을 개진함

제13회 회의 (1932년 9월)

1. 지방상황에 비추어 사상선도 및 민력함양상 특별히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회 회의 (1933년 7월)

1. 지방상황에 비추어 농산어촌 진흥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의례준칙 제정에 관한 사항

제15회 회의 (1934년 4월)

1. 농가갱생계획 실정에 비추어 장래 본 계획의 관철을 기하기 위한 방책 여하
2. 도시에서 민심 작흥을 도모하기 위한 방책 여하

제16회 회의 (1935년 4월)

1. 조선 실정에 비추어 급속한 고유신앙의 부활과 현존 제종교의 진흥 선도에 관한 사항
2. 각지 민중의 경향과 선도에 관한 방책 여하

제17회 회의 (1936년 10월)

자문받은 안건이 없었으나 각 참의는 직접 지방 실정 및 기탄없는 의견을 진술함.

제18회 회의 (1937년 6월)

1. 사회교화시설 중 조선의 현상에 비추어 특별히 강조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이것을 일반 민중에게 철저하게 하는데 유효적절한 방책 여하.
2. 동본동성 상혼 금지의 제도는 이전과 다름없이 이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제19회 회의 (1938년 9월)

1. 시국의 중대성에 비추어 농산어촌진흥운동의 확충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최적의 방책 여하.
2. 내선일체정신을 일반국민의 일상생활에 실천 구현하기 위한 방책 여하.
3. 정년퇴직(隱居) 제도 설치의 필요성.

제20회 회의 (1939년 3월)

1. 지방 실정에 비추어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사항 및 그 대책 여하.
2. 유언 방책에 관한 특별 규정 설치 필요성.

○ 중추원 고문, 중추원 부의장(1926년 취임)으로서 중추원회의에 관여한 것이 19회, 부회를 개최한 것이 63회에 이름.

구관습 및 제도 조사

구관습 및 제도조사는 이를 관습, 제도, 풍속으로 구분하여 관습조사는 병합 이전부터 현재까지 조선 내에서 행해졌거나 또는 현재 행해지고 있는 관행으로 관습법이라고 인정되는 것, 제도조사는 병합전의 구제도, 풍속조사는 옛날부터 조선에서 행해졌거나 또는 현재 행해지고 있는 풍습으로 앞의 양자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조사할 것을 목적으로 모두 소정의 계획에 따라 진행 중에 있으며, 1930년도에 「소작에 관한 조사서」, 1933년도에 「민사관습회답휘집, 사환미제도」, 1934년도에 「경국대전, 조선의 성명씨족에 관한 연구조사」, 1935년도에 「이조법전고, 대전속록, 대전후속록, 경국대전주해, 속대전, 대명률직해」, 1936년도에 「이조의 재산상속법, 만기요람재용편, 조선풍속자료집설 제1집」, 1937년도에 「만기요람군정편, 사독집성, 조선인명사서, 세종실록지리지, 동 색인, 신증여지승람색인」 등의 조사서 및 자료를 편찬 출판하였다.

〈출전 : 「故從二位勳一等侯爵朴泳孝勳章加授ノ件」, 『敍勳』(內國人 9), 1939년,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찾 아 보 기

【ㄱ】
가네마루(金丸眞一) 245
감수포장(紺綬褒章) 341
강릉경방단 375
강릉합동양조주식회사 374
강열희(姜悅熙) 63, 66, 83
강영우(康永祐) 17, 32, 34, 50
강원도양곡주식회사 375
강원도자동차협회 374
강원식산주식회사 374
강원항만건축주식회사 374
강윤무 24
강익보(姜翼甫) 62, 66, 82
강익순 244, 315
강종우(康鍾祐) 59, 64, 75
강태만(姜泰萬) 217, 218, 219
강필성(姜弼成) 32, 34, 45
강홍대(康洪大) 17, 32, 34, 50
강희원(康希元) 15, 54, 55, 56
경동(京東)철도주식회사 341, 342
경성방직주식회사 338, 339, 340, 341, 342
경춘(京春)철도주식회사 341, 342
계광순(桂珖淳) 220
고긍명(高亘明) 115
고성공립농업실수학교 364
고성금융조합 363
고영철(高永喆) 95, 97, 102
고운봉(高雲峯) 15, 54, 55, 56
고원식(高源植) 95, 97, 103
고정순(高正淳) 21, 22, 221
고청룡(高靑龍) 59, 64, 80
관동운수주식회사 374
구국애민철갑군(救國愛民鐵甲軍) 245
구자경(具滋璟) 116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26, 340, 355
국민총력강원도연맹 375
국민총력고성군연맹 364
국민총력운동연락위원회 342
국민총력조선연맹 342, 372, 375
국산자동차주식회사 341, 342
국채웅(鞠埰雄) 26, 325, 326, 327, 328
권승록(權承錄) 63, 67, 91
권영탁(權寧鐸) 92
권중현(權重顯) 13, 94, 97, 98
권중환(權重煥) 121
권직상(權直相) 95, 97, 102
금융제도조사회 388
김경윤(金景允) 62, 66, 83
김경중(金暻中) 342
김관현(金寬鉉) 15, 32, 33
김교헌(金敎獻) 95, 97, 102
김규년(金圭年) 124
김규명(金圭明) 95, 97, 103
김기원(金基元) 14, 32, 33, 38
김기준(金基俊) 59, 65, 77
김기태(金琪邰) 329, 330, 331
김기홍(金基鴻, 金川基鴻) 332, 333
김낙선(金樂先) 334

김남일(金南一) 61, 65, 78
김내선(金乃善) 108, 112
김달영(金達永) 60, 65, 80
김덕기(金悳基) 225
김동산(金東山) 303
김동순 23
김동훈(金東勳) 128
김두학(金斗學) 62, 66, 82
김만현(金萬鉉) 60, 65, 73
김만희(金萬凞) 60, 65, 77
김명숙(金明叔) 15, 108, 111
김몽필(金夢弼) 61, 65, 80
김병규(金炳奎) 61, 65, 80
김병련(金秉連) 229, 230
김병엽(金丙燁) 15, 54, 55, 57
김병태(金秉泰) 128
김복룡(金福龍) 61, 66, 82
김상섭(金相燮) 23, 231, 232
김성범(金成範) 297
김성진(金聲振) 17, 108
김송섭(金宋燮) 62, 66
김순석(金淳碩) 95, 97, 104
김순신(金舜臣) 96, 98, 106
김시욱(金時昱) 233
김연수(金季洙) 26, 338, 339, 342, 343
김영걸(金永杰) 17, 95, 97, 102
김영길 22
김영묵(金永默) 132
김영배(金永培) 134
김영헌 14
김옥균 383, 384, 386
김용제(金容濟) 95, 97, 104
김우선(金羽銑) 235
김우용(金雨龍) 136
김우현(金禹鉉) 298
김유직(金裕稷) 95, 97, 101
김윤걸(金允杰) 303
김윤구(金倫求) 17, 32, 34, 50
김윤복(金允福) 108, 109
김윤식 384
김윤희 17
김응룡(金應龍) 95, 97, 101
김응선(金應善) 14, 32, 33, 35, 37
김인욱(金仁旭) 22, 247, 310, 311
김재열(金在烈, 金星宗明) 236
김재호(金在浩) 62, 66, 82
김정곤(金貞坤) 96, 98, 105
김정원(金正元) 15, 54, 55
김종구(金鍾球, 金川治德) 237, 238, 239
김종섭(金宗燮) 82
김종중(金鍾重) 59, 64, 73
김종필(金鍾弼) 344, 345, 346, 347
김중엽(金重燁) 96, 98, 106
김진영 23
김진옥(金眞玉) 32, 34, 44
김진탁(金晋卓, 八田晋) 240
김진태(金振泰) 59, 64, 79
김찬욱(金燦旭) 241
김찬희(金贊凞) 242
김창복(金昌福) 94, 96, 98, 106
김창선(金昌善) 139
김창순(金昌淳) 63, 66, 83
김창원(金昌源) 60, 65, 80
김철홍(金哲弘) 21, 22, 245
김치(金熾) 65, 61, 78
김태원(金泰元) 63, 67, 85
김택호(金澤鎬) 61, 66, 82
김학구(金學九) 96, 98, 106
김해룡(金海龍) 61, 66, 82
김홍남(金鴻南) 15, 32, 33

김홍육(金弘六) 21, 22, 248
김홍집 387
김활석(金活石) 244, 303, 319

【ㄴ】
나까가키(中垣勇雄) 245
남궁염 21, 22, 23
남기창(南基昌) 14, 32, 33, 35, 39
남만(南滿)방직주식회사 338, 339, 341, 343
남진학(南鎭學) 62, 66, 82
노백린(盧佰麟) 16, 63, 67, 85
노주봉(盧周鳳) 249

【ㄷ】
대동(大東)직물주식회사 341, 342
대례기념장 385
대창(大昌)산업주식회사 341, 342
동광생사(東光生絲)주식회사 341
동아(東亞)무역주식회사 341, 342
동양상사주식회사 374
동양석유조합 374
동양흥업주식회사 374

【ㅁ】
마건충(馬建忠) 383
명제태(明濟泰) 60, 65, 77
민기호(閔岐鎬) 32, 34, 49, 50
민병석(閔丙奭) 353, 355

【ㅂ】
박근수(朴根壽) 250
박근우(朴根祐) 315
박기호(朴淇昊) 95, 97, 100
박기효(朴基孝) 347, 348, 349, 350
박동원(朴東元) 63, 67, 90
박두영(朴斗榮) 14, 32, 33, 36
박명석(朴命石) 251
박명진(朴明鎭) 253
박봉루(朴鳳樓) 62, 66, 82
박승룡(朴承龍) 62, 66, 82
박승봉(朴昇鋒) 62, 66, 82
박승조(朴承祖) 94, 97, 99
박연창(朴淵昌) 62, 66, 82
박영교 386
박영선(朴永善) 60, 65, 80
박영철(朴榮喆) 14, 31, 33, 35, 387
박영효(朴泳孝) 26, 355, 381, 382, 383, 384, 386
박용섭(朴墉燮) 139
박용칠(朴容七) 298
박원양 386
박을수(朴乙守) 254
박응표 23
박재홍(朴在弘) 141
박정양 384
박제륜(朴濟輪) 142
박주백(朴周伯) 61, 66, 82
박중양(朴重陽) 32, 34, 52, 53
박증필(朴曾弼) 62, 66, 83
박창준(朴昌俊) 298
박철(朴澈) 146
박치목 24
박혁준(朴奕俊) 59, 64, 70
박호근(朴浩根) 148
방용갑(方容甲) 61, 66, 82
백락삼(白樂三) 32, 34, 51
백무요(白無曜) 15, 54, 55, 56
백운기(白雲記) 60, 65, 80
백인덕 23
봉광업주식회사 341, 342
분수령전투 15

불궤(不軌)사건 383

【ㅅ】
삼성(三盛)면업주식회사 342
삼양(三養)상사주식회사 341
서광범 383, 384
서북철도국 357
서상대(徐相大) 59, 64, 69
서선(西鮮)중앙철도주식회사 341, 342
서재필 383, 384
석삼봉(昔三鳳) 15, 54, 55, 56
선만(鮮滿)척식주식회사 341
선우박 23
손영목(孫永穆) 152
손진원(孫震元) 15, 32, 34, 46
손해주(孫海珠) 297
송문헌(宋文憲) 153
송병철(宋丙喆) 61, 66, 82
송찬도(宋燦道) 155
송희주(宋希胄) 256
쇼와(昭和)기린맥주주식회사 342
쇼와(昭和)수산합자회사 374
수암전투 14
신기선(申箕善) 13, 69, 94, 97, 98
신대균(申大均) 95, 97, 101
신우균(申羽均) 63, 67, 86
신태균(申泰均) 297
신형모(申珩模) 95, 97, 100
심기일(沈基一) 61, 66, 82

【ㅇ】
안경복(安景福) 96, 98, 106
안기초(安基礎) 60, 65, 80
안덕원(安德源) 60, 65, 80
안치경(安致敬) 62, 66, 82
압록강전투 14
애국금차회(愛國金叉會) 27
야마자키 에이하루(山崎永春) 386
양익현(梁益賢) 23, 257
양자령전투 15
어담(魚潭) 16, 63, 66, 84, 387
어윤중 384
엄창섭(嚴昌燮) 158
엄하영(嚴夏永) 59, 65, 75
염중모(廉仲模) 95, 97, 104
염창순(廉昌淳) 61, 65, 80
오동주 24
오병욱(吳炳旭) 243, 258
오세윤(吳世尹) 260
오종표(吳鍾表) 160
왕공족심의회 385, 388
욱일대수장(旭日大綬章) 381
원광학(元光學) 62, 66, 82
원세개(袁世凱) 383
원의상(元宜常) 161
원진희(元晋喜) 163
유강렬(劉康烈) 63, 67, 85
유기성(柳冀聖) 16, 63, 67, 91
유동열(柳東說) 14, 32, 33, 36
유맹(劉猛) 59, 64, 74
유문경(劉文卿) 59, 64, 79
유진후(俞鎭厚) 261
유창일(柳昌一) 60, 65, 79
유철영(柳哲永) 63, 67, 86
유필근(柳苾根) 94, 96, 98, 106
유학주(俞鶴柱) 17, 95, 97, 104
유희길(俞喜吉) 32, 34, 46
윤갑병(尹甲炳) 58, 59, 64, 79
윤덕영(尹德榮) 26, 351, 352, 356
윤봉준(尹奉駿) 297

윤상익(尹相益) 62, 66, 82
윤상익(尹相翊) 60, 65, 80
윤시병(尹始炳) 17, 95, 97, 104
윤정대(尹鼎大) 95, 97, 103
윤치성(尹致晟) 15, 32, 33
윤태중(尹泰中) 95, 97, 105
윤택영(尹澤榮) 353
이갑(李甲) 14, 32, 33, 39
이갑용(李甲用, 大田一夫) 361, 362, 363, 364
이경화(李景和) 262
이계삼(李啓三) 63, 66, 83
이관호(李官浩) 21, 263
이교영(李喬永) 95, 97, 101
이근상(李謹相) 95, 97, 105
이근양(李根陽) 62, 66, 82
이근풍(李根豊) 13, 59, 64, 68
이기방(李基枋) 168
이기헌(李基憲) 61, 66, 82
이도헌(李道憲) 61, 66, 82
이명흠(李明欽) 267
이문삼(李文三) 60, 65, 80
이문표(李文豹) 60, 65, 80
이문화(李文化) 61, 65, 80
이민호(李敏浩) 269
이민후(李敏厚) 61, 65, 80
이범승(李範承) 63, 67, 91
이범익(李範益) 32, 34, 48
이벽송(李碧松) 270
이병구(李秉九) 17, 95, 97, 103
이병무 387
이병문(李炳文) 62, 66, 83
이병식(李秉植) 272
이봉녀(李鳳汝) 96, 98, 106
이봉율(李奉律) 60, 65
이봉종(李鳳鍾) 95, 97, 103
이봉행(李奉倖) 80
이석(李錫) 298
이석기(李碩基) 59, 65, 76
이성근(李聖根) 171
이순재(李舜在) 61, 65, 79
이순창(李順昌) 15, 53, 54, 55
이식영(李寔永) 61, 65, 81
이영수(李榮洙) 21, 22, 274
이영식(李永植) 71, 71, 95, 97, 100
이완용 387
이우영(李宇榮) 59, 64, 74
이원보(李源甫) 175
이원창(李源昌) 177
이윤화(李允化) 63, 66, 83
이인식(李人植) 34, 48, 50
이인직(李人植) 15, 32
이종완(李鍾完) 95, 97, 99
이종형(李鍾瀅) 17, 95, 97, 102
이종환(李鍾煥) 59, 64, 73
이중수(李仲秀) 275
이중철(李重轍) 95, 97, 104
이중하(李重夏) 13, 94, 97, 99
이창근(李昌根) 179
이창준(李昌俊) 244
이창진(李昌珍) 320
이태순(李泰淳, 山木泰淳) 277
이태정(李台珽) 59, 64, 75
이해성(李海盛) 59, 64, 73
이행민(李行敏) 59, 64, 79
이희두(李熙斗) 16, 63, 66, 83
이희순(李熙淳) 188
임병식(林炳湜) 278
임상웅(林常雄) 278
임학래(林學來) 278

【ㅈ】
장고봉(張鼓峯)사건 374
장기원(張琪遠) 16, 63, 67, 88
장수길(張壽吉) 191
장인근(張寅根) 15, 32, 33
장태진(張泰鎭) 63, 67, 89
전영헌(全永憲) 32, 33, 40
정봉한(鄭鳳漢) 280
정여창(丁汝昌) 383
정연기(鄭然基) 194
정운성(鄭雲成) 195
정재범(鄭載範) 282, 283
정재춘(鄭在椿) 285, 286
정찬선(鄭燦先) 197
정충원(鄭忠源, 烏川忠源) 288
정치국(丁致國) 107, 108
조경하(趙鏡夏) 199
조길하(趙吉夏) 95, 97, 101
조두섭(趙斗燮) 201
조병교(趙秉敎) 67, 68, 95, 97, 99
조병직 384
조상옥(趙尙鈺, 高山尙鈺) 365, 366, 367
조선간이생명보험사업자문위원회 388
조선거래소 341, 342
조선공업협회 341, 342
조선귀족세습재산심의회 385, 388
조선귀족회 387
조선근농주식회사 341, 342
조선기린맥주주식회사 341
조선농지개발영단 342
조선미술심사위원회 388
조선방직공업조합 338, 339, 341
조선비적단 244
조선사편수회 388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340, 342
조선석유주식회사 341, 342
조선신탁주식회사 340, 342
조선유도연합회 374
조선저축은행 340, 342
조선제진(製鎭)주식회사 341, 342
조선중앙무진주식회사 374
조선중앙자금위원회 339, 341
조선직물협회 339, 341, 342
조성근(趙性根) 63, 66, 84, 387
조승복 21, 22
조연진(趙然軫) 289
조종춘(趙鍾春, 白川元藏) 290, 291
조종훈(趙鐘勛) 23, 292
주경송 23
주시헌(朱時憲) 202
중앙상공주식회사 339, 340, 341, 342
중앙양조주식회사 374

【ㅊ】
차병혁(車秉赫) 62, 66, 83
천상하(千象河) 96, 98, 106
청수원(淸水源) 241
최기구(崔氣龜) 303
최기남(崔基南) 60, 65, 80
최기륜(崔基崙) 62, 66, 82
최기주 23
최기청(崔基淸) 60, 65, 79
최두천(崔斗天) 23, 293
최만달(崔晩達) 203
최상돈(崔相敦) 17, 32, 34, 50
최상익(崔相益) 96, 98, 106
최상현(崔相鉉) 368, 369, 370
최석조(崔錫肇) 59, 64, 70
최석하(崔錫夏) 15, 32, 34, 41, 42
최석현(崔錫鉉, 山本祥寶) 296, 297

최연(崔燕) 298
최영(崔鈴) 298
최영락(崔永洛) 62, 66, 82
최용규(崔容奎) 320
최운섭(崔雲涉) 61, 65, 80
최원중(崔元仲) 62, 66, 82
최인범(崔仁範) 299
최일환(崔日煥) 300, 318
최재호(崔載浩) 59, 64, 74
최종악(崔鍾岳) 95, 97, 103
최종윤 244, 319
최준집(崔準集, 丸山隆準) 372, 373, 375
최창학(崔昌學, 松山昌學) 375, 376, 377
최창홍(崔昌弘) 206
최탁(崔卓, 三和卓) 304, 305
최태원(崔泰源) 61, 65, 81
최항묵(崔恒默) 207
최형직(崔炯稷) 211
최화선(崔化善) 244

【ㅍ】
팽한주(彭翰周) 32, 34, 51

【ㅎ】
한강수력전기주식회사 341, 342
한경원(韓景源) 61, 65, 80
한경호(韓景昊) 60, 65, 80
한교서(韓敎序) 95, 98, 105
한국병합기념장 385
한국정(韓國正) 60, 65, 80
한규석(韓圭錫) 61, 65, 82
한남규(韓南奎) 60, 65, 80, 82
한성(漢城)은행 341, 342
한성오(韓成五) 96, 98, 106
한용락(韓龍樂) 15, 54, 55, 56
한정규(韓貞奎) 60, 65, 80
한정석(韓定錫) 214
한종건(韓鍾建) 306
한태훈(韓泰勳) 60, 65, 80
허섭(許燮) 215
허준(許俊) 21, 22, 307
허환(許鍰) 60, 65, 78
호국신사봉찬회 374
홍긍섭(洪肯燮) 95, 97, 104
홍석현(洪奭鉉) 96, 98, 106
홍순봉(洪淳鳳) 23, 313
홍순욱(洪淳旭) 16, 95, 97, 100
홍순찬(洪淳瓚) 17, 32, 34, 50
홍영식 384
홍우(洪宇) 303
홍태윤(洪泰潤) 59, 64, 72
화신(和信)상사주식회사 341, 342
황금룡(黃金龍) 314
황봉익(黃鳳翼) 62, 66, 83
황학수(黃學秀) 16, 63, 67, 89
황한오(黃漢伍) 62, 66, 82
후미후시(文藤裕祐) 297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 386